

## 제 6 장

# 이민교회의 부흥, 첫 희년과 60주년의 축복

1995. 06-2014. 06

Revival, First Jubilee and the 60<sup>th</sup> Anniversary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희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

지난 60년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며,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

물질만능주의로 만연된 사회악과 싸우며,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보전케 하십니다.  
이 믿음 위에 다져진 예수의 사랑을 옷 입고,  
영원한 본향을 향한 순례자로서,  
다음 희년을 여는 일에 열심히 살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 보스톤한인교회 창립 60주년에 읽는 첫 희년 신앙고백서 중에서

## 간추린 시대 개관 1995. 06-2014. 06

### 부흥, 첫 희년, 그리고 60주년

1995년 이영길 목사의 시무는 보스톤한인교회에 새로운 활력을 주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현재까지 발전과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영길 목사의 복음적인 이야기식 설교와 목회철학은 교인들에게 새로운 영성을 불어넣어 주었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순례의 길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었다. 한인사회의 발전과 함께 많은 젊은 교인들이 교회를 찾아왔고, 어린이, 중고등부, 청년 대학생들이 늘어나면서 더욱 활기를 띠게 되어, 2000년대 중반에는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 거의 3배에 가까운 외형적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다.

1997년부터는 1, 2부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같은 해 9월에 보스톤한인교회가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로부터 예배당 건물을 인수받아 헌당예배를 드리는 축복이 있었다. 2000년을 기점으로 해외선교를 시작, 페루, 니카라과 등지에 매년 단기 선교단을 파송했고 연변 희망촌을 지원하였다. 이어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까지, 최근에는 프랑스까지 선교에 나섰다. 지역 선교를 위해 2002년부터는 이웃 초청 한국문화축제를 개최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이웃초청 Oasis Café 등 문화사역과 북미원주민 사역도 시작하였다.

2003년에는 첫 희년을 맞이해서 미주 한인 이민교회로서는 처음으로 자체적인 희년신앙고백서를 만들었고, 2004년에는 이민교회로서의 제2의 희년을 바라보는 4대 비전을 선언하였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3세대가 함께 배우며, 이웃과 함께 한민족의 문화와 역사를 나누고,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며, 사랑으로 정의를 이 땅에 세워가는 교회를 추구하고 있다.

교회 성장에 따라 2010년에는 오랫동안의 기도와 모금으로 Education and Community Center(ECC)를 건립하여 봉헌하였으며, 새로운 공간과 시설은 3세대가 함께 배우며 더욱 성장할 수 있게 해 주었고 교회가 새로운 사명을 안고 지역사회로 사역을 넓혀 갈 수 있게 하였다. 세계 제2차대전 후 미국 내에 두 번째로 세워진 한인이민교회로서 2013년에는 60주년을 맞는 축복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뉴잉글랜드의 어머니교회로서, 현재 미국장로교 보스톤 노회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가진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뜻을 향해 계속 순례의 길을 가고 있다.

교회 전체가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한 성경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다. Sunflower 유년초등주일학교, Ransom 중고등부, 청년1부와 청년2부, 부부청년부 모두가 발전을 거듭하면서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 주일 성인 성경공부반이 발전하여 성인 소그룹 성경공부반으로 재편되어 평신도 사역자들을 길러내며 말씀을 우선으로 하는 교회 모습을 이루어가고 있다. 새신자들을 위한 세례교육반을 통하여 많은 세례교인이 태어났고, 새교우 환영반을 거쳐 많은 교인들이 정식 활동교인이 되었다. 수요여성성경공부반은 거의 20년 동안 꾸준히 모이고 있고, 교인들의 기본 조직체인 구역 성경공부반도 그 수가 늘어나며 확장되었다. 여선교회도 발전하여 현재 마리아 여선교회와 에스더 여선교회로 재편되어 사역을 확장하고 있고, 미국장로교 여선교회 전국모임에도 열심히 참여하며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

집사회는 집사의 수가 200명 이상으로 늘어났고, 여러 부서를 통해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에 적극 참여 봉사하고 있다. 상록기도회와 권사회는 1세대의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있고, 남선교회도 발족되어 집사회, 여선교회와 더불어 동역하고 있다. 어린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3세대가 함께 배우며 드리는 쉼의 밤은 전교인을 신앙 안에서 하나의 가족으로 만들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미국장로교 총회의 중점 사역의 하나인 정의 평화 환경에 대한 사역에도 열심히 참여하여 한인교회로서는 처음으로 Earth Care Congregation이 되었고, 이민교회로서의 새로운 도전과 사명을 담당하고 있다.

6장에서는 1995년부터 2014년까지의 보스톤한인교회의 전반적인 부흥의 모습, 첫 희년과 60주년의 축복을 기술하고, 7장에서는 지역사회와 세계를 향한 선교 사역, 8장에서는 성전 봉헌과 Education and Community Center 건축, 9장에서는 제2의 희년을 향한 보스톤한인교회의 첫 희년 신앙고백서와 비전 선언을 기술한다.



## A Brief Chronicle 1995. 06–2014. 06

### Revival, First Jubilee and the 60th Anniversary

In June, 1995, Rev. Young Ghil Lee was called and installed as the 15th Pastor of the KCB. His ministry brought new vitality and energy to the life of the KCB, and, by the Grace of God, has produced KCB's sustained growth and church development. His evangelical, storytelling sermons and pastoral approaches infused new spirituality to the congregation, and helped them start again on the road to the pilgrimage of making beautiful Christian stories together. As the Korean community grew in the Boston area, many young Korean Christians joined the KCB, including childre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college students. Within 10 years of Pastor Lee's ministry, the KCB grew to almost three times in size.

From 1997, the KCB began to offer two worship services(1st and 2nd service) on Sundays. As a result of this exploding growth of the KCB,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in Brookline transferred, under the auspices of the Presbytery of Boston, the ownership and stewardship of the church building and its facilities to the KCB in September 1997. The KCB rededicated the church building in a special worship service to God for His blessings. The year 2000 was a pivotal point in the life of the KCB in the overseas mission programs. The annual, short-term overseas mission trips to Peru and Nicaragua started, as well as the support for the "Hope Town" in Yanbian, China. In addition to Peru and Nicaragua, the KCB's overseas mission programs expanded later to include Colombia and Dominican Republic, and, lately, France in 2014. As part of the domestic mission programs, since 2002 the KCB has held annual "the Korean Cultural Festival" for its neighbors in Brookline. The community outreach programs have expanded to include the "Oasis Café," a monthly cultural program for the neighbors. Recently a new domestic mission project has launched to reach out to Native North Americans in the southwest.

To help celebrate and earmark the 1st Jubilee in 2003, the KCB produced and adopted the "First Jubilee Confession of Faith," the first of its kind among the Korean immigrant

churches in America. In 2004, the KCB adopted and proclaimed the "Four Vision Statement" looking towards the 2nd Jubilee as a Korean immigrant church. The KCB's new vision statement describes the KCB that promotes the 3 generations of its children and adults to learn together, a church that spreads the Gospel to the world, a church that shares the Korean culture and history with its neighbors, and a church that builds and practices God's love and righteousness on earth.

As the KCB grew in size, there was a dire need to have more space for its various mission programs and activities. In 2010, after a long period of prayers, fundraising activities and preparations, the "Education and Community Center(ECC)" was built and dedicated. The new ECC provided the much-needed space and facilities for the three generations of the KCB congregation to learn and grow together, and helped the KCB realize and increase its new responsibilities for and missions to the neighboring communities.

The KCB, as the 2nd Korean immigrant church founded in the United States after the World War II, had the blessing of celebrating its 60th anniversary worship service in November, 2013. As the "Mother Church" among the many Korean churches in New England and as the 2nd largest member church in the Presbytery of Boston, the KCB is continuing its pilgrimage to follow the way of the Lord, as revealed by God.

The KCB's beautiful worship services are often augmented by multimedia presentations, and the various Bible studies are actively participated. The Sunflower children's group, the Ransom Youth group, Young Adults groups I and II, and the Young Couples' group are all growing and contributing together to realize the KCB's great vision. The large Sunday Adults Bible study group has been rearranged into several smaller study groups that produced lay leaders teaching the Bible. Thus, the priority of the KCB's ministry is clearly on the Word. The New Believers' Bible Study class produced many who became baptized, active members of the KCB, following the welcoming fellowship gatherings. The Wednesday Women's Bible Study group has been meeting steadily over the last 20 years. The number of the regional Bible study groups (GuYuck), KCB's basic congregational organization units, increased and expanded. The Women's group also grew and developed into two separate groups: Maria Women's Mission group and Esther Women's Mission



group. They expanded the areas of their mission activities, and the Maria Women's group, in particular, is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Presbyterian Women in the PC(USA), exercising national leadership in it.

The Deacons committee has grown into a body of over 200 deacons, and actively leads the various mission programs and church activities. The seniors' Evergreen Prayers group and the Kwonsas group, as the 1st generation groups within the KCB, are showing the ways of exemplary faith to the younger generations. The Men's mission group has been created, and is actively engaged in various mission programs in partnership with the Women's mission groups and the Deacons committee. The bi-monthly Shema Night meeting brings the KCB's children, their parents and the grandparents together in the ECC Children's Chapel for an evening of worship, prayers, learning and sharing. The Shema Night meetings have become a living catalyst for binding everyone into one big family of faith, adding new vitality to the life of the KCB. Besides participating in the various justice and peace programs, KCB has actively involved in the PC(USA)'s Environmental Ministry, and has become the first Korean church to be certified as an "Earth Care Congregation," a new challenge for the immigrant churches in America.

In Chapter 6, the KCB's history during 1995 - 2014 has been covered, showing the general revival and growth of the church, as well as the blessings of the 1st Jubilee and the 60th anniversary. In Chapter 7, the history of the KCB's domestic and overseas mission works is described. In Chapter 8, the dedication of the KCB's church building and its facilities and the history of the construction of a new Education and Community Center are summarized. Finally, in Chapter 9, the KCB's "First Jubilee Confession of Faith" and the KCB's "Vision Statement Looking Towards the 2nd Jubilee" are presented.

## ■ 국제정세, 한국 및 보스톤 사회의 변화

1997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금융위기는 아시아, 유럽, 중남미 등으로 확산되어, 선진국들은 금리를 인하하여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려 했으나 계속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엘니노와 라니냐 현상 등의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지구촌을 휩쓸며, 극심한 가뭄이나 화재, 홍수 등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였다. 1999년에는 유럽연합의 11개국이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역사적인 유로 체제가 출발하여 새로운 경제 블록이 탄생하였다.

한편 한국에서는 1993년부터 문민정부로 불리운 김영삼 정부가 군사정부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화 운동, 사회, 금융실명제, 경제개혁 작업을 시행하였으며, 1996년에는 12.12와 5.18 등의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 1997년에는 IMF 외환 위기, 사실상의 국가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위해 거국적인 금 모으기 운동이 일어났다. 1998년에는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여 신 자유주의 기조의 금융, 기업, 노동, 공공 4대 분야에 일대 개혁작업을 추진했고, 대북관계에 있어서는 햇볕정책의 노선으로 관계개선을 추진하였다.

미국에서는 2001년 9월 11일 알 카이다에 의해 자행되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잔혹한 국제 테러가 발생하여 2,000명 이상이 사망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은 아프카니스탄을 공격했고, 2003년에는 이라크도 공격하였으나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테러는 자행되고 있으며 많은 인명 피해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2007년에는 미국 모기지 업체들의 부실한 경영으로 세계 금융 시장이 다시 한번 흔들렸고, 2009년에는 미국 최초로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취임하였으며, 세계 경제는 G8에서 G20으로 전환되면서, 한국도 G20에 포함되어 주요 경제국가가 되었다. 2011년 튀니지에서 시작한 '아랍의 봄'은 아랍 세계에 새로운 혁명을 불리오면서 중동지역의 안전이 더욱 위협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슬람 정치세력의 변화를 가져왔다. 2012년 이후에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과 중남미에서 계속되는 경제 불황, 국가적 부채 문제는 세계 경제를 계속 악화시키고 있고, 최근에는 아시아 각국에서의 해역 영토 분쟁이 평화를 위협하는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국에서는 2007년에 한미 FTA를 극적으로 타결시켰고, 2008년에는 미국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백만 명이 넘는 국민의 촛불시위가 있었다. 2009년에는 한국 최초의 우주를 향한 '나로호'가 발사되었고, 2011년에는 북한의 최고 실력자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명되었다. 한국의 경제적 부강과 함께 문화 면에서도 K-Pop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진출하여 한류 열풍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갔고, 연간 무역량이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세계 9번째 경제중심국가로 도약하였다. 2012년에 여성으로서는 대한민국 사상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1995년 이후 현재까지의 보스톤 한인사회의 모습도 상당한 발전과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보스톤한인회(전 뉴잉글랜드한인회)는 1977년부터 오랫동안 추진해 왔던 한인회관 건립사업이 열매를 맺어 2010년 현재 보스톤한인회가 사무실과 한인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스톤한인회에서는 2013년에는 1,000명 회원 가입 운동을 추진하여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명실공히 이 지역의 한인들을 대표하고 있다.

1990년 이후로 한인 사회에 여러 사회 단체들이 설립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뉴잉글랜드 한인부녀회, 공군보라매회, 해병전우회, 이중 문화 가정목회 전국연합회, 태권도협회, 한인골프협회, 각종 향우회

및 이북 5도민 연합회, 6.25 참전용사회, 각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창회, 보스턴 한미노인회 등이다. 이 단체들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봉사 활동을 통한 사회 참여에 주력하고, 한인 사회의 단결과 협력을 증대시키며 나아가 한국 이민자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갖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특히 보스턴 한미노인회에서는 보스턴 한미노인대학을 설립하여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한인들이 운영하는 small business는 1970년대 이후 가족 초청 이민이 늘어나는 것과 더불어 크게 늘어났고, 업종으로는 세탁업, 식당, 식품점, 어류상, 태권도장, 미장원, 이발소, 자동차 정비업, 교육 학원 그리고 여행사 등이 있다. 또한 1990년을 기점으로 2세들이 의료 및 법률 분야에 대거 진출하면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그리고 변호사 등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2003년 통계에 의하면 약 100여 명의 한인들이 뉴잉글랜드에 소재한 대학교에서 교수로 활약하고 있다.

2003년 부시 대통령은 '한국의 날'을 선포하면서 한국 민족은 타민족에 비해 교육열이 높아 미국 경제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최근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 교육을 자주 모범사례로 제시하였다.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는 30여 개의 한국학교가 한글, 한국의 역사, 전통문화, 태권도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세들을 가르치고 있다.

미 연방 정부 자료를 중심으로 매사추세츠 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보면, 2000년에 약 18,000명으로 총 인구의 0.21%, 아시아계 중 약 8% 정도 차지하고 있으나 비공식적으로 집계된 자료에 의하면 실제 거주인은 2014년 현재 약 35,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담임목사 이영길

### ■ 이영길 목사의 시무와 위임예배 1995

채워 목사의 은퇴예배를 1994년 5월에 은혜스럽게 드리고, 보스톤한인교회는 곧 새 교역자를 모시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당회는 새 목회자 청빙 과정이 끝날 때까지 파트타임 임시목회자로 그 동안 본 교회에서 영어예배부 사역을 맡아 왔던 김종일 목사를 선출하여 6월부터 시무하는 것으로 보스톤 노회에 보고하였다.

공천위원회(위원장 김문소 장로)는 5월에 보스톤노회 목회위원회(COM, Committee on Ministry)와 보스톤한인교회 당회 연석회의에서 담임목사청빙위원회(Pastor Nominating Committee, PNC)에 대한 일반 지침을 상의하고, 우선 본 교회 공천위원회에 PNC 구성을 의뢰하기로 하였다. 청빙위원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일반 교우 대표수가 제직 수보다 1명 이상 많아야 하고, 청빙위원장은 PNC가 구성이 되면 자체 모임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 후 공천위원회는 두 번의 모임을 통하여, 청빙위원은 가능하면 직분, 연령, 남녀, 구역, 성가대, 대학청년부, 영어예배부 등 각 기관을 대표하는 13명(시무장로 4명, 집사, 권사, 일반교인, 휴무장로 등 9명)을 선출하기로 하였다. 6월 임시공동의회에서 13명의 위원(김갑성, 김형범, 김성빈, 변화경, 최연일 장로와, 백은숙 권사, 손선배, 이경희, 김경애, 이점례, 강상철 집사 및 김원중, 김석원)이 인준되었는데, 8월초 보스톤노회의 일반 교인수가 제직의 수보다 1명 이상 많아야 한다는 유권 해석에 따라 김갑성, 김형범, 손선배, 이경희 시무 제직 4명이 사퇴를 하고 9명의 공천위원으로 축소 조정하게 되었다. 청빙위원회는 자체 내에서 위원장으로 김성빈, 부위원장으로 최연일, 서기에 김석원을 선출했고 위원으로 강상철, 김경애, 김원중, 백은숙, 변화경, 이점례가 담임목사 청빙 과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노회 청빙 과정에 따라, Church Information Form(CIF)이 작성되었고, 보스톤노회와 동북대회, 그리고 총회에 목회자 청빙을 알렸고, 각 기관의 한인교회들과 협조관계에 있는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했고 여러 미주 한인신문에 광고도 하였다. 지원서의 마감날짜인 1994년 11월 30일까지 모두 29명의 목사들이 지원서를 보내왔다. 청빙위원들은 두 달 반 동안 거의 매주일마다 모여, 지원목사들의 서류, 설교집, 설교테이프 등 많은 보충 자료들을 같이 보면서 서류심사를 하였다.

청빙위원회는 1995년 2월 최종 후보로 당시 필라델피아교회의 부목사였던 이영길 목사를 선정했고, 보스톤노회의 COM과 면담 과정을 거친 후 같은 해 3월 26일 특별공동의회에서 많은 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인준하였다. 3월 26일 주일 이영길 담임목사 후보자는 주일예배에서 '야곱의 춤'(창 32:22~32)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거의 일 년이란 긴 세월을 담임목사 없이 지내오면서, 끊임없는 기도 가운데 믿음과 교회를 지켜온 모든 교인들에게 더없이 기쁘고 축복된 순간이었다.



이영길 목사 위임예배 후

그 동안 일 년여 임시목사로 수고하던 김종일 목사가 5월초 송별예배를 드리고 떠난 후, 5월 말에는 이영길 목사와 가족이 보스톤에 도착하였다. 첫 공식적인 목회 활동으로 이영길 목사는 6월 4일부터 주일 예배(내가 서있는 곳은: 출 2:21~3:10)를 인도하였고, 이어서 당회장으로 6월 정기당회를 주재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의 목회철학과 기본사역 및 운영방침을 발표했고, 당회원들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당회는 위임예배를 위하여 보스톤노회와 보스톤한인교회의 이름으로 뉴잉글랜드 지역 교회와 주민들과 외부 인사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하였고, 1995년 6월 18일 이영길 목사의 위임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초대받은 각계 인사들과 교인들의 환영 속에서 드린 예배는 보스톤한인교회의 큰 축복이었다. 이날 김서년 목사는 설교(크리스천의 능력: 빌 4:8~13)를 통해 이영길 신임 담임목사의 위임을 축하하며 당부의 말씀을 전하였다.



위임예배 설교를 하는 이영길 목사

### ■ 의사의 길에서 목사 소명을 받은 이영길 목사 이야기

보스톤한인교회 15대 담임목사로 위임받은 이영길 목사는 보스톤한인교회 창립보다 8개월 빠른 1953년 3월에 6남 2녀의 막내가 되는 남아 쌍둥이의 동생으로 한국전쟁이 휴전되는 무렵 피난 시절 부산에서 출생하였다. 이영길 목사의 보스톤한인교회에서의 첫 설교는 '야곱의 춤'이었으며, 후에 그의 설교집 처음 세 권의 제목을 모두 야곱과 연관시키고 있어 - '야곱의 춤', '야곱의 웃음' 그리고 '야곱의 기다림' - 야곱에 대해 특별한 애착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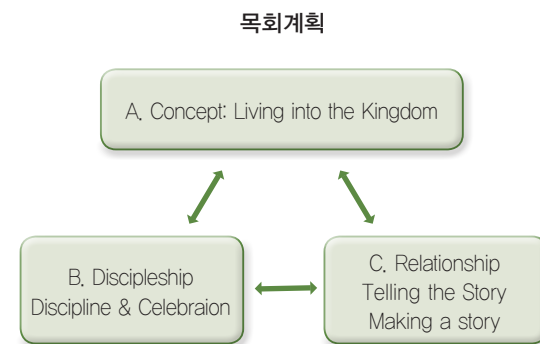
부친 이창로 장로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와 함께 대광고등학교를 설립했고, 이영길 목사는 부친이 교장으로 재임하던 대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였다. 이영길 목사는 모태

신앙인으로 의대 본과 3학년 때 크게 은혜를 받는 체험을 하였다. 졸업 후 군의관으로 입대했고, 군복무 기간 동안 민간인과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를 섬기며 새벽기도, 성경 읽기, 금식 등을 통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 3년 군복무를 마치고 이성혜 사모와 결혼한 후, 도미하여 어려운 미국 의사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병원에 지원할 마음이 서지 않아 주저하는 가운데 고심하고 기도하면서 4년의 광야 생활을 체험하게 되었다. 확실한 장래 결정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던 중, 5년 만에 하나님께서 신학을 시작하라는 믿음의 확신을 주셨다. 의사의 길을 앞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으로 주위의 실망은 컸지만 그 동안 쌓아온 의사의 길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느끼막이 문을 열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목회자의 소명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M. Div.)와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Th. M.)하고 필라델피아 연합교회에서 부목사로 9년 동안 섬기다가 1995년 보스턴한인교회의 부름을 받았다.

이영길 목사의 이야기식 설교는 지금도 보스턴한인교회에 새로 출석하는 교인들을 위한 새교우반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 줌으로써 시작한다. 미국에서 의사의 길을 접고 끝내 목회의 길을 택하기까지 인내와 기도로서 내조한 이성혜 사모에 대한 고마움도 늘 같이 표시하곤 한다.

■ 이영길 목사 시무 초기의 목회 방향

이영길 목사는 시무 초기 1996년 연례보고서에서 그의 목회 계획과 목회 철학을 제시하였다. 목회 철학의 기본목표는 함께 하나님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discipleship)가 필요하며, 목회자와 교인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가 필요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제자도는 훈련과 축제가 조화되고, 아름다운 관계는 복음의 이야기가 서로 나누어지고 또 함께 복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2가지 기본 사역으로는 충실한 설교와 음악과 함께 예술성을 가진 예배, 그리고 문화를 창조하는 소그룹 활동을 강조하였다. 일반 사역으로서는 전도, 사회봉사에 중점을 두어, 평신도 지도자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계획, 헌신, 협조를 기반으로 운영하되, 특수사역, 곧 상담, 새신자 심방, 환자 심방 등은 목회자가 평신도 지도자들과의 협조를 얻어 사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길 목사는 우선 주일예배 한 시간으로는 부족함을 느껴 수요예배와 새벽기도를 시도했으나 원거리에서 거주하는 교인들이 많아서, 우선 수요여성성경공부를 시작하였고, 소그룹 모임을 만들어 예배 3:공동체 7의 비중으로 목회중점을 두어 구역모임을 강조하였다. 피난민이 되지 않고 순례자가 되기 위해 이영길 목사는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목회방법보다 이민자의 context에 맞는 방법을 찾고 정립하려고 하였다. 그의 목회 계획과 철학은 첫 회년을 맞는 2003년까지 계속되었고 회년 다음해에 발표된 보스턴한인교회 비전선언문에 새로 정립된 ‘이민목회’의 방향으로 나타나 있다.

■ 이민목회의 방향 제시: 3세대, 쉘마, YPK & B40

보스턴한인교회 50주년 회년 때에는 미주한인교회로서는 처음으로 “회년신앙고백서”를 채택하였고, 다음해인 2004년에는 제2의 회년을 향한 “비전선언문”을 채택하였다. “회년신앙고백서”와 “비전선언문”은 보스턴한인교회의 정체성과 이영길 목사의 이민신학 내지 그의 목회방향을 잘 나타내고 있다. 보스턴한인교회는 제2의 회년을 향한 비전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 3세대가 함께 배우는 교회
- 세계를 향한 교회
- 한민족의 문화를 이어가는 교회
- 사랑으로 정의를 이 땅에 세워가는 교회

이민교회 안의 세대간의 화합을 위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3세대가 같이 배우고 예배하는 교회를 지향하여, 2006년부터 이영길 목사의 인도로 3세대가 같이 모이는 쉘마<sup>1</sup>의 밤(두 달에 한 번 있는 3세대 기도회)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영길 목사는 대부분의 한국교회, 또는 이민교회가 지향하는 대형교회보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꽃을 피우는 교회에 초점을 맞추어 세계를 향한 선교, 한민족의 문화를 이어가고 사랑으로 정의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이민교회를 추구하면서 2010년 초 B40와 YPK의 두 가지 Catch Phrase를 제시하였다.

B40: Brookline 40%의 약자로서, 교회가 소재하는 브루클라인 지역 주민의 40%가 크리스천이 되도록 선교함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38%가 유대인인 지역주민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웃초청 Korean Cultural Festival, 음악회, Oasis Café 등을 통한 문화 사역을 전개한다.

YPK: 이민교회의 모델이 되는 명동교회의 윤동주(Yoon), 안디옥교회의 사도 바울 (Paul), 에베에젤교회의 마틴 루터 킹(King) 세 사람 이름의 첫 자를 따서 만든 단어로, 이러한 모델 이민교회를 따라가는 보스턴한인교회가 되기를 지향하며, 이들의 모습을 따라 2세, 3세 자녀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인물이 많이 나오도록 사역한다.

1999년 이영길 목사는 PC(USA) 위촉을 받아 성경공부 교재 “사도행전” 집필 중 사도 바울이 개척한 안디옥교회가 세계를 향한 이민교회였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행 11-13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이민교회다”라고 확신하여 “이민교회에 뼈를 묻겠다”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이 결단은 2000년 9월 이영길 목사가 연변 희만촌(이윤식 회장) 지원에 앞서 현지 방문을 하는 동안 윤동주가 다니던 명동교회에서 다시 한번 이민교회의 모습을 찾게 되었고, 그후 애틀랜타에 있는 마틴 루터 킹 목사,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3대가 목회를 했던 에베에젤 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교회 표어 “A Church for all Countries”를 보면서 또 하나의 세계를 향한 모델교회를 정립하게 되었다.

1. 쉘마 (Shema)는 신명기 6장 4절의 “이스라엘아 들으라 (Listen, O Israel)”의 히브리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다.

세계로 향한 교회 모습의 첫 걸음은 2000년 보스턴한인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단기선교팀을 페루로 파송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이영길 목사는 2000년 교회의 표어를 '세계로 향한 교회'로 정하고, 다섯 차례에 걸쳐서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복음을 들고 세계로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강조하였다.

- 문화의 장벽을 넘는 교회(행 11장 19-21절)
-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행 11장 22-26절)
- 구제하는 교회(행 11장 27-30절)
- 자신을 살피는 교회(행 13장 1-3절)
- 정상에 도전하는 교회(행 13장 1-3절)

이러한 목회방향의 제시는 2004년 보스턴한인교회 제2의 회년을 향한 “비전선언문”에 나타난 4개 비전 중의 하나인 “세계로 향한 교회”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 ■ 이영길 목사의 이민신학

이영길 목사는 웨스트민스터신학교나 프린스턴신학교에서는 이민신학의 체계적인 교육이 결여되었음을 깨닫고, 미국에서는 한국적인 목회 방법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확신 하에 스스로 그 동안의 목회 현장에서 나름대로 이민신학을 정립하고 이를 한국장로교신학대학과 뉴질랜드에서 열린 이민목회 교역자 회의에서 발표한 바 있다. 한국장로교신학대학에서 개최된 해외한인목회 선교세미나에서 “이민교회의 특징과 신학 I: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본 이민 교회”, “이민교회의 특징과 신학 II: 노래하는 이민자 이삭”이란 주제의 강의로 이민자들의 삶의 현주소에 관한 성찰과 더불어 “순례자로서의 이민자, 나그네로서의 이민자, 화목자로서의 이민자, 복의 근원으로서의 이민자”라는 부제로 그의 이민신학을 풀이하였다.

이영길 목사의 이민신학 내용을 강의 원고에서 간략히 살펴본다.

#### 제1강: 유목민의 관점에서 본 이민교회

그 동안 이민교회는 한국교회의 축소판으로만 생각하고 사역 방향을 결정해 나갔는데, 이제 목회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모두 한국 대형교회에서 하는 것과 같은 목회를 언젠가 할 수 있을까 꿈을 꾸는 데서 깨어나 이민 목회에서 나오는 고유함을 창출하여야 한다.

이민교회는 떠난 자들이 모인 교회이다. 곧 이민교회는 경이로운 교회인 것이다. 한편 떠난 자들이 모인 이민교회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된다. 떠난 자들이 새로운 땅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 안에 좁은 곳에 함께 거하게 되며, 아울러 떠난 자들은 많은 다른 배경의 사람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 제2강: 이민교회의 두 가지 특징

교회는 부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ekklesia: to call out). 모든 크리스천들은 세상에서 떠난 자들이다. 세상에서 불러내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 바로 교회를 이룬다. 그러므로 크게 생각하면 모든 크리스천들은 떠난 자들이다. 한편 이민교회의 교인들은 두 번 떠난 사

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 떠난 것은 정착민들의 교인들과 같다. 그러나 이민교회 교인들은 고향을 떠난 자들이다. 그러므로 이민교회는 정착민 교회와 큰 차이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민교회에 주어진 도전은 두 가지 아픔의 ‘좁다’와 ‘다르다’이기에 21세기의 이민교회는 ‘넓히는 교회’, ‘다양성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정착민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첫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으셨고 이민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거대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 거대한 일에 오늘도 이민교회를 부르신다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이민교회는 떠난 자들의 교회이고 또한 떠날 줄 아는 자들의 교회이기 때문이다. 곧 이민교회는 경이로운 자들의 교회이기 때문이다.

#### 제3강: ‘세물 신학’

이영길 목사는 그의 이민목회 신학을 ‘세물 신학’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세는 ‘세 사람’, ‘세 공동체’, ‘세 교회’이며, 물은 물구나무 서기- 즉 세상을 거꾸로 볼 줄 아는 지혜-를 지칭한 것이다. 세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세 사람, 즉 떠난 자들이며, 세상을 거꾸로 볼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자들이었다. 교회 공동체는 세 가지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즉 말씀 공동체, 은사 공동체, 쉼(3세대) 공동체가 그것이다.

“이민목회는 교인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교회 안에 이야기의 수가 중요하다.”

세물 신학은 교인 수를 목표로 개발된 것이 아니며, 도리어 교회 안에 이야기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목표로 개발된 것이다. 성경 어느 곳을 봐도 교인들의 수를 언급하고 있지 않고 교인들의 수를 목표로 목회한 현장도 소개되어 있지 않다. 도리어 성경은 수많은 이야기의 창고이다. 이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자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창출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각자의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 ■ 보스턴한인교회의 부흥과 성장: Milestones

1995년 이영길 목사의 시무는 보스턴한인교회에 새로운 젊은 바람과 활력을 주었다. 새로운 복음적인 이야기식 메시지는 교인들에게 새로운 영적 양식을 더해 주었고, 교인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1997년부터는 1부와 2부로 두 번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후에는 2부 예배 시 친교실에도 큰 스크린을 설치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영길 목사가 시무를 시작할 당시 나이는 40대 초반이었고, 젊은 교인들이 늘어나자 교회 전체가 젊어졌다.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 대학생들이 늘면서 교회 각 부서는 더욱더 활기를 띠었으나 예배 및 모임 장소가 모자라게 되었는데, 본 교회가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로부터 예배당 건물을 세를 주고 사용하였기에 교회 건물 사용에 많은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1997년부터는 보스턴한인교회가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로부터 예배당 건물을 인수받아 자체 건물을 가지고 관리하게 되었다.

2000년부터는 연변 희망촌 지원과 페루 단기선교, 2003년에는 니카라과에 단기선교를 시작하고 후에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프랑스까지 해외선교의 지경을 확대하였고, 문화사역을 통한 지역사회 및 타민족과의 융화를 위해서 2002년부터는 이웃 초청 한국문화축제를 개최하였고, 2011년부터는 이웃

초청 Oasis Café를 개최하게 되었다. 2010년에는 오랫동안의 기도와 모금 후에 Education and Community Center(ECC)를 건립 봉헌할 수 있었다. 이는 단순한 공간의 확장이라기보다 교회가 보다 적극적인 지역선교와 문화선교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자라나는 후세들에게는 밝고 아름다운 예배 및 교육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보스톤한인교회는 지역 사회에서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어머니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춰 가면서 지도자적인 교회상을 정립하고 한인사회를 넘어 미국교회 내에서도 영향력을 가지는 주목받는 교회로 성장하였다.

교회발전 주요 Milestones

1995	06	이영길 목사 시무
1997	04	교회 웹사이트 개설과 IT 사역 시작(홍보위원회)
	06	주일예배를 1, 2부 예배로 나누어 드림
	09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로부터 교회 건물 인수 및 헌당예배
1998	11	이영길 목사의 첫 설교집 출판(2013년까지 총 8권 출판)
1999	12	부부청년부의 독립으로 청년1, 2부와 함께 청년부 사역 체계확립
2000	02	페루 단기선교단 파송 시작(2002년까지 3차 파송)
	09	연변 희망촌 지원 시작(2013년까지 계속)
2002	05	제1회 한국문화축제 개최(2014년까지 6회 개최)
2003	08	니카라과 단기선교단 파송 시작(2013년까지 11차 파송)
	09	영어예배부는 베다니장로교회로 독립하여 미국장로교 보스톤노회 가입
	11	창립 50주년 첫 회년 기념 예배 및 행사, 첫 회년 신앙고백서 채택
2004	11	제2의 회년을 향한 비전선언문 채택
2006	05	3세대가 함께하는 '쉐마의 밤' 시작
2007	02	사순절 묵상집 발간 시작
2008	04	Education and Community Center(ECC) 건축공사 착공
2009		은사공동체 시작(하늘소리, 탁구동우회, 서예동우회, 시내산동우회)
2010	09	성인 소그룹 성경공부 시작(교육 3부위원회)
	11	창립 57주년 기념 및 ECC 봉헌예배
2011	03	콜롬비아 단기선교단 파송 시작(2013년까지 4차 파송)
	04	이웃초청 Oasis Café Music Night 시작
2012	09	PC(USA) Earth Care Congregation Certificate를 받음(2004년부터 정의 평화 환경사역 시작)

2013 07 도미니카 공화국 단기선교단 파송 시작  
11 창립 60주년 기념예배 및 행사

2014 06 프랑스 단기선교단 파송

교회 표어로 본 보스톤한인교회의 발자취

1998년부터 이영길 목사는 해마다 교회의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표어를 제시했고, 해마다 첫번째 설교를 통해 말씀으로 선포하였다. 연말에 발간되는 교회 연례보고서의 '담임목사 보고서'에서는 제시했던 표어를 중심으로 교회 사역 전체를 정리하였다.

연도	표어	설교와 연례보고서 중에서
1998-1999	순례자의 교회가 되자	오늘날 용감한 순례자는 누구인가? 저는 바로 상한 순례자, 혼자 서지 못하는 순례자, 누군가에게 업혀서 하늘을 나는 순례자가 바로 오늘의 가장 용감한 순례자라는 통찰을 갖게 되었습니다. - 이영길 목사 설교집 "아픔의 웃음" 중 예서(고전 10:1-4)
2000	세계를 향한 교회	온 세계가 2000년을 맞이하여 흥분과 불안이 사람들 마음 속에 깊이 교차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세계를 향한 교회"라는 표어를 내걸고 21세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였습니다.
2001	세계를 향한 교회	안디옥 교회에 임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함께 체험하였습니다. 곧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보낸 일 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002	이웃을 향한 교회	얼마나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통하여 한국 문화를 알고 싶어했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궁극적으로는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2003	독수리와 같은 멋진 교회	하나님께서 첫 회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에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회년을 통하여 한계를 넘어 독수리와 같은 멋진 교회로 다시 태어나자'는 것이었습니다.
2004	새로운 시작의 해	무엇을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언제나 창조와 해산의 진통이 필요한 것임을 새삼 체험한 한 해였습니다.
2005	비전 선언을 다지는 해	2005년은 우리 비전 선언문이 작성된 후 첫해이니만큼 올해는 이 비전 선언이 다져지기 바라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2006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소서	먼저 올해에 '쉐마의 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 선언이 '3세대가 함께 배우는 교회'입니다. (종략)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섬기는 추수할 일꾼들로 인함임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07	올해도 하나님의 신성한 은혜와 끈질긴 사랑	한국문화 축제, 아이리쉬 인들과 함께, 교우 여러분, 최고의 날은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날들입니다. "Are you Jesus?" "Yes, I am." Amen. - 2007년 1월 설교 중에서



연도	표어	설교와 연례보고서 중에서
2008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 2008년 1월 설교 중에서
2009	계속,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지난해 표어는 “잃은 영혼을 찾아서”였습니다. 건축에 매여서 잃은 영혼을 보지 못할까 우려가 되어서 정한 표어였습니다. 건축을 마무리 짓는 올해도 이 표어를 계속 지키려고 합니다. (중략) 우리 교회가 올해 최고의 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 2009년 1월 주일 설교 중에서
2010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가 나그네들을 축복할 때 우리의 참 축복의 세계는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 축복을 함께 누리시라.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 2010년 1월 설교 중에서
2011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빛의 사람이 됩니다. - 2011년 1월 설교 중에서
2012	감사하는 회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 2012년 1월 설교 중에서
2013	빛으로 소금으로	보스톤에서 겨울을 나려면 소금이 꼭 있어야 합니다. 소금은 하찮아 보이지만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빛보다는 소금의 맛을 더 많이 내기를 바라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진 교회임을 느끼기를 기원합니다.
2014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요 14:12). 저는 60주년을 막 지난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 2014년 1월 설교 중에서

이영길 목사의 이야기식 설교

이영길 목사는 시무 후 처음 6년을 스스로 가슴이 떨 정도로 ‘혼신을 다한 설교’를 준비했다고 회고하면서, 보스톤한인교회를 목회하는 근 20년 동안의 가장 큰 도전은 역시 ‘설교’였다고 술회하고 있다. 이영길 목사는 프린스턴신학교에서 배운 설교학의 기본구조는 설교의 주제를 단계적으로 펼쳐가는 3point 설교였지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이야기이며 예수님의 이야기식 설교에 가장 근접한 형태인 이야기식 설교를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강단에서 이야기식 설교를 선포하였다. 매주 설교의 큰 도전은 천국의 메시지에 합당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찾아 기승전결의 모습으로 엮어내는 일이고, 어떤 이야기든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지금도 이영길 목사는 많은 서적을 읽고 있으며 그의 수많은 장서가 이를 대변해 주고 있다. 이영길 목사의 설교는 우리의 심령을 향한 조용한 이야기이지 절대 목소리를 높이는 웅변조 설교가 아니다. 어느 한국의 서평자는 이영길 목사의 설교집 서평에서 “저자는 엄한 목소리로 훈계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영길 목사의 모든 설교는 하나의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설교 중간에 많은 다른 이야기들로 연결이 된다. 예화들은 이영길 목사가 존경하는 헨리 나우엔 신부의 서적을 비롯해, 한국 시, 동서양의 많은 역사가, 저술가의 이야기, 불교와 유교 경전, 그리고 천주교 신부, 수녀의 글과 그 외 감동적인 이야기까지 넓은 스펙트럼에 교사를 포함해 시공을 넘나든다.

매주 목요일 설교 준비를 하는 이영길 목사는 도서관과 서점에 자주 들르며, 자주 산책하고, 매주 지인

에게 편지를 쓴다고 그의 설교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영길 목사의 지난 19년 동안 이민목회는 ‘체험’에 근거한 이야기식 설교로 계속해 왔고, 그의 많은 이야기식 설교는 2013년까지 8권의 설교집을 내놓게 되었다.

보스톤강단 및 이영길 목사 설교 모음집

보스톤한인교회에서 외친 복음은 채워 목사 때까지 모두 4권의 보스톤강단으로 출판이 되었다. 1998년 창립 45주년에 맞춰 이영길 목사의 첫 설교집 《야곱의 춤》이 보스톤강단 제5집으로 출판되었고(신국판, full color 표지, 1,000부), 1999년에 제2판 1,000부를 추가로 발간하였다. 계속적으로 이영길 목사의 야곱을 주제로 한 설교집은 《야곱의 웃음》(2000), 그리고 《야곱의 기다림》(2002)으로 이어졌다. 보스톤한인교회 50주년을 기념하면서 《희년의 노래》를 2003년에 발간했으며, 2005년에는 다섯 번째 설교집 《빛(빛)진 나그네》를 내놓았다. 2006년에는 《어머니 교회》, 2008년에는 《르호봇의 노래》를 발간했고, 2013년 보스톤한인교회 60주년을 기념하며 《희년의 노래 2》를 여덟 번째 설교집으로 내놓았다. 모든 설교집은 한국의 쿼터출판사에서 발간하였으며, 한번에 대개 1,000부씩 발행하여 한국과 미국 서점에서 읽혀졌다.

야곱의 춤(1998)

“보스톤한인교회는 또 하나의 설교자를 배출하였다. 인간 몸의 조직과 구석구석을 꿰뚫고 병든 곳을 찾으며 치료하던 의학도가 영혼 구석구석의 필요를 찾으며 병든 곳을 치료하는 일을 맡았고, 현미경으로 깊은 곳을 보듯 영혼의 깊은 곳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이었다. 그의 설교 주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의 주인공은 순례자가 되는 길인데 순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주하던 곳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자이다. (중략) 이영길 목사님은 평안한데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사는 순례자이다.” - 뉴욕포레스트 한인장로교회 양희철 목사 추천사 중에서

제1부 야곱의 춤 / 제2부 한적한 곳으로 / 제3부 메시아의 고뇌  
제4부 온전한 성숙 / 제5부 순례자의 교회

야곱의 웃음(2000)

“보스톤강단 6집으로, 말씀에 대한 저자의 깊이 있는 통찰력을 만나 볼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한 풍부한 예화를 통해 보다 더욱 쉽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성서에서 야곱의 웃음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삶이 무엇인지 표현하며 우리의 일상의 삶을 되새겨 보게 한다.” - 쿼터출판사 저서 소개 중에서

제1부 눈물로 씨 뿌리는 자 / 제2부 잃어버린 축제 / 제3부 두 사람  
제4부 어머니의 눈물 / 제5부 기다리는 자

야곱의 기다림(2002)

“벌써 7년간 보스톤한인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7년간 바쁜 목회생활을 하였습니다. 7년 동



이영길 목사 설교 모음집

안 한 주일이 8일이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이 바쁜 목회 생활 중에서 저에겐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매주 목요일입니다. 바쁜 와중에 “나에겐 시간이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목요일은 기다림의 날이었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소유한 자가 되어 마음 놓고 기다리는 날이었습니다. 말씀, 감동, 아픔, 기쁨을 기다리는 날이었습니다. 야곱의 기다림으로 가득 찬 날이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고독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주일 아침 예배를 마친 후에는 성도님들도 모두 기다림의 시간 속에 있었음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 머리말 중에서

제1부 기다림의 신비 / 제2부 십 리를 동행하라 / 제3부 한민족과 선교  
제4부 하나님의 성전 / 제5부 현대인과 사순절

#### • 회년의 노래(2003)

“보스톤한인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늘 내일만 바라보던 우리에게 과거를 뒤돌아보게 하는 복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50주년을 회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역사는 감사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난 일을 회상할 때 보스톤한인교회 50년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내는 순간순간도 놀라운 선물이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하면서 지난 복을 헤아리고 있노라면 우리 가슴은 미래로 향한 놀라운 확신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회년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감사와 희망을 안고 회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그 동안 보스톤강단에서 선포된 말씀들을 한데 묶어 설교집 《회년의 노래》를 내놓습니다.” - 머리말 중에서

제1부 첫 회년의 메시지 / 제2부 첫회년과 수난절 / 제3부 노래하는 민족 / 제4부 작아지는 교회

#### • 빛(빛)진 나그네(2005)

“저는 20년 만에 저의 정체성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빛(빛)진 나그네’를 컬러로 쓰면 쉽게 그 의미가 밝혀집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지녔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진 자요, 아울러 나그네입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함축하는 다섯 글자가 바로 ‘빛(빛)진 나그네’입니다. 다섯 번째 설교집을 냅니다. 제목을 ‘빛(빛)진 나그네’로 정한 이유는 그 동안 걸어온 나그네 길을 감사하며 앞으로 참된 빛(빛)진 나그네가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 머리말 중에서

I. 새해에 온 편지 / II. 가정 주간에 온 편지 / III. 사순절의 편지 / IV. 회상의 편지

#### • 어머니 교회(2006)

이번 설교집에서는 어머니의 끝없는 사랑을 교회에 비유하여 신비스런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주는 교회, 현재도 변함없이 우리의 어머니가 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한 편 한 편의 설교에 담아 바른 신앙의 공동체, 풍성한 교회 생활, 세계를 향한 빛 된 교회의 사명, 구제하는 어머니 교회의 모습 등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 쿤란출판사 저서소개 중에서

I. 어머니 교회 / II. 세계를 향한 교회 / III. 보라, 네 어머니라 / IV. 돌이켜, 아이들과 같이

#### • 르호봇의 노래(2008)

“르호봇의 축복이 우리 앞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르호봇을 맞보지 않고서는 한 치 앞도 못 나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갈등의 땅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넓다’, ‘맑다’, ‘크다’의 노래를 부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삶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르호봇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가진 작은 축복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부르는 르호봇의 노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르호봇의 노래를 부르다가 힘들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도 좁아지는 십자가에서 르호봇의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 본문 중에서

제1장 르호봇의 노래 / 제2장 바울의 유머 / 제3장 울고 통곡하라 / 제4장 과거를 새롭게 하자

#### • 회년의 노래 2(2013)

“이민사회는 큰 호수의 가장자리와 같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중략) 한편 저는 이제 거의 20년 이민목회(담임)를 눈앞에 둔 지금 이 박사님의 표현을 좀더 보완하고픈 마음이 있습니다. 이민 현장은 하나의 파도만 찾아 오지 않습니다. 두 가지 파도가 늘 찾아 옵니다. (중략) 결국 이민사회는 두 개의 큰 호수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양쪽의 비바람을 다 맞으면서 곳곳이 서 있는 위대한 사회라 할까요? 십 년 전에 우리 교회는 첫 회년을 지켰습니다. 곧 50주년을 첫 회년으로 지킨 것입니다. 그 해 초 회년을 감사하면서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들을 묶어서 《회년의 노래》라는 설교집을 편찬하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회년의 노래를 계속 부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몇 년 전 발간한 《르호봇의 노래》가 회년의 노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머리말 중에서

I. 야곱의 놀이터 / II. 빛으로 소금으로 / III. 에벤에셀 / IV. 옮겨진 돌

### ■ 이영길 담임목사의 안식년 2001

이영길 목사가 시무한 지 만 6년이 지남에 따라 2001년에 2개월, 2002년에 6개월, 뉴잉글랜드 지역 한인교회에서는 최초로 담임목사가 안식년을 가지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이영길 목사는 한국도 다녀오고, 페루 선교도 다녀오고, 터키 성지순례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 기도도 하며 영적, 육적으로 안식하며 보스톤한인교회의 회년을 준비하는 생활을 할 수 있었다. 한국에 있는 장로교신학대학 교수로 안식년 기간 중에 보스턴에 거주하던 주승중 목사가 2002년에는 임시담임목사로 주일예배 설교와 행정 등 목회를 담당하였다.

### ■ 이영길 목사 NCKPC 총회장 취임 2014

이영길 목사는 2013년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National Council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es, NCKPC)에서 부총회장으로 추천, 선출되었으며, 2014년 6월 메인 주의 포틀랜드에서 열린 ‘NCKPC 제43회 정기총회 및 전국대회’에서 총회장으로 취임하였다. 당회는 이에 따른 이영길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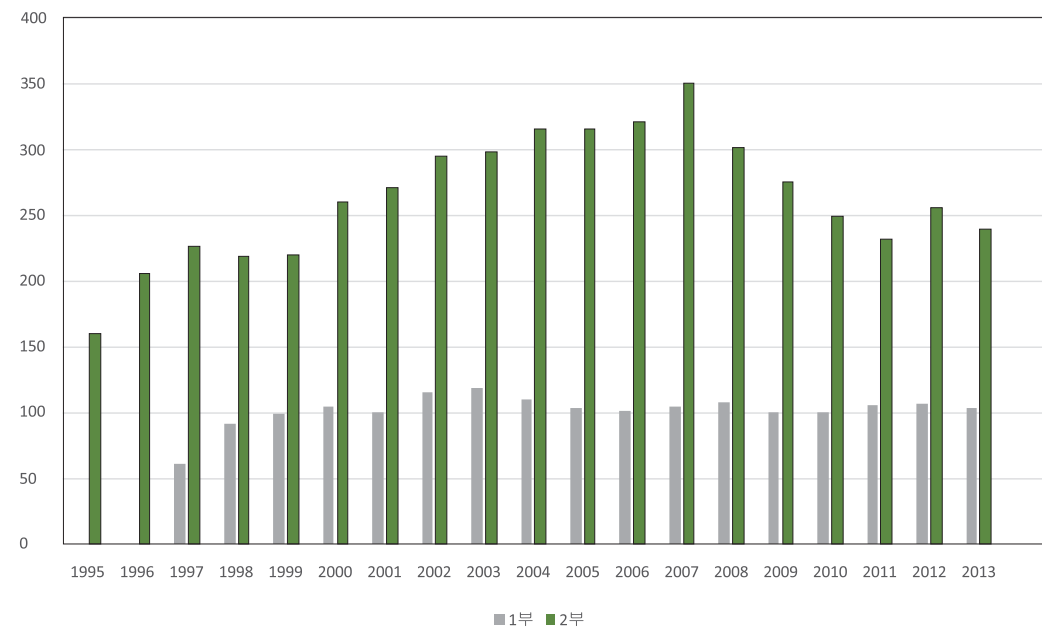
제43회 NCKPC 총회장 취임사 하는 이영길 목사

사의 대외활동을 적극 후원하기로 결의하였다.

### ■ 교회성장에 따른 사역 공간의 부족

이영길 목사가 1995년부터 시무하면서 교회는 매년 눈에 띄는 양적 성장을 거듭하면서, 장년부, 영어 예배부, 유년초등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등 모든 부서가 2배 내지 3배로 출석인원이 증가하였다.

연간 평균 주일예배 참석 현황



본당 예배 모습

1997년 6월부터는 1부 예배(아침 9시)와 2부 예배(정오 12시)로 나누어 두 번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2부 예배 때 영어 동시통역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부 찬양대가 새로이 발족되었고, 영어회중도 주일예배를 본당에서 오후 2시에 드리기 시작하였다. 1999년에는 장년 예배 참석자 평균수가 330여 명으로 2배가 되었고, 2007년에는 장년 예배 참석자가 450여 명, 유년초등주일학교가 100명, 중·고등부가 50명 선에 달해 주 평균 예배 참석자가 600명 선을 넘어섰다. 주일 예배 모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청년 1, 2부, 부부청년부 부원들은 주일 예배 참석 후 자체적인 모임을 가지며, 각 부서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금요 성경공부, 토요일기도회, 주중 인도자 모임 등으로 주일 모임 이외에도 많은 모임이 있는데 모임장소가 부족하였다. 2003년 9월 독립 교회가 된 베다니장로교회 [Bethany Presbyterian Church, PC(USA)]도 출석교인이 100여 명이 되어 같은 교회 공간을 동시에 사용하기에는 협소하여 2008년 4월에는 교회 건너편 Lawrence Middle School in Brookline으로 예배장소를 옮기게 되었다. 2008년 교육관(Education and Community Center) 착공 후 증가수는 주춤해졌고, 2012년에는 전체 주일 평균 참석자는 500여 명으로 줄어들었다.

### ■ 예배 순서 변경과 2부 예배 시작

보스톤한인교회의 예배 형식과 순서는 초창기부터 1995년 초까지 전통적인 한국교회의 예배 형태로 설교가 예배 중간에 있고 헌금, 광고 순서가 뒤에 있었다. 이영길 목사 시무 이후 헌금, 광고를 먼저 하고 이어 말씀 선포를 한 후 찬송과 함께 축도를 받고 교인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형식을 따르게 되었다. 1997년에 교회 전체 예배 참석자가 늘어나면서 오전 11시 30분 한 번의 예배로는 다 수용하기 어려웠다. 6월부터 새로이 두 번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1부 예배는 오전 8시 15분에, 2부 예배는 오전 11시 30분에 드리게 되었는데, 10월부터는 시간을 조정하여 1부 오전 9시, 2부 오후 12시로 변경되었다.

1998년 평균 예배 참석자는 1부 91명, 2부 226명이었고, 영어예배부가 95명, 중고등부 29명, 유년부가 61명으로 교회 전체로는 평균 500여 명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다. 2000년에는 평균 600여 명을 넘었고, 2부 예배 참석인원이 260명 정도 되어, 2부 예배 시에는 본당 뒤쪽과 양측 복도에 임시 좌석을 만들어야 했으며, 예배 준비 찬송을 윤성철/윤영선 전도사 부부가 인도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에는 대형 스크린과 프로젝터를 설치한 친교실에서 동시에 2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2008년부터 1부 예배는 시간을 조정하여 오전 8시 45분에 시작하였다.

보스톤한인교회는 1997년 9월에 교회 건물 소유권을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로부터 인수받았으나,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는 계속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여 2014년 현재까지도 본 교회의 1부와 2부 예배 사이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본 교회에서 영어예배부로 출발하고 독립하여 PC(USA)의 회원교회가 된 Bethany Presbyterian Church도 현재 주일 오후 2시 본 교회의 새로 지어진 ECC Chapel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Calvary Brazilian Church도 오후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한 교회 건물을 네 교회 공동체가 함께 사용하고 있다.

1980년대에 예배예술위원회가 구성되어 예배 사역을 돕기 시작하였는데, 1부와 2부 예배, 1부 찬양대와 2부 찬양대, 방송실을 중심으로 사역을 주관해 왔다. 현재에도 많은 교우와 제직들이 1부와 2부 예배를 위하여 안내, 헌금과 계수, 친교실 예배, 다과 준비, 제단 헌화 준비, 새신자 환영, 주차 안내, 영아실 담당에 봉사하고 있다. 주일 예배를 위해 매주 강단에 올리는 헌화는 원하는 교인들이 자원해서 드리며, 2006년부터 에스터 여선교회가 주관하여 맡아 하고 있다. 일 년에 네 번 성만찬 예배(부활절, 6월, 10월, 성탄절)를 드리고 있는데, 성만찬 준비는 오랫동안 권사들이 맡아 오다가 2011년부터는 여 집사들이 담당하기 시작하였고, 2014년부터는 다시 권사회가 맡게 되었다. 일 년에 두 차례 유아세례, 성인 세례 예배를 드리고 있다.

2001년부터 윤경문 전도사가 예배 주보 준비를 맡게 되었고, 2007년 행정부목사로 시무하고부터는 전체 예배 진행 준비를 예배예술위원회와 함께 총괄하고 있다. 2002년부터는 이영길 목사의 전 주일 설교 전문이 매주 국판 4페이지에 '보스톤강단'이라는 이름으로 배포되고 있다. 이영길 목사는 주일 1부 및 2부 예배의 인도와 설교를 맡아 오다가, 2003년부터 예배 인도는 장로들이 맡았고, 장로들이 담당했던 회중기도는 집사들이 맡게 되었다. 이 해부터 영어권 교우들을 위해 2부 예배 시 동시통역을 시작하였으며, 현재에도 동시통역 팀이 방송실 안에서 매주 예배 사역을 돕고 있다. 2003년 6월부터는 1부 찬양대와 함께 현악 앙상블 팀이 예배 사역을 돕고 있다.

■ 사순절 기간의 예배: 재의 수요일예배, 성 금요일예배, 부활절 주일예배

2007년부터는 ‘재의 수요일’ 저녁 예배를 사순절이 시작하는 주에 드리기로 시작하여 사순절 계율 준수 및 시편 낭송,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인이 한 사람씩 재의 안수를 앞 이마에 받은 후 결단의 고백 시간을 가진다. 주일을 제외한 40일간 계속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새벽기도회가 열리고 있으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참회와 용서, 구제와 이웃 사랑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6시에, 그리고 토요일에는 오전 8시에 가진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에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금요일 예배를 저녁에 드린다. 수난 메시지 말씀을 받고 본 교회에서 출간된 사순절 묵상집의 글들을 나누며, 찬양대의 성 금요일 특별 찬양으로 예배를 드린다. 부활절 아침에는 기쁜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삶과 피를 나누는 시간으로 성찬식을 가진다.

■ 예배를 위한 멀티미디어 사역

우리가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 본당은 1960년 화재 후에 재건축된 건물이다.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 설계도를 보면 당시 미국의 전형적인 교회처럼 예배를 위해 대형 오르간에 중점을 두고 디자인이 되어 있어, 예배 방송시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현재 쓰고 있는 본당 앞쪽 조그마한 방은 원래 교회 비서실과 창고로 설계되었고, 한때는 보스톤한인교회 목사 사무실로도 사용되었다. 후에 방송실로 개조되어 오늘날까지 쓰고 있다. 1997년부터는 예배 설교를 녹음해서 배포하기 시작했고, 2000년에 음향시설을 업그레이드 했으며, 영아실에도 TV를 설치하여 아기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였다.

2003년에는 회년 준비와 함께 본당에 프로젝터와 스크린, 동시통역기를 설치했고, 부엌에 예배용 TV를 설치하였다. 무대조명기를 구입하고, 친교실에 음향시설을 설치하였다. 2007년에 다시 전반적인 방송실 업그레이드가 있었다. 설교 비디오 시설, 본당과 친교실의 카메라 및 프로젝터 시스템의 신설 및 개선이 있었고, audio/video mixer 등 새로운 기자재 및 대형스크린을 설치했고, 새로운 멀티미디어 및 인터넷 선을 신설하였다. 2010년 ECC 완공과 함께 다시 대대적으로 방송장비를 업그레이드했고, 멀티미디어를 개선하고, 본당과 새로 건축된 ECC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도 설치하였다. 2012년부터는 본당에서 대형 스크린을 예배 시간에 사용하기 시작했고, 2013년에는 본당 뒤편에도 찬양대원들을 위한 대형 프로젝터를 설치하였다. 방송실을 현재의 본당 앞 위치에서 본당 뒤 사무실 위로 옮기려고 준비 중이다. 현재도 방송실에서 본당의 실제 예배 음향을 듣지 못하면서 음향과 비디오까지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방송 담당 교우들의 헌신적인 사역으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아름다운 예배를 은혜 속에 드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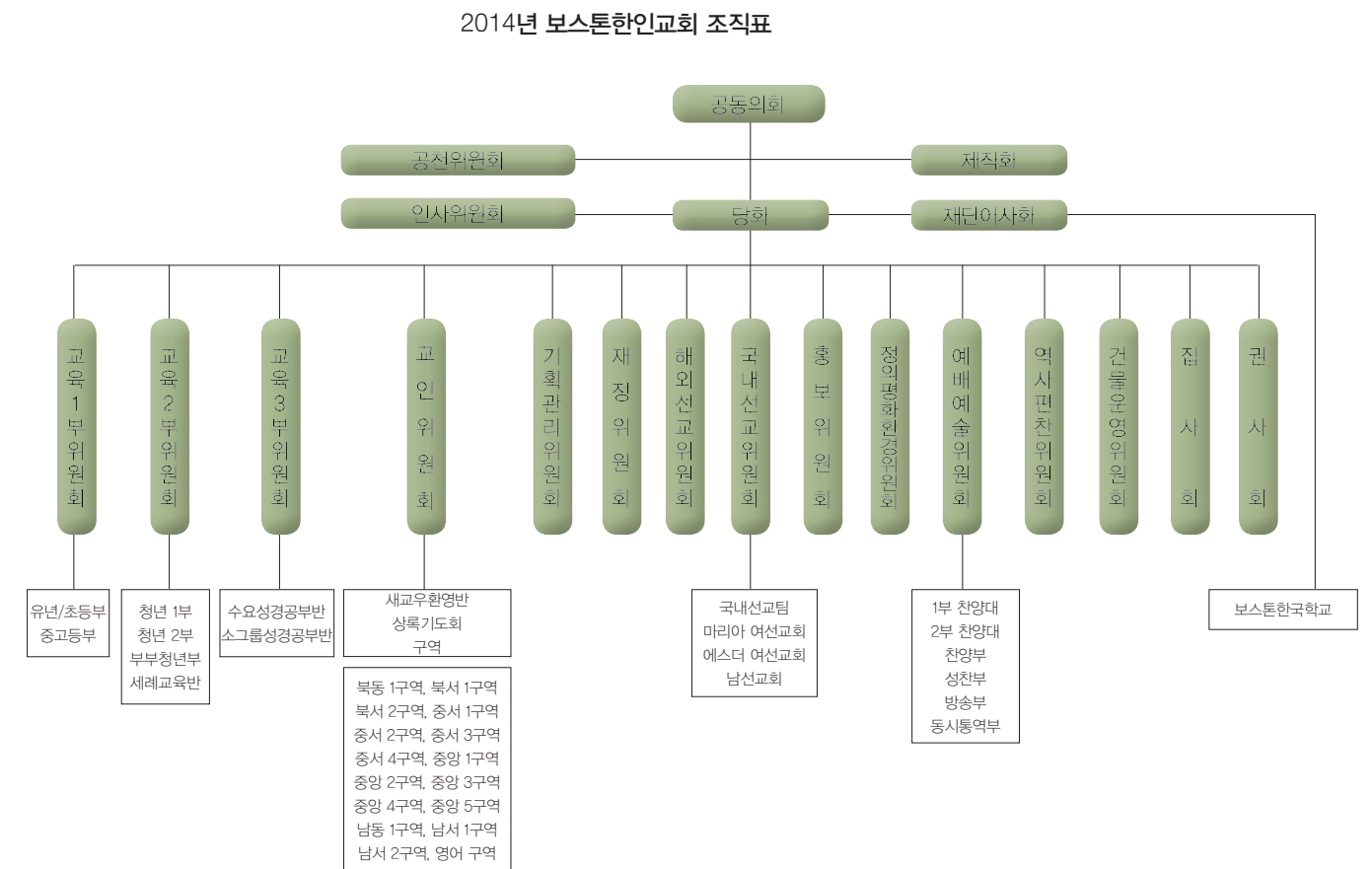
■ 사역의 확대에 따른 부서 확장과 교회 조직 개편

이영길 목사 시무 초의 당회는 교육위원회, 예배예수위원회, 교인위원회, 선교위원회, 재정위원회, 5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었고, 집사회와 여성교회가 독립된 기관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었다. 1997년에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로부터 교회 건물을 인수함에 따라 건물 관리 및 유지를 위한 기획관리위원회가 생기게 되었고, 사무실 전산화 및 교회 웹사이트 운영을 위한 홍보위원회가 신설되었다. 1999년

에 독립된 기관들은 집사회, 여성교회 외에 권사회, 부부선교회, 상록기도회, 영어예배부로 늘어났다. 2001년에는 선교위원회가 해외선교위원회와 국내선교위원회로 분리되었고, 2002년에는 교육위원회가 1부(유년초등주일학교, 중고등부, 보스톤한국학교)와 2부(청지기대학부, 그루터기청년부, 부부청년부, 주일성경공부반, 새신자반, 수요일여성성경공부반)로 분리되었다. 2009년에는 교육 3부위원회를 신설하여 주일성경공부반, 수요일여성성경공부반, 새신자반/세례교육반을 따로 운영하게 되었다. 또한 여성교회는 마리아 및 에스더 여성교회로 나뉘어 사역을 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부터는 교회건축과 회년행사를 위해서 건축기금모금위원회, 비전선언문 준비위원회, 역사편찬위원회가 신설되었고, 사회정의위원회가 새로 출발을 하였다. 2007년에는 ECC 건축기금모금위원회 외에 ECC건축위원회, ECC건축용자 위원회가 생기게 되었고, 목회자 청빙을 위한 행정부 목사 청빙위원회도 구성되었다. 2008년에는 교회규칙개정위원회가 구성되었다. 2010년에는 ECC 건축이 완공됨에 따라 건물운영위원회가 신설되었고, 남선교회가 새로운 부서로 출발하였다. 2011년에는 세례교육반이 교육 2부 위원회로 옮겨졌고, 사회정의위원회가 확장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정의평화환경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게 되었다. 2012년에는 창립 60주년에 맞추어 역사편찬위원회가 새로이 발족했고, 2013년에는 창립 60주년 기념행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2008년 이후로 은사공동체가 동우회 형식으로 발족되어 서예동우회, 골프동우회, 탁구동우회, 시내산동우회가 생겨났고, 집사회 안에 ‘하늘소리’라는 풍물 팀이 발족해서 교회 행사를 돕고 주님의 은사를 나누는 소그룹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2014년 현재의 보스톤한인교회의 교회 조직은 다음과 같다.



장로와 집사 임직 1999-2014



당회 모습 (2013)

이영길 목사가 시무하고 처음 3년은 신임 장로의 임직이 없었으나 1999년 처음으로 홍경자 장로가 안수 임직되었다. 미국장로교 장로 선출 guideline에 근거한 교회 규칙에 따라 매년 연초 공동의회에서 공천위원들을 뽑고 이들이 당회의 공천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함께 일 년간에 걸쳐 절차에 따라 선정을 하고 안수장로, 안수집사를 추천하였다. 2009년부터는 교회규칙을 개정하여 교회 부서를 4개 그룹(집사회, 권사회와 상록회, 마리아와 에스더

여선교회, 청년1부와 2부와 부부청년부)으로 묶어서 자체적으로 공천위원을 선출하여 임시 공동의회에서 인준을 받는 형태로 바뀌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1999년 이후 모두 19명의 장로가 임직했으며, 1명이 전입 시무장로로 임직했고, 3명이 협동장로로 시무하였다. 모든 시무장로는 3개조로 나뉘어 첫 3년 시무, 재추천 임직받으면 다시 3년 시무, 6년 시무가 끝나면 의무적으로 일년 휴무를 하는 제도를 지켜오고 있다. 2014년 2월 현재 13명의 장로가 3개조로 시무하고 있고, 7명의 장로가 휴무 중이며, 8명의 장로가 은퇴를 하였다. 연도별 안수 임직 장로는 다음과 같다.

연도	안수/임직	성명
1999	안수장로	홍경자
2000	안수장로	강경희, 김명철, 박영철
2001	안수장로	강상철(베다니장로교회 파송)
2001	협동장로	김순규
2002	시무장로 임직	박영일(2000 협동장로)
2005	안수장로	이선영, 김세철, 장양술
2007	안수장로	정진웅
2008	안수장로	안태준, 홍동욱
2009	안수장로	김성현, 이정규
2010	협동장로	김길람
2011	안수장로	김영범, 박신영
2012	안수장로	권복태, 안성완
2013	안수장로	엄재관
2014	추천장로	이정민

안수집사는 활동교인으로서 4년 이상 교회생활을 했거나 하고 있는 활동교인(서리집사 포함) 중에서 공천위원회에서 추천이 되면 공동의회에서 인준되는 과정을 밟게 되어 있다. 장로와 같이 3개조로 나누어져 있으며, 3년씩 두 번 시무한 후에는 의무적으로 일 년간 휴무를 하게 되어 있다. 1995년 이후 169명이 안수 또는 임직을 받았으며, 2014년 현재 84명의 안수집사가 시무 중이며 24명이 휴무 중이다.

연도	신임/취임 안수집사
1995	김세철, 이계순, 장양숙, 최석주, 한영희
1996	김정림, 최승주, 최인주
1997	정선주, 주상용
1998	강병영, 김영범, 김정근, 김효경, 오승현, 이혜승, 이훈희
1999	정능화
2000	박성호, 정용국
2001	고경아, 김난희, 김복길, 김윤, 박관희, 서명구, 손정근, 오세경, 차주혁
2002	취임: 성강은, 윤희경, 이문영, 정진웅 안수: 태수영, 강영숙, 강정임, 김규철, 김선혁, 김성현, 김원욱, 김종윤, 김종천, 김준구, 김찬숙, 김치풍, 박주상, 오송혁, 우원하, 정명상
2003	김태만, 심윤보, 안태준, 이정규, 강기호, 강윤구, 김여영, 박성준, 안성완, 원미연, 임숙현, 장성수, 홍동욱, 홍동현
2004	김춘미, 박준재, 배성희, 이은주, 이정민, 이정희, 최창열, 홍옥희
2005	취임: 한문수 안수: 권혜진, 김성혜, 김영순, 박미숙, 박신영, 백준현, 심기선, 지훈
2006	계동성, 김용희, 문유경, 서영주, 엄재관, 윤미자, 이경환, 이원걸, 전신애, 진정원, 최정열, 허경희
2007	권복태, 김동규, 김동숙, 김우진, 김은미, 김준배, 박종열, 이상자, 이재혁, 조영신, 주민정, 주정대
2008	김중희, 김화옥, 이유택, 최현구
2009	고진수, 김상기, 박선희, 박진욱, 배한원, 안명훈, 윤선미, 이기순, 이승연, 이원기, 이정일, 조유미, 태영미
2010	김영미, 김용욱, 백승한, 손주연, 신미송, 이성숙, 이창호, 이태호, 이혜승, 이혜원, 장보경, 정광근, 정재원, 하대준
2011	강혜정, 방경남, 서명숙, 신소정, 이경자, 이주용, 유승오, 한정인, 황동준
2012	강민형, 김연희, 김진섭, 김희정, 김향인, 김현주, 노윤경, 안은신, 전현임
2013	구용한, 김진기, 김은정(A), 박양신, 신보경, 이동화, 이재익, 이지훈, 임보라, 장성연, 한혜성
2014	추천안수집사: 김경태, 김진홍, 김재영, 윤향중, 채진병

권사회 창립과 사역 1997-2014

1990년 이전에는 65세 이상의 여집사 중에서 당회의 추천에 의해 권사를 임직시켰으나, 1990년부터는 교회 규칙을 개정하여 55세 이상의 여집사 중에서 권사로 임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85년 최초로 성덕춘 권사가 임직된 후로 1994년까지 모두 9명이 권사 임직을 받았고, 1995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38명의 권사가 임직을 받았다. 1997년에 권사회가 창립되어 이상구 권사가 초대 회장을 역임했고, 2001년부터 부회장, 총무 등 회장단을 확대하였다. 2004년에는 권사회 회칙을 만들고 권사회의 목적

을 “전 회원이 본 교회의 예배, 전도, 교육, 봉사, 심방, 그리고 친교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독교 여성의 인격을 함양하여 보스턴 사회와 나아가서는 전 세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증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현재까지 교회의 어머니로서 여러 사역을 담당해 오고 있다. 성만찬 준비 및 성찬보 관리, 교회 내의 제반 경조사를 돌보는 일, 병고와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와 위로, 선교 참여 및 협력, 교역자, 신학생, 청년들을 위한 접대, 건축헌금 기금모금 등 교회 내의 많은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매년 송구영신예배 때는 모두 한복을 입고 교인들 앞에서 특별찬송을 하는 것도 하나의 전통이 되어 내려오고 있다.

2012년에는 신좌경 권사의 백수축하연에, 이영길 목사가 축하 예배를 집례하여 많은 한인들과 교인들이 참석하였고, 찬양대와 권사회에서도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큰 기쁨을 나누었다.

연도	임 직	비고
1996	문숙찬	
1997	장현숙	1997. 08 권사회 창립
1998	박기춘, 신동옥, 정귀달	
1999	김계숙, 김진숙, 박춘지, 최송자	
2001	김현지, 송미자	2001 권사회 재창립
2003	김경애, 정능화	
2005	강영숙, 김찬숙, 성강은, 오세경, 이계순, 정선주, 태수영	
2006	이경희	
2007	조순래	
2008	이숙재	
2009	김여영	
2011	이상자	
2012	공경희, 심기선, 전신애	
2013	김용희, 김종희, 김춘미, 조영신	
2014	김영미, 김정림, 김한나, 서명숙, 신미송, 이경자	추천 권사

■ 서리집사 임명 1999-2014

원래 미국장로교에는 안수장로와 안수집사 제도만이 규례에 나타나 있으나, 대다수의 한국장로교회는 일찍부터 권사와 서리집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보스턴한인교회도 1985년 미국장로교 가입 후에 노회법에 따른 장로, 집사 외에 권사제도를 채택했으나, 서리집사제는 실행하지 않았다. 당회는 1999년도부터 이를 도입, 활동교인으로 1년 6개월 이상 교회에 적을 두고 출석한 교우들 중에서 선출하여 서리집사로 임직시키고 있다. 2014년 현재 90명의 서리집사가 교회사역에 봉사하고 있다.

연도	신임 서리집사
1999	강영자, 고경아, 김난희, 김복길, 김윤, 박관희, 박주형, 서명구, 손정곤, 오세경, 장성수, 조다영, 조성일, 진교창, 차주혁, Ed Park, Sang Yoon
2000	강영숙, 강정임, 김규철, 김선혁, 김성현, 김원옥, 김종윤, 김종천, 김준구, 김찬숙, 김치풍, 박주상, 송근준, 오송혁, 우원하, 정명상, 최현경, Tom Park
2001	강기호, 박선희, 김일영, 박성준, 안성완, 원미연, 임숙현, 조윤주, 태진수, 홍동욱, 홍동현, Helen Hong, Alice Kim, Stephen Pak
2002	김동규, 김성혜, 김은자, 김춘미, 김혜숙, 박진흙, 배성희, 백문창, 서용석, 설영숙, 신경애, 엄주현, 윤송호, 이승연, 이은주, 이정민, 이정희, 최창열, Jim Chou, Julia Chou, Eric Kim, Mike Oh, Kim Park
2003	고경진, 권복태, 권혜진, 김수홍, 김신희, 김영순, 김윤정, 문현준, 박미숙, 박신영, 백준현, 서명숙, 신지현, 심기선, 이민구, 이애자, 지 훈, 최소연, 홍경화
2004	계동성, 고진수, 구명희, 김동숙, 김동욱, 김선남, 김영미, 김영환, 김용희, 김은미, 김준배, 김진호, 김희정, 문유경, 배형근, 백승한, 변은지, 서영주, 성정훈, 손주연, 엄인숙, 엄재관, 윤미자, 이경환, 이봉욱, 이원걸, 이유택, 장명술, 장미자, 전신애, 정영화, 조유미, 주민정, 진정원, 최정열, 허경희, 현인복, 홍도화
2005	김상기, 김옥순, 김우진, 김화옥, 김희현, 박기남, 박종열, 배한원, 이상자, 이재혁, 이정일, 전현임, 정진희, 조승건, 조영신, 주정대, 최현구, 표신엽, 한혜성
2006	구본철, 김용욱, 김태경, 김하나, 민정숙, 박진옥, 배상결, 백남욱, 서민정, 서은영, 신보경, 양경삼, 옥창호, 윤선미, 이진희, 이태호, 전 희, 정일진, 정재원, 태영미
2007	김민준, 김상태, 김은정, 문영진, 박은정, 박종배, 신미송, 오윤석, 이경자, 이남이, 이미정, 이선진, 이주영, 이지민, 이창호, 이혜승, 임보라, 전계연, 정경림, 최석희, 최영미, 하대준, 한정인, 황동준
2008	강지민, 김동원, 김민정, 김은석, 김용한, 김지홍, 박성준, 박애리, 박은영, 박지원, 배성주, 서원석, 손영권, 송현정, 안은신, 이상진, 이상숙, 이지현, 이해원, 장보경, 장승혁, 정광근, 황지영, 황호범
2009	강혜정, 곽서영, 김연희, 김은정, 김정현, 김진기, 김태수, 김현주, 김혜영, 노윤경, 박용주, 방경남, 소창호, 송정숙, 신소정, 유승우, 이성우, 이성희, 이현주, 정하균, 조성호, 한대근, 황옥란
2010	강민형, 강승민, 김경태, 김남숙, 김대식, 김도윤, 김래아, 김윤정, 김은주, 김재영, 김진섭, 김진홍, 김향인, 민병준, 유민재, 윤향중, 이동화, 이상정, 이영완, 이진화, 장숙량, 주재은, 차민호, 채주영, 최정우
2011	강윤석, 구용한, 권오훈, 김명은, 김시찬, 김양희, 김정선, 류덕현, 박양신, 박정은, 사공현일, 이정은, 이재익, 이지훈, 장성연, 장성주, 정민석, 정은아, 최준영, 홍신숙
2012	류승렬, 안창혁, 오준석, 유진선, 이애영, 임윤아, 정근화, 채진병, 최미남, 최정열, 황정제
2013	구윤지, 김민경, 김희수, 리순아, 박성민, 변수연, 변옥화, 손정은, 신민영, 윤주한, 이강민, 이경희, 이관희, 이문희, 이상필, 전재완, 정성원, 정은화, 정혜정, 조훈성, 채수경, 최안나, 최학수, 최형태, 황우성
2014	강모영, 김미숙, 김상지, 김애리, 남궁원, 박상철, 박종원, 배광현, 안원미, 이해원, 이원희, 장영준, 정유미, 최병윤, 최정환, 한세진, 홍성일

### ■ 제직 안수 임직예배를 통한 서약



매년 9월이 되면 정기 공동의회에서 추천받은 안수장로, 안수집사, 권사에 대한 안수 및 임직예배가 있다. 이들은 2월부터 이영길 목사의 지도로 제직에 필수적인 교과와 덕목을 배우고 안수 임직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인들 앞에서 서약문답을 하고 안수를 받는다. 서약 문답을 통해 주위에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친구 없이 외롭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며, 나아가 주를 섬기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할 것을 서약한 후, 무릎 꿇고 목사와 장로, 전 교우들의 축복 가운데 안수를 받는다. 안수를 받은 신임 장로, 집사는 답사를 통해 그들의 결단을 다짐한다. 임직 예배 후에는 에스터 여선교회에서 주관하고 각 구역에서 준비한 만찬을 전교인이 함께 나누며 임직을 축하한다.



노회에서는 총무 Wayne Parrish 목사가 자주 참여하였는데, 2009년 임직식에서는 안수받는 장로, 집사, 권사에게 나침반을 선물로 주면서 다음과 같이 권면의 말씀을 전하였다.

안수와 임직

**첫째,** 예수님으로부터 들으십시오. 우리는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꺼이 순종적인 행함으로 인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배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모험적이기도 합니다. 안수식 선서는 이 점을 인식하고 우리를 상상력과 사랑으로 섬기기를 청합니다.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교회를 위한 새로운 방식들을 창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께서 ECC 새 건축의 도전을 감당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셋째,**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것을 해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서로가 필요합니다. 리더들로서 우리는 혼자 일을 하도록 부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주님의 일에 기쁘게 참여하고 준비시키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을 계속 바라보아야 합니다. 확실히 우리는 불어오는 폭풍과 파도, 도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베드로가 그러했듯이 혼돈 속으로 빨리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한 장의 지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방향을 알려줄 나침반입니다. 우리의 나침반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바다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 ■ 총 제직원 수의 증가

1995년에는 장로 15명, 권사 9명, 집사 40명으로 총 제직원 수가 64명이었다. 김창신, 백린 장로가 1996년에 최초로 은퇴를 하였고, 1997년에 김갑성 장로가, 2000년에는 김영경 장로가, 2001년에는 강성유 장로가, 2011년에는 김형범 장로가 각각 은퇴를 하였다. 2013년에 김문소 장로와 홍경자 장로가 은퇴함으로써 모두 8명의 장로가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였는데, 본 교회에서는 은퇴예배로 이들의 노고를 기리고 또한 은퇴장로들의 답사를 듣는 예배를 드리곤 하였다.

2000년대에 교인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제직원 수도 100명 이상으로 늘어났고, 2010년에 이르러는 240명 이상, 2014년 6월에는 시무 휴무 포함하여 장로 19명, 권사 29명, 안수집사 104명, 서리집사 90명으로 총 제직원 수가 242명에 이르고 있다.

### ■ 찬양대 사역과 찬양팀

교회의 지역적 특정상 성가대 대원들의 유동성은 매우 심했지만, 1982년부터 지휘자로 꾸준히 사역해 온 변화경 장로와 1983년부터 성가대장을 맡아온 한승희 장로의 변함없는 헌신으로 성가대는 원숙한 성장을 할 수 있었다.

1997년 6월 새로 시작된 1부 예배를 위해서, 1997년 10월부터 1부 성가대가 신설되어 조유미 집사가 지휘를 맡아 예배 사역을 돕게 되었고, 기존의 성가대(지휘 변화경 장로)는 2부 성가대로 개칭되었다. 조유미 집사는 지휘자 사역을 맡기 전 1991년부터 독창자로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있었고 현재까지도 독창자로 예배 사역을 도우며 때로는 지휘자로 봉사하고 있다. 2007년부터 1부 찬양대 지휘는 박진욱 집사가 맡게 되었다. 성가대의 명칭은 2003년부터 찬양대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2부 찬양대

1부 예배는 주일 오전 8시 45분에 시작하기에 찬양대원은 오전 7시 50분부터 찬양 연습으로 예배 준비를 하며, 대원의 차편을 제공하는 교우들은 더 이른 시간부터 수고한다. 특히 string ensemble 단원들의 찬양 연주는 예배를 더욱 은혜롭게 하고 있다. 교회절기(부활절 성금요일, 성탄절 전야예배)의 특별예배를 위해서는 주중에도 연습을 하여 메시아 1부 전곡을 영어로 찬양하였고, 니카라과 선교단 파송예배 때는 스페니쉬로 찬양을 드렸다.

교회 본당의 구조상 찬양대원들은 예배를 강단 뒤편에서 드리게 되어 있으나, 목사님의 설교 시간만큼은 강단 아래로 내려와 모든 교인들과 함께 말씀을 들었다. 2000년부터는 급격히 늘어나는 교인으로 인해 예배좌석이 모자라서 2부 찬양대원은 강단 뒤편 찬양대석에서 계속 예배를 드렸으나, 1부 찬양대원들은 그래도 예배좌석이



1부 찬양대

여유가 있어서 앞자리로 내려와 설교를 듣고 있다. 한창 더운 여름에는 사시사철 입는 찬양대 가운데로 열기가 심하여 부득이 8월달에는 2부 찬양대는 휴가를 가지게 되었고, 그 한 달 동안은 5월 어머니 주일 찬양제 때 수상한 구역, 부서들이 돌아가며 예배 순서에 찬양을 하고 있다. 1부 찬양대는 발족 이래 한 번의 여름 휴가 없이 찬양사역을 하고 있다.

2003년에는 1부 찬양대에 현악 사중주 '브니엘 팀'(정성휘, 최정원, 조선량, 김진엽)이 결성되어 예배를 도왔다. 첫 회년 이웃 초청 음악회가 창립 50주년 기념예배 전야제로 2003년 11월 22일 변화경 장로의 지휘로 찬양대와 본 교회 출신 음악인들이 출연하여, 현악 사중주, 남성 복사중창, 조유미의 소프라노 독창, 백혜선의 피아노 독주, 황대준의 첼로 연주와 헨델의 '축제의 찬양' 합창 등을 손민수 반주로 수많은 청중이 참여한 가운데 공연되었다.

2006년부터는 3세대가 같이 모이는 '쉐마의 밤'이 시작되었고 이를 위한 쉐마찬양단이 구성되어 격월로 교회 행사를 돕고 있다. 보스톤한인교회의 비전에 따라 교회 내의 3세대의 구성원 - 유년초등 주일 학교, 중고등부, 청년 1, 2부, 부부청년부, 집사회, 여선교회, 남선교회, 상록기도회 등 모든 부서가 함께 모여 찬양, 기도, 예배, 특별행사를 가지는데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2013년 중반기부터 예배조정 소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예배찬양 팀이 결성되어 매주 2부 예배 시작 전에 모든 교인들이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으며 5-7명의 단원들이 사역하고 있다.

본 교회의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축하음악회를 2013년 11월 23일에 성대하게 가졌다. 1부 순서는 박진욱 집사의 지휘로 현악 오케스트라가 Edward Elgar의 Serenade for string Orchestra, op. 20 등을 연주했고, 본 교회 1부, 2부 연합 찬양대가 John Rutter의 곡 'Gaelic Blessing',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등을 합창하였다. 2부 순서로는 변화경 장로의 지휘로 L.V. Beethoven의 곡 Fantasia in C minor, Op. 80(Choral Fantasy) For Piano, Chorus and Orchestra가 손민수 교수(전 보스톤한인교회 반주자)의 피아노 협주와 1, 2부 연합 찬양대의 합창으로 이루어졌다. (자세한 연주 내용은 60주년 기념행사 보고에 기록되어 있다.)

보스톤한인교회의 찬양대는 높은 수준의 교회음악으로 교회 밖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데, 그 배후에는 1982년부터 2014년초 은퇴까지 꾸준하게 찬양대 지휘를 해 온 변화경 장로의 30년 넘는 사역이 있다. 변화경 장로는 New England Conservatory of Music(NEC)의 교수로서, 또 피아노 연주자로서 남편 Russell Sherman과 함께, 세계적인 수준의 한인 음악인들을 많이 배출하였다. 변화경 장로는 NEC에서 Lesser Award, Jean Stackhouse award for excellence in teaching 등을 수상한, 미국 및 한국 음악계에 잘 알려져 있는 교수이며 연주자이다.

소프라노 조유미 집사는 1990년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후 도미하여 New England Conservatory에서 Master와 Artist Diploma 학위를 마쳤다. Master 수학 중 The Metropolitan Opera National Council Auditions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주



지휘자 변화경 장로와 반주자들 손민수 (1부 1998-1999, 2부 1999-2010) 조안나 (1부 2002-2008)

목을 받으며 세계 우수한 오케스트라와 협연, 미국, 유럽 등지의 오페라단 주연으로 활동했고 독창회 등으로 활동하였다.

1997년부터 2010년까지 반주를 맡았던 손민수 교수는 New England Conservatory에서 Russell Sherman, 변화경 교수를 사사하였으며, 현재 미시간 주립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 양성과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보스톤 글로브로부터 "음악 안에서 삶을 창조하고, 관객을 사로잡으며 음악으로 보답하는 예술가"라는 평을 받은 그는 솔로리스트로서 미국과 캐나다, 유럽, 중국, 이스라엘 등지에서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고, 세계 주요 리사이틀 시리즈와 뮤직페스티벌에서 독주회를 가져왔다. 본 교회 60주년 기념음악회에 특별히 참여하여 솔로리스트로서 훌륭한 연주를 다시 보여주었다.

지휘자 박진욱 집사는 violin soloist, chamber musician 등으로서 현재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많은 음악 활동을 하고 있다. Haffner Sinfonietta, Hwaum Boston Chamber Orchestra와 Boston Korean Chorus의 Music Director를 맡아 많은 연주 활동을 하고 있으며 미국 사회뿐 아니라 보스톤 한인사회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1994년에는 자메이카 국왕의 초청으로 연주회를 가졌으며 Aspen Music Festival과 Cincinnati College-Conservatory of Music에서 이미 violin pedagogue를 인정받은 바 있다. 2008년에는 뉴잉글랜드 지역 젊은 음악인들을 중심으로 Haffner Sinfonietta를 창단하고 Music Director로 활동하며 매년 여러 차례의 정기공연을 하며 올해로 일곱 번째 시즌을 맞고 있다. 특히 Hwaum Boston Chamber Orchestra와 Boston Korean Chorus를 통해 미국과 한인 사회의 문화 교류의 교량 역할을 하고 있으며 Young Musician들에게 음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주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다. 박진욱 집사는 도미 후 Boston Conservatory of Music에서 음악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Boston University에서 음악 박사를 취득하였다.



1부 찬양대 지휘자 박진욱 집사, 독창자 조유미 집사, 반주자 안지혜 교수, 2013

### ■ 윤경문 목사 안수와 행정 부목사 사역 2007-현재

윤경문 목사는 1995년 본 교회 사무실 담당 전도사로 교회 사역을 시작하였고, 풀타임 전도사로서 오랫동안 예배, 성인교육, 국내선교 등에 관련된 사역에 참여하였으며, 현재 행정지정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2007년 당회는 부목사 청빙위원회(Pastor Nominating Committee)를 구성하여 행정부목사 초빙을 의뢰하였고, 청빙위원회에서는 노회 절차에 따라 일 년간의 절차를 거친 후에 윤경문 전도사를 적임자로 공동의회에 추천하여 인준을 받았다. 부목사의 정식 명칭이 Designated Associate Pastor이었기에 처음부터 보스톤 노회의 총무 Wayne Parrish 목사와 Committee On Ministry의 자문을 얻어 청빙 작업을 진행하였다.



윤경문 목사 안수 취임예배 (2007. 10)



2007년 10월에는 윤경문 목사의 안수와 행정부목사 위임 예배를 보스톤노회 주관으로 보스톤한인교회에서 드렸고, 현재까지 계약을 세 번 갱신하여 행정부목사로 계속 시무하고 있다. 윤경문 목사의 사역은 일반 행정사역을 넘어서 교회의 모든 부서와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며 교회 주요행사를 협조해 오고 있다. 2003년부터 세례 받기를 원하는 교우들을 위한 세례교육반을 인도하고 있고, 2013년 1월부터는 청년2부 임시 담당 목회자로서도 사역하고 있다. 보스톤한인교회의 사역 업무가 늘어나면서, 윤경문 목사 외에도 다른 사역자들이 행정보조를 하곤 했는데, 2011년부터는 이요한 목사가 교인 관리 데이터 및 건물관리 행정을 돕고 있다.

윤경문 목사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시절 학문적 관심과 신앙적 열정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였다. 신약 신학에 관심을 갖고, 대학원에서 신약학 전공으로 Th. M.을 마치고, 1994년 도미하여 Boston University에서 목회학 석사(M.Div.)를 마친 후, 보스톤한인교회에서 전도사로 Full time 목회사역을 시작하였다. 미국장로교 보스톤노회에서 Candidate 과정을 거친 후, 2007년에 보스톤한인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현재까지 보스톤한인교회 행정 지정 부목사로서 사역하고 있다. 실천신학과 영성학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2013년도부터는 NKPW(National Korean Presbyterian Women)의 교육원 원장으로도 봉사하고 있다.

### ■ 교육위원회의 확대와 발전 개요

이영길 목사가 시무를 시작한 1995년에 교회 교육위원회는 7개 부서인 유년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보스톤한국학교, 영어예배부, 성인성경공부반으로 구성되어 운영하였다. 이영길 목사는 첫 목회 방향을 공동체 형성과 자기 연단을 강조했고, 성경읽기와 기도생활을 그 중심에 두어 시무 후 1996년부터 수요일성경공부를 시작했고, 성인성경공부를 지도하기 시작했으며, 대학/청년부와 함께 토요일 아침기도회를 시작하였다. 성인성경공부는 좀더 체계화해서 주일성경공부반, 수요일성경공부반, 새신자성경공부반(1996년 시작), 제자훈련반으로 4개 그룹으로 나누게 되었다. 영어예배부는 1999년부터 교육위원회에서 독립, 교회 창립을 준비하며 자체 운영을 하고 있었다. 교육위원회 각 부서는 담당 목사, 부목사 또는 전도사들이 임명되어 사역을 이끌어 나갔다.

1997년 보스톤한인교회가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로부터 교회 건물을 인수받아 교회 전체 건물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원래 300명 선의 교인을 위한 교회로 디자인된 공간은 두 배가 넘는 600명 선 교인의 예배와 교육을 위해서는 너무도 협소하였다. 교회 시설의 확장과 개선도 한계에 달해, 1998년 아래층 교육관에 세 들어 있던 Day Care Center를 내보내고 새로이 어린이 예배실, 교실, 영아실을 비롯한 교육관 전체 보수공사를 하고, 여선교회 소속이었던 영아부도 교육위원회에서 맡기로 하였다. 1998년부터는 교육위원회 운영상 교육1부(유년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는 매달 둘째 토요일에 자리를 같이했고, 교육2부(주일성경공부반, 수요일성경공부반, 새신자반, 제자훈련반, 보스톤한국학교)는 분기별로 모여 의견을 나누었고, 1998년 각 교육부서에서 발간된 모든 문서 자료를 하나로 묶어 교육백서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1998년 2월 교육위원회는 총회 지원을 받아 최훈진 목사를 강사로 교사지도자 훈련 세미나(Teacher Leadership Training Workshop)를 가졌는데 자매교회인 퀸지영생장로교회의 교사들도 초청하여 총 40여 명이 참가했으며 부모들을 위한 세미나도 가졌다. 교사들의 좋은 반응에 힘입어 김정선 교육위

원장은 총회(GA)에 3년에 걸친 교사지도자훈련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총회의 승인으로 1999년부터 3년간 Teacher Leadership Training Workshop을 뉴잉글랜드 지역 PC(USA) 3개 한인교회 Sunday school 및 중고등부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매년 30-40여 명의 교사 및 교회교육을 맡은 사역자들이 참여하였다.

- 1999. 2. 12-13. 1차 Workshop, 강사 최훈진 목사, Ron Chu, Joshua Kang 목사, Sharon Salvation Army Retreat Center, MA.
- 2000. 2. 18-19 2차 Workshop, 강사 최훈진 목사, Joshua Kang 목사, Sharon Salvation Army Retreat Center, MA.
- 2001. 2. 16-17. 3차 Workshop, 강사 최훈진 목사, 손대권 목사, 장소 Franciscan Center, Andover, 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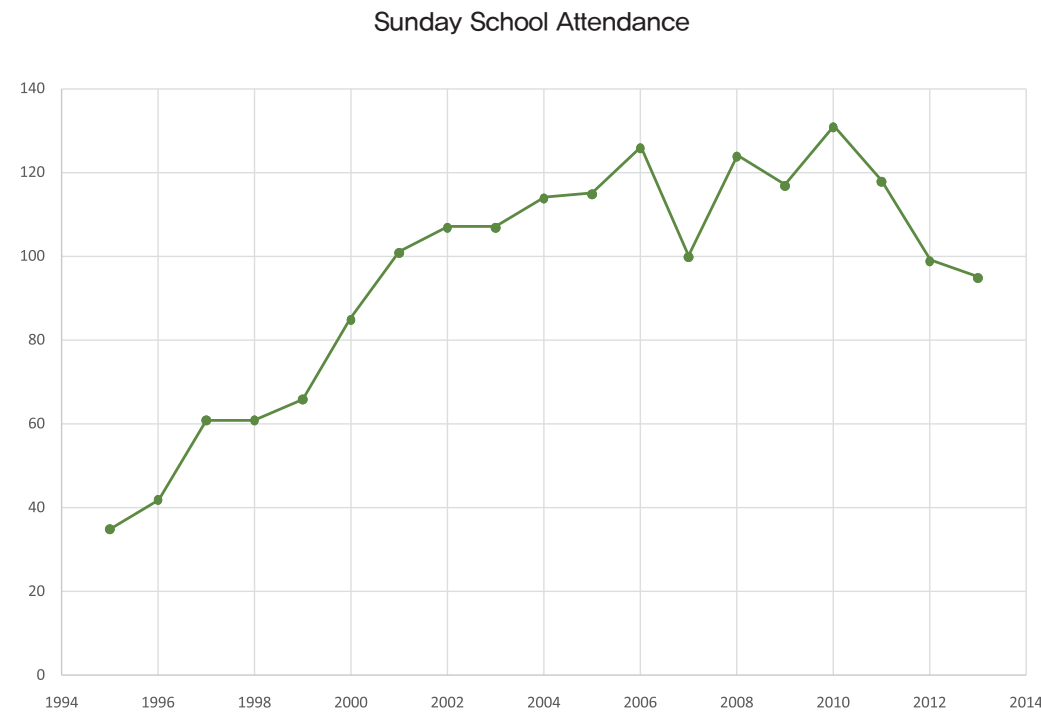
2000년 초, 유년초등주일학교는 성장하였으나 어린이 예배가 끝난 후 분반공부를 할 수 있는 교실이 턱 턱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 임시 방편으로 당시 아래층 도서실(현재 room #5)을 간이 파티션으로 막아 세 교실로 만들어 사용했으나 그래도 부족해서 친교실 창고를 개조해서 교실로 활용하였다. 교실난을 타개하기 위해 친교실 전체를 개조, 이층에 교실을 만드는 방법까지 논의되었으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교육관 시설확장위원회(한승희, 김성빈, 박영철, 조준호, 최연일)를 구성하여 시설 확장 계획에 대한 연구를 위촉했으며, 급한 대로 \$10,000을 건축기금에서 차용하여 아래층 교실 2개를 디바이더로 분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2002년에는 교육위원회와 재단이사회가 합동으로 교육관 건축기금 모금을 전 교회적으로 갖기로 결정하고 건축 방향과 규모에 대한 연구를 하기로 하였다.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교실이 부족해서 중고등부는 합반을 해야 하는 상태가 되어 교육관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보다 나은 예배와 교육시설에 대한 당회 및 모든 교인들의 기도는 2007년에 와서 Education and Community Center 건립을 위한 모금으로 이어졌고, 2010년에 아름다운 Children's Chapel 및 Community Center를 가진 교육관을 가지게 되었다.

2001년에는 새신자/세례공부반을 끝낸 교우들을 위해 제자훈련반이 일 년간 개설되었다. 2002년부터는 교육위원회를 교육1부위원회(유년초등주일학교, 중고등부, 보스톤한국학교)와 교육2부위원회(청지기 대학부, 그루터기 청년부, 부부청년부, 주일성경공부반, 새신자성경공부반, 수요일성경공부반)로 분리하면서 담당장로를 따로 두게 되었다. 2006년에는 유년초등주일학교 학생수가 120명을 넘었고, 중고등부는 60명 이상이 되어, 보스톤노회에서 교회학교 성장이 뛰어난 교회에 수여하는 Rev. Martin D. Kneeland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2008년 4월부터 ECC 건축공사 착공과 함께 교육공간의 부족은 더욱 심각해졌으나, 교회의 교육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 그룹들이 상호 협조를 통해 어려운 기간을 잘 견뎌내었다. 2009년에는 교육3부위원회를 신설, 주일성경공부반, 수요일성경공부반, 세례교육반을 따로 운영하게 되었다. 2010년 11월 ECC 완공과 함께 교육3부의 주목적이었던 소그룹 성경공부가 시작되어 그 동안 강의식 성경공부에서 모두가 참여하는 성경공부를 시도하게 되었는데, 처음 시작 때는 4개 반에 40여 명에 불과했으나, 2014년 현재 8개 반으로 늘어났고, 매주 80여 명이 참여하는 활발한 프로그램으로 발전하였다. 2011년에는 세례교육반이 교육2부위원회로 옮겨졌다. 1995년부터 현재까지 역대 교육부장은 다음과 같다.

교육위/교육1부위원회(2002년부터)	교육2부위원회	교육3부위원회
최연일 장로 1995. 01 - 1997. 12	최연일 장로 2002. 01 - 2002. 12	김명철 장로 2009. 01 - 2009. 12
김정선 장로 1998. 01 - 2000. 12	박영일 장로 2003. 01 - 2004. 12	강길원 장로 2010. 01 - 2010. 12
박영철 장로 2001. 01 - 2005. 12	김형범 장로 2005. 01 - 2005. 12	이정규 장로 2011. 01 - 2011. 12
김문소 장로 2006. 01 - 2006. 12	장양술 장로 2006. 01 - 2006. 12	권복태 장로 2012. 01 - 현재
박영철 장로 2007. 01 - 2012. 12	김명철 장로 2007. 01 - 2008. 12	
김세철 장로 2013. 01 - 현재	홍동욱 장로 2009. 01 - 2010. 12	
	김영범 장로 2011. 01 - 현재	

■ Sunflower 유년초등주일학교의 성장

1995년 7월부터 에스더 조(조미미) 전도사가 유년초등주일학교 사역을 담당하였다. 에스더 전도사는 조요윤 장로의 장녀로서 MIT를 졸업하고 Wellesley College에서 교육학 과정을 마치고 고든콘웰신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이수하고 있었는데, 디렉터로서 유년초등주일학교를 맡게 되었다. 디렉터를 맡기 전에도 보스톤 교회 유년초등주일학교 교사로서 섬겨 왔으며, 보스톤한인교회 영어예배부 초창기에 리더로서도 많은 봉사를 하였다. 1995년 어린이 예배는 오전 11시 30분에 시작하여, 오후 12시 10분부터 50분까지 5개 반으로 나누어 분반공부를 실시한 후, 1시부터는 교사 미팅이 있었다. 어린이 평균 출석은 35명으로, 교사 및 어른 10여 명이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1995년 10월에는 영아교육과 안전을 위해 영아실에 음향 및 원거리 비디오 모니터를 설치하였다.



1998년 초부터 김선희 전도사가 유년초등주일학교를 맡게 되어 교사 자질 향상에 역점을 두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교재도 바꾸고, 찬양예배를 강조하게 되었고 매주 예배 전에 한 시간

사회의로 모여 보다 철저하게 찬송과 예배를 준비하였다. 한국식 교육 체제에 따라 6학년 학생까지 유년초등주일학교에 소속되었으나, 1999년부터 6학년 학생들을 미국 Middle School 체제에 따라 중고등부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1999년에 영아부는 어머니 당번제로 운영되었고, 필요할 때만 유아부 선생을 초빙하는 체제였으나 김선희 전도사의 사역과 함께 9월부터 유년초등주일학교에 유아부를 편성하였다.



김선희 전도사와 교사들 (2006)

어린이들의 놀이터 시설이 거의 없어서 1999년에는 좀더 안전하고 재미있는 놀이터를 만들기로 하고, 교회 각 부서의 협조를 받아 우리 손으로 두 개의 놀이터 시설물을 만들게 되었고, 이중 하나는 고 성덕춘 권사 가족의 기증으로 이루어졌다. 1999년에는 또한 페루 선교가 시작됨에 따라 해외단기선교위원회 안에 교육부팀(강경희 집사, 김형곤 목사, 김선희 전도사, 최형규 전도사)이 구성되어 2000년 단기선교 현지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김선희 전도사가 2000년 4월부터 하프타임으로 사역하면서 찬양과 예배, VBS, 성탄축제, 선교참여 등 교육프로그램이 풍성해져 갔으며 괄목할 만하게 성장하였다. 2000년대 초에는 김선희 전도사와 20여 명의 교사, 보조교사, music ministry staff들이 매주 교사회의를 통해 체계적인 예배 및 성경공부 준비를 했고, 각 학년마다 한 학급, Toddler, Nursery I, II, & III, Kindergarten으로 모두 10개 학급으로 늘어났다. 1999년은 예배에 중점을 두었고, 2000년은 성경읽기를 강조하면서 성경 암송대회도 열었다. 10월에 미국의 Halloween party 대신에 더 성경적인 Hallelujah Night Party 를 시작했고, 2000년 후에는 학부모회의의 도움을 받아 Fall Children Festival로 발전되어 어린이들을 위한 연례행사가 되었다. 2000년에서 2001년까지 김선희 전도사는 연례 설교계획을 세우고 어린이들에게 주기도문(Christian Community in the Lord), 사도신경(Creed for Christian Life), 십계명(Code for Christian Life) 등 체계적으로 말씀을 전하였다.

2000년 이전에는 어린이들의 여름성경학교가 전교인 여름수양회 기간에 수양회 장소에서 주로 가졌는데, 2001년부터는 어린이 여름성경학교(VBS-Vacation Bible School)를 본 교회에서 따로 열기 시작하여, 'Way to Go' 라는 주제로 주중에 4일간, 65명의 학생들과 25명의 교사들이 참석해서 예배, 찬송, sing along, puppet show, drama, arts and craft로 진행되었다. 2002년에는 "Wow! What a God!"이라는 주제로 VBS를 열었는데 100여 명 이상이 참석했으며, 2007년에는 "Living as Children of God", 2008년에는 "Shining as the Light of the World" 등의 주제로, 이후 VBS는 유년초등주일학교의 연례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2001년 3월에는 페루 해외 단기선교에 참여하여 푸갈빠에서 스페니시 찬양으로 준비한 여름성경학교를 열었고, 김선희 전도사와 다수의 교사가 일주일 동안 매일 약 200명에 가까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때부터 김선희 전도사를 중심으로 매년 해외단기선교의 어린이 교육사역을 담당하여 열정을 쏟았다. 2004년부터 해바라기 유년초등주일학교라고 명칭을 바꾸고, 초등학생반과 유년부반 어린이들로 나누어 2부로 주일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으며, 교재는 Gospel Light과 David C. Cook을 사

용하였다. 주일 아침 교사들은 준비회의를 10시 45분부터 11시 50분까지 가지고, 12시부터 12시 40분까지 유년부 예배와 초등부 성경공부를 하였고, 12시 45분부터 1시 25분까지 초등부 예배와 유년부 성경공부를 하여 교실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어머니주일 찬양제 (2008)

2006년부터 유년 초등부 학생수는 120명을 넘었고, 학급 수도 12개로 늘어나서 김선희 전도사와 30여 명의 교사들이 유년초등주일학교를 섬기게 되었으나, 교사 충원 문제도 대두되곤 하였다. 학부모회의 활동도 강화되었다. 교회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교육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관 건축이 더욱 절실하게 되었다. 2007년에는 각 학년별 Teacher Parent Conference를 열어 부모들의 협조를 얻어 유대관계도 더욱 돈독하게 하였고 특별히 전교인들이 어린이들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강조하게 되면서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Child Release Form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여름성경학교 VBS (2008)

2008년부터 2010년은 교육관 공사로 교실이 모자라고 안전에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공사는 무사히 끝났다. 이 기간 동안 유년초등주일학교도 ECC Fundraising Event를 주최하여 김밥 바자를 열었고, 청년1부와 함께 떡볶이, 어묵 판매로 건축기금을 모아 헌금하였다. 2010년 9월 마지막 주일에는 건축디자인 상을 수상한 아름다운 어린이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누렸다. 이에 따라 주일학교는 오전 11시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Roots Program" (Praise time, Bible game, Arts & crafts, Storytelling)으로 오후 1시 10분까지 진행하였고 유년, 초등 두 그룹의 예배, 성경공부 시간도 약간의 조정을 하였다. 11월에는 ECC 봉헌예배를 드릴 때 어린이 90여 명이 새로운 Chapel에서 "Every Move I Make" 찬송을 할 때 본당에서는 실시간 화면으로 동시에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처음으로 행하였졌다.

2010년대 초의 유년초등주일학교의 mission statement는 다음과 같다.

1. Planting the Gospel-oriented mindset into our children-> "being Rooted in Jesus Christ"
2. Planting and developing a habit of praying, reading the Bible, having a devotion time, and listening to praise songs
3. Multiplying the interconnectedness between the Sunflower & the Parents (other departments of the KCB)

김선희 전도사는 고려대학교에 재학하다가 San Jose Christian College에서 학사과정을 마치고, 1995년부터는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에서 Master of Divinity를 위해 공부중이었다. 김선희 전도사는 보스톤한인교회에서 사역하기 전에 San Jose Christian Church와 Greenland United

Methodist Church, NH 에서 유년초등주일학교와 중고등부 director로서 사역한 바 있고, 특히 성악, 피아노 연주 등 찬양예배에 경험이 많아 어린이 예배를 Music Ministry로 풍성하게 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김선희 전도사는 2010년 5월까지 보스톤한인교회를 섬기면서 해바라기 유년초등주일학교 뿐 아니라, 단기해외선교 교육 담당, Korean Cultural Festival등 사역에서도 12년 동안 많은 봉사를 하여 가장 오랫동안 보스톤한인교회에서 사역한 전도사가 되었다.

김선희 전도사가 2010년 3월에 leave of absence로 떠나게 되어, 5월부터 청년1부를 맡고 있던 이요한 목사가 유년초등주일학교 임시목회자도 맡게 되었고, 어린이 평균 출석은 100여 명이 되었다. 꾸준한 발전으로 2010년 10월에는 보스톤노회에서 주일학교 학생수가 가장 증가하는 교회에 주는 Rev. Martin D. Kneeland 상을 8년 연속 수상하는 기록을 가지게 되었다.

2011년 5월 박진호 전도사가 새로 부임하였고, 6월에 열린 여름성경학교는 "Connect with Jesus"라는 주제로 열려 90명 이상의 학생이 참석하였다. 30여 명의 봉사자, 24명의 대학청년부원들이 협조를 하였다. 여름성경학교는 2012년에는 "Inside out and upside down on main street where Jesus makes difference everyday"라는 주제로, 2013년에는 "Facing Fear, Trusting God"라는 주제로 열렸는데 많은 어린이들이 참석하였다. 2012년에는 새로운 찬양 팀(피아노, 기타, 베이스기타, 드럼)이 구성되어 어린이 예배사역을 돕게 되었고, 교사수련회를 11월에 가졌다. 2013년 8월부터 김수영 전도사가 사역을 맡고 있다. 김수영 전도사는 2009년에 연세대학교 신학 학사, 2012년에 예일대학교 목회학 석사, 2013년에 프린스턴 신학교 설교학 석사학위를 마치고, 2014년 4월부터 Brigham and Women's Hospital에서 원목으로 있다.

2002년부터 유년초등주일학교를 돕기 위해 부장제가 채택되어 계동성(2002-2004), 전희(2005-2006), 김동규(2008-2010), 이은주(2010-2011), 박선희(2012-2013), 진정원(2014)이 맡고 있다. 이은주 집사는 2012년부터 2년간 교육 1부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사역하였다.



박진호 전도사와 주일학교 교사들 (2011-2012)



김수영 전도사와 교사들 (2013)

■ 새로 세워진 ECC Children's Chapel에서 예배드리는 어린이들 2012



유년부 예배 모습 (2013)

2010년 9월 드디어 2년 만에 걸친 ECC 공사가 끝나고 9월 쉼의 밤을 시작으로 Sunflower 유년초등주일학교는 새로 지은 어린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새로 지어진 Children's Chapel은 계단식 auditorium 구조에 개방적이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 예배실 앞면에는 하얀 벽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만들어 주고, 많은 창들이 밝고 환한 예배공간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이 맑고 밝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온 교회가 그 동안 어린이들에게 제대로 된 예배 장소 하나도 마련해 주지 못했던 아픈 마음을 어린이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한꺼번에 날려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찬양사역 (2013)

ECC봉헌예배(11월 21일)를 시점으로 어린이 성전의 A/V system이 설치되었고, 본당의 예배와 어린이 성전에서의 예배가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예배하는 모습을 화면을 통해 서로 볼 수 있어, 현대적인 매체를 통하여 3세대가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공간의 확대에 따라 어린이 프로그램은 주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되었고, 교사진이 특별히 노력해서 Roots Program을 새로이 개발하여 어린이들에게 예배와 성경공부 외에 다양한 특별 찬양과 활동을 통해 믿음과 복음의 뿌리를 심어주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학부모들도 같은 시간에 교육3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성인 소그룹 성경공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 전체적인 시간 조정이 이루어졌다.

■ Ransom 중고등부의 발전



성경공부 (2013)

중고등부(Ransom Youth Group)는 매주 주일예배와 토요성경공부, 사회봉사와 친교를 위한 모임, 또 연 2회 봄, 여름 수양회를 가지면서 계속 성장해 왔다. 평균 예배 참석자는 1995년도에 20여 명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 들어서면서 50명 이상이 되었고, 2006년에 평균 참석자 65명이었다.

1994년 초부터 5년 동안 김승호(Samuel Kim) 전도사가 지도하면서 7개 반에 35명으로 늘어났고, 한국어가 익숙한 학생들을 위한 Korean Bible Study Group도 만들었다. 학생들의 필요에 맞춘 새로운 성경공부 커리큘럼을 만들었고, 중고등부 Officers를 통해 리더십을 키워 주려고 노력하였다. Easter와 Thanksgiving 때에 basket을 만들어 불우아동들과 나누는 전통이 계속되었고, 봄, 여름 Retreat는 중요한 신앙성장을 위한 모임이었다. 1998년 10월 김승호 전도사가 사임하게 되어 6개월 동안 당시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정선 장로가 임시설교자로, 한민석 교수가 지도자로 사역하였다. 1999년부터 6학년 학생들을 중고등부로 받아들이면서 고등부 학생과는 나

이 차이가 많아서, 중고등부를 중등부와 고등부로 분리하는 문제를 연구하면서 시험적으로 주일 예배를 따로 드렸지만, 2000년 6월부터는 다시 함께 예배를 드렸다.

1999년 3월 최형규 전도사가 새로 사역을 맡아 구약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성경공부를 진행했고, 지도교사 9명이 9개 학급을 담당하였다. 최형규 전도사는 1998년 5월 목회자 과정을 위한 Inquirer로 당회의 승인을 받았고, 2000년 7월까지 사역하였다. 2000년 9월부터 김대호(Matthew Kim) 전도사가 사역을 시작하여, The Word on the Basics of Christianity(Jim Burns)와 The Sermon on the Mount를 교재로 사용하였다. 2002년 10월부터는 Johnson Samuel 목사가 사역하였으나 2003년 6월 한국에 선교사로 부름 받고 그만두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박진흠 집사가 부장집사로 봉사했고, 젊은 교사들은 직장관계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장년의 집사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었다. 2003년에는 담당 전도사가 없어, Ken Hwang 전도사, 주봉서 목사, John Chung 전도사가 임시로 맡아 설교하여 주었고, 이때부터 찬양팀이 생겨 예배사역을 도왔다.

2004년부터는 서동일(David Seo) 전도사가 김성현 부장집사와 같이 사역을 시작, 새로운 중고등부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토요 bible study, 학생자치회(student leaders group)와 학부모회도 활성화하였다. 잠시 침체했던 중고등부는 다시 60여 명으로, 교사도 12명으로 늘어났으며, 매년 견신식(Confirmation Ceremony)도 성대하게 치러졌다. 유년초등교사들과 함께 교사수련회도 몇 년 만에 다시 가지게 되었다. 학급수는 증가하나 교실은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 당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중고등부를 Ransom 중고등부로 명칭을 바꾸기로 결정하였다.

2006년 12월 서동일 전도사가 사임하고, 2007년 4월부터 Gordon-Conwell 신학교에서 수학중인 John Chung(정한진) 전도사가 사역을 맡게 되었다. 2006년부터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많아져서 여름이면 한국으로 나가, 학생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몇 년간 계속되었다. 정한진 전도사는 2013년 6월까지 7년여 장기간 사역하면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초기에는 교사 부족 등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활발한 중고등부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다. 매년 8주에 걸친 Leadership training, 봄 수련회, Lock-in, Open house를 가졌고, Gordon-Conwell이 주최하는 Arise 찬양의 밤, 농구대회, flag football 등의 행사에 참여하였다. 2009년에는 5년간 부장집사로 봉사하던 김성현 집사가 장로로 임직되면서 English Ministry를 맡게 되어 그만두고, 황동준/안은신 집사 부부 팀이 부장집사로 봉사하였다.

2010년부터는 몇몇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해외단기선교에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2013년에는 5명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혜성 교사의 인도로 콜롬비아 단기선교를 독자적으로 다녀왔다. 2012년에는 Coffee House talent show를 가졌고, 청년1부와 합동으로 연합 찬양집회를 가졌으며, Dan Lee 전도사를



Youth Group Retreat (1997)



Ransom Youth Group: Christ Centered Life (2005)  
서동일 전도사(2004-2006)



Ransom Youth Group (2007)  
정한진 전도사 (2007-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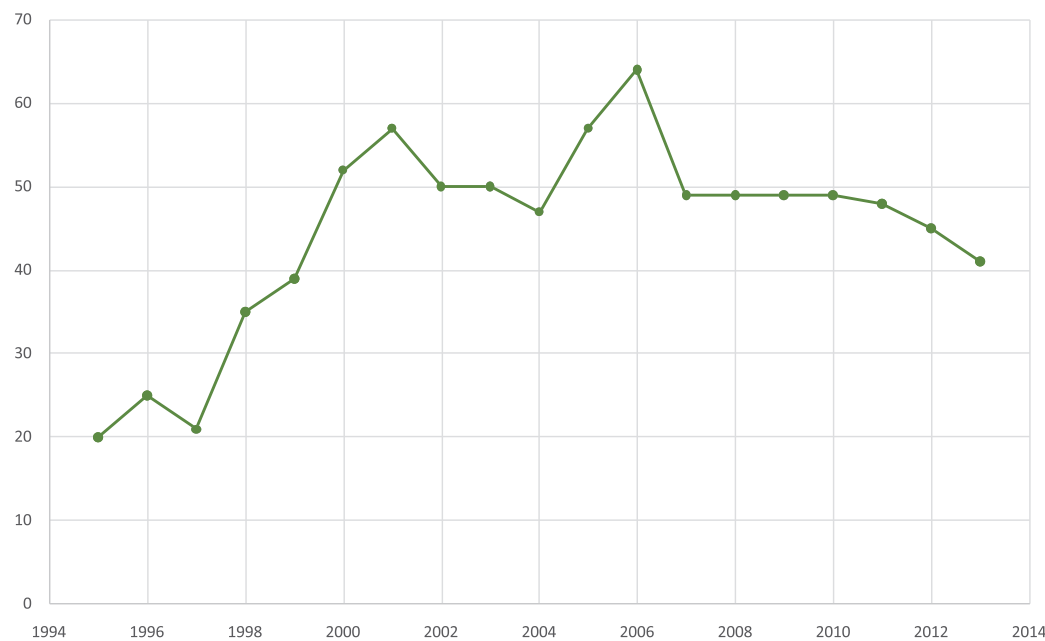


예배 모습

초청하여 “Living for The Audience of One”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가졌다. 2013년에는 David Jung 전도사를 초청하여 “Knowing the Father’s Heart”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가졌다.

2013년 9월부터는 김수재(Daniel Kim) 전도사가 사역하고 있으며, 황동준 집사가 부장집사를 맡고 있고, 8명의 교사가 평균 40여 명의 학생들을 8개 학급에서 지도하고 있으며, 찬양팀이 또한 사역을 돕고 있다. 김수재 전도사는 조지아에서 출생한 한인 2세로서 2006년 US Army 복무를 마친 후 조지아에 있는 빛과 소금의 교회에서 청소년부 전도사직을 담당하였다. 2011년 조지아주립대학교(Georgia State University)에서 종교학 전공으로 졸업한 후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신학대학교에서 목회학을 공부하다가 보스턴 지역의 고든콘웰신학대학교(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로 전학하게 되어 보스턴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였다. 유신애(Faith) 사모도 한인 2세로서 같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에서 종교학 석사학위를 이수하고, 금년 봄에 김수재 전도사와 결혼, 중고등부에서 같이 팀 사역을 하고 있다.

Youth Group Attendance



### ■ 보스턴한국학교 역사 1995-2014

1988년 6월에 창립된 보스턴한인학교는 좀더 포용성이 있고 포괄적인 의미를 주기 위하여 1997년에 학교 명칭을 “보스턴한국학교(The Boston Korean School)”로 변경하게 되었다. 창립자이자 초대교장으로 10년간 봉사한 김정선 장로가 1997년 사임함으로써 강경희 집사가 2대 교장으로 취임하였다. 초창기부터 이사장이었던 백린 장로가 1997년 사임함에 따라, 김정선 장로가 이사장이 되었다. 1997년에는 학부모회 주관 구정놀이에 예일대학 풍물놀이패를 초청하여 공연했고, 김밥 만들기, 동화대회, 태권무 시범, SAT 모의고사 참여 등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과 행사를 가졌다. 같은 해 시카고에서 열린 “재미 한인학교협의회 총회 및 연수회”에 4명의 보스턴한국학교 교사가 참석했으며, 동 총회에서 김정선 교장은 한국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유공교육자 표창을 받았다.

1998년 9월부터는 일요학교에서 토요일교로 전환하여 좋은 체제를 갖춘 한국학교로 발전하기 위해 수업 시간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려 한국어, 문화, 역사, SAT, 음악, 서예, 컴퓨터, 고전무용, 성경이야기 등 다양한 교과과정을 만들었고, 동화대회, 낱말대회, 꼭두각시 인형극, 한국음식 만들기, 교육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한국학교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운동회와 글짓기대회, 과학기술자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수학경시대회 등에도 참여하였다. 1999년에는 이훈희 집사가 3대 교장으로 취임하고 지역협의회 글짓기대회에 참가했고, 추석맞이 송편 만들기, 동화대회, 한국 전통 탈 만들기, 예술제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전시켰다. 2000년에는 홍동현 집사가 4대 교장으로 취임했으며, 당시 60여 명의 학생을 6개반으로 나누어 6명의 교사가 가르쳤다. 2001년 강상철 장로가 5대 교장, 원미연 집사가 교감으로 취임했고, 강 장로가 지역협의회 간부 일을 맡으면서 2002년 뉴잉글랜드 지역 한인학교협의회 주최 사생대회 및 운동회 등에 적극 참여하였다. 2003년에는 15주년 기념 보스턴한국학교 회지 “한걸음” 제8호를 발간했고, 브루클라인 지역 주민들을 초청하여 설날 잔치를 베풀었으며, 보스턴한인교회의 풍물 팀을 초청하여 공연을 가졌다.



설날 장터 (2003)

2004년에는 김갑성 장로가 손수 제작을 하고 조각해서 만들어 기증한 보스턴한국학교 간판을 어려운 과정을 거쳐 타운홀의 허가를 받아 Harvard Street 쪽에 보스턴한인교회 간판과 함께 나란히 설치할 수 있었다. 개교 이래 첫 성인반을 개설하여 많은 외국인들이 등록하였고 신영각 집사가 교육을 담당했는데, 좋은 반응으로 2학기부터는 한 학급을 더 만들기도 하였다. 보스턴한국학교가 처음으로 배출한 이준석, 이창규 두 졸업생은, 한국학교를 5년 이상 재학하고 고급반을 이수한 후 모의 SAT II Korean 성적이 70% 이상이어야 하는 자격 조건을 고루 갖춘 학생들이었다. 한국학교 새 웹사이트(www.bostonkoreanschool.org)를 개설하였다. 2005년에는 한세진 교사가 교무주임으로, 강상철 교장의 업무를 도왔는데 학생수는 50여 명이였다.



보스턴한국학교 교사/이사진 (2004)



보스턴한국학교 학생 (2013)

2006년에는 이승연 집사가 교감으로 취임하였으며 학생 수가 70명 이상으로 늘어나 9개 반을 운영하였다. 이중 두 반은 주로 지역사회의 미국 성인들을 위한 반이었다. 교재로서는 대교출판사의 “이노피(E. Nopi) 한국어”를 사용하였다. 2005년에는 한국학교 주최 민속장터를 개최하여, 한국전통 민속놀이와 음식, 새해맞이 풍습을 학생 및 인근 주민에게 공개하였다. Houston에서 열린 전국한국학교협의회 총회에 교사 4명이 참석하였고, 이정희 교사가 한국 부총리 겸 교육 인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공로상을 받았다. 한국학교 기금을 모으기 위한 골프대회도 개최하였고, 학생들은 Peabody Essex Museum 한국관 견학도 가고, Yearbook도 출간하였다. Mrs. Sunny Lemnios가 회장인 학부모회는 중강식을 전 가족 야유회로 준비해 주었다. 이때부터 학부모회는 설날잔치, Fundraising 등으로 꾸준히 한국학교의 행사를 도우며 여러 기금으로 협조했고, Mrs. Lemnios는 2013년까지 8년 동안 회장으로 봉사하였다. 2007년에는 전 학생에게 소고 춤이나 사물놀이를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태권도 교육은 본 수업 후 특별활동으로 시작하였는데 사범 Michael Uiterwijk은 2002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12년 이상 꾸준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2008년에는 개교 20주년을 맞아 “한걸음” 제13호가 “바른 우리말, 빛나는 우리 얼, 미국 속의 참 한국인”이라는 주제로 발간되었다. 57명의 학생과 10명의 교사가 대한민국반, 가야반 등 8개 반으로 나누어 수업했고, 미술반, 사군자반, 태권도반 등 특별활동도 더욱 강화되었으며 SAT 모의고사도 실시하였다.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설날잔치를 연례행사로 시행하여 탈춤, 고전무용, 풍물패 공연, 전통놀이마당, 전통음식 코너 등에 많은 주민들의 참여가 있었다. 2008년에는 새 이사장으로 안성완 장로가 취임했고, 김정선 장로는 고문이 되었다.



설날 잔치 공연 (2010)

보스톤한국학교 학생들은 매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협의회에서 주최하는 동요 합창제에 참여하고 있는데, 2013년에는 조선반, 고려반 13명이 참가하여 ‘멋진 리듬상’을 수상하였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사생대회, 글짓기대회에도 계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교사들은 매년 자체적인 교사연수회를 통해서 교재준비와 반별학습계획의 검토 시간을 가지고 있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협의회에서 주최하는 교사연수회 및 사은회에 매년 참석하고 있는데, 2013년에는 곽서영, 김연희 선생이 우수교사 표창을 받았다. 2013년 보스톤한인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이웃초청행사에 참가하여 한국전통놀이, 공예마당, 전통혼례 등을 주민들에게 보여주었다.

2013년에는 교장 강상철, 교감 이승연과 8명의 교사, 2명의 보조교사, 태권도 사범, 동요 담당교사, 4명의 고등학생 보조교사가 8개 반 47명 학생의 수업을 맡았다. ‘이노피(E. Nopi) 한국어4’ 외에 영사관에서 보급하는 ‘맞춤한국어’를 부교재로 사용하였고, 동요, 요리, 붓글씨, 탈춤, K-Pop 등 한국문화를 가르치며, 9월부터 5월까지 연 32회, 하루 3시간 수업을 하였다. 방과후에는 별도로 외부 강사 마이클 사범을 초빙하여 태권도 수업을 하였다. 보스톤한국학교의 태권도 수업은 국기원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한 명의 학생이 국기원 1단 승인을 받았다. 보스톤한국학교는 학생 등록비(일년에 \$280), 본 교회 보조비, 이사회비, 보스톤 총영사관으로부터의 지원금, 학부모회의 기금협조 등으로 운영되

는데, 연 예산은 \$40,000 정도이다.

2001년부터 아무런 보수 없이 교장을 맡아온 강상철 장로는 2004년 애틀랜타에서 열린 전국한국학교협의회 총회에서, 한국 교육 인적자원부에서 수여하는 유공교육자상을 받았다. 2006년부터 교감을 맡아온 이승연 집사는 2009년에 뉴잉글랜드 한국학교협의회에서 10년 장기근속상을, 2014년에는 15년 장기근속상을 받았다. 보스톤한국학교는 2013년까지는 보스톤한인교회 교육1부위원회에 속했다가, 2014년부터는 보스톤한인교회 이사회로 소속이 바뀌었고, 안성완 장로에 이어 현재는 김동규 집사가 이사장 직을 맡고 있다.



보스톤한국학교 학생과 교사들 (2013)  
강상철 교장(2001-현재), 이승연 교감(2006-현재)

### ■ 청년대학부의 분리(토요기도회의 시작)

1995년 청년부는 청년 1부 대학부와, 청년 2부 청년부로 나뉘었고, 대학부는 새로 사역하는 손병덕 전도사가 맡았고, 청년부는 1991년부터 사역하던 이철 전도사가 맡았다. 각각 금요성경공부와 주일 모임을 독립적으로 갖기 시작했으나 많은 경우 합동으로 행사를 가졌다. 1995년 11월부터 청년1, 2부가 합동으로 시작한 토요 아침기도회는 본 교회의 전체 교인을 대상으로 하여 아침 8시에 모이는 토요기도회로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사순절 기간 동안은 매일 아침 새벽기도회로 모이고 있다.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토요일 이른 아침에 교회에서 담임목사와 같이 조용한 기도회를 시작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하겠다. 당시에는 우리 교회 자체 소유의 피아노가 없어서 무거운 피아노를 행사 때마다 아래층에서 올려 와야 했기에, 대학청년부 합동으로 음악회를 개최하여 피아노 구입 기금 모금에 \$10,000 이상을 현금하였다. 분리는 되었으나 대학청년부 공동으로 많은 사역을 하였다. 1997년에 Roxbury 장로교회에서 “Undivided”라는 제목의 찬양 봉사를 했고, 1998년에 대학청년부가 주최하여 퀸지영생장로교회 청년회와 공동으로 Good Shepherd 교회를 위한 자선음악회를 열어서 \$3,157.60을 모금하여 전달하였다.

1999년에는 청년들의 수가 증가하여, 다시 재개편되어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청년1부, 26세 이상의 청년을 중심으로 한 청년2부, 결혼하고 가정을 가진 부부청년부 세 부서로 나누고, 이에 따라 각 부서마다 책임 교역자를 임명하였다.

### ■ 대학부, 청지기 청년1부로 거듭나다

1995년 11월부터 손병덕 전도사가 새로 사역하면서 청년1부를 대학부로 명칭을 바꾸고, “섬김과 나눔”이라는 주제에 모든 사역의 초점을 맞추어 찬양단도 구성하였다. 손병덕 전도사는 한국 총신대 출신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사역 등 7년의 경력이 있었고, 하버드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M.Div. 과정을 밟고 있었다. 대학부는 주일 오후 모임, 금요성경공부, 토요기도회 등에 40-50여 명이 모였는데 7개조로 나뉘어 리더들을 중심으로 하여 성경공부를 했으며, 영성 훈련, 봉사, 전도 활동을 강화하였다. 9월의 신입생들을 위해서 캠퍼스에 전도지 부치기 등 학원선교에도 역점을 두었다.

1998년 8월 손병덕 전도사가 학업을 위해 영국으로 떠나게 되어, 홍동욱 집사가 평신도 사역자로 대학부 지도담당(paid staff)을 맡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선한 청지기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되어 보자는 의미에 ‘청지기대학부’로 이름을 붙이고, 금요성경공부, 토요기도회 및 리더 모임, 주일찬양과 조별모임 등을 통해 만나기를 힘쓰며 여러 가지 주님의 사역을 펼쳐 나갔다. 회원의 60%가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었기에, 한국의 IMF 사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잘 견뎌내었다. 대학부는 ride의 필요성이 절실하여 Van을 렌트해서 사역에 사용하기 시작했고, 구입을 위해 모금 활동을 벌였고 1999년 7월에 당회의 지원을 받아 Van을 구입하였다.

1999년 2월 대학부 동계수련회는 “도망자와 추적자”라는 제목으로, 강사는 김한요 목사였다. 참석한 회원들이 잊지 못할 신앙의 체험을 했고, 4월에는 찬양의 밤을 가졌다. 2000년에는 청년부와 함께 Habitat for Humanity 사역에 참여했고, Boston University 음대 강의실에서 수요일도 모임도 가졌다. 2001년에는 새해 첫날부터 모여 성경을 읽었고, 여름방학 동안에는 7명의 회원이 국내선교부 주최의 Arizona Indian Reservation 단기선교에 참여하였다. 7월에는 페루(Peru) 단기선교에 홍동욱 집사와 두 회원이 참여하였다. 10월 가을 수련회는 40여 명의 회원이 참가하여 강사 장석진 목사님의 인도로 ‘사랑, 성숙, 사명’이라는 주제로 Alton Bay(NH)에서 가졌다. 수요일도모임은 버클리 음대에서 경건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2002년에도 겨울과 가을 두 번의 수련회를 가졌고, 전교인 여름수양회에는 여러 회원이 주일학교와 찬양팀, 그리고 진행요원으로 봉사했으며, 국내선교회 주최의 Habitat for Humanity에 또 참가하였다. 2003년 10월에 가진 가을 수련회는 고든콘웰신학대학교의 임창하 목사가 “The Triumph of God’s Grace in the Life of Israel”이라는 주제로 인도했는데, 2박 3일 동안 70여 명이 참가하여 간증과 기도의 시간, 11명의 찬양 팀이 인도하는 감동적인 찬양, 참가자 모두가 ‘예수의 꿈을 꾸는 청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이 해부터 대학부는 청년1부로 명칭이 바뀌었고, 박신영, 임숙현 집사가 함께 교사로 사역하였다. 회원수의 급증으로 아래층에 있는 주일 모임 장소가 비좁아 바깥 복도에도 의자를 놓아야만 하였다.

2004년에는 사도행전을 공부하던 중 주위의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취지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열린 축제”를 4월 셋째 토요일에 갖게 되었고 예상 외로 15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free style rap, testimony, praise, guitar performance, drama, 이영길 목사의 말씀으로 이어진 순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을학



2002년 대학청년부와 홍동욱 담당집사 (1999-2007)

기가 되어 열린 축제를 다시 한번 더 하기로 결정하였고, 어려움은 있었지만 10월 행사일에는 300여 명이상이 참석한 큰 모임이 되어 첫 번보다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다. 청년1부는 100여 명의 회원으로 늘어났고, 리더들인 임원들과 순장, 찬양팀, 차량팀 등이 협력하여 홍동욱 집사의 지도로 공동체 사역을 이끌어 나갔다.

2005년 3월에 Brian Bullock Gospel Team의 찬조 출연으로 열린 제3회 열린 축제는 약 200여 명이 모였다. 9월에는 영어성경공부 그룹을 신설하였고 계동성 집사가 사역에 참여하였다. 11월 Korean Cultural Festival에서는 전통 마당놀이, 영어 통역팀, 사물놀이팀으로 봉사하였다. 2006년 3월에는 제 4회 열린 축제를 열었고, 10월에는 배요한 목사를 강사로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는 주제로 가을 수련회를 갖고, 11월에는 교육관 건립을 돕기 위해 “찬양과 기도가 있는 성전건축의 밤”을 주최하였다. 2007년 초에 국제 CCC에서 미 전도 종족 사역을 하는 박태수 선교사를 강사로 한 수련회는,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로의 부르심에 대한 도전이 있었고, 이 해 8월에는 4명의 청년1부 회원이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단기 선교에 참여하고 돌아왔다.

홍동욱 집사는 장로로 안수 임직받고 2008년부터 홍보위원회를 맡게 되고, 2월부터 이요한 목사가 청년1부를 인도하게 되었다. 이요한 목사는 2008년부터 청년1부의 목표를 William Carey의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로 정하고, 기본모임에 중보기도 모임을 주일 오전에 시작하였다. 특별 봉사 활동으로 또래모임을 중심으로 Homeless에게 샌드위치 만들어 나눠주기, 교회 주변과 브루클라인 거리 청소, 저소득층과 지체장애 아동을 위한 학용품 만들기를 했으며, 불우이웃을 위한 음식바자도 열었다. 10월에는 뉴잉글랜드 교회협의회에서 주최한 보스턴 청년연합부총회에도 참가하였다.

2009년 청지기 청년1부는 봄, 가을에 이요한 목사의 지도로 리더십 트레이닝을 가졌는데, 3명의 간사, 4명의 임원진, 7명의 순장, 9명의 찬양 팀이 참가해서 팀워크를 강화하고 사역을 전개해 나갔다. ‘실 만한 물가’ 주일 모임, 금요집회 외에 청지기 제자학교를 매주 수요일 저녁에 정기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는데, 제자학교는 처음으로 10명이 수료하였다. 봄, 가을 수련회, 쉼의 밤 참여 외에도 MA주의 기독교 부흥 유적지를 돌아보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 조지 핏필드 목사, 무디 목사의 신앙과 목회, 바로 이곳에서 일어났던 미국 1, 2차 대 각성운동을 되돌아 보는 기회를 가졌다. ECC 건축헌금 모금을 위한 바자를 해바라기 유년초등부와 함께 추진하여 기금 모금에 협조하였다.

2010년의 표어는 “기도하는 청년1부”로 정하고, 봄 가을 학기초에 약 2주간 ‘Everlasting Vision, Neverending Prayer’ 라는 주제의 새벽기도회를 가짐으로써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였다. 4월 봄 수련회는 White Mountain 에서 공동체 중심의 훈련 기간을 가졌고, 10월 가을 수련회는 뉴저지 필그림교회



2012년 봄 수련회와 담당 이요한 목사 (2008-현재)

에서 시무하는 송용섭 부목사의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 ECC Open House 때 입당예배 순서를 협조하였고, 봄, 가을로 교회 내부 페인팅 봉사를 하였다. 회장단의 임기를 School Calendar에 맞추기로 하고 새 회장단을 7월에 선출하였다. 2011년 표어는 “Seek the Lord”로 정하고, 청년1부 주일성경공부에 《말씀과 함께》 교재를 사용하기 시작함으로써 전교인이 함께 나누는 성경공부에 동참하기 시작하였다.

1월에는 신년맞이 청년연합예배를 부부청년 부, 청년2부와 함께 함으로 큰 은혜를 받았고, 사순절 기도회에 여러 청년들이 참여하여 주님의 사랑과 고난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는데, 소수의 청년들은 한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였다. 6월에는 콜롬비아 단기선교 기금모금을 위한 바자를 열어 수익 전부를 현금했고, 중고등부 학생들을 초대하여 함께 야외예배를 갖기도 하였다. 가을 학기부터는 각 대학 캠퍼스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동산모임을 구성, 교회뿐만이 아니고 캠퍼스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만나는 체제를 갖추었다. 40여 명이 모이는 청년1부의 구성원이 유학생보다 2세, 1.5세가 더 많아지면서, 연휴나 방학 때는 집으로 돌아가는 청년들이 늘어나 프로그램을 조정하기도 하였다. 10월에는 본 교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에서 주최한 환경세미나에 모두 참여하였다.



가을 수련회 (2012)

2012년 표어는 “Passion for His Name”으로 정하였다. 청년1부는 그 수가 50여 명으로 늘어났으며 이요한 목사의 지도 아래 4명의 간사, 8명의 임원, 6명의 동산지킴이, 8명의 찬양팀이 리더가 되어 많은 사역을 진행하였다. 토요일 새벽 5시부터 국내선교회, 청년2부와 함께 Greater Boston 지역에서 무숙자를 위한 봉사 활동을 시작하였다. 봄 수련회는 ‘친구 만들기’라는 주제로 58명이 참여하여 White Mountain 지역에서 가졌다. 강사 뉴욕프라이스교회 고성진 목사가 ‘만남, 그리고 소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가을 수련회에는 48명이 참가하였다. 여름방학 때는 수요일새벽기도 모임에 이요한 목사와 간사, 리더들이 진행을 맡았다. 2013년의 표어는 “just like Jesus”이었고, 보스톤 지역의 젊은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행동을 따르는 청년들이 되고자 노력한 한 해였다. 금요 찬양집회는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와 ‘현실에 닿아 있는 살아있는 영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고, 성경공부로 모이는 주일동산모임도 6개 그룹에 두 개의 영어그룹이 더 형성되었다. 토요일 새벽에 Homeless Shelter 로 무숙자들을 찾아가 샌드위치와 함께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나눠주는 선교활동도 계속하였다. 교회 내의 여러 행사, 쉼의 밤, 60주년 한국문화축제, 음악회 등에 참여하여 협조를 하였다.

또한 2012년에 시작한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주중 새벽 6시에 모이는 기도회로 만들어 학교나 숙소가 교회 근처인 학생들이 참여하여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였다.

이요한 목사는 Harvard Divinity School에서 유학생생활을 시작한 2006년부터 보스톤한인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며, 2008년 2월부터는 청년1부 담당 전도사로서 사역을 시작하였고, 5월에 한국으로 나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돌아와서 현재까지 사역하고 있다. 현재 이요한 목사는 청년 1부 외에 주일 아침 강의식 성경공부를 인도하고 있고, 교회 사무 행정도 돕고 있다. 또한 이요한 목사는 2010년부터 일년간 유년초등주일학교 임시목회자로 사역하기도 하였다. 이요한 목사는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와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 송파구 광성교회(예장 통합)에서 5년 동안 교육전도사로 사역한 경력이 있으며 2009년 5월 고든콘웰신학대학교에서 구약학 신학석사 과정을 끝냈다.

### ■ 청년부, 청년2부로서 활발한 사역 전개

5년 반 동안 청년대학부를 이끌어온 이철 전도사는 1996년 4월 BU에서 종교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였다. 담당전도사를 찾은 동안 청년부 회장 서명구, 부회장 조유미를 중심으로 한 임원진이 사역을 담당하였다. 이 기간 동안 보스톤노회의 Roxbury 장로교회 증축기금 모금을 위한 음악회를 열어 약 \$3,500의 기금을 모아 전달하였고, Dorchester 흑인교회에서 열린 The Second Gospel Academy Award 합창제에도 참가하고, Quincy에 있는 Father Bill's Place에서 Homeless를 위한 봉사 활동을 하는 등 많은 Outreach Program을 펼쳐나갔다.

1997년 10월부터는 BU 신학교에 재학 중인 김형곤 목사가 청년회 담당 교역자로서 사역을 시작하였다. 당시 청년부원은 25명 정도로 모두 미혼청년들인 대학원생 또는 직장인이었다. 주일모임, 금요성경공부, 토요일기도회 모임과 함께 TGIS(Thank God It's Sunday) 프로그램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주일에 배 후 식사를 나누며 친교, 신앙 세미나 등을 가졌다. 8월과 9월에는 Quincy에 있는 Father Bill's Place에 가서 저녁식사 봉사를 하였다. 또한 한국에서 희귀암을 치료하기 위해 보스톤에 온 어린이 김도희양과 그 가족을 위해 청년부 중심으로 헌신적인 봉사와 많은 기도의 모임을 가졌는데 비록 김양은 8월초 소천받았지만 이를 통해 많은 교우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안에서 하나 되는 큰 은총을 받았다.

김형곤 목사는 1998년 이사야서 6장 13절에서 ‘종말의 어려운 시대에 있어서의 희망이요 교회의 기둥으로서 하나님의 역사에 끝까지 남을 자들(Remnant)’의 모습을 가진 청년부를 지향하기 위해 ‘그루터기(Stump) 청년부’로 부르기를 제안하였다. 청년부의 발전으로 1998년 말부터 재적인원 110명 이상이 되어 연령과 배경 등의 차이로 하나의 청년부로서는 모두를 수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5개월간 설문지 등을 통한 연구 결과 ‘연령’과 ‘결혼’의 두 요소를 고려하여 세 개의 그룹을 만들기로 하였다: 제1청년부(27-30세), 제2청년부(31세 이상), 부부청년부(결혼한 부부). 1999년 말에는 세 그룹이 고루 발전하여 각 그룹이 평균 55명 정도 모이게 되었다.

1999년은 “비전 안에 굳게 서는 청년부”, “다양함 속에 하나 되는 공동체”, “겸손히 섬기는 청년부”의 세 가지 비전으로 기도모임과 정기모임을 강화하였다. 4월에는 Evangelical Baptist Camp(Ashford, CT)에서 강사 김한요 목사의 “삶의 이정표 update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가진 수양회에 40여 명이 참석하여 새로운 헌신의 결단을 하였다. 11월에는 해외선교위원회에서 준비하는 페루단기선교를 위한 음악회를 청년부원들이 주축으로 열어 각자 선교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하였다. 2000년에도 계속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새로이 수요일 기도회, 토요일 기도모임과 QT 모임을 가지며, 찬양예배를 강화하면서 누가 복음을 공부하였다. 연변의 한 대학생 형제를 돕기도 하고, 교회학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전교인수양회의 준비위원으로, 집사회를 도와 교회 청소도 하는 등 청년부원들이 여러 사역에 참여하였다. 7월부터 12월까지 청년부원들이 Habitat for Humanity를 통해 무주택자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했고, 모금운동을 위하여 부부청년부와 함께 Concert for Habitat for Humanity를 열기도 하였다. 보스톤 지역의 청년대학생들의 연합집회인 Revival 2000에 청년들이 행사를 도우며 참여하여 말씀의 은혜에 동참하였다.



2001년에는 사도행전을 공부하기 시작하였고, 일주일 동안 성경공부 리더들을 훈련시키고 조장도 양성하여 성경공부 그룹을 4개조에서 5개조로 늘렸다. Habitat for Humanity 사역은 5월까지 계속되어 마지막 Opening Ceremony에도 참여하였다. 한 달에 두 번씩 Food Bank 사역도 계속했으며, 연합 집회 Revival 2001에도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였다. 5월 말에는 대학부와 함께 국내선교부의 Arizona American Native 단기선교에 5명이 참여하였고, 7월 Peru 단기선교에도 김형곤 목사 외 4명이 참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을 누렸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김현구 집사는 청년2부 부장집사로서 사역을 도왔다.

2002년에 김형곤 목사는 사도행전 공부를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na) 형식에 의하여 말씀을 지적으로만 접근하지 아니하고 묵상 훈련을 통한 전인적 접근을 시도하여 “바른 믿음-바른 삶”을 지향하는 균형 잡힌 신앙의 젊은이들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3월에는 Evangelical Baptist Camp에서 장경철 목사(서울여대 교수)를 강사로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란 주제로 수련회를 가졌다. Habitat for Humanity 사역도 계속하였고, Peru 해외단기선교에는 6명의 청년들이 참여하였다.

2003년에는 보스턴한인교회 회년을 맞아 표어를 ‘회년을 누리며 말씀 위에 더욱 굳게 서는 청년부’로 정하고, 9월에 청년부 자체의 신앙고백서를 작성하고 청년부 신앙고백의 밤을 가졌다. 3월에 Greater Boston Food Bank에서 can food 정리 봉사과 한 달에 한 번씩 Rosie’s Place 봉사를 하였다. 리더 및 임원 수련회가 4월에 김운진 목사(밀알장로교회, NH)를 강사로 ‘성숙한 크리스천’이란 주제로 Alton Bay Conference Center(NH)에서 있었다. 전교인 탁구대회를 주최했고, 김석균 전도사를 초청하여 간증과 찬양의 시간을 가졌으며, 야외예배, 헌신예배 등 행사를 가졌고, 청년들이 여러 가지 회년행사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였다.

2004년도 표어를 ‘말씀에 더욱 굳게 서는 청년2부’로 정하였다. 3년 동안 시도한 Lectio Divina의 말씀 만남이 자리를 잡았고, 성경공부 그룹도 7개조로 늘었으며 영어권 청년들을 위해 영어그룹이 새로 시작되었다.

4월에는 Alton Bay Conference Center(NH)에서 강준모 목사(킨지영생장로교회)를 강사로 초청하여 수련회를 가졌고, Chestnut Hill Reservoir 정화 활동과, 뉴욕장로교회 청년부의 ‘여호수아 프로젝트’ 팀과의 Boston Common에서의 연합전도활동, 광복절 기념 뉴잉글랜드 한인체육대회 참석과 청년1부와의 연합 헌신예배 등의 행사를 은혜롭게 치러냈다. 김형곤 목사는 학업을 마치고 2005년 9월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8년여 동안 헌신적인 청년부 사역을 하였고, 특히 1999년 청년부원 증가로 결혼한 청년부부들을 부부청년부로 독립시키는 산모의 역할을 하였으며, 해외단기 선교에도 참여하고, 상록 기도회도 섬겼다. 배요한, 박태원 두 협력목사가 함께 청년부 임시교역자로 사역하였다.



2005년 그루터기 청년2부와 김형곤 목사(1997-2005)

김형곤 목사는 처음에는 법학을 전공하면서 대학 캠퍼스 사역에 대한 비전을 가졌다. 법학석사과정을 마치고 해군대학에서 교관으로 법학을 강의했고, 경남대학교에 재직하면서 캠퍼스 사역을 담당하였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M. Div.와 Th. M. 학위를 받고, 전주남성교회에

서 부목사로, 이어 서울 서광교회 담임목사로 섬겼다. 서광교회를 섬기던 중 미국 유학 길에 올라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1997년 기독교윤리학으로 Th. M. 학위를 마치고, 2005년 보스턴대학교 신학부에서 기독교 사회윤리학을 전공하여 Th. D.를 취득하였다. 2005년 12월부터 한일장신대학교 신학과 교수를 2014년 2월까지 역임했고, 현재 광주북문교회를 섬기며 목회에 전념하고 있다.

2006년의 표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로 정하고 ‘말씀에 바탕을 둔 젊은이들의 삶’을 지향하고, 1월부터 6개월 성경통독대회를 시작하였으며, Lectio Divina 형식의 말씀 만남을 계속하였다. 1월의 리더 및 임원원 수련회, 4월의 수련회, 여러 가지 사회 봉사 활동(3월 Boston Rescue Mission 봉사 활동, 4월 찰스강 청소 봉사 활동, 9월 Food bank 봉사 활동), 9월 새교우 환영 야유회,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로서 혹은 찬양대원으로서 열심히 섬기며, 니카라과 해외단기선교에 5명의 청년이 참여하였다. 박태원 목사는 6월에 떠나고 김만규 전도사가 사역을 시작하였다.

2007년 그루터기 청년2부는 “은혜를 고백하는 청년”(고전 15:9-10)을 표어로 정하고, 1월에 Food Bank 자원봉사, 4월에 수련회, 5월에 한국문화축제 봉사, 6월에 찰스강 봉사 활동, 7월에 니카라과 선교 약품 포장 협조, 니카라과 단기선교에 청년1명 참여, 교회 행사 및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등으로 봉사하였다.

배요한 목사가 6월에 한국으로 돌아감에 따라 허신영 목사가 7월부터 사역하게 되었다. 2008년도 같은 표어를 가지고, 주일 2부 예배 후에 모이는 주일 모임(찬양, 친교, 말씀), 금요모임(성찬과 식사, 찬양, 말씀만남), 토요 아침기도회, 1월의 연합찬양예배, 5월의 Rosie’s Place Women’s Shelter 봉사 활동, 5월의 청년부 야외 예배 등 여러 행사를 진행하였다. 김만규 전도사는 7월 새로운 해외 선교 사역을 위해 떠났다.

2009년의 표어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엡 4: 1-4)로 정하고 역시 말씀에 중점을 두어, 1월부터 성경통독대회를 시작하였다. 교회 교육관 건축을 돕기 위해 ECC 비빔밥 기금모금 행사와 청년부 야외예배, 수련회(4월 17일-19일)가 있었고, 니카라과 단기선교에 참여하는 청년부원 후원비를 위한 음료수 판매 등을 하였다. 보스턴 KOSTA에 참석하였고, 청년부 헌신예배, 추수감사절 식사 및 교제 시간 등을 가졌다.



2005년 그루터기 청년2부와 김형곤 목사(1997-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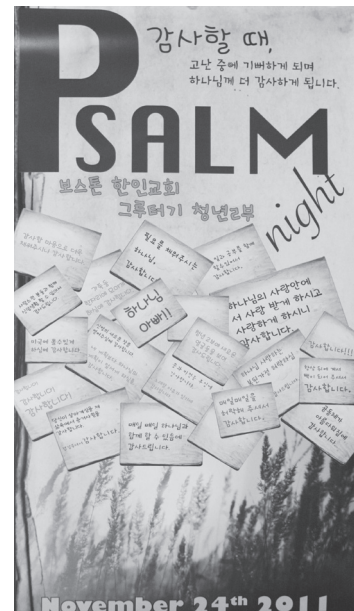


Charles River Cleanup (2007)



2008년 그루터기 청년 2부와 허신영 목사 (2007~2012)

2010년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엡 4:13) 참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요 사도로서의 청년부 공동체를 지향하며, 주일 모임에 간증의 시간을 시작했고, 1월에는 지난 해에 이어 청년1부와 함께 열흘간 특별새벽기도 모임을 가지고 9개월간의 성경통독대회를 시작하여 매주 일 예배 한 시간 전에 모여 성경을 같이 읽었다. 2월에는 성경퀴즈대회, 4월에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가졌으며, 7월에는 니카라과 단기선교 물품 준비 협조, 8월에 보스턴 KOSTA에 참석, 9월에 웨마의 밤과 ECC 개관식 협조, 11월에 ECC Open House 자원 봉사를 하였다. 11월에는 감사를 주제로 예배 및 특별순서로 구성된 시편의 밤(Psalms Night)을 처음으로 가지며 Thanksgiving Dinner도 같이 나누고, 12월부터 Harvard Square Homeless Shelter 봉사를 시작하였다. 2011년의 표어는 “하나님 나라를 비추는 그루터기 청년2부”(마 5:13-16)로 정하고, 2월에는 4복음서 통독과 QT 나눔 시간을 가졌고, 6월에는 ‘성경교향곡’, 8월에는 ‘Finally Alive’ 성경공부를 시작하여 연말까지 계속했으며, 매월 기도회와 찬양모임을 따로 가졌다. 10월에는 Eco-Seminar에 참여했고, 11월에는 ‘Ruth’ 공연을 여러 청년들이 협조하였다.



2012년 청년2부의 등록회원 수는 50명 정도였다. 평균 30~35명 정도가 금요 모임 및 주일 성경공부에 참여하였다. 4월에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비전으로 수련회를 가졌다. 11월에는 청년1부와 함께 두 번째 ‘시편의 밤’ 행사를 가졌는데 이를 위한 수요일기도회는 행사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Homeless Shelter 봉사 활동도 하였다. 12월에는 청년1, 2부 연합 예배로 모두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12월 말에는 귀국하는 허신영 목사 송별모임과 Christmas lock-in 시간을 함께 가졌다.

허신영牧사는 2002년 장신대에서 M.Div.를 받고 2007년 보스턴 대학교에서 S.T.M.을 마쳤다. 2007년 보스턴대학교에서 Ph.D. 박사과정을 시작하면서 본 교회에서 청년2부를 맡아 2012년까지 청년들을 위한 사역에 헌신하였다. 2007년 가을부터 난치병이자 희귀병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본 교회 청년들과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에 힘입어 2012년 병에서 완쾌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받았다. 현재는 한국 수지영락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

2012년 9월부터 윤경문 행정부 목사가 청년2부 임시담당 교역자로 현재까지 사역하고 있다. 2013년 1월에는 일주일간 새벽기도회를 가졌고, 2월에는 형제의 밤/자매의 밤을 따로 가져 좀더 깊은 친교의 시간을 가지고, 3월에는 친구초청예배를 드렸다. 4월에 Sharon 구세군 수양관에서 최혜정 목사(전 소망교회 대학부 담당목사)를 강사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동체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가졌다. 10월에 사해문서 전시를 같이 관람했고, 11월에는 시편의 밤을 1부는 찬양예배 및 시 낭송, 2부는 영상편지, 라디오스타, 특송, 간증, 및 행운권 추첨 등으로 진행했는데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였다.



### ▣ 부부청년부의 출발과 발전 1999

1999년말 김형곤 목사가 담당하던 청년2부는 발전의 계기를 맞아 가정을 이룬 만 35세 이하의 부부들이 따로 독립하여 부부청년부를 조직하게 되었다. 부부청년부 회원들은 대체로 학교나 직장에서 활동성이 강한 연령으로, 아이들을 키우느라 여가시간이 별로 없었다. 또 보스턴이라는 지역 특성으로 인하여 회원들의 전입과 전출이 빈번할 수밖에 없었다. 회원들은 자주 바뀌었지만, 부부청년부는 성숙한 신앙인의 가정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의 믿음의 공동체로서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교회사역에도 많이 동참하였다.



부부청년부 발족 준비 모임 (2000)

초기에는 지도교역자 없이 서명구, 김종윤 집사 등의 평신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자치적 성격의 모임으로 운영되었다. 이들 소수의 평신도 지도자들에 의해서 성경공부와 찬양, 기도 모임 등의 은혜의 모임을 이어갔다. 1999년 당시 10가정으로 시작한 작은 모임이었지만, 2000년 1월 부부청년부 수양회를 Littleton, MA에서 이영길 목사의 인도로 가진 후,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장하여 27가정으로 늘어났다.

주일 2부예배 후 정기 찬양 모임을 가졌고, 금요일에는 기초성경공부반과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Sharing반으로 나누어 운영된 성경공부가 있었다. 토요일 오전에는 중보기도 모임을 가졌고, 한 달에 한 번 씩 월례회로도 모였다. 2000년 4월에는 “Who is the Boss?”라는 주제로 김한요 목사를 강사로 Evangelical Baptist Camp, Ashford, CT에서 2박 3일의 수련회를 가지면서 성경적인 남성상과 여성상, 21세기의 성경적인 자녀교육 등을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11월에는 청년부와 함께 Habitat for Humanity를 위한 음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2001년에는 부부청년부의 목표를 1)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2) 기도하는 3)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4) 이웃을 돌보는 5) 주님을 증거하는 부부청년부로 정하여, 부서 전체와 각 개인의 신앙 성숙에 목표를 두었다. 금요성경공부가 매우 활성화되어 대다수의 회원들이 저녁 7시에 교회에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고, 찬양과 성경공부 시간을 가졌는데 서명구 집사, 송근준 집사, 조제열 집사가 리더로서 활약하였다. 3월에는 수련회로 2박 3일 동안 Sharon에 위치한 Wonderland Conference Center에서 최요섭 목사를 모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회원 증가로 보다 효율적인 모임을 위해 부서 내에 자체적으로 세 개의 구역체제(북부, 중부, 남부)를 갖추었고, 주님의 은혜로 2001년에는 6명의 아기들, 2002년에는 4명의 아기들이 태어나 모두 유아세례를 받는 축복이 있었으며, 이러한 전통은 현재까지 매년 이어지고 있다.

2003년은 선교부, 교육부, 문화체육부를 신설하고, 찬양 팀도 구성하였다. 5월에는 La Salette Retreat Center, Attleboro, MA에서 신갈렙 선교사를 초빙한 수련회에 24가정이 참여했고, 본 교회의 회년 기념 이웃초청 한국문화축제에 참여하였다. 9월에는 배요한 목사가 부부청년부 협력목사를 맡게 되어 성경공부 리더 교육과 한 달에 한 번씩 특강을 갖게 되었고, 11월에는 첫 회년 축하제를 은혜마을과 함께 도우며 열심히 활동하였다. 2003년 일 년 동안에 7가정이 귀국 또는 미국 내의 새 직장을 찾아 이주하여 많은 회원 전출이 있었다.

2004년 4월에는 Sharon에 있는 Wonderland Conference Center에서 배요한 목사를 강사로 17가정이 모여 수련회를 가졌는데,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 성숙, 친교와 협조를 도모하며 복음선교 및 이웃봉사를 부부청년부의 목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 10월에는 ECC 건축을 위한 찬양의 밤에 은혜마을과 함께 참가하였다.



야외모임 (2005), 협력목사 배요한 (2003-2007)

2004년 말에는 회원이 35가정으로 늘어났고, 20가정 정도가 정기적인 성경공부에 참여하였는데, 2005년 초부터 배요한 목사는 생명의 삶 교재를 통한 큐티 교육에 중점을 두었고, 9월에는 새 성경공부 리더를 선출하였다.

2005년에는 임원단에 찬양부장, 내무부장, 문화체육부장, 정보부장, 환영부장, 친교부장, 선교봉사부장을 추가하여 늘어나는 회원과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었다. 이주가정도 있었지만 일 년 동안에 15가정이 새로 들어와서 계속 회원이 증가하였다. 2007년 4월에는 박은우 목사를 강사로 수양회를 가지면서 새 교우들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졌고, 5월에 본 교회에서 개최하는 한국문화축제에 김태수/김혜영 부부가 전통혼례를 선보이기도 하였다. 6월에는 담당 배요한 목사가 한국으로 돌아감에 따라 김만규 전도사가 새로 맡게 되었다. 7월에는 김민준/이현주 부부가 니카라과 단기선교에 참여하였고, 8월에는 배성주 교우가 아프리카 단기선교를 다녀왔다. 2007년에도 8가정이 한국이나 타주로 이전했으나 새로이 18가정이 회원으로 등록했고, 8명의 아기가 태어나는 축복이 있었다.

배요한 목사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보스톤한인교회의 여러 부서를 섬겼는데, 50주년 회년 기념 신앙고백서를 만드는 작업에도 참여하였다. 한국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신학과와 신학대학원을 졸업(M.Div)하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유교철학을 전공하였다(M.A.). 보스톤대학교에서 신학박사(Th. D.) 학위를 받고 귀국,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일반학(철학 담당)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8년 부부청년부와 소기범 목사(2008-2010)

2008년 9월부터 소기범 목사가 담당 목회자로 사역을 맡았다. 2009년도 부부청년부는 임원단이 내건 5가지의 목표인 “말씀, 기도, 교제, 봉사, 선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공동체가 되고자 노력하였다. 특별히 4월 수양회에서는 “결혼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와 치유”라는 주제로 부부청년부 가족들의 사랑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정기적인 주일모임과 금요기도 모임, 월례회 외에 한 달에 한 번씩 수요일 저녁에 요나서, 기도 워크샵, 하나님 뜻의 분별, 마가복음, 기도, 영성생활, 영적 성장의 길등을 주제로 성경공부 시간을 가졌다. 니카라과 단기선교에 채진병/채수경 부부가 참여하였다.

2010년은 새 목표로 “부부청년부 공동체의 회복”을 설정하고, 수요성경공부, 월례회, 금요기도 모임과 조별 모임을 활성화시켜 공동체가 하나되는 해였고, 4월에 “사랑의 공동체”라는 주제로 소기범 목사와 최희안 목사를 강사로 Wonderland Conference Center에서 가진 수련회에 많은 가정들이 참석해 사랑의 공동체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일 년 동안에 11가정이 새로 부부청년부에 등록하였다. 8월에 담당 소기범 목사가 귀국함에 따라, 9월부터 김건철 목사가 담당 목회자로 사역하게 되었다.

2011년부터 김건철 목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 말씀과 기도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는 자녀교육을 강조하면서, 부서 내에 지역별로 네 구역을 만들어 회원 가정들간에 정기적인 말씀 나눔, 중보기도와 친교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였다. 2012년 김건철 목사의 지도로 매월 두 번씩 조별 인도자 모임을 가졌고, 이를 토대로 열린 조별 모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감사를 나누게 되었고,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자매들을 중심으로 한 성경 통독 모임이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김건철 목사의 인도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읽기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주일 모임 전에 점심을 같이 하기를 시작하였고, 매월 격주로 각 가정을 돌아가며 조별 모임을 가졌으며, 형제/자매 기도모임을 통해 중보기도를 활성화시켰다.



성경공부 모임 (2012)

2013년은 “나눔으로 하나 되고, 감사함으로 풍성해지는 부부청년부”라는 표어로 매주 찬양과 말씀으로 시작하는 모임을 갖고 있다. 새롭게 마련된 세미나와 나눔의 시간을 통하여 개개인의 능력을 활용하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소그룹 모임을 4개조로 나뉘서 매월 두 번씩 조별 모임을 각 가정과 교회에서 가지며 활성화시켰다. 2012년의 1차 성경통독 모임에 이어 2013년에는 2차 성경통독 모임을 김건철 목사의 인도로 약 20여 명의 부원들이 1월 19일부터 한 달 동안 총 18회 가졌는데 부부가 함께 참여하여 각 가정 내에 복음을 정착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은혜를 더하였다. 4월에는 2박 3일 동안 “하나님께 속한 가정”(Belonging to God)이라는 주제로 Wonderland Conference Center에서 가진 수련회에 어린이들까지 총 56명이 참석하였다. 이영길 목사와 김건철 목사의 말씀을 통하여 ‘너와 내 집이 처음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속한 가정을 이루도록 언단하고 하나님께 서약’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8월에는 전 부원이 아픔을 통해 더욱 성숙하는 경험을 하였다.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고 태상민 형제를 천국으로 먼저 보내야 했던 아픔을 겪었지만, 사고 소식이 전해진 후부터 장례식 진행과 남은 가족들이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가기까지 약 한 달간을 대부분의 부원들이 매일같이 모여 사고를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며, 부모님과 남겨진 가족을 위로하고 돕는 사랑의 수고를 같이 하였다. 부원 모두가 사랑의 섬김으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였으며, 주 안에서는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귀한 소속감을 경험할 수 있었다. 보스톤한인교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의 여러 분야에 앞장서서 봉사했으며, 집사회와 여선교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도 참여하여 봉사하였다. 교육위원회 소속 부서로서 젊은 세대와 장년부 사이를 잇는 다리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교회의 중심 세대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부부청년부 성경공부 김건철 담당목사 (2010-현재)

김건철 목사는 대학 시절 목회와 선교에 소명을 받고 장신대에 전학하여 신학 수련을 시작하였다. 서울 영락교회와 영은교회에서 Youth Pastor로 사역하였고, 이후 서울 흥광교회에서 전임 부목사로 시

무하던 중 미국 유학의 길에 올랐다. 장신대에서 M.Div.와 Th.M. 학위를, 언더우드 선교사의 모교인 뉴브런스윅신학교에서 M.A. 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는 보스턴대학교 신학부에서 기독교 역사와 선교를 전공으로 Ph.D. Candidate 과정 중에 있다. 보스톤으로 이주한 이듬해인 2010년 9월부터 본 교회 부부청년부 담당 목사로 사역하고 있으며, 뉴욕 장신대 선교학과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건철 목사는 부부청년부 부원들이 보스톤한인교회를 장차 이끌어갈 젊은 주역들을 상기시키며, 여러 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 ■ 주일 성인 성경공부반의 성장

이영길 목사는 교회성장의 관건은 성경공부 모임에 있다는 신념으로 시무 첫 달부터 성인들을 위한 강의식 성경공부를 매주 주일 아침 예배 전 오전 10시 반부터 아래층 소예배실에서 30분씩 진행하였다. 1995년 첫해에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공부하였고, 1996년에는 누가복음을 공부했는데, 이영길 목사는 많은 교우들이 설교에만 의지하여, 성경공부를 소홀히 하는 것을 우려하였다. 1997년부터는 성경공부 시간을 한 시간으로 늘리고 에베소서 공부를 했는데, 이성혜 사모가 찬양 피아노 반주를 맡았고, 박영철 집사가 진행 협조를 하였다. 1998년에는 에베소서를 끝내고 시편을 공부하였다. 참가자들도 30여 명으로 늘어났지만 녹음테이프를 만들어 좀더 많은 교우들에게 배포하기 시작하였다. 1999년에는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과 초대교회를 통해 현대 교회상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고, 녹음테이프도 계속 제작 배포하였다. 2000년부터는 이영길 목사 외에 여러 강사들이 함께 주일 성경공부를 인도하였다. 김형근 목사의 누가복음 강해, 최훈진 목사의 평신도 지도력 강해, 이윤식 회장의 연변 희망촌 보고, 박사무엘 목사의 빌립보서 강해, 윤경문 전도사의 마가복음서 강해 등이 포함되었다. 2000년부터는 김동환 집사가 진행 협조를 하였다.

2001년부터는 여러 강사가 진행하였다. 윤충렬 목사, 박사무엘 목사, 윤경문 전도사, 이용학 전도사, 신영각 집사, 최훈진 목사, 이윤식 회장, 우수명 목사, 배요한 목사 등이 성경공부 외에 여러 가지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2002년도는 박사무엘 목사가 하박국 강해를, 신영각 집사가 “내 기도의 영적 좌표”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고, 윤경문 전도사가 마가복음, 에스더 강해, 배요한 목사가 여러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2003년부터 오세경 집사가 진행 협조를 맡았는데 평균 15명 정도가 출석하였다.

2003년 1월부터 8월까지 배요한 목사가 주일성경공부반에서 28주간에 걸쳐 인도한 요한복음 강해에 평균 22명이 참여하여 좋은 반응을 보였다. 이어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강해를 하였다. 윤경문 전도사, 옥성득 목사, 소기범 전도사도 성경공부를 인도하였다. 2004년 10월부터는 배요한 목사의 인도로 기독교사상사를 공부했는데 교재도 구입하고 매주 출석인원도 40여 명이 되는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2005년 3월까지 계속되었고, 배요한 목사의 성경강해는 로마서와 시편으로 이어졌다. 2006년부터는 배요한 목사는 ‘성경 맥 잡기’라는 주제로 거시적인 안목에서 신구약 성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들여다 보는 강해를 하였으며, 평균 25명이 참석하고 김동규 집사가 진행 협조를 하기 시작하였다. 특별히 이 시간을 위해 김계숙 권사가 매주 피아노 연습을 해서 반주를 계속하였다. 2007년 6월, 5년동안 성경공부를 지도해 오던 배요한 목사가 귀국하자 남성혁 목사와 이요한 목사가 석 달씩 맡게 되었다. 2008년에는 목회 인턴과정에 있던 박찬석 전도사가 요한복음을 4개월간 강의했고 또 4개월 동안 기독교 성지에 대한 공부를 했으며, 한동화 전도사가 신구약 상호 연결성에 대해, 차동혁 목사가 ‘에니어그램’으로 신구약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9가지 유형으로 분석하는 강의를 하였다.

늘어나는 교육2부의 사역과 ECC 새 건물의 건축과 함께 성경공부 부서를 좀더 강화하고자, 2009년부터 교육3부위원회를 신설하고 성인 소그룹성경공부반, 세례교육반, 수요성경공부반이 이 위원회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교육관 공사관계로 교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주일장년공부반은 5월 이후에는 휴강을 하였고, 건축 완공과 함께 새로이 시작할 성인 소그룹성경공부반을 교인들에게 광고하며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 ■ ECC 완공과 함께 성인 소그룹 성경공부반 시작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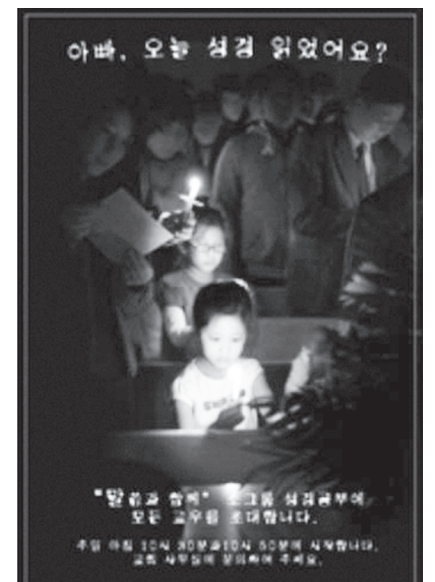
보스톤한인교회의 숙원이던 ECC 건물이 완공되자 이영길 목사는 2010년 4월 그 동안 ECC 건축으로 미루어 왔던 성인 소그룹성경공부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당시에는 교인들에게 ‘소그룹 성경공부’란 생소한 개념이었고, 많은 교인들이 구역성경공부를 통해 그룹으로 성경공부를 해오긴 했지만, 대부분은 목사나 전도사 등의 교역자가 인도하는 강의식 성경공부에 익숙하였다. 1960년대 중반부터 강의식 주일성인성경공부를 해오긴 했지만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더욱이 2009년에는 건축공사로 인하여 잠시 중단 상태에서 새로 시작한 성인 소그룹성경공부는 교회 전체적으로 성경공부에 대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이영길 목사는 영국의 복음주의자 John R. W. Scott의 이중청취(Double Listening)를 예로 들며,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목소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포스트 모던 시대에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찬 문화와 소비주의가 만연한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일임을 강력히 역설하였다. 우선 4명의 인도자와 4명의 부인도자를 선정하여 3개월여 동안 매주일 집중 훈련을 시키고 그룹성경공부에 등록을 하도록 권고하였다.

- 1조(인도자 권복태 집사, 부인도자 이숙재 권사)
- 2조(인도자 이선영 장로, 부인도자 유승오 집사)
- 3조(인도자 박신영 집사, 부인도자 김태만 집사)
- 4조(인도자 심윤보 집사, 부인도자 정하균 집사)

2010년 9월 19일 첫 성인 소그룹성경공부는 등록을 마친 35명을 4반으로 나눠서 실시하였는데, 참가자들의 의식도 차차 변화하기 시작하여 1년 후 2011년 9월부터는 부부청년반이 시작되었고, 2개 반은 인원의 증가로 분반되어 7개 반으로 늘어났으며, 후에 이요한 목사의 강의식 성경공부반과 영어성경공부반을 포함 모두 9개 반이 되나, 2012년에는 참가자들이 70명 정도로 늘었고, 2014년 현재 매주 평균 85명 정도가 참석하고 있다. 모이는 시간은 반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도 매 주일 아침 1부예배와 2부예배 사이에 한 시간 정도 공부하고 있다.

교재는 미국장로교 한국어자료개발실에서 계간으로 출간되는 《말씀과 함께》를 사용하고 있다. 이 교재는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토의와 대화를 통한 소그룹성경공부를 위해 특별히 개발되었는데, 한인 목회자들에 의해 쓰여지고 있으며, 이영길 목사도 집필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말씀과 함께》는 매 성경공부마다 ‘마음열기’, ‘말씀듣기’, ‘말씀 깨닫기’, ‘말씀 따라 살기’, 그리고 ‘돌봄과 나눔’의 다섯 단계로



주일 성인 소그룹성경공부 포스터

구성되어 있어, 개인 신앙의 결단과 함께 공동체 신앙을 내세우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 실천하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

각 반은 연령과 남녀에 따라 약 15명 정도로 구성되었으며, 인도자와 부인도자는 매월 첫번째 주일은 이영길 목사에게서, 주중 한 번은 이요한 목사에게서 인도자 교육을 받고 있다. 성경공부는 강의식이 아닌 대화식으로, 참석하는 모든 교인이 함께 말씀하며 듣도록 하는 성경공부로 진행하고 있다. 매주 만남을 통하여 성경공부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난 이야기, 기쁨과 슬픔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는 이야기, 자녀교육과 신앙 이야기, 흔들리고 부족했던 신앙이 자라나는 이야기, 성경 말씀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야기 등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 많은 참가자들이 은혜를 받으며 신앙의 성장을 체험하고 있다. 한국에서 단기 연수를 왔던 교우들이 성경공부에 참가해서 신앙적으로 성장하여 한국에 돌아간 후에도 공부했던 그 방법대로 구역 모임이나 성경공부를 인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왔다.

당회에서는 소그룹성경공부의 시작과 함께 교육3부위원회를 2009년 새로 구성했고, 2010년 강길원 장로가 위원장으로 사역을 시작했으나 2011년 1월 갑자기 소천을 받은 후 이정규 장로가 위원장을 맡았다. 2012년부터는 권복태 장로가 맡아 크게 활성화시켜 일 년간 성경통독하기, 연례 Group Sharing, 중보기도 모임 등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부위원장으로는 강길원 장로와 함께 시작한 방경남 집사가 꾸준히 봉사하고 있다.

연례 Group Sharing은 2012년부터 해마다 12월 중순에 새로 지어진 Community Center에서 70여 명의 모든 성경공부반원들이 모여 각 반별로 인도자가 반원을 소개하고 말씀 공부에 따른 신앙 간증이나 짧은 연극 혹은 특기 자랑을 나눈다. 특히 일 년 동안 성경 완독한 교우와 개근한 교우들에게는 시상도 하고 있다. 성경을 완독한 교우는 2012년에는 1명, 2013년에는 8명이었고, 개근은 2012년에는 2명, 2013년에도 2명이었다. 2013년 11 월부터는 박신영 장로가 인도하는 안드레반을 중심으로 10여 명의 교우들이 개인과 가정, 교회의 성도들과 각 부서의 기도제목, 한국과 미국의 기도제목, 세계의 재난과 평화문제 등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모임을 수시로 가지고 있다.

2014년 현재 8개 소그룹성경공부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반 이름	인도자	부 인도자	교실	시간	등록인원
베드로반	권복태 장로	홍경자 장로	Room 102	오전 10:30-11:30	15
다니엘반	김동숙 집사	이숙재 권사	B8	오전 10:30-11:30	8
안드레반	박신영 장로	남궁원 집사	B15	오전 10:50-11:50	10
빌립반	이선영 장로	김동규 집사	B14	오전 10:50-11:50	5
요한반	심윤보 집사	김대식 집사	B18	오전 10:50-11:50	8
바울반	정하균 집사	김문소 장로	친교실 오른쪽 방	오전 10:50-11:50	9
부부청년반	한문수 집사	문형근 집사	친교실 내 도서실	오전 10:50-11:50	14
강의식 공부	이요한 목사		B4	오전 10:50-11:50	20

### ■ 새신자 성경공부반(세례교육반)

1996년 7월부터 새신자들을 위한 성경공부반이 시작되었다. 권익석 전도사의 지도로 처음에는 10명의 교우들이 참가하여 1기로 12월 말에 수료하였다. 1997년에는 1월부터 12명이 2기를 시작해서 5월 말에 모두 수료하여 6명의 교우가 세례를 받았고, 3기에는 10명이 수료, 4명이 세례를 받는 축복이 있었다. 권익석 전도사는 새신자 성경공부반에서 새로 믿기 시작하는 교우들이 복음을 바로 깨달아 예배, 봉사와 구원의 확신에 연결시키고, 평신도가 그리스도를 위해 생활 현장에서 인격과 행동으로 전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강조하였다. 1998년 3년째에는 봄과 가을에 두 번 15주의 새신자 성경공부반에 20여 명이 참여하여 11명의 교우가 세례를 받았다.

1999년부터는 윤성철 전도사가 새신자 성경공부반을 담당하게 되어 봄학기에는 6명, 가을학기에는 8명의 교우가 수료하여 11명이 세례를 받았다. 윤성철 전도사는 15주 과정을 통해 구원의 확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공부, 그리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기도, 경건, 승리의 삶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가르쳤다. 2000년에도 계속 윤성철 전도사의 인도로 봄, 가을 두 학기에 모두 10명이 세례를 받았고, 이미 세례 받은 교인도 성경공부에 참여했으며 장현숙 권사가 고문으로 협조했고 박영일 장로도 동참하였다. 윤성철 전도사의 인도로 2001년에는 모두 20명이 수료하여 15명이 세례를 받았고, 2002년에는 14명이 수료하고 10명이 세례를 받았으며, 장현숙 권사가 계속 협조하였다. 2003년부터 윤경문 전도사가 담당하여 목사인 현재까지도 맡고 있다.

윤경문 전도사의 지도로 2003년에는 모두 15명이 수료하고, 13명이 세례를 받았다. 이미 세례를 받았던 몇 교우들도 함께 공부에 참여하여 성경을 개괄적으로 배웠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과 교회공동체의 사역에 대해 배우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의 여정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2004년에는 10명이 모두 세례를 받고 한 명이 입교하는 열매를 맺었다. 2005년부터는 12주 과정의 세례교육과 기독교 기초교리 및 신앙간증을 나누는 가운데, 모두 6명이 수료하고 5명이 세례를 받았고, 2006년에는 4명이 세례를 받았으며, 2007년에는 4명이 수료, 3명이 세례를 받았다.



세례교육반: 윤경문 목사 인도

2008년에도 봄, 가을 학기를 통해 모두 6명이 세례를 받게 되었다. 이미 세례를 받은 교우들도 다수 참여하였으며, 협조를 담당하고 있던 이재환/장현숙 권사 가정이 세례자 파티를 성대하게 베풀어 주기도 하였다. 2009년에도 두 번의 세례자 교육을 통해 모두 7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한 교우는 뉴욕에서부터 여러 주일 보스톤으로 장거리 출석을 하며 교육을 수료하였다. 2010년에도 모두 7명의 교우가 수료하여 세례를 받았다. 2011년에는 세례교육반이 교육2부위원회로 옮겨졌고, 어느 해보다 더 많은 교우가 세례를 받았다. 6월에는 5명의 교우, 12월 성탄주일에는 9명의 교우가 세례를 받았고 2012년에는 6명의 교우가, 2013년에는 2명의 교우가 수료하고 세례를 받았다. 2012년도 부터는 교육2부위원회의 구용한 집사가 협조를 하고 있으며, 세례자 교육과정의 마쳐지면 축하 파티를 통해 세례자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윤경문 목사는 전도사 시기였던 2002년 초부터 2007년 목사로 안수받은 후 현재까지 12년 이상을 새신자 성경공부반을 맡아 오고 있는데, 봄, 가을 12주 코스로 성서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와 예수 그리스

도의 구원의 사건, 실제적인 예배와 교회의 삶을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교우들에게 가르쳐오고 있다. 처음 믿기 시작하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많은 교우들이 이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세례인이 되는 큰 축복이 새신자반을 통해 이루어졌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 **새교우 환영반과 새교우 환영회**



새교우 환영반

매 두 달마다 교인위원회는 새로 등록된 교우들을 환영하고 교회를 소개하는 새교우 환영반을 3주에 걸쳐 갖고 있다. 주일 아침 10시 반부터 한 시간 동안 팔러에서 교회에 새로 등록된 교우들이 가족과 함께 이영길 목사, 당회 대표 장로, 교인위원장과 환영위원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가지는 이 모임은 보스톤한인교회의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첫째 주 모임에서는 이영길 목사가 이야기 식으로 자기 자신의 소개를 시작하면서 모든 참석자들이 본인의 소개를 하고, 보스톤한인교회의 비전과 목회 철학을 나눈다. 둘째 주 모임에서는 현재 구역 및 소그룹 성경공부반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경공부 교재 《말씀과 함께》에 대한 소개와 함께 체험 성경공부를 하고, 셋째 주에는 본 교회가 속해 있는 미국장로교의 성격, 구조, 본 교회의 역사 및 구조 등을 배우게 된다.

3주에 걸친 환영 및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 모든 새교우 가족들은 한 제직의 가정으로 초대되어 애찬을 나누며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더욱 친숙하게 되고, 본 교회의 어느 구역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같이하게 된다. 새교우 환영반을 마친 교우들은 6개월 후 활동 교인(active membership)이 되어 공식적인 교회 등록교인이 된다.



새교우 환영회

■ **제자훈련반**

2000년부터는 새로이 제자훈련반을 개설하여 김형곤 목사가 매주 오전 10시 반부터 한 시간씩 인도하였다. 일 년에 두 학기를 다 마치면 수료하는 과정이었다. 기본 교재는 장로교의 기본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사용했고, 필요에 따라 다른 내용을 보완하기도 하였다. 2000년에는 15명 정도가 강의에 참여했고, 8명이 모든 과정을 수료했으며, 2001년에도 13명이 등록하여 훈련을 받았는데, 장희숙 권사가 진행 협조를 맡았다. 2002년 이후 제자훈련반은 계속되지 않았다.

■ **수요여성성경공부반**

이영길 목사는 1996년 11월에 여성 교우들을 위한 성경공부반을 개설하여 매주 수요일 오전에 한 시간 반 정도 모임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영길 목사가 시무 후 처음으로 시작한 성경공부반으로서 2014년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성경공부에 참석하는 여성들은 20대부터 최고령 90대까지로 거의 모든

연령층이었고 평균 15명 정도가 참석하였다. 2000년에는 에스더서와 잠언을, 2001년에는 시편을 공부하면서 여성에게 필요한 신앙인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었고, 성경공부 후의 다과시간을 통해 성도의 교제를 돈독히 하였는데, 홍경자 장로가 진행 협조를 맡았다. 2002년도에는 이영길 목사의 안식년을 맞아 6개월을 쉬고 신명기를 시작하였다. 2003년에는 전도서, 2004년에는 신명기 후반, 여호수아, 2005년에는 사무엘상을 공부하였다. 평균 15-20명 정도가 참여했으며, 시간도 두 시간 정도로 길어졌고, 가끔 반원의 가정으로 초대되어 공부하기도 하였다.



수요여성성경공부반 이영길 목사 인도

2006년에는 고경아 집사가 진행 협조를 했고, 2007년에는 사무엘하, 열왕기상을 공부하며 홍경자 장로, 김중희 집사가 함께 진행을 맡았고, 2008년에는 주풍실 권사가 진행을 맡았다. 2009년에는 열왕기하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평균 15명 정도 참석하여 공부하였다. 김중희 집사가 진행을 담당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0년에는 ECC 새 건물이 완공되어 수요여성성경공부반도 장소를 아래층 교실에서 ECC 1층의 밝고 깨끗한 방으로 옮겼다. 열왕기하를 끝내고 에스라를 공부하였으며, 2011년에는 느헤미야를 끝내고 갈라디아서를 공부하였다. 꾸준히 12-17명의 여성교우가 참여하는 가운데 97세의 신자경 권사도 매번 참여하였다.

2012년에도 수요일 아침 10시 45분부터 12시까지 ECC Room 101에서 에스더와 룻기를 통해 두 여성을 통한 믿음, 인내, 순종을 배웠고, 역대상을 공부하였다. 성경공부 후의 친교 시간을 통해 성도의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 2013년에는 12-18명의 여성 교인들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 바벨론 포로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과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배웠다.

■ **구역의 성장**

1974년 권진태 목사 시절에는 네 구역이 있었으나, 교인이 증가하고 거주 지역의 분포가 확장되어 구역의 경계가 자주 변동되었고, 1995년 이후에는 보스톤한인교회가 있는 브루클라인을 중심으로 약 30마일 반경에 교인들이 살고 있어 Boston Metropolitan 지역을 거의 다 포함하게 되었다. 홍근수 목사 시대에 활성화된 구역성경공부반은 1984년에는 11개(가나안, 갈릴리, 로고스, 아가페, 벨엘, 기드온, 베다니, 린지, 가스펠, 여호수아, 다락방)까지로 늘어났다가 1987년경에는 6개 구역(가나안, 갈릴리, 다락방, 로고스, 벨엘, 아가페)으로 조정되었고, 1998년 1월 전면적인 구역 재편성 때까지 있었던 구역은 나중에 생긴 베다니를 포함 모두 7개 구역이었다. 모든 구역들은 격주로 모였고, 성경공부는 구역원 모두가 돌아가면서 인도하였다. 각 구역별로 공부하고 싶은 과제를 결정했고, 출석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성경공부 외에도 구역별로 피크닉, 낚시, 스키 등 화목한 소그룹 활동도 많이 진행하였다. 어머니주일에 하는 구역별 찬송가경연대회는 교회 전체의 큰 행사로서 각 구역마다 열심히 모여 우승권에 들기 위한 선의의 열띤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교인수의 증가와 거주지역의 확장에 따라 1998년 교인위원회 구역장회의에서는 구역 재편성에 대해

여 두 번이나 논의하였다. 구역 활동과 지역 전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 보스턴 지역을 6개 교구(북동, 북서, 중서, 남동, 남서, 중앙)로 나누고 각 교구 내에 필요한 수의 구역성경공부반을 두기로 하였다. 각 교구의 교구장은 장로 중에서, 구역장은 신앙과 지도력을 참작하여 제직 혹은 일반 교인 중에서 임명하였다. 구역에는 대학부와 청년부원을 제외한 교인 138가정이 포함되었고, 구역 재편성으로 일부 구역은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활성화되었고, 교회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반이 조성되었다. 구역에 따라 월 1회 또는 2회의 모임을 통해 식사와 친교, 그리고 구역성경공부를 통한 삶을 나누는 말씀 훈련을 하였고, 구역성경공부 인도자들은 매달 초 주일에 목회자와 함께 인도자 성경공부반에서 교육을 받은 후 구역성경공부를 인도하였다. 구역성경공부 외에 청년 1부, 청년 2부, 부부청년부, 영어구역(International Fellowship)은 따로 자체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성경공부를 하고 있다. 2014년 현재 6개 교구의 지역분계는 다음과 같으며 교구관리를 맡은 8명의 교구장은 다음과 같다.

교구명	포함 지역	구역	교구장
북동교구	보스턴 북쪽으로 Rt. 93의 동쪽 지역	북동1	박신영 장로
북서교구	보스턴 북쪽으로 Rt. 93의 서쪽과 Rt. 2 사이 지역	북서1 북서2	박영철 장로
중서교구	보스턴 서쪽으로 Rt. 2와 Rt. 90 사이 지역	중서1, 중서2 중서3, 중서4	안태준 장로
중앙교구	보스턴, 브루클라인, 케임브리지 지역	중앙1, 중앙2 중앙3, 중앙4, 중앙5	조준호 장로
남서교구	보스턴 남쪽으로 Rt. 90와 Rt. 95 사이 지역	남서1, 남서2	최연일 장로
남동교구	보스턴 남쪽으로 Rt. 93와 Rt. 95의 동쪽 지역, 밀튼 포함	남동1	김정선 장로

Note: 2011년부터 중앙2와 남서1 구역이 합동으로 모이고 있음.

### International Fellowship



영어구역 발족 (2009)

보스턴한인교회의 영어 목회(English Congregation Ministry)는 영어예배부가 2003년 베다니장로교회로 독립할 수 있었지만 이들이 예배 장소마저 다른 교회로 옮기자 본 교회 내에 남아 있는 영어를 제1언어로 쓰는 사람, 1.5세, 2세, 외국인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지게 되었다. 같은 해부터 이들을 위해 2부예배에서 동시통역을 시작했으나 이들 영어권 교우들을 위한 신앙공동체는 형성이 되지 않고 있었다. 2008년 8월 교인위원회 주관으로 English Night을 열어 문화권이 다른 교인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처음 만들게 되었고, 당시 김성현 추천 장로를 중심으로 'International Fellowship'이라는 이름으로 구역을 형성하여 모임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2013년부터 10여

가정이 매달 각 가정을 돌아가며 모이고 있고, 대부분의 구성원은 가정을 가진 청년층이다. 유년초등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원, 동시통역자, 방송실 봉사자, 교인위원회, 국내선교위원회 Oasis Café 등에 참여하며 봉사하고 있다.

### 영어예배부는 베다니장로교회로 독립 2003

1989년 3월에 한인2세 및 영어권 교우들을 위하여 시작된 EM(English Ministry)은 1995년 2월까지 김종대 목사, 김종일 목사, 이재원/신승희 부부 전도사에 의해서 인도되었다. 이영길 목사 시무 2개월 전, 1995년 3월 John Hwang 전도사가 임시담당 coordinator로 임명되었고, 네 명의 젊은 신학생 전도사(John Hwang, Soosang Park, Kenny Ye,<sup>2</sup> Esther Cho)가 주축이 되어 영어예배부를 활성화시켰는데, John Hwang과 Soosang Park은 주로 주일 설교를 담당했고, Kenny Ye는 음악 찬양 프로그램을, Esther Cho는 주로 여성 선교를 담당하였다. 한국인 2세와 다른 아시아계 소수 민족으로 구성된 50여 명이 주일 예배에 참석했고, 성경공부는 대학부와 청년부로 나누어져 네 명의 전도사와 함께 하였다. 보스턴한인교회 당회는 1995년 4월에 김내도 장로와 강상철 집사를 Coordinator로 임명하여 영어예배 담당 부목사 청빙을 위한 Mission Study 를 위촉하였는데 7월에 보고서가 준비되었다. 1995년 12월부터는 부원들의 교통편을 위해 school bus를 빌려 운행하기 시작하였다.

1996년 10월부터는 Gordon-Conwell 신학교의 Professor Gary Parrett 목사가 임시목회자로 사역을 담당하게 되어 영어예배부는 드디어 안정된 교회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1997년 4월에는 강길원, 김내도, 김성빈 장로와 영어 회중 대표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매 분기마다 연석회의를 갖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1997년 6월에는 반주자로 Angie Lee를 임명했고, Korean American Young Adult Leaders Conference 에 김내도 장로, 강상철 집사 외 영어예배부 대표 1명이 참석하였다.

1997년 9월에는 Patrick Chen 이 영어회중 담당전도사로 사역하기 시작하였다. 부목사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Julie Choi, Kathy Bae, Carol Won, Kim Jung이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1997년 11월 교회 44주년 봉헌예배에 영어회중은 electronic piano를 헌증하였다. 1998년 4월 Stoney Point에서 열린 YAD(Young Adult Delegate)에는 Edward Kim 교우가 대표로 참석하였다. 당회는 1998년에 영어회중 사무실 장비, 시설, audio system 등에 대한 지원을 했고, Esther Cho, Ed Park, Sang Yoon이 1999년 서리 집사로 선출되었다.

1999년 3월부터는 Bethany Christian Fellowship of Brookline- Ministry of KCB로 공식 명칭을 결정했고, 10월부터는 독립된 영어회중으로서 재정적으로도 보스턴한인교회로부터 독립하게 되었으며, 창립 10주년 기념예배를 가졌다. 1999년 12월 Gary Parrett 목사가 떠나게 됨에 따라, 청빙위원들(Ed Park- Chair, S. Hahn, J. Huh, S. Kang, M. Suh)의 추천을 받아들여 2000년 9월 John Chung 목사가 전임 Associate Pastor로 왔으며, 11월부터는 장로교 헌법에 의하여 Steering Committee가 당회의 기능을 하게 되어 목회행정을 스스로 담당하게 되었다. 2000년 7월 Mike Oh를 비롯한 7명의 영어 회중 교인이 Haiti 단기선교를 다녀왔고, 그 이후로 2006년까지 매년 아프리카 단기선교를 다녀왔으며 2007년에는 타이완에 단기선교를 다녀왔다.

2002년 말부터 독립교회가 되기 위한 New Church Development application을 작성하기 시작했고, 보스턴한인교회 당회에서는 이를 지원하였다. 2003년에는 독립교회 Bethany Presbyterian Church, PC(USA)로서 미국장로교의 보스턴노회의 회원교회가 되었다. 드디어 보스턴한인교회의 EM은 14년

2. Kenny Ye는 2010년 Bethany Presbyterian Church의 중국선교를 다녀오다가, 한국 인천공항 부근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해 소천했고, 같이 동행했던 Gary Parrett 교수는 중상을 입고 아직도 회복 중에 있다.

만에 하나의 독립된 교회를 창립하게 되었고, 모 교회와 나란히 한 노회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서 이민교회의 성공적인 사례의 하나가 되었다. 2008년 교인이 점점 늘어나자 본 교회 인근에 있는 Lawrence Middle School in Brookline 으로 예배 장소를 옮겼다가, 2012년 1월 다시 본 교회로 옮겨왔다. 2014년 3월에 창립 25주년을 맞은 Bethany Presbyterian Church는 현재 본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창립 시부터 현재까지 한결같이 EM 사역을 하고 있는 강상철 장로는 2001년에 장로 안수를 받고 2002년까지 보스톤한인교회 당회원으로 있으면서 영어 회중 사역을 담당했고, 2003년부터는 독립교회가 된 Bethany Presbyterian Church로 파송을 받아, 창립과 함께 새로 안수받은 세 명의 장로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다. 강상철 장로는 Bethany Presbyterian Church의 25년사를 다음과 같이 간략히 기술한다.

### ■ Brief History of the Bethany Presbyterian Church, PC(USA) 1989–2014

Korean Church of Boston (KCB)'s English Worship Service (EWS) held its first worship service on the first Sunday of March of 1989. It was for second generation Korean Americans. For Korean churches in the greater Boston area, it was first established English worship service of its kind. First few years of EWS, it had difficulties with lack of focus and membership. It had not seen much growth with very small group of people.

But, starting in 1995, it has seen significant growth with the leadership of four young seminarians, Kenny Ye, Soosang Park, John Hwang and Esther Cho. They brought enthusiasm and focus to this group. A year later, Professor Gary Parrett of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ame in as an interim pastor while searching for a full time pastor. Under his leadership, EWS matured as a fellowship.

In 1999, two important turning points for EWS happened. To celebrate 10 years of EWS, it named itself Bethany Christian Fellowship of Brookline as it is forming its own identity as a community of believers. Also EWS and KCB agreed for EWS to take its own financial stewardship. In the summer of 2000, Bethany sent their first mission team to Haiti. Since then, every summer, it sent mission teams to Africa until 2006. In 2007, it sent a mission team to Taiwan.

In October of 2000, KCB held an installation service of Rev. John Chung as an associate pastor of KCB in charge of EWS. With his leadership, EWS was chartered as a church, Bethany Presbyterian Church, as a member of PC(USA) in September of 2003. Chartering elders were, Sam Yoon, Ed Park, James Chou and Sang Kang. In February of 2006, Rev. John Chung left Bethany to accept a call from Park Street Church as its mission pastor.

Between 2006 and 2008, Professor David Currie became an interim pastor of Bethany, and Professor Gary Parrett helped with pulpit supply. In April of 2008, Rev. Kevin Manuel was called as a pastor of Bethany and moved its worship service venue to Lawrence Middle School in Brookline

from KCB. In November of 2011, Rev. Kevin Manuel resigned. He eventually got a call from First 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Cambridge as its pastor.

In January of 2012, Bethany moved back to KCB, and Rev. Bart Kelso became an interim pastor of Bethany. His interim term ended in November of 2012. In March of 2013, Rev. Ken Liu was called as a pastor of Bethany. Although last few years Bethany lost significant number of membership, its congregation is very excited to be in this loving community of believers, and looking forward what God has for them.

March of 2014 will be 25th anniversary of KCB starting this EWS ministry, and it has developed as a mature church now. Majority of its membership in early days of Bethany were college and graduate students, but now, majority of its membership are families. 25 years ago, KCB invested that EWS becomes mature congregation in the future.

### ■ 여성교회의 사역 확장

1966년에 발족된 여신도회는 1971년 여성교회로 개칭하며 재발족되어 모든 여교인들이 하나가 되어 교회 봉사, 교인들간의 친목, 선교 활동, 세미나, 여성수양회 등 교회 내부 사역과 대외행사, 교단 활동 등의 교회 외부 사역에도 적극 참여하여, 기독여성으로서 신앙을 다지고 인격을 함양하여 지역사회와 나아가 전세계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여성교회는 매해 11월 초에 정기총회를 가지며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와 봉사부, 친선부, 선교부, 문화부 등을 두고 있다.

봉사부는 매 주일 다과준비와 커피 준비, 부엌 관리, 주방 비품 관리와 청소를 맡고, 친선부는 매번 교회의 크고 작은 행사의 만찬 준비, 절기(부활절, 추수감사절/ 창립기념주일, 성탄절) 만찬과 다과, 떡국 잔치, 보리차 준비, 쉼마의 밤 저녁 준비, 특별 만찬(연합 찬양대 저녁식사, 안수 임직 취임 만찬, 보스톤 지역 대학생/청년부 저녁, 노회 저녁) 접대 등을 주관해 왔고, 문화부에서는 축하, 문안, 위로의 카드를 발송하며 온 교인이 협조하는 헌화로 강단 장식을 담당하고, 제직 임직식과 어머니 주일 코사지 준비 등 봉사를 맡고 있다. 선교부는 바자를 통한 기금 모금으로 건축헌금, 여성교회 기금 마련, 라합의 집(NY) 선교비 후원, 해외 선교지 후원, 어머니주일 찬양제, 경로잔치, 여성교회가 주관하는 수양회, 선교 세미나, 헌신 예배 등을 담당하고 있다.

1995년(회장 김한나)에는 친선부 주관으로 음식 및 특별다과 11회, 헌신예배, 선교세미나와 어머니주일 찬송가 경연대회를 선교부 주관으로 하였고, 영아부를 재조직하였다. 예배 후 친교실에 연로한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석'을 마련하였는데 이 경로석은 오늘날까지 상록기도회원들이 예배 후 모이는 친교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1996년(회장 강경희)에는 담임 목사 생신 축하를 시작하였고, 전교인 수양회 간식 준비, 선교비 모금 비빔밥 판매, 목회자 회의 점심, 교회협의회 연합



동북대회 여성교회 연합수련회 참석 (2000)  
강사 이영길 목사



부흥회의 다과를 마련했으며 10월에 임영수 목사 초청 여성수양회를 가졌다.

1997년(회장 최승주)에는 4월에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동북대회 연합회(KPW/SNE)가 주최하는 여성교회 지도자 양성수련회에 참석하였다. 주일예배를 1부, 2부로 드리게 되어 1부 예배 후 친교도 담당하였다. 1998년(회장 김한나)에는 영아부(신생아로부터 유아반)가 괄목할 성장을 하였다. 여러 교인들의 유아 부품 기증이 있었고 또 어머니들이 순번제로 아기 돌보기를 맡아 조직적으로 실질적 교육까지 실시하였고 후에는 유년초등주일학교에 병합되어 체계적인 교육을 시도하였다. 1999년(회장 오승현)에는 부엌 renovation을 협조했고, 여성 월례기도회를 신설하였다.

2000년(회장 이해승) 3월에는 노인대학 때 만찬 접대를 했고, 4월에는 Stony Point, NY에서 열린 KPW/SNE 연합수련회에 참석하였는데 주제는 “새천년의 한인교회와 교회여성”이었고 강사는 이영길 목사였다. Habitat for Humanity 모금을 위한 음악회 때 지역 미국교회와 공동으로 다과를 제공하고, 행사 시 만찬을 위한 밥솥 2개를 마련하였다.

▣ **뵤뵤 여성교회와 에스더 여성교회로 재편성 2001**



여성교회 수련회, 강사 전구 목사 (2001)  
뵤뵤와 에스더 여성교회로 분리

2001년에는 교회의 급속한 성장으로 여성 교우들이 늘어나고 사역이 확대되면서, 여성교 회원들을 더 많이 사역에 동참케 하려는 취지에서 여성교회를 제 1부 뵤뵤 여성교회(45세 이상)와 제 2부 에스더 여성교회(45세 미만)로 재편성하였다. 이에 1월 임시 총회에서 두 여성교회의 신입원단과 고문의 인준과 헌장 수정을 하였다. 뵤뵤 여성교회(회장 강정임)는 대외적인 행사에 참여하며 행사 주관을 하고, 에스더 여성교회(회장 김정림)는 교회 내의 행사와 살림을 맡아 주관하며 모든 행사는 연합으로 참여, 봉사하기로 하였다. Habitat for Humanity 기금 마련 점심 판매를 했고, 페루 선교 기금 마련 점심 판매, Wachusett Village에서 여성수양회(강사: 전구 목사, 주제:

천국과 신앙)를 개최하였다. 교회 밖으로는 KPW/SNE 연합수련회에 참석(주제: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성교회)하고, 연변 희망촌을 지원했으며, 맨해튼 선교센터 등에 선교비를 후원하였다. 뵤뵤 여성교회에서는 부엌의 spoon 400개를 장만하였다.

▣ **마리아 여성교회의 사역 2002-2014**

2002년 뵤뵤 여성교회(회장 김경애)는 1월 임시총회 때 ‘마리아 여성교회’로 명칭을 바꾸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으며 또 부활의 기쁨을 처음 전한 마리아처럼 되고자 하는 다짐에서였다. 마침 보스톤에 연수하러 온 서울 법대 한인섭 교수의 도움으로 기존 회칙을 개정하였다. 3월에는 세계기도일 예배(한미교회 여성연합회 주최, 주제: “화해를 위해 부름 받음”)를 주관하였다.

2003년 마리아 여성교회(회장 오승현)는 교육관 건축을 위한 회년 기금 마련 음식 판매, 니카라과 선교비 마련을 위한 음식 판매를 했고, 6월에 에티오피아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는 박종국 목사 부부를 강사로 하여 선교 세미나를 가졌다. 2004년(회장 태수영)에는 1부 예배 친교 다과를 담당하였으며, 건축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에 김치와 밀반찬을 협조하였다.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 여성교회 전국연합회(NKPW)에 회비를 납부했고 Presbyterian Women of Boston(PWBoston)에 선교 헌금을 하였다.

2005년(회장 조순래)에는 매년 3월 첫 금요일에 가지는 제 3국의 어려운 처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세계기도일 예배를 보스톤한인교회에서 주관하고 모은 \$280 헌금을 한미교회 여성연합회에 보냈다. PW가 주관하는 노회의 행사 ‘Celebrating Ordained Women’에 참여했고, ECC 기금 Fundraising Bazaar를 열었으며, 보스톤 노회 여성교회 모임에 참여하였다. 2006년(회장 김정림)에는 외적으로는, 보스톤 지역의 여러 무숙자 shelter와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여성교회 동북대회 연합회(KPW/Synod of the Northeast(SNE))를 지원했고, 세계기도일 예배를 본 교회에서 주관하고, ‘미국장로교 여성교회 모임’ 등에 참석하였다. 2007년(회장 김한나)에는 세계기도일 예배를 북부보스톤한인교회의 여성교회원들과 연합으로 가졌다.

2008년(회장 배성희)에는 미국장로교 보스톤노회 여성교회 모임을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에서 가졌고, KPW/SNE 연합 수련회(Stony Point Retreat Center, NY)와 KPW/SNE 주최 19회 연합 선교대회(펠리세이드장로교회, NJ)에 참석하였다. 2009년 (회장 김영미)에는 KPW/SNE 주최 여성 대표 수련회(참빛 교회, NJ)에 참석했고, 한미교회 여성연합회(KCWU) 주최 파푸아뉴기니의 여성들을 위한 세계기도일 예배를 윤경문 목사의 설교로 주관하였다. 4월에는 ECC 건축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를 주관하여 수익금 \$3,400을 헌금하였다. 또한 4월 KPW/SNE(Stony Point Retreat Center, NY) 총회 및 연합수련회에서는 김한나 집사가 동북대회 여성교회 대회장에 선출되었다. 김한나 집사는 동북대회 대표로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 여성교회 전국연합회(NKPW)’의 실행위원으로 봉사하였고, 홍도화 집사가 KPW/SNE의 회계를 맡았다. 7월에는 Louisville, KY에서 여성교회 총회(PW) Churchwide Gathering이 있었으며 본 교회에서 김한나 집사가 KPW/SNE 대표로 참석하였다.

2010년(회장 김춘미)에는 4월 KPW/SNE가 주최한 연합수련회(Camp Washington Retreat Center, CT, 강사 김성희 목사)에 6명의 회원이 참석하였고, 10월에는 동북대회 연합선교대회(뉴욕중앙장로교회에서 강사 이윤식 회장, 연변 희망촌)에 참석하였다. Worcester First Presbyterian Church에서 있었던 PPG(Presbyterian Partnership Group) 모임에 본 교회의 윤경문 목사와 회원이 순서를 함께하고, 사물놀이 팀이 참가하여 신명 나는 한국 전통 음악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마리아 여성교회 (2013)

2011년(회장 고경아)에는 사순절 기간 동안 새벽기도회 다과를 준비하였고, 건축헌금을 위한 바자를 열었으며, 쉐마의 밤 식사, 뉴잉글랜드 지역 연합부흥회 다과와 청년부 식사 등을 맡아 하였다. 지난 2년간 NKPW의 실행위원으로 봉사하던 김한나 집사가 5월 Chicago, IL에서 가졌던 NKPW 정기총회에서 제13회기 총무로 선출되어 인준을 받았다.

2012년(회장 김영순)에는 KPW/SNE가 주최하는 4월 연합 수련회에 참석했고, PW Boston 노회 Spring Gathering에 참석하였다. '성노예비' 철거 반대를 청원하는 petition에 참여하여 사인했고, 독도시위와 관련된 박종우 선수 메달 박탈 반대 청원 사인에 참여하였다. 2013년(회장 윤미자)에는 사순절 기간 동안 새벽기도회를 위한 간단한 조찬을 준비하였고, 9월에는 에스더와 마리아 여선교회가 연합으로 보스톤한인교회에서 열린 여선교회 전국연합회(NKPW) 실행위원회에 참석한 실행위원들에게 식사와 다과를 제공하였다. 보스톤한인교회가 창립 60주년이 되는 2013년은 크고 작은 많은 행사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마리아 여선교회에서는 행사를 도왔다. 이민 신학 심포지엄 행사를 위해 저녁 식사와 다과를 준비했으며 한국 문화 축제와 창립 60주년 기념예배 음식을 준비하였다. 10월에는 교회 창립 60주년 행사 기금 마련 바자(품목: 된장, 깍두기, 버섯, 고사리, 멸치, 기타)를 가졌다.

■ 에스더 여선교회의 사역 2002-2014

2002년 에스더 여선교회(회장 고경아)는 마리아 여선교회와 함께 대외 행사에 적극 참여하였다. 집사회 주최 제1차 이웃 초청 한국문화축제(Korean Cultural Festival)에서 음식을 담당했고, 페루 선교기금을 위한 음식 판매와 국내선교원회 주최 Habitat for Humanity 기금 모금을 위한 음악회의 다과를 준비하였다. 여선교회 수양회(배요한 목사, '선교 여성의 거룩한 부담?')를 주관하였고, 월례기도모임도 매월 진행하였다. 2003년 에스더 여선교회(회장 김한나)는 본 교회 창립 50주년 희년 행사를 도왔고, 여성 교우들의 요리 비법들을 모아 요리책(주관: 설영숙, 이승연, 김운정, 박명희)을 만들어 이익금을 교육관 건축을 위한 기금으로 헌금하였다.

2007년(회장 김영순)에는 각 부서의 회원들과 긴밀한 연대를 가지며 연합 봉사할 수 있도록 '연합부'를 조직하였고, 각 부서에 차장도 여러 명을 두어 폭넓은 봉사를 추진하였다. 목요일 여선교회 기도모임을 만들어 격주로 모임을 가졌고 세족식을 거행하여 섬기는 모습의 자세를 보였다. 10월에는 윤경문 목사 안수식 만찬을 마련하였고, 여섯 번의 웨마의 밤을 위한 다과와 만찬(9월 추석맞이 송편 빚기, 11월 추수감사절 축하 칠면조 요리)을 준비하였다. 2008년(회장 배한원)에는 봉사부원 5명을 두어 봉사부원이 1년 동안의 봉사를 기쁨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체제를 바꾸었다. 4월에는 ECC 건축을 위한 'Ground Breaking 찬양과 감사의 밤' 다과를, 12월에는 'ECC 건축을 위한 찬양과 기도의 밤' 다과를 준비하였다. 다섯 번의 웨마의 밤 저녁식사와 다과를, 11월에는 칠면조 요리와 만찬을 준비하였다.

2010년(회장 박애리)에는 5월에 ECC 건립 예술제와 Auction 저녁 만찬을, 11월에 ECC 입당예배 저녁 만찬을 마련하였고, 대외 행사도 마리아 여선교회원들과 함께 치렀다. 2011년(회장 이성숙)에는 3월에 기금 모금을 위한 바자에서 순대를 판매하였고, 국내선교위원회의 'Oasis Café- 이민자를 위한 음악회' 공연 때 만두를 준비하였다.

2012년(회장 강혜정)에는 주방에서 사용하는 비품을 구입하고 매 주일 2부 다과를 제공 협조했고, 강단을 위해 교인들이 바치는 헌화를 장식하였다. 전체 교인들의 친목 도모를 위한 행사 준비와, 교회 행사에 따른 특별 다과와 오찬 등을 담당

하였다. 10월에는 Oasis Café "한국가요의 밤"에 4명의 회원이 찬조 출연하여 열광적인 환호를 받기도 하였다. 2013년(회장 이민정/노윤경)은 회장 이미정 집사가 5개월을 봉사하다가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그 뒤를 노윤경 집사가 회장으로 봉사하였다. 어머니주일날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전교인 합창제를 개최했으며, 창립 60주년 부흥 사경회 때에 다과를 마련하였다. 2013년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브루클라인 타운에서 스타이로폼 사용을 금지하여 우리 교회에서도 뜨거운 음료수 컵을 종이 컵으로 대체하였다. 비용 절감과 환경을 생각하여서 가능한 한 개인 컵을 소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여선교회 전국연합회(NKPW) 사역 : 김한나 총회장 취임 2013

여선교회원들은 PC(USA) 총회에 속한 한인교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National Korean Presbyterian Women, NKPW), Synod에 속한 동북대회 여선교회(Presbyterian Women in the Synod of the Northeast-PWSNE), 한미여성 동북대회(KPW/SNE)와, 보스톤 노회(Presbytery of Boston)의 여성지도자 모임에 꾸준히 참여해 왔다. 현재 60년사 편찬위원인 김한나 집사가 2013년 5월에 열린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NKPW) 전국모임 및 총회(Seattle, WA)에서 제14회기 총회장으로 선출되어 취임하여 사역하고 있다. 김한나 집사는 20년 넘게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동북대회 연합회(KPW/SNE), 동북대회 여선교회 (PWSNE)에 참여 활동하였고, NKPW의 실행위원으로 봉사하였다. 2011년에는 제13회기 총무를 역임했고, NCKPC(National Counsel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의 42회기에 이어 43회기에 여선교회전국연합회 대표 임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매 3년마다 있는 전국여선교회 총회(PW)Churchwide Gathering에서 2009년 7월(Louisville, KY)에는 한미여성 동북대회 대표로, 2012년 7월(Orlando, FL)에는 NKPW 대표로, 본 교회의 김경에 권사와 함께 참석하였다. 2011년에는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 남·여선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평신도 Vision Conference'의 준비위원으로 수고했으며, 2014년 9월에 있는 남선교회와 여선교회가 공동 주최하는 평신도 Vision Conference를 위한 공동준비위원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여선교회원들은 1997년(회장 최승주) 4월에 한미여성 동북대회(KPW/SNE) 주최 여선교회 지도자 양성수련회에 참석하였다. 2000년 4월에는 KPW/SNE 연합수련회에 참석(Stony Point Retreat Center, NY, 주제: 새천년의 한인교회와 교회여성, 강사: 이영길 목사)했고, 2001년에는KPW/SNE 연합수련회(주제: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선교회)에 참석하였다. 2002년 1월에는 PW Boston 노회 모임에서 김



여선교회 전국연합회(National Korean Presbyterian Women) (2013)



김한나 집사 총회 회장 취임 (2013)



에스더 여선교회 2013

경애 집사가 공동회장으로 임명되었다. 4월에는 PW/Southern NE의 모임과, KPW/SNE 연합수련회 (Stony Point Retreat Center, NY)와 한미여성교회연합회(Korean American Church Women United)

주최의 수련회에 참석(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하여 교회 밖의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였다.

2007년 3월에는 세계기도일 예배를 “파라과이의 근로여성을 위하여”라는 주제로(설교 윤경문 전도사) 본 교회에서 드렸다. KPW/SNE 주최 연합수련회 및 정기총회(Stony Point, NY)에 참석하였고, 미 동북대회 여성교회 (Presbyterian Women in the Synod of the Northeast, 주제: 축복과 풍요함, Albany, NY)가 주최하는 하기 모임에 여성교 회원 3명이 참석하였다. KPW/SNE가 주최한 18회 연합선교대회(장소: Elizabeth, NJ, 주제: 섬김의 열매)와, Newton 장로교회에서 가진 뉴잉글랜드 여성교회의 가을 모임(New England Presbyterian Women - Fall Gathering)에 참석하였다.

2008년에는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에서 열린 NEPW 모임에 참석했고, KPW/SNE 연합 수련회(Stony Point Retreat Center, NY)와 19회 연합 선교대회(펠리세이드 장로교회, NJ)에 참석하였다. 2009년에는 KPW/SNE 주최 여성 대표 수련회(참빛교회, NJ)에 참석했고, KACWU 주최 세계기도일 예배를 주관(파푸아뉴기니의 여성들을 위하여 기도, 윤경문 목사 설교)하였다. 2010년에는 4월 KPW/SNE 연합수련회(Camp Washington Retreat Center, CT, 강사 김성희 목사)에 6명의 여성교회원이 참석하였고, 10월에는 KPW/SNE 연합선교대회(뉴욕한인중앙교회, 강사 이윤식 회장, 연변 희망촌)에 참석하였다. 2013년에도 4월 KPW/SNE 연합수련회에 참가하였고, 9월에는 KPW/SNE 총회 및 연합선교대회 (New Haven, CT)에 참석하였다.



세계여성기도회 (2007-2008)

### ■ 집사회 사역 1995-2013

집사회는 보스톤한인교회가 노회에 가입한 1년 후인 1986년에 24명의 안수집사로 구성된 당회의 직속 기관으로 조직되었다. 1995년에 이르러 휴무를 포함한 안수집사는 37명이 되어 교회 내의 가장 큰 부서가 되었고 여성교회와 함께 교회의 봉사, 구제, 친교, 출판의 사역을 담당해 왔다. 이영길 목사는 1996년에 처음으로 4주간에 걸쳐 신입집사 교육을 시작하였다. 매주 모여 성경암송과 각자 신약을 통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1998년부터는 이영길 목사의 지도로 안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공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신입 안수집사가 1월 공동의회의 인준을 받은 후 9월에 임직받기 전까지의 기간에 받는 교육이다. 1995년 이전에는 제직수련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안수교육을 대신하였다.

2014년 현재 안수집사의 수는 104명이고, 1999년부터 임명하기 시작한 서리집사의 수는 총 90명으로 집사회 회원은 모두 194명이 되어 교회의 가장 큰 부서이다. 처음에는 4개 부로 시작했으나, 2010년 이후에는 14개 부까지 증가하여 많은 임원들이 함께 교회의 큰 행사부터 작은 일까지 일 년 내내 봉사하

고 있다. 1995년부터 2013년까지의 활동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5년(회장 이경희)부터 집사회의 4개 부서는 각각 당회의 한 위원회와 긴밀하게 연대하여 활동하게 되었다. 봉사부는 예배위원회와, 구제부는 선교위원회와, 친교부는 교인위원회와 그리고 출판부는 교육위원회와 연대하여 협조하였다. 전통적으로 봉사부는 어머니 주일에 전교인에게 특별 점심 대접, 교회 대청소와 baby sitting 등을 맡았고, 구제부는 중고등부 연례 행사에 재정을 지원하고 어려운 교우들을 돕는 일, Brookline Food Pantry에 Canned/dried Food를 수집하여 기증하는 일을 하였고, 친교부는 전교인 야외예배의 진행에 협조했고, 바다낚시대회, 골프대회, 탁구대회, 테니스대회 등의 사역을 하였다. 특히 전교인 여름수양회를 교인위원회와 함께 진행했으며, 출판부는 교회 달력, 소식지, 교회지 ‘필그림’ 등을 발간하였다. 1996년(회장 박영철)에는 집사회 활성화와 새 교인 정착에 중점을 두어, 전교인 이름 익히기 운동, 가족 사진전 및 교회 행사 사진전 등을 개최하였으며, 야외예배에 브루클라인 미국제일장로교회의 교인들을 초대하여 상호 이해를 도와주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또한 중고등부의 협조로 부활절, 추수감사절 Basket을 만들었으며, Asian Battered Women 구제 기관 회의에 참석하여 찬조금을 기부하였고, 교회 소식지와 ‘필그림’ 등을 발간하였으며,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에게 매주 교회 주보를(10-30매) 발송하였다.

1997년(회장 김명철)에는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로부터 교회 건물 소유권을 이양받고, 예배를 1, 2부로 드리게 되었다. 교인들의 증가로 집사회는 기존의 4개 부 외에 도서부, 문서부, 경조부, 경비안전부와 새 가정들의 정착을 돕는 생활 상담부를 신설하였다. 특히 생활 상담부는 보스톤 지역으로 이주해 오는 새 교우들에게 상담과 안내를 통해 교통, 이사, 주거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주었고 교육, 법률, 사업 등에 대한 조언과 더불어 영어 통역 봉사도 하였다. 도서부는 도서실을 새로 마련하여 아래층에 있던 책들을 한 곳에 모아 정리했으며, 문서부는 교회 문서 정리, 주보 우송 등을 맡았다. 경비안전부는 주일 예배 전후 교회 건물 주위를 순찰하며 안전을 점검하였다. 경조부는 교인들의 장례도 돕고, 교회 공동 장지 구입을 구체화해서 당회가 1999년에 장지 4 Lots을 구입하는 데 협조하였다. 1998년(회장 김세철)에는 당회에 홍보위원회와 기획관리위원회가 새로 발족하게 됨에 따라 출판부와 도서부는 홍보위원회로 소속이 바뀌었다. 많은 집사들이 교회 건물 관리를 돕기 위해 기획관리위원회의 사역에 참여하였다. 교회 건물 대청소와 영아실 운영에 협조했고, Brookline Food Pantry에 Canned Food 을 모아 보냈다. 각종 출판물을 발행하는 홍보위원회에 협조하였고, 도서실 서적들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1999년(회장 김한나)에는 서리집사 제도가 채택 됨에 따라 총 집사 수가 63명으로 증가하였다. 봉사부를 두 부서로 나누어 환경봉사부는 교회 미화작업 및 수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의료봉사부는 교회용으로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약품과 혈압기를 구입하였다. 전교인 여름수양회 때에는 의학 강좌 및 혈압 측정 봉사도 하였으며, Food Pantry 봉사, 니카라과 이재민 돕기, 여름 낚시대회 등의 활동을 하였다. 또 증가하는 출석 교인을 위한 additional parking lot을 찾아 2000년에 Kent Street에 주일에 20대 정도 주차할 수 있게 계약을 하였다. 2000년(회장 김영범)에는 집사회의 advisory group으로 IT(Information Technology)부와 특별 행사부가 만들어져, IT부는 전교인 데이터베이스 작성에 협조했고, 특별행사부는 각종 행사의 음향관리, 비디오 녹화를 담당하였다. 한국인 환자를 돕기 위해 골수 검사에 참여했고, 여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 Bone Density 검사를 실시하였다.

2001년(회장 차주혁)에 구제부는 Women’s Lunch Place와 Brookline Food Pantry에 자원봉사를 했

고, World Trade Center Disaster에 구제비를 전달했으며, NE 한인회 8.15 광복절 체육대회 행사 기부금을 냈고, 불우 교우들을 도와주기도 하였다. 의료부를 신설하여 교인들의 유방암 무료 진단을 알선해 주었고, 친교부에서는 어머니 주일 찬송가대회 사진 전시 및 사진첩을 제작하였다. 한글학교 기금 모금과 연변 선교기금 모금 골프대회를 주관하였고, 케임브리지 한인교회와 친선 축구대회를 가졌으며, 체육회장 배 한인농구대회에도 참가하였다.



연례 교회 대청소

2002년(회장 정용국)에는 생활상담부가 국내선교위원회에서 다시 집사회 소속이 되었고, 특수사역부가 새로 구성되었다. Korean Cultural Festival 준비위원회가 처음 개최한 '이웃 초청 한국문화축제'를 잘 치러냈고, 주차 관리는 교인수가 증가하면서 꼭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의료부의 활동에 CPR Class, 치아건강세미나, 유방암에 대한 강좌가 추가되었고, 친교부에서는 등산대회와 페루 선교기금 모금 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8.15 광복절 친선 체육대회에 참가했고, 체육대회, 사진 전시 등을 개최하였다. 특수사역부는 지역 병원에서 교회의 도움이 필요한 한인 환자를 도울 수 있는 연락 조직을 만들었다. 봉사부는 브루클라인

이웃돕기와 homeless shelter, Women's Lunch Place를 찾아 음식 제공을 해 주었고, 이웃을 위한 식품 수집도 계속하였다. 2003년(회장 장양술)은 교회 회년축제 외에도 많은 행사에 집사들의 활발한 참여가 있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대학부에서 교사로 봉사하거나 니카라과 단기선교단원으로 사역하기도 하였다. 집사회 Mailing Database를 완성하였으며 재활 센터에 보조하였고 거리의 천사들을 방문, 위로하였으며, 옷을 수집하여 관계 기관에 제공하였다. 지역 병원과 연결하여 한인 환자에게 위문 카드를 보내고 돌보았으며, Gateway Arts Celebration 기금 모금에 장애인들을 위하여 찬조금을 보냈다. 문화부 중심으로 2004년(회장 안성완) 5월 '한국 문화 행사의 밤'을 준비하는 데 협조하였다.

2005년(회장 안태준)에는 새로이 홍보부, 건물관리부, 국내선교부, 문화부, 음악부, 체육부 등을 신설하여 사역을 넓혀 나갔다. 치과 의료 세미나, 한의학 의료 세미나, 제직 수련회 심포지엄이 있었으며, 전교인 체육대회를 주관 진행하였다. 니카라과 선교기금 모금 골프대회를 가졌고, 브루클라인 300주년 기념행사에 본 교회 사물놀이 팀이 공연하였으며, ECC 기금 모금 골프대회가 있었다. 지역 사회와 타 인종과의 문화적 교류를 하고자 지역 유대인을 초청한 한국 문화 축제 행사에 집사회가 협조하였고, 축제 홍보 및 booth 운영을 담당하였다.

2006년(회장 이정규)에는 집사회의 구조가 사역에 따라 임원(회장, 총무, 서기, 회계)과 14부로 확대되어 도서부, 전산부, Fundraising부 등을 신설하였다. 집사회의 연례행사 외에 특이할 만한 사항은 쉼마 찬양단이 조직되었으며, 집사회 주관으로 상록회 관광을 진행하였고, 8.15광복절 기념 한인체육



Sexton J. Whitcomb (1993-현재)

대회에 참가하여 2위로 입상하였다. South Dakota에서 American Indian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하는 안맹호 선교사를 초청하여 선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007년(회장 이경환)에는 집사회 주관으로 'Dancing in Harmony'란 주제로 한국 문화 축제를 개최하였는데 Irish 음악가, dancer와 뉴욕 사물놀이 팀을 초청하여 공연을 하였다. 이 축제에 브루클라인 타운의 selectman을 비롯한 많은 브루클라인 주민들이 참석하였다.

2008년(회장 한문수)도 집사회 주사업은 ECC 착공식을 앞두고 대대적인 교회 청소와 교회 정리였으며, 4월에 ECC Ground Breaking 찬양과 감사의 밤 행사에 협조하였다. 12월에는 모금 위원회와 함께 ECC 건축기금 모금을 위한 만두 판매를 진행하였다. 건축 및 선교 기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와 전교인 체육대회를 치렀고, 상록기도회원들을 위해 9월에는 경로잔치, 10월에는 단풍놀이를 실시하였다. 2009년(회장 김준구)에는 보스톤한인교회 비전의 하나인 '한민족의 문화를 이어가는 교회'에 부응하여 집사로 구성된 풍물패 '하늘소리'가 발족되어 2회에 걸쳐 쉼마의 밤에 공연을 하였다. 집사회 구제부는 6월에 중서3구역과 함께 Boston Rescue Mission에서 운영하는 Homeless Shelter를 방문하여 150명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하였다.

2010년(회장 김태만)에는 문화부를 중심으로 전교인 여름수양회에 협조하였으며, 봉사부는 어머니주일 오찬과 교회 대청소 및 페인트 작업을 하였다. 체육부 주관으로 건축기금 모금 골프대회를 가졌고, 구제부는 무숙자 쉼터 봉사를 계속했으며 상록기도회 야유회에 음식을 제공하였다. 2011년(회장 최정열)에는 쉼마의 밤과 함께 격월로 토요일 저녁에 집사회 찬양과 기도의 밤을 가졌다. 어머니주일에 전교인 점심을 마련하였고, 교회 청소를 하고, 전교인 체육대회를 열었으며, 상록기도회원을 대접했고 친선 여름 낚시대회를 부활시켰다. 고혈압에 대한 건강세미나를 개최하였고, ECC 건축기금 모금 골프대회도 주최하였다.

2012년(회장 김우진/김동규)부터는 밥상공동체 사역을 위해 2월에는 청년 1, 2부에 점심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전통으로 내려오는 어머니주일 점심을 남자 집사들이 직접 준비했으며, 5월 말에는 전교인 야유회 겸 체육대회를 가졌다. 전교인 여름수양회에서 봉사하고 집사회 헌신예배를 가졌다. 2013년(회장 김동규)은 본 교회 창립 60주년으로 많은 행사가 있었다. 집사회는 회장단과 6개 부의 협력으로 모든 연례행사 및 특별행사를 훌륭하게 치러냈으며, 매 짝수 달 첫째 주일에 집사회 임원 모임을 하며 활동 계획을 철저히 예비하였다. 제직 수련회에 협력했고, 해외 선교팀 지원과 식사 제공, 전교인 여름수양회에 협력봉사하였다. 10월에 Korean American Cultural Foundation 모금 행사와 60주년 기념 한국 문화 축제에 협조하였다. 여러 행사에 집사회 풍물패 '하늘소리' 팀의 공연으로 많은 기여를 하였다.

친교실 앞쪽의 조그마한 방이 현재도 도서실로 사용되고 있다. 집사회 도서부에서 관리하며, 배정받은 예산으로 매년 신앙서적 위주로 신간도서를 구입하여 교인들이 빌려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좁은 실내에 많은 장서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독서를 즐기는 교우들이 즐겨 찾는 장소로 사랑받고 있다.

■ 상록기도회 발족과 사역 1999-2014

1999년 4월 당회에서는 65세 이상 되는 교인으로 구성되는 모임을 만들기로 결정하여 추진위원으로 김갑성 장로, 강성유 장로, 김현지 권사를 선출하였다. 9월에 '본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며, 회



상록기도회 피크닉 (2007)

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상록기도회 창립 모임을 갖고 회칙을 통과시켰다. 초대 회장에 백린 장로, 부회장 강성유 장로, 총무 이상구 권사를 선출하고 이영길 목사를 고문으로 추대하였다. 2000년 총회에서는 회장 김갑성 장로, 부회장 강성유 장로, 총무에 김현지 권사가 선출되었고, 김형곤 목사가 담당 교역자로 사역하게 되었다. 현재 매월 마지막 주일에 15-20여 명의 회원들이 Community Center에서 월례회로 모여 식사와 더불어 말씀, 성경공부, 기도, 찬송, 간증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회원들을 위한 특별강좌, 운동, 나들이, 생신 축하, 추모예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활동하고 있고, 매년 상록기도회 헌신예배를 드리고 있다. 상록기도회는 교회를 위한 기도,

어려운 교우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청년부원들의 점심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봉사 사역도 하고 있다. 또한 교회 주요 모금운동, 선교헌금, 건축헌금 등에도 앞장서는 모범을 보이고, 자체 회비와 찬조금으로서 운영하고 있다.

매년 집사회의 봉사로 가을 단풍놀이를 가는 것도 중요 행사 중의 하나이다. 월례회의 점심식사는 많은 교인들의 효도 대접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다. 어머니주일 찬양제에서도, 전교인 수양회에서도 젊은 이들과 함께 어울려 3세대의 모임을 빛나게 하고, 송구영신 예배 때는 한복으로 단장한 상록기도회 어른들이 권사회원들과 함께 찬양을 드리고 백린 장로의 신년 덕담은 하나의 전통이 되었다.

2003년 보스톤한인교회 회년에 회원 신영각 집사가 신앙고백서 작성에 참여하였고, 김현지 권사가 시편 23편을 쓴 서예작품을 모든 상록기도회원들의 협조로 액자에 넣어 교회에 헌물하였다. 또한 첫 회년 감사축제에 모든 상록기도회원들이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Worship Dance로 찬양을 하였다. 상록기도회는 2002년부터 교인 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 ■ 부부선교회 1995-2000

부부선교회는 1995년 1월 김종일 임시 담임목사와 당회의 권고와 격려로 본 교회 35세-45세의 결혼한 부부들이 친교와 교제, 전도의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젊은 부부들간의 정기적인 모임을 바탕으로 신앙적 성장, 선교 사역 확장과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출발하여 초대 회장에 변성구 집사, 부회장에 김세철 집사와 임원들을 선출하였다. 변성구 회장이 개인 사정으로 사퇴하자 김세철 부회장이 회장을 맡게 되었고, 11월 총회에서는 모임의 명칭을 보스톤한인교회 부부선교회로 정하고 매달 첫 주에 모임을 가지기로 하고 고문에는 김영경 장로를 추대하였다. 외부 강사를 모시고 헌신예배도 드리고, 성경공부, 찬양 연습, 선교에 관한 토론, 자선단체 동참 및 지원, 야외모임, 건강세미나, 선교와 북한 수재민 구제 성금 모금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갔다.

1997년에는 부부선교회 회칙을 만들었고, 부부선교회 자체 성경공부 모임을 가졌으며, 5월에는 북한 동포 돕기 비빔밥 판매로 \$3,500을 모금하였다. 1998년에 회장 장양술, 부회장 김영순이 선출되었고, 회비를 책정하고 교회로부터 지원도 받게 되었다. 구제활동, 각종 세미나 주최, 양로원 방문, 찬양과 오승현 집사 인도로 성경공부를 했고, 선교기금 마련 음식 판매로 수익금 \$1414 전액을 선교위원회에 전하기도 하였다.

1999년에는 회장 이정우, 부회장 김영범이 선출되었고, 봉헌예배 기념 헌물로 소파를 교회에 기증하였다. 성경공부 방법을 일대일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정기모임에는 이영길 목사의 아가서 강론이 계속되었다. 1999년 8월에는 Bolton United Methodist Church(이보영 목사, Bolton, CT)의 초대로 부부 선교 찬양팀이 찬양예배 사역을 담당하였다. 문숙찬 권사가 입원했던 양로원을 방문, 기도와 찬양,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2000년에는 회장 최석주, 부회장 손정곤이 선출되었으나 여러 사정으로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여 자연 해체되었다.

### ■ 은혜마을 2000-2009

1995년 35세 이하의 기혼자들로 발족한 부부청년부가, 2000년대에 이르러 모두 40대가 되었고 2000년에 젊은층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30대 부부들을 위한 모임이 2000년 초에 '부부사랑 모임'이란 이름으로 모이다가, 2000년 11월부터 '은혜마을'로 이름을 바꾸면서 교인위원회 소속으로 출발하였다. 이영길 목사를 강사로 첫 수련회를 가지면서 박진흠, 박주상, 서용석 집사들을 중심으로 창립을 하게 되었고, 정기모임으로 주일 2부 예배 후에 찬양, 나눔,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월 1회 토요일 모임과 정기적인 수련회를 통해 성숙한 신앙 공동체로서 교회의 사역을 하게 되었다.

2002년에는 안성완 집사가 회장을 맡고, 윤성철 전도사의 지도로 18가정이 모여서, 매달 둘째 주 토요일에는 정기세미나를, 주일 예배 후에는 찬양 기도 모임을 가졌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 '생명의 삶'을 교재로 매일 하는 QT 보급, 인터넷을 통한 중보기도, 자녀교육 세미나, 친교소풍, 헌신예배와 수련회 등을 가졌다. 2003년에는 홍동현 집사가 회장을 맡았고 교회 내의 여러 부서 및 위원회와 같이 사역에 동참하고 활동을 전개하였다. 소예배실, 유년초등주일학교 페인트 작업에 협조했고, 니카라과 선교 참가와 협조를 하였다. 은혜마을 수양회, Korean Cultural Festival 참여, 회년 축제 등 다채로운 사역을 펼쳐 나갔다. 2003년에는 배요한 목사가 협력목사로 은혜마을을 맡게 되었다. 2004년에 회장에 박진흠 집사, 부회장에 김준구 집사가 선출되어, 교회 청소에 협조하고, 한국문화 축제를 지원하고, 청년2부 초청 야유회, 수양회, 니카라과 단기선교 팀 식사 대접, ECC 바자 협조, 헌신예배와 송년모임 등의 활동을 하였다. 2005년에는 회장에 김준구 집사, 부회장에 김동규 집사가 선출되었고, 배요한 목사의 '영적 성장과 훈련'이라는 주제의 세미나, 전구 목사의 선교세미나, 윤성철 전도사 부부 초청 찬양콘서트 등으로 은혜로운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다.

2006년에는 회장에 김동규 집사, 부회장에 이봉옥 집사가 선출되었다. 이 해에는 13가정으로 시작한 모임이 가을에는 30가정에 이르게 되었다. 배요한 목사의 주일모임 말씀과 매월 둘째 토요일 정기세미나는 신앙성장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여름 수양회, 선교 세미나와 헌신예배 등으로 은혜마을 공동체가 더욱 은혜스러워지는 해였다. 2007년에는 회장으로 이봉옥 집사가 봉사했고, 김만규 전도사가 잠시 맡



은혜마을

았으나 곧 선교사로 떠나게 되어 허신영 목사가 은혜마을을 담당하게 되었다. 함께 신앙생활하던 많은 가족이 이 해에 귀국하게 되었다. 2008년에는 회장에 박성준 집사, 부회장에 정일진 집사가 선출되었는데 많은 회원 가정들이 계속 떠나게 되고, 부부청년부에서 새로 들어오는 회원들은 적어서 2009년을 마지막으로 은혜마을은 자체 해산하였다. 당시 은혜마을 담당 허신영 목사는 건강이 여의치 않아 사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헌신적으로 은혜마을을 섬겨 은혜마을 회원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다.

### ■ 남선교회 발족과 사역 2009-2014



남선교회 발족 (2009)

2009년 11월 남선교회는 선교, 구제, Hospitality 등을 목적으로 발족예배를 드렸다. 이영길 목사는 발족예배 말씀을 통해, 중풍병자인 친구를 들것에 싣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네 친구 이야기, 이방 선교의 본거지로서 선교사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 이야기, 기독교의 근간인 기도와 구제를 베푼 로마군대 백부장인 고벨료 이야기 등으로 앞으로 남선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초대 회장에 이원길 집사, 부회장에 방경남 집사를 선출하고,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따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교와 구제, 나눔과 섬김과 봉사가 있는 남선교회가 되기를 다짐하였다.

당시 ECC 건축 지연으로 많은 교우들이 힘들어 하고 있어서, 온 교회가 합심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한 가족” 운동부터 먼저 하기로 하였다. 이 운동의 일환으로 떡국과 푸짐한 상품을 겸비한 송구영신 옷놀이 대회를 주최했고, 어머니 주일 찬양예술제 때 모든 출전 팀에게 상품을 제공하였는데 상록기도회원들에게는 특별선물을 증정하기도 하였다. Father’s Day 에 Boston Rescue Mission에 나가 봉사하였고, Brookline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can food 및 생필품을 거두어 St. Paul Church에 있는 Brookline Food Pantry에 전달하였다.

현재까지도 매년 헌신예배를 비롯, 새해맞이 옷놀이 대회를 주최하고 있고, 어머니주일 찬양예술제도 지원하고, 상록기도회원들에게는 특별 선물을 증정하며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좋은 전통을 만들어 가고 있다.

### ■ 어머니주일 찬양예술제의 역사

1976년 2월에 시작된 전교인 가족찬송가경연대회는 그 해 5월부터 어머니주일 구역별 찬송가경연대회로 바뀌어 전교인 참여 행사 중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행사로서 매년 치열한 경연대회의 성격으로 진행되어 오던 중, 2004년부터는 찬양축제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되었다. 여선교회가 주관하는 어머니주일 찬양예술제는 2014년까지도 매년 어머니주일에 찬양과 함께 남 집사들의 봉사로 마련하는 점심 식사와 친교 프로그램으로 계속되고 있다. 어머니주일 한 달 전쯤에 잘 불리지 않는 찬송가 중 3-4곡의 지정곡이 발표되면, 각 구역이나 부서에서 지정곡 1곡과 자유곡을 선정하여 주말 혹은 주중에 모여 연습을 하였다. 1998년에는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당시 가나안 구역이 84세의 신좌경 권사를 비롯하여

여성 구역원들은 한복, 남성 구역원들은 흰 와이셔츠에 빨간 넥타이와 검은 바지를 입고 구역원 전원이 울동과 함께 찬양을 드려 많은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였다. 그때의 감동을 여러 사람이 교회회지인 필그림에 기고하였다.



그 열정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더 가열되어 각 구역의 구역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맹렬한 연습으로 감동의 화음을 만들었고, 찬양은 목소리뿐 아니라 울동과 전통 춤, 워십 댄스, 각종 악기, 랩, 연기도 어우러지는 종합예술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구역원들이 한 달 이상씩 주중 혹은 주말에 모여 열심히 연습하여 경연대회에서 입상하면서 얻은 감동과 은혜는 매년 필그림지에 잘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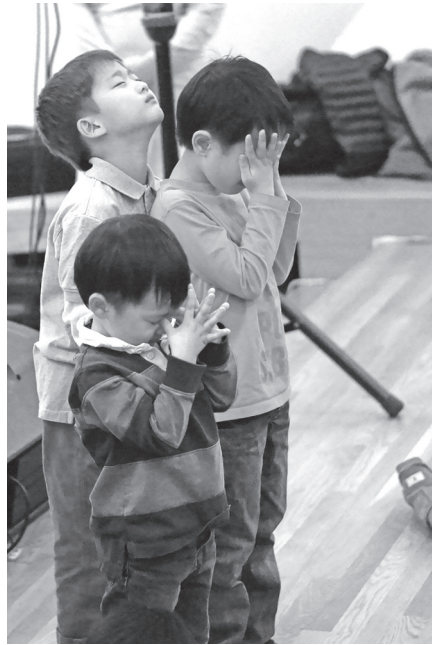
연례 어머니주일 찬양예술제

찬송가 경연대회는 구역을 하나로 묶고, 새로 온 교인들도 구역원으로서 분명한 소속감을 느끼게 하여, 찬양을 통해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매개체가 되어갔다. 그러나 구역간에 과열경쟁의 양상이 드러나, 2004년에는 이름을 찬양예술제로 바꾸어 지정곡을 없애고, 대상, 1-2-3등상, 장려상의 순위도 없었다. 그후 어머니주일 찬양예술제는 각 구역에서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의상에서부터 멀티 미디어까지 동원하여 춤, 노래, 각종 악기, 깜짝쇼, 촌극, 버라이어티 쇼, 슬라이드 쇼 등 종합예술적인 찬양으로 발전하였다. 시상도 매년 심사위원에 따라 노력상, 인기상, 용기상, Idea상, 우수상, 희망상, 유머상, 열심상, 헌신상, 매력상, 대상 등 다양한 이름의 상으로 바뀌었다. 식사는 70-80년대 교인들의 수가 적었을 때는 남자교인들이 바닷가재, 돈까스, 즉석 캘리포니아 김밥, 등의 다양한 요리를 하였으나, 1995년 이후 교인수가 증가하고 2002년에는 600명분의 음식을 남자 집사들이 준비하면서 카레라이스나 국밥 같은 단순한 메뉴로 바뀌었다. 점심 식사 후에 심사위원 변화경 장로는 특유한 유머와 예리한 심사평으로 모든 교인들이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이 되었다. 어머니주일 찬양예술제의 경험은 보스톤한인교회 교인들은 누구나 동참하고 공유하는 소중한 이야기로 자리잡았다.

### ■ 웨마의 밤 시작 2006

보스톤한인교회는 2003년 첫회년을 맞으면서 신앙고백서를 작성하고, 그 이듬해 2004년에는 제2의 회년을 향한 비전선언문을 채택하였다. 4가지 비전 중 첫째가 ‘3세대가 함께 배우는 교회’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우리들의 자라나는 2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며, 청·장년과 노년 모두가 말씀으로 계속 새로워지는 가운데 3세대 모두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보다 풍성하고, 균형 잡힌 영적 성장을 위하여 온 세대가 함께 어울려 사랑과 이해, 권면과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함께 배워가는 교회입니다.”



3세대가 함께하는 쉘마의 밤

이영길 목사는 이 비전에 부합하는 교회 행사로서 ‘쉐마의 밤’을 제안하여 2006년 5월부터 격월로 3세대 구성원인 유년초등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1, 2부, 부부청년부, 집사회, 여선교회, 남선교회, 상록기도회 등 모든 부서가 함께 찬양, 기도, 예배, 특별행사를 갖는 모임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쉐마’(Shema)는 “이스라엘아 들으라”(Listen, O Israel!)로 시작되는 신명기 6장 4절의 히브리어 첫 마디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으로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의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쉘마 찬양단이 구성되고 모든 연령층이 토요일 저녁에 한자리에 모여 찬양으로 시작, 말씀으로, 간증으로, 특별 프로그램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귀한 행사가 되었다. 예배예술위원회의 주관으로 홀수 달에 모이는데, 절기에 따라 송편도 만들고, shelter에 보낼 선물도 포장하는 등 3세대가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5월에는 어머니의 사랑을 주제로, 11월에는 추수감사절을 주제로 모이고 있다.

2006년 5월 27일(토) 오후 8시 본당에서 있었던 첫번째 ‘쉐마의 밤’에 100여 명 교우가 참석하였다. 쉘마 찬양단의 찬양 인도로 시작된 쉘마의 밤은 어린이들과 함께 참석한 부모님과 할머니/할아버지, 그리고 청년들이 찬양드리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드렸다. 한 가족이 쉘마의 밤 가족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영

길 목사는 가족에게 주는 메시지 잠언 22장 6절을 전하였다. 기도의 시간에는 가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교육관 건축을 위하여, 지역사회를 위하여, 그리고 니카라과 선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를 드렸다.

어느 가족은 쉘마의 밤을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온 식구가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마음 속으로만 하던 기도를 가족 앞에서 소리 내어 하며 눈물도 흘렸고 지나간 사진들을 보며 함께 웃는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다고 간증하고 있다. 추수감사절 주간에 열리는 쉘마의 밤에는 다함께 모여 풍성한 추수감사절 만찬을 나누며 한 해 동안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의 밤을 가진다. 장로들이 준비한 칠면조 구이, 구역에서 준비한 Side Dishes 등 정성스레 만든 풍성한 음식들을 즐겁게 나누고, 찬양의 시간, 초청 구역 이야기도 있었고, 어린이들의 현악연주와 slideshow도 있었다. 특별 순서에 부부청년부가 나와 찬송에 맞추어 신나는 체조 찬양을 하기도 하였다. 2009년 추석 9월 쉘마의 밤은 함께 식사를 나누며, 집사회의 사물놀이팀 ‘하늘소리’가 공연을 하였다. 제 2의 회년을 향해 한민족의 문화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려고 추석맞이 신나는 사물놀이를 공연했는데, 안성완 집사의 추임새가 쉘마의 밤에 흥을 돋기도 하였다.

- ♫ 보스톤한인교회 쉘마의 밤 모였으니
- 우리 모두 다 함께 쉘마의 밤 즐겨보세,
- 3세대가 함께하는 쉘마의 밤 기도모임
- 우리들의 기도가 세상을 바꾼다네…… 얼~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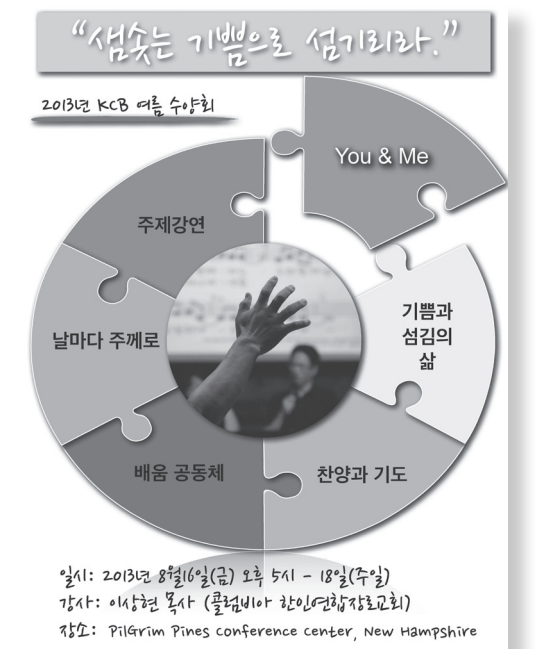
### 3세대가 함께 배우는 전교인 여름수양회

전교인 여름수양회는 교인위원회 주최로 주로 8월 중에 주말을 이용해, 뉴잉글랜드에 있는 수양회 장소로 모든 교인들이 가서 예배, 기도, 찬양을 드리며, 공동체훈련, 성경공부, 주제강의, 사귀의 시간을 통하여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중요한 연례행사이다. 이영길 목사가 시무한 첫해의 전교인 여름수양회(Gordon-Conwell 신학교)는 “진실한 사귀이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이영길 목사가 주강사가 되어 1박 2일 동안 진행되었는데 13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영길 목사는 “군중 속의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세 번에 걸친 주제강의를 하였다. 성경공부는 주승중 목사가 인도했고, 이철 전도사는 찬양인도를 하였다. 토요일 저녁에 가진 전교인 한마당 축제에는 사랑, 기도, 명상의 시간을 참가자 전원이 가졌으며, 유년부, 중고등부는 교사들의 지도로 따로 모임을 가졌다.

1997년 이후로는 주제강의를 위해 외부 강사를 초빙하였고, 참가자가 늘어나서 더 넓고 시설이 좋은 뉴햄프셔 Swanzey에 있는 Pilgrim Pines Conference Center로 장소를 옮겨 금요일 오후 5시부터 일요일 오후 3시까지 2박 3일로 수양회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본 교회 건축이 한창 진행되던 2009년과 2011년에는 수양회를 열지 못했으나, 2000년도 이후에는 대개 200명 안팎으로 교인들이 참여하였다. 수양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교우들은 주일에 본 교회에서 1부와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다.

Pilgrim Pines Conference Center는 숲 속에 자리 잡은 가족 또는 단체 retreat center로서 뉴잉글랜드 특유의 고풍이 나는 옛 건물과 현대적인 시설로, 큰 예배를 위한 Chapel, 작은 모임장소, 식당, 가족단위 숙박시설, 캐빈, 청소년 캠프지역 등을 가지고 있고, 큰 호수에서는 수영, 뱃놀이, 낚시를 할 수 있고, 농구장, 테니스장, 미니 골프장도 겸비한 아름다운 수양회 장소로서 보스톤한인교회는 수양회 기간 동안 거의 전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

삼 일 동안의 수양회 프로그램은 대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 유년초등주일학교와 중고등부는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다. 5-6번의 주제 강의, 3번의 조별 모임, 많은 찬양 시간, 가족과의 자유시간, 공동체 훈련, 주일 예배, 때로는 Camp Fire Night으로 짜여져 있고, 아침기도와 체조, 산책 등도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다. 매해 모든 참가교인들을 조별로 나누어, 공동체훈련, 조별 준비를 한 다음 함께 모여 발표를 한 후 시상식을 하는 것도 오랜 전통이 되어 있다. 2013년에는 조별 준비 대신 ‘날마다 주께로’ 신앙 워크샵을 마련하여 김건철 목사의 ‘성경의 흐름 연구’와 이요한 목사의 ‘열린 기도 배우기’ 등을 가졌고, ‘배움 공동체’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 찬양 발성강습, 테니스강습, 골프강습, 사진강습 등 원하는 배움을 택할 수 있게 만들었다.



전교인 여름수양회 Poster

금요일	등록/방배정, 저녁식사, 찬양/교제, 개회예배/주제강의 1, 찬양의 밤
토요일	아침기도/주제강의 2, 아침식사, 찬양/주제강의 3, 조별모임(발표 준비), 점심식사, 공동체 훈련,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 찬양/주제강의 4, 전교인 축제
주일	아침기도/주제강의 5, 아침식사, 짐정리/주차/산책, 주일예배(주제강의 6), 기념촬영, 점심식사, 조별 발표 및 시상식, 폐회 예배



수양회는 매년 교인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다. 총 진행 책임자, 수양회 진행팀, 유년초등주일학교 Director, 중고등부 Director, 일반 프로그램, 등록/방배정, 홍보물 제작, 운송, 녹음/PA/비디오, 사진팀, 피아노 반주, 의료팀, 간식팀, 찬양팀, 동시통역팀 등으로 구성되어 많은 봉사자들이 협력하여 훌륭한 수양회를 매년 치른다. 매년 비슷한 순서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지만 내용은 다양하고, 계속 연구하여 보다 더 좋은 전교인 여름수양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4년과 2010년의 추려낸 보고서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2004년도 전교인 여름수양회는 “세상은 한 울타리”라는 주제로 뉴욕 주 Corning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에 시무하는 이성호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Pilgrim Pines Conference Center 에서 8월 20일부터 2박 3일 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회년 후 첫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며 예수님과 첫 만남으로 돌아가는 시간에 중점을 두었다. 수양회가 첫날 저녁부터 천둥 번개와 폭우로 인해 수양관으로 들어오는 길에 큰 나무가 쓰러지고 전선이 끊어져 입구 통행이 막혀 10여 명의 교우들이 어렵게 늦게 도착하는 일이 있었으나, 저녁 11시경에 수양관으로 무사히 도착해 준비해 놓은 저녁을 오순도순 다정하게 나누며 피로를 풀었다. 다음날에도 계속되는 소나기로 인해 야외 Beach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전교인 공동체 훈련 레크리에이션이 예배당에서 진행되었지만 아담한 예배당 안에서 조를 나누어 참가자가 한 마음 하나가 되어 조별 대항 게임과 퀴즈를 통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여름수양회 모습

저녁식사 후 주제 강연에서는 이성호 목사님의 말씀과 잔잔한 간증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다. 공학박사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연구원의 길을 접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늦게 목회의 길로 들어선 이성

호 목사는 의학의 길을 걸었던 이영길 목사와 흡사한 점이 많다. 이어진 전교인 한마당 축제에서는 온 교우가 함께 청년부의 멋진 연주에 맞추어 함께 어울려 신나게 찬양하고 울동하는 시간과 주일학교의 은혜스럽고 예쁜 찬양과 울동 발표, 그리고 여러 가지 팀별 대항 게임을 통해 다시 한번 웃고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날 주일에는 화창한 날씨로 주일 예배 후 야외에서 맛있는 점심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며, 폐회 예배 후 단체 사진을 찍고, 세상으로 다시 나가면서 세상에서 지친 우리의 삶이 수양회 기간 동안 믿음 안에서 성도간의 교제와 말씀과 쉼을 통해 영적으로 재충전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진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여름수양회 (2013)  
Pilgrim Pines Conference Center

2010년 전교인 여름수양회는 8월 20일부터 2박 3일 동안 뉴햄프셔 Pilgrim Pines Conference Center에서 노대준 목사(뉴헤이븐 한인교회, New Haven, CT)를 강사로 하여 “변화-그리스도인의 생활양식”이란 주제로 가졌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에 기초하여 여섯 번의 주제강연을 통해 말씀을 전해주었다. 거룩을 추구하는 삶으로의 변화가 우리의 일상 생활과 예배를 통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를 함께 생각하고, 각자의 마음에 변화하고자 하는 결단을 잔잔히 불러일으키는 은혜로운 말씀의 시간이었다.

예년의 수양회 프로그램에 약간의 변화를 시도하여, 첫째 날 밤에 “새교우 환영 및 찬양의 시간”을 “새교우 환영 및 조별 모임”으로 바꾸어서 조별 모임을 이틀에 걸쳐 두 번 배정하여 조원들이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고, 수양회 주제강의나 신앙생활의 전반에 대해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늘렸다. 둘째 날 밤의 전교인 한마당 축제는 “전교인 찬양과 기도의 밤”으로 바뀌었는데, 2008년도의 첫 시도 때보다 충실한 기획과 준비로 참석한 교우들이 함께 어울려 뜨거운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은혜로운 경험의 시간이 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더욱 진가를 발휘한 순서는 전교인 공동체 훈련과 조별 발표 시간이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든 조원이 한 마음이 되어 몸을 사리지 않고 게임을 풀어나가는 전교인 공동체 훈련과 모든 조원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한데 어우러져 수양회에서 받은 메시지를 기발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마지막 날의 조별 발표시간에서는 너무도 생생한 연기로 모든 참가자들의 탄성을 자아낸 교우들도 있었다.



여름수양회 모습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연례수양회 일자, 강사, 주제, 장소는 다음과 같다.

일자	강사	주제	장소
1995. 08. 05-06.	이영길 목사	“진실한 사귀이 되게 하소서”	Gordon-Conwell 신학교, MA, 130명 참석
1996. 08. 03-04.	이근상 목사 (Ohio Columbus 한인교회)	“진실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Gordon-Conwell 신학교, MA, 168명 참석
1997. 08. 22-24.	양희철 목사 (뉴욕 포레스트한인장로교회)	“빛나는 자녀들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소서”	Pilgrim Pines C.C., NH 173명 참석
1998. 08. 21-23.	백도현 목사 (마이애미한인교회)	“재미있는 신앙생활”	Pilgrim Pines C.C., NH 211명 참석
1999. 08. 20-22.	문정선 목사 (동부 한미노회 총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Pilgrim Pines C.C., NH 198명 참석
2000. 08. 18-20.	임형천 목사 (아름다운교회, NY)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교회”	Pilgrim Pines C.C., NH 237명 참석
2001. 08. 17-19.	임영수 목사 (서울 주님의교회)	“영적 치유 - 치유와 성장”	Pilgrim Pines C.C., NH 233명 참석
2002. 08. 16-18.	이승태 목사 (살롬제일장로교회)	“더 주린 심령, 더 짙은 감동, 더 귀한 섬김”	Pilgrim Pines C.C., NH 153명 참석
2003. 08. 15-17. 희년기념행사	한석현 목사 (동부 토론토한인장로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Pilgrim Pines C.C., NH 157명 참석
2004. 08. 20-22.	이성호 목사(Corning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	“세상은 한 울타리”	Pilgrim Pines C.C., NH 130명 참석
2005. 08. 19-21.	현용수 목사 (쉐마교육연구원)	“3세대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회”	Pilgrim Pines C.C., NH 181명 참석
2006. 08. 18-20.	이연길 목사 (빛내리교회, TX)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는 영성”	Pilgrim Pines C.C., NH 194명 참석
2007. 08. 17-19.	전희원 목사 (코넬한인교회, NY)	“크리스찬으로 살기: 기본으로 돌아가자”	Pilgrim Pines C.C., NH 188명 참석
2008. 08. 15-17.	김정호 목사 (아틀란타연합감리교회)	“거룩한 회복”	Pilgrim Pines C.C., NH 248명 참석
2010. 08. 20-22.	노대준 목사 (뉴헤이븐한인교회, CT)	“변화- 그리스도인의 생활양식”	Pilgrim Pines C.C., NH 181명 참석
2012. 08. 24-26.	박광래 목사 (후레스노한인장로교회, CA)	“예배자로 바로 서라”	Pilgrim Pines C.C., NH 208명 참석
2013. 08. 16-18. 60주년 기념행사	이상현 목사(콜롬비아한인연합장로교회, SC)	“샘솟는 기쁨으로 섬기리라”	Pilgrim Pines C.C., NH 176명 참석

■ 제직수련회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1980년 홍근수 목사 시기부터 시작된 제직수련회는 처음에는 봄에 1박 2일로 모든 제직이 모여 제직으로서의 자세, 임무와 책임, 알아야 할 보스톤한인교회 규칙, 장로교 조직과 역사, 장로교 헌법 등을 주제 강의와 그룹 토론을 통해 배우고, 성경공부도 갖는 중요한 연례행사이다. 1995년 이영길 목사 시무 후에는 시기가 3월이나 4월 중 어느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의 프로그램으로 바뀌었고, 1998년부터는 오후 2시부터, 2005년부터 현재는 오후 5시에 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되었다. 시무와 휴무 모든 제직이 참여하는 수련회는 1997년에는 Sharon에 있는 Hillcrest 수양관에서 가졌고, 1998년부터는 다시 본 교회에서 갖기 시작하였다. 2002년부터는 토요일 오후 4시에 시작하여 1부 프로그램으로 개회예배 후에 신입제직 소개 및 환영하는 순서를 갖고, 저녁식사 후에 주제강연을 했는데, 어느 때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2부 프로그램을 갖기도 하였다.



제직훈련 및 제직 수련회

매년 외부 강사를 초빙했고, 자체적으로 제직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프로그램으로 2006년에는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주제 발표와 패널 토의를 위해 다수의 이중언어 가정들이 패널리스트로 참여하였다.

창립 첫 희년 후 6주년이 되는 2009년에 ‘제2의 희년을 향한 비전’을 구체화하려고, 각 위원회 및 집사회에서 본 교회의 4가지 비전에 관해 발표하는 기회도 가졌다. 각 위원회와 부서가 4개의 비전 선언을 한 가지씩 준비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로는,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의 세 번째인 “한민족의 문화를 이어가는 교회”를 맡은 집사회와 보스톤한국학교가 발표하였다. 집사회에서는 몇 달 동안 이 발표를 위하여 집사님들이 조직한 사물놀이팀 ‘하늘소리’가 흥겹고 힘찬 연주를 하였다. 보스톤 한국학교가 이끄는 소고춤에는 12명의 제직들이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비전 선언의 첫 번째인 ‘3세대가 함께 배우는 교회’에 관하여 발표했는데, 교육위원회가 교육1부와 2부, 3부로 나누어져 ECC 건축 완성 후에 펼쳐질 교육 프로그램 계획안들을 소개하였고, 새롭게 시작될 English Ministry도 소개되었으며, 집사들과 청년 1, 2부의 skit도 있었다. 세 번째로는 “세계를 향한 교회”를 주제로 해외선교위원회와 국내선교위원회의 발표가 있었다. 지난 10여 년 간의 우리 교회 해외선교사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정의를 이 땅에 세워가는 교회”에 대해서는 사회정의위원회에서 발표하였다. 현재 PC(USA)의 사회 정의를 위한 사역들을 소개하고,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교회가 녹색운동(Green KCB)에 참여하기를 촉구하였다.

2013년에 보스톤한인교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면서 더 의미 있는 제직수련회를 위해 제직수련회 준비 소위원회가 마련한 ‘우리 교회 역사 되돌아보기’ 프로그램을 가졌다. 이영길 목사는 제직들이 최근 20년 역사는 알고 있지만, 그 이전 40년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본 교회 역사가 외부에서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인식되고 있는데 교인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이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준비위원회는 60년 역사의 중요한 네 가지 시기와 사건(태동기, ‘셋방살이’에서 ECC 건립까지, 교단 가입의 과정과 의미, 목요기도회의 사역)에 초점을 두어 당시의 역사를 고찰하고 대본을 쓴 후 Power

Point를 준비하여 단막극으로 만들어 모든 제직이 함께 역사를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전체 기획은 이유택 집사가 맡았고, 이혜승, 김동규, 정하균, 이태호, 김대식, 최정우 집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제직수련회 1995-2014**

일자	강사	주제
1995. 03. 04	고영근 목사	“사랑으로 섬기는 제직”
1996. 03. 16	김선배 목사	“우리 교회는 건강한가?”
1997. 02. 28-03. 01	이영길 목사	“우리 교회의 더 밝은 활성화를 위하여”
1997. 04. 25-27	이종형 목사	사경회 “새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1998. 02. 28-03. 01	이영지 목사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의 이민교회로서의 사명과 Identity를 찾아보기”
1999. 02. 13-14	최훈진 목사	“성서 발견 교재 사용법”
1999. 05. 14-16	정인영 목사	사경회 “오늘을 사는 기독교인의 자세”
2000. 02. 19-20	최훈진 목사	“평신도사역”
2001. 04. 28-29	우수명 목사	“영적 은사의 발견”
2002. 03. 23-24	이승만 목사	“민음의 뿌리와 열매”, “한국 이민 교회의 사명”
2003. 04. 05-06	옥성득 목사	“한국 교회사에 비친 회년”
2004. 03. 27-28	안태호 목사	“새로운 시작의 해”
2005. 04. 16-17	패널리스트 (외부초청강사 *1)	심포지엄: “보스톤한인교회에 바란다”, “보스톤한인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변화와 개혁으로의 초대”
2006. 03. 11-12	패널리스트 (이중 언어 가정 대표 *2)	“우리는 한 가족” 발표 및 패널 토의
2007. 03. 17-18	박용규 목사	“교회와 민족을 살린 평양 대부흥 운동”
2008. 03. 15-16	조기연 목사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자”
2009. 05. 16	본 교회 각 위원회, 부서 발표	“첫 회년 후 6주년을 맞으며 제2의 회년을 향한 비전 선언”
2010. 07. 10	손대권 목사	“포스트모더니즘과 존재의 참된 가치관”
2011. 04. 09	이학준 교수	“Building the Bridge”
2012. 03. 17	장익현 목사	“교회: 하나님의 가정”
2013. 04. 13	제직수련회 준비위원회	“우리 교회 역사 되돌아 보기”
2014. 04. 05	김도훈 목사	“역사 속의 하나님, 역사 속의 인간: '역사의 문제'와 청교도 이해”

\*1 Cathy MacDonald 목사, 김양길 선생, 정 Maria 장로, Wayne Parrish 목사

\*2 사회 장양술 장로, 패널리스트 하대준, 김용욱, 토모코, Byron/Kris Pava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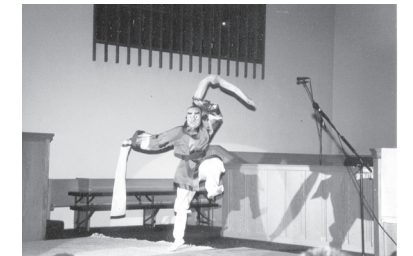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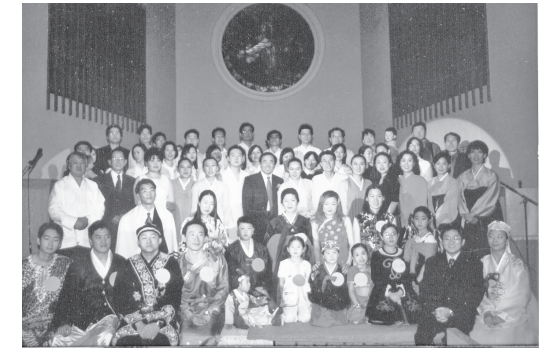
**한국문화축제(Korean Cultural Festival)의 의의와 발자취 2002-2007**

보스톤한인교회의 역사적 배경과 교회가 위치한 지리적, 사회적, 문화적인 환경을 고려할 때, Brookline과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선교 활동은 가까우면서도 어려운 사역 중의 하나이다. 교회가 위치한 Brookline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300년 역사를 가진 타운으로 보스톤 시에 인접해 있고, 인근의 Allston, Brighton, Roxbury, Jamaica Plain, Newton, Cambridge 등 타운들에 비교할 때 사회적, 문화적으로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 선교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이영길 목사는 전술한 목회 방향에 B40(Brookline 주민의 40%를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전도운동을 제시하였다. 이영길 목사는 2000-2001년 2년 동안 안디옥교회를 모델로 세계로 향한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였고, 2002년에는 교회 표어를 ‘이웃을 향한 교회’로 정하고 그 동안 소홀히 하였던 지역 선교에 대한 소명을 제시하였다. 지역선교의 첫 발걸음으로 유대인이 대다수인 Brookline과 인근 지역 주민에게 교회의 문을 열고 한국문화와 역사를 알려주며 다른 민족과 문화적인 교류를 잇는 문화 선교를 펼쳐 나가기로 하였다.

2002년 5월 18일 처음으로 한국문화축제(Korean Cultural Festival, KCF)를 ‘Love in Any Language’라는 주제로 토요일 저녁 세 시간 동안 한국전통 예술을 공연하고, 공예품 전시를 하며, 한국음식 시식, 전통의상 전시, 고전무용 공연, 한국 음악 공연과 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500명 이상의 지역주민이 참여한 성공적인 행사가 되어 이후 3년 연속 연례 행사로 치러지게 되었다. 집사회에서 이를 주관해 첫 해에는 6개월 동안 준비했고, 해를 거듭할수록 더 풍부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목적인 지역주민과의 교류와 이해를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Town of Brookline과의 관계가 돈독해져 후에 교회 건물 공사와 주차 장소문제 등에서 많은 편의를 받았다. 첫 한국문화축제를 끝내고 이영길 목사는 연례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소감을 정리하였다.

“저희 교회가 창립한 지는 49년이 되었는데 그 중 35년간을 이곳 Brookline에 위치한 저희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35년간 저희는 이웃 주민들과는 거의 교류가 없이 주로 범 보스톤 지역 한인들만을 상대로 사역을 펼쳐 왔습니다. 이제는 저희 교회가 여러 모로 성장하여서 타민족을 상대로 화합 및 복음사역을 펼칠 수 있는 때가 되었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특별히 집사회 주관으로 한국문화축제(Korean Cultural Festival)를 갖게 되었습니다. 6개월간의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결과로 상상 외의 놀라운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통하여 한국문화를 알고 싶어했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궁극적으로는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2003년은 특별히 첫 회년을 맞이하여 이웃 초청 한국문화축제(Korean Cultural Festival)의 주제를 ‘아리랑’으로 하고, 한국 역사에 흐르는 한을 아리랑에 접맥시킨 작품을 집사회(회장 장양술)가 주최하고, 김영순 집사의 총연출로 5월 17일 성황리에 두 번의 공연을 하였다. 나레이터의 해설과 함께, 신라시대



한국문화축제 2003



한국문화축제 2003. 5 '아리랑'

의 우륵과 가야금, 화랑도와 오고무, 농부의 신문고, 판소리, 강강수월래와, 이순신 장군 등이 조명을 받으며 등장하여 연주도 하였다. 태권도 시범, 사물놀이, Jubilee Worship Dancing 팀 공연, World Cup 응원 시범, 한국 전통의상을 입은 선비, 신랑과 신부 등장 등 화려한 레퍼토리를 진행하였다. 집사들은 물론 보스톤한국학교, 중고등부, 청년 1, 2부, 부부청년부, 여선교회 등 교회 부서가 이 일에 하나가 되어 준비를 했고 외부에서 특별 초청한 예술인들의 공연도 있었다. 보스톤에서 구할 수 없는 한국 전통의상은 독지가를 통해 한국에서 빌려올 수 있었고, 의상을 직접 만들기도 했으며, 조명기구도 직접 제작하는 등 여러 가지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하였다. Brookline town 의 selectman 을 포함한 400여 명의 이웃들과 함께 한국의 얼이 담긴 공연과, video presentation을 했고 특별히 준비된 전통음식도 대접하며 우리의 이웃을 향한 사랑을 나누었다. 축제가 끝난 후 공연 전체가 DVD로 만들어져 배포되었다.

2004년 5월 22일에는 'Hand-in-Hand'라는 주제로 한국문화축제에 이웃을 세 번째 초청하였다. Town of Brookline의 Board of Selectmen인 Michael Sher의 개회인사가 있었고, Modern Dance: "Healing Hands", 오고무(Five Drum Dance), 보스톤한국학교 사범 Michael A. Uiterwijk와 그의 학생들의 태권도 시범, 바이올린과 가야금 연주, 남촌과 발 노래, 부채춤, 유년초등주일학교 Children's Group의 "It's a small world", "Prayer" 합창, Quincy Korean School의 장구춤, 보스톤한인교회 청년들의 사물놀이 공연이 끝난 후, "Healing Hands" 춤 공연으로 마무리 되었다. 집사회(회장 안성완 집사)에서 주최했으며, 김선희 전도사가 총연출을 하였다. 여선교회, 청년 1, 2부, 부부청년부, 은혜마을, 유년초등주일학교 Children's Group, Ransom 중고등부, Worship Dancing Team 등 교회 전체가 함께 준비한 이웃을 위한 축제였다.

여기 손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손, 꽃잎 하나 하나가 모여서 아름다운 꽃송이를 피워내듯이,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이 모여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화합하는 손, 만들어내는 손, 기도하는 손, 기뻐 손뼉치는 손, 대화하는 손, 땅을 가꾸는 손, 그리고 치유와 평화를 약속하는 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손과 손을 잡고, 서로 마음을 열어서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기 원합니다.

- 한국문화축제 프로그램 중에서



한국문화축제 2005

2005년에는 특별히 'Dancing in Harmony'라는 주제로 전통 유대인 음악과 댄싱 그룹을 초대하여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타민족과 어우러지는 축제를 처음으로 시도하였다. 특히 2005년도는 브루클라인 타운이 설립 300주년을 맞아 지역 전체가 축제를 가지고 이어서 한국문화축제를 30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추진하였고, 650여 명의 지역주민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전통 유대인 음악과 댄싱 그룹들이 한국 전통음악과 어우러지는 훌륭한 축제가 되었고, 미국 땅의 이민자들로서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한인 독지가의 도움으로 새로운 프로그램 '전통 혼례'를 선보여, 많은

참석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보스톤한인교회 사물놀이 팀 '하늘소리'는 당일 날 프로그램이 시작 전에 멋진 깃발을 만들어 들고 길놀이를 나가, 북 치고 장구 치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여 주며 한국문화 축제를 인근에 알리기도 했는데, 유대인 공연자를 포함 150여 명이 진행에 참여하였다. 진행 책임은 안태준 집사회장이, 프로그램 연출은 윤경문 전도사가 맡았다. 집사회 주관의 fundraising에도 많은 한인들과 브루클라인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있었다. 한국문화축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 주민들을 섬기기 위한 행사이기도 하지만, 이 브루클라인 타운에 있는 소수인종의 일원인 우리 한국 민족의 고유 문화를 소개하고 타인종과 어우러져 문화적 이해를 돕고 교류를 갖는 뜻깊은 행사이기도 하였다. 2005년 11월 18일 보스톤에서 발행된 어느 한국주간신문에는 "유대인들에게 문을 연 한국 문화 축제"라는 제목으로 한국문화축제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기도 하였다.

〈Dancing In Harmony〉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는 다릅니다.  
 우리 각자는 다른 전통과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문화를 지니고, 다른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많은 것을 공유(share)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들 자신의 전통과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슬픔과 기쁨의 추억(memory)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면서 평화, 정의, 자유와 희망을 갈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함께 기쁨의 춤(dancing of rejoice)을 추고 싶어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함께 '하모니를 이루며 춤'(dancing in Harmony)을 출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모니를 이루며 춤을 계속 추어 갑시다.

윤경문 전도사는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모든 과정 뒤에는 보이지 않게, 그러나 세심하게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들 모두는 자신들의 울타리를 넘어 타 인종과 하나 되고 한인들과 하나 되어 우리의 다름과 고통을 보듬어 안고 함께 춤을 추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 5월 12일 토요일에는 Korean American Cultural Foundation of Greater Boston (KACF)과 집사회 공동으로 "Dancing in Harmony"라는 2005년과 같은 주제로 한국 문화 축제를 개최하였다. 이번에는 Irish 문화와 예술인들과 어우러지는 두 번째 타민족과의 만남이었다. 축제는 4시부터 시작된 1부 공연 및 시범과, 오후 7시부터 시작된 2부 Showcase 공연으로 구성되었다. 보스톤한인교회 사물놀이 팀은 3시 반부터 교회 주변을 돌며 연주하여 지역사회에 문화 소개 겸 축제로 초청하는 길놀이를 하였다. 1부 순서는 교회 옆 Holden Street쪽 교통을 차단하고 야외무대를 만들어 약 두 시간 가량





한국문화축제 2003

진행되었다. 화관무, 조형구 사범 팀의 태권도 시범, 전통혼례, 북춤, 김치 담그기 시범, Irish 노래와 춤의 공연이 있었다. 2부 순서는 본당 무대에서 Irish Bagpipe 연주, Irish step dance, Tin Whistle, Bodhran, Button Accordion 연주가 먼저 진행되고, 이영길 목사와 Town of Brookline의 Selectman의 인사말이 있는 다음에 국악공연이 있었다. 국악 공연은 초청받은 뉴욕 한국 국악원(The Korean Traditional Music & Dance Institute of N.Y.)의 전문예술인 12명이 부채춤, 가야금 산조와 병창, 진도북춤, 단소 독주, 신 화선무, 5인조 국악합주(가야금, 대금, 피리, 해금, 장고), 풍물놀이와 장고 춤 등을 한 시간 가량 공연하였다. 공연 동안 음식 Booth에서 갈비, 떡꼬치, 파전, 만두, 김밥 등을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제공하였다. Korean Cultural Festival 디자인이 들어간 빨간 티셔츠를 입은 모든 봉사자들이 눈길을 끌었다. 축제를 위해 70장의 포스터를 인근 지역에 붙였고, flyer 를 만들어 3,500장은 우편으로 발송하고, 500장은 인근 상점에 배부하고 관공서 및 지역 단체에는 초청장을 따로 만들어 우송했으며, 교회 web site에도 광고하였다. 전체 진행은 이경환 집사회장이 위원장인 준비위원회가 맡았고 예년과 같이 모든 부서가 이에 협조하여 은혜 중에 마칠 수 있었다.

한국문화축제는 2007년 이후 보스톤한인교회 Education and Community Center 건축 공사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공사 완공 후 2013년 6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다시 개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본장의 마지막 부분의 '보스톤한인교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 2013'에 실려 있다.

### 전교인 아우회와 체육대회를 통한 친교



연례 전교인 체육대회

2005년부터 매년 5월-7월 중에 집사회의 친선부와 체육부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전교인 아우회 겸 체육대회가 Watertown에 있는 Arsenal Park에서 열린다. 2부 예배가 끝난 후 전교인이 참석하여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 식사를 같이 하고, 체육부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운동과 게임에 교우들이 함께 주일 오후를 보낸다. 청소년과 청년들은 농구, 배구, 야구, 족구 등 게임을 즐기기도 하고, 가족들은 응원하며 어르신들은 그늘에서 담소하며 하루를 즐긴다. 자기 파트너를 지키느라 어떠한 센 공도 마다않고 몸으로 막아내는 희생정신을 보여주는 "커플 피구"도 하고, 눈치로 일관되는 "OX게임", 거의 매년 여성들이 이기는 "줄다리기", 그리고 즐거운 "장기 자랑시간"등 교인이 즐거워하며 하나가 되는 축복의 시간이다.

보스톤 지역에서는 한인회 주관으로 광복절 기념 한인체육대회가 열리는데 2005년부터 족구, 배구, 농구, soft ball 등에 참가하여 수상하기도 하였다. 많은 교인들이 참가하여 점심과 음료수를 선수들에게 제공하며 응원도 열심히 해서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 교회 창립 50주년 첫 회년 기념예배와 축하 행사

2003년은 보스톤한인교회가 창립 50주년이 되는 첫 회년을 축하하는 행사가 4월 첫 회년 제직수련회를 시작으로 11월 창립기념예배 때까지 이어졌는데, 모든 행사는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꼭 채워 주신 충만한 은혜의 행사였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범된 행사로 이웃과 전교인이 참여하는 첫 회년의 축제를 드리자"는 주제를 가지고 행사 내용에 연관된 부서의 대표들로 구성된 12명의 행사 준비위원들(위원장 김문소 장로, 윤경문 전도사, 김선희 전도사, 장양술, 이정민, 김영범, 홍동현, 박신영, 오승현, 김한나 집사, 변지석 교우)의 수고로 회년 축하 행사를 은혜 중에 마쳤다.

무엇보다 우리의 순례 여정을 돌아보며 고백한 '첫 회년 신앙고백서' 채택과 2004년에 완성된 보스톤한인교회 제2의 회년을 향한 비전'은 회년의 참 의미를 돌판에 새겨 놓는 일과 같았다. '제 9장 제2의 회년을 향한 보스톤한인교회의 첫 회년 신앙고백서와 비전 선언'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4월에 이틀간 열린 첫 회년 제직 수련회에서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 조예가 깊은 옥성득 목사를 강사로 "한국 교회사에 비친 회년"이라는 주제로 한국교회는 첫 회년(1934)을 어떻게 보냈는가? - 한국교회의 제2회년(1984), 해방 회년(1995)과 정전 회년(2003), 미국 이민 제 2회년(2003)의 역사적 의미 등을 같이 고찰하였다. 옥성득 목사의 "한국교회가 50주년, 100주년을 지켰으나 참으로 회년답게 보낸 경우가 별로 없고 회년을 선포하였어도 과거를 되돌아 보면서 드리는 신앙고백이 없었다"라는 지적은 수련회에 큰 도전을 주었고, 우리 교회의 회년 신앙고백서를 만들게 되는 동기를 제공하였다.

5월에는 회년 기념 이웃초청 한국문화축제 '아리랑'으로 400여 명의 이웃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 역사 속에 흐르는 한을 아리랑과 접맥시키는 작품을 나레이터의 해설과 함께, 신라시대의 우륵과 가야금, 화랑도와 오고무, 농부의 신문고, 판소리, 강강수월래, 이순신 장군 등을 보여 주었고, 태권도 시범, 사물놀이, Jubilee Worship Dancing 팀 공연, World Cup 응원 시범, 한국 전통의상을 입은 선비, 신랑과 신부 등장 등 화려한 레퍼토리를 진행하면서, 특별히 준비된 전통음식도 제공하며 우리의 회년도 축하하며 이웃과의 귀한 시간을 가졌다.

첫 회년 옛 교우 초청 전교인 여름수양회가 8월 15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Swanzey, NH에 있는 Pilgrim Pines Conference Center에서 강사 한석현 목사(동부 토론토한인장로 교회)를 초빙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라는 주제로 열렸다. 옛 교우로는 홍근수 전 담임목사와 딸과 함께 한국에서 온 이장규 교수가 참석하였다.

10월에는 첫 회년 심포지엄이 주말 3일 동안에 개최되었는데, 3명의 강사 박승호 목사(United Theological Seminary), 이영지 목사(Azusa Pacific 신학대학 교수)와 김선배 목사(PC (USA) 한인 목회 담



보스톤한인교회 창립 50주년 회년 기념예배 및 행사 (2003)



보스톤한인교회 창립 50주년 회년 기념예배 및 행사 (2003)

당을 초빙하여 주제강의와 함께 패널토의를 진행하였다. 박승호 목사는 “격동하는 세계 속의 한인 이민교회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미국과 세계의 문제, 이민교회의 위치 및 장기적 비전과 사명을 말하였다. 이영지 목사는 “급변하는 세계, 변해야 하는 한인 이민교회”를 주제로 새로운 세계 질서와 이민교회, 불의한 시대, 장기적 위치와 사명을 논하였다. 김선배 목사는 21세기 한인 이민교회의 목회를 이야기하며 환경의 변화와 도전, 이민목회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심포지엄에 발표된 원고는 이영길 목사의 권두언과 함께 출간되어 배포되었다.

11월 초에는 한국에 현재 살고 있는 옛 교우 70여 명이 서울 강남 하이아트 호텔에 모여 본 교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만찬과 친교 및 회년 모금을 하였다.

첫 회년을 감사하는 축제 “Jubilee Year: Jubilation & Thanksgiving”이 11월 15일 토요일에 본당에서 환희와 감사라는 주제로 해바라기 유년초등부, 중고등부, 청년1, 2부, 부부청년부, 은혜마을, 상록회, 전교인 모두가 참여하여 은혜를 나누었다. Worship dance, 합창, 중창 등 다양하게 준비한 프로그램 사이에는 보스톤한인교회의 역사와 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슬라이드 쇼에

내레이션이 전개되었는데 ‘1. 쉼과 안식, 2. 용서, 3. 공의의 하나님, 4. Jubilation, 5. Thanksgiving’의 주제로 전개되면서 각 부서의 발표가 있었다.

첫 회년 이웃 초청 음악회가 창립기념예배 전야제로 11월 22일 변화경 장로의 지휘로 열렸다. 찬양대와 본 교회 출신 음악인들이 현악 사중주, 남성 복사중창, 조유미의 소프라노 독창, 백혜선의 피아노 독주, 황대준의 첼로 연주 등에 출연하였고, 본 교회 찬양대와 손민수 반주로 Handel의 합창곡 ‘축제의 찬양’이 공연되었다.

11월 23일(주일) 오후 5시에 드린 회년기념예배 설교자로 이상현 목사(프린스턴 신학대학 교수)가 초빙되었고, 역대 담임목사로는 권진태 목사, 김갑동 목사, 홍근수 목사가 참석하였으며, 옛 교우 및 귀빈으로 김영호, 김장환, 이양자, 노영석, 김태환 목사, 노회에서 Marilyn Brower 장로, Nancy Holloman 장로 등이 참석하였다. 참석은 못하였으나 박대선 창립목사, 채위 전 담임목사는 축전을 보내왔고, The Church of Covenant 등 이웃 교회에서 축하의 뜻을 전해 왔다. 기념예배의 하이라이트는 준비된 ‘첫 회년 신앙고백서’를 온 교인이 처음으로 함께 교독하는 것이었다. 회년을 기념하며 출간된 이영길 목사 설교 집 보스톤강단 “회년의 노래”를 모든 참석자들에게 배부하였다.

**필그림 50주년 기념호 부제 ‘50주년 회고’**

박대선 초대목사: 보스톤한인교회의 창설  
 김성빈 장로: 당회회의록 요약  
 김형범 장로: 보스톤한인교회 간추린 50년 역사  
 김정선 장로: 보스톤한국학교 15주년을 자축하며  
 변화경 장로: 하나님께 붙들려  
 정소영 교수: 그대 있음에

창립 50주년인 2003년에 보스톤한인교회 50년사를 출판(위원장 김성빈 장로)하기 위해 많은 역사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였으나 출판은 이루지 못하였다. 50년사 출판을 대신한 필그림 ‘창립 50주년 기념’ 특집호에는 보스톤한인교회의 역사와 관련된 많은 원고들이 ‘50주년 회고’라는 제하에 실렸다. 박대선 초대목사의 보스톤한인교회 창립에 대한 회고담, 김성빈 장로의 당회 회의록 요약과 김형범 장로가 정리한 ‘보스톤한인교회 간추린 50년 역사’를 포함해 여러 교우들의 회고가 50주년 첫

회년 행사보고서와 함께 게재되었다.

- 50주년 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김성빈, 위원: 김동숙, 김수홍, 심운보, 이승연, 이혜승, 현인복, 홍도화  
 A/V: 김희정, 박연희, 백지원, 손정곤, 이봉욱, 장양술, 표신엽  
 Computer: 성정훈, 안성완, 윤경문, 이재혁, 장명술

**정의 평화 환경을 위한 사역의 시작 2004**

우리 교회가 소속된 미국장로교는 현 세계의 여러 가지 부조리, 병폐, 억눌리고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 Compassion, Peace and Justice Ministries라는 이름 아래 광범위하게 사역을 전개하고 있다. 보스톤한인교회는 2004년 우리의 비전 선언문을 통하여 ‘세계를 향한 교회’ 또 ‘사랑으로 정의를 이 땅에 세워가는 교회’로 이민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 새로이 사회정의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사회정의위원회(위원장 이선영 추천장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을 검토하면서 미국장로교 교단에서 하고 있는 사역을 배우기 위해 미국장로교 유엔사무실 세미나에 참석하였고, 어린이들의 부당한 노동과 매춘 근절을 위한 운동, 기독교적 결혼관 수호를 위한 서명운동 등에 참여하였다. 2006년에는 이민법 개정안을 계기로 불법 체류자와 이민자의 아픔을 나누고 도와주는 방법을 모색했고, 보스톤의 가정 폭력 방지를 위한 Asian Task Force against Domestic Violence 사업도 물질과 기도로 협조하였다. 2007년에는 노회의 지원을 받아 위원회의 정체성 확립과 안목을 넓히기 위해 이선영 장로와 심기선 집사가 미국장로교의 PHEWA(Presbyterian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Association)가 주관하는 Social Justice Biennial Conference에 참석하여, 총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정의에 관련된 사역에 대해 배우고, 복구되지 못한 카트리나 참상의 현지를 돌아 볼 수 있었다.



시내산동우회 World's End Cleanup (2012)

김정선 장로가 2009년부터 위원장이 되면서 새로이 푸른 보스톤한인교회(Green KCB) 사역이 시작되었다. 친환경 운동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보호운동을 교회에서부터 시작하기로 하였다. 우선 Recycle Project로 교회에서 나오는 많은 양의 쓰레기 줄이기, 분리수거 참여, 종이 절약과 shopping 용 플라스틱 백 안 쓰기, Styrofoam cup 안 쓰기, 전기 recycle, 물 절약, 전기 절약 및 절전용 전구 사용 권장 등을 범교회적으로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분리수거와 리사이클 통을 준비했고, 시행을 위해 해바라기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1, 2부 청년부원과 모든 교인들에게 홍보 활동을 하였다. 2009년 3월에는 World Water Day를 계기로 가장 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물을 아껴 쓰고, 나아가서 Living Waters for the World 사역에 깨끗한 물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생명수 사역”을 전교인에게 알렸고, 5월에는 채소 심어먹기를 장려, 1부 2부 예배 후 두 차례에 걸쳐서 친교실에서 200여 봉지의 사랑의 씨앗을 교우들에게 나눠 주었다.

2009년 3월에는 이해원 집사가 Washington DC에서 열린 “Ecumenical Advocacy Days: Enough for All Creation”이라는 국제회의에 보스턴 노회의 재정 지원을 받아 3박 4일간 참석하였다. 세계 66개의 교회 기관에서 700여 명이 참석한 세계 평화와 정의를 주제로 하는 모임에서 이 집사는 세계 온난화(Climate Change, Global Warming), 친환경운동(Green Living, Eco-Justice, Environmental Justice, Reducing carbon emission), 이민자 처우문제(Immigration and discrimination, Forced migration) 등 여러 문제에 대해 배우고 마지막 날에는 Capitol Hill의 정치가 사무실을 방문하는 단체 lobby 활동 까지 하고 돌아와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교인들에게 알렸다.



브루클라인 타운에서 2010년 환경보호 사업으로 “Climate Change Action Brookline(CCAB)”을 발족시켜 타운의 여러 기관과 학교, 단체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다. 본 교회에서도 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윤경문 목사가 대표로 회의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이산화탄소(CO<sub>2</sub>) 줄이기 운동을 홍보하기 시작하였다. 2011년 10월 16일에는 CCAB와 공동 주최로 Eco-Seminar 및 Earth Care Congregation Workshop을 본 교회 Children’s Chapel에서 2시간 동안 가졌는데, 청년 1, 2부, 부부청년부 및 각 부서 대표자들 50여 명이 참석하여, Brookline Town강사 Susan Martin과 Paul Harris로 부터 CCAB 환경보호 운동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2010년에는 전교인을 대상으로 1

월 두 주간에 걸쳐 PC(USA)의 “Presbyterian Disaster Assistance - We pray for Haiti”에 특별헌금 약 4,000여 불을 모아 전달했고, 2011년에는 일본 지진 쓰나미 피해자를 돕기 위한 헌금을 모아 보스턴 노회에 보냈고, 독도 표기에 관한 청원서에 교인들의 서명을 받아 보스턴 한인회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2010년 3월에는 김정선 위원장이 3일 동안 Washington D.C.에서 있었던 세계 평화와 정의를 위한 “2010 Ecumenical Advocacy Days” Conference에 참석하였다. “A Place to Call Home: Immigrants, Refugees, and Displaced Peoples”라는 주제로 듣고 배운 여러 가지를 위원들과 나누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모색하였다.

2011년 9월에는 사회정의위원회를 정의평화환경위원회(Justice, Peace & Environment Committee)로 명칭을 바꾸어 총회의 Compassion, Peace and Justice Ministries 사역과 병행하면서 Environmental Ministry를 명확한 하나의 주제로 삼아 많은 교인들이 위원회의 목적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고, 홍보 활동을 위해 web site도 개설하였다 (<http://jpeckcb.wordpress.com/>). Environmental Ministry를 새로운 목표로 PC(USA)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Earth Care Congregation (ECC) Certificate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9월 당회에서 결정하였다. 온 교회가 이 운동에 참여한 결과로 일 년 후 2013년 9월 PC(USA)에 속한 한인교회로서는 처음으로 Earth Care Congregation(ECC) Certification을 받게 되었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3년에는 ECC Recertification을 받았다. 총회에서 결의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돌보게 하신 자연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Restoring Creation)의 하나인 ECC Certificate를 받으려면 온 교회가 예배, 교육, 시설, 홍보(Worship, Education, Facilities, and Outreach) 네 부문에서 guideline에 따라 관계되는 Activity를 하여 각 부문에서 25점 이상 총 점수 100점에 도달해야 한다.

2012년 3월에는 ECC에서 추천하는 친환경 행사의 하나인 산행을 같이 하는 것을 목표로 발기위원들

(김정선-위원장, 김문소, 김현주, 사공현일, 심기선, 안성완, 이문희, 최정열, 최창열, 홍도화)을 중심으로 시내산 동우회가 창립되어 4월 보스턴 근교의 Blue Hills 산행을 시작으로 매달 보스턴 근교 및 뉴햄프셔 지역의 산행을 계속하고 있다. 종이를 아끼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예배예술위원회와 협조하여 주보 재사용을 시도했고, 4월 22일 “지구의 날” 환경선교주일에는 북 마크를 만들어 홍보 활동을 했으며,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책 바꿔보기” 행사를 가졌다.

2013년부터는 브루클라인 타운의 Styrofoam 컵 사용금지 환경운동에 맞춰 교회에서는 개인 컵을 가지고 다니는 캠페인을 시작했고, 12월부터는 여선교회 협조로 종이컵을 사용하였다. 한인회로부터 지원 받은 Energy Saving Light Bulb 1,200여 개를 3월에 친교실에서 무료로 분배하였다. 4월에는 한인 간호사협회 주관으로 간호사 3명, 의사 4명, volunteer 학생 16명, 총 23명이 본 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 드린 후 친교실에서 한인들을 위한 무료 진료 서비스로 37명이 진료를 받았고, 10월에는 2차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총 12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한인 백혈병 환자를 위한 골수 Donor Drive가 있었는데 총 27명이 골수 기증에 참여하였다. 6월에는 오클라호마 토네이도 구호헌금을 2차에 걸쳐 하였고, 12월에는 2차에 걸쳐 모은 필리핀 태풍 피해자 구호헌금을 총회 Disaster Assistance Mission에 보냈다. 2013년에도 시내산 동우회는 7회의 산행을 계속하였고, 10월에는 ECC Re-Certification letter를 받았다.

### 홍보위원회 사역 1997-2014

홍보위원회는 1997년 4월 당회 의결로 신설되어 예배와 신앙활동, 교인들의 신앙과 삶, 여러 부서의 활동 등을 간행물이나 인터넷을 통해 효과적으로 알리고, 대외적으로 지역주민들과 한인들에게도 홍보하는 사역을 담당하였다. 홍보위원회는 사역을 위해 도서팀, 웹사이트 팀, 출판 팀(Newsletter 팀, Pilgrim팀), 교회 홍보팀, 사진팀 등으로 구성해서 운영했고 후에 IT team, ECC 완공과 함께 예술전시팀도 구성하였다. 교회 정기 간행물(뉴스레터 한울타리, 교인회지 필그림, 사순절 묵상집 등)과 이영길 목사 설교집을 발간했고 교회 대외 홍보사역, 교회 웹사이트 관리, 도서실 설치 및 운영, 교회달력의 제작 등을 담당하였다. 본 교회 대외 홍보용 광고를 미주 한국일보에 실었고, 지역사회에서는 Asian Journal과 Boston Today와 N.E. 한인회보에 실었고, 미주크리스천 신문에서 발간하는 교회 주소록에 광고로 본 교회를 알리기도 하였다.

1999년에는 신앙서적을 교인들이 빌려 읽을 수 있도록 도서실을 만들고 기증받거나 구입한 도서를 듀이(Dewey) 분류법에 따라 정리하여, 데이터 베이스에 입력하고 책에 일련 번호를 부여하는 작업을 끝냈고, 신앙서적뿐만 아니라 기독교 잡지(소금과 빛, 묵화와 신학, 광야 등)와 신문들을 정기 구독하며 어린이들을 위한 코너를 마련하여 성서이야기와 소설, 그리고 비디오도 구입하였다.

2004년 5월에는 교회소식지 ‘Newsletter’의 제호를 ‘한울타리’로 바꿔 현재까지 계간으로 발간하고 있는데, 단순한 행사 위주의 ‘소식’이 아니라,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의 여러 면을 보여주는 다양한 소식지로 발전하였다. ‘한울타리’는 우리 공동체(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형제자매)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올바르고, 크고, 밝고도, 좋은 소식을 알리는 소식지라는 뜻을 담고 있다.

2007년도부터는 예배위원회와 공동으로 전교인을 위한 사순절 묵상집을 매년 발간하였다. 2013년에는 예술 전시 팀을 신설하고, ECC 커뮤니티 홀에 전문적인 예술품의 전시를 통해 문화선교 사역을 계

확하여 전시를 위한 레일과 행어, 스포트라이트 등을 설치했고,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사후대책을 돕기 위해 ECC 커뮤니티 홀과 교회 모든 출입문에 안전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 ■ 교인 신앙문예지 필그림 발간



교인 신앙문예지 필그림

1997년까지 집사회 출판부의 주간행물의 하나인 '필그림'은 교인들의 신앙 문예지로서 총 23권이 간행되었다. 1997년호는 '창립 44주년 기념 및 성전봉헌'을 기념하여 특집으로 발간되었다. 홍보위원회가 신설되어 1997년 이후에는 출판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2004년에는 창립 50주년 기념호를 발행하고 2006년까지 발행이 되었으나 2007년부터는 사순절 묵상집으로 대체되었다.

- 필그림 16권 통권 22호(1995. 12) - 기획 원덕수, 편집위원: 이경희, 최연일, 한승희, 윤경문
- 필그림 17권 통권 23호(1997. 10) - '창립 44주년 기념 및 성전봉헌' 기획: 원덕수, 김정선, 편집위원: 박영철, 김명철, 김형범, 한승희, 최연일, 장양술, 윤경문
- 필그림 18권 통권 24호(1998. 12) - 편집인 김정선, 편집위원: 박영일, 강경희, 윤경문, 백인경, 이훈희, 장명술, 김옥주, 이선영, 김영순, 박승용
- 필그림 19권 통권 25호(1999. 12) - 편집인 김정선, 편집위원: 고경아, 김영순, 김옥주, 이정희, 윤경문, 조성일, 박승용
- 필그림 20권 통권 26호(2000. 12) - 편집주간 김형범, 편집위원: 고경아, 김옥주, 김일영, 박성호, 백지원, 서용석, 송새봄, 어세경, 원미연, 윤경문, 이성준, 이승연, 이정희, 조성일, 홍동현, 홍옥희
- 필그림 23권 통권 27호(2001. 12) - 편집주간 김형범, 편집위원: 홍옥희(팀장), 김일영, 김혜숙, 박성호, 서용석, 송근준, 오세경, 윤경문, 이승연, 홍동현, 백지원, 김도윤
- 필그림 25권 통권 28호(2004. 03) - '창립 50주년 기념' 편집주간 김형범, 편집위원: 고경아(팀장), 계동성, 고성욱, 김동숙, 김보현, 배상걸, 서용석, 서은영, 오윤정, 윤성호, 이승연, 이진희, 표지 디자인 박연희, 표지글씨 김현지
- 필그림 27권 통권 29호(2006. 03) - 편집주간 김정선, 편집위원: 김하나/ 배한원(공동팀장), 김용한, 이승연, 임현, 조순래, 윤경문 사진: 김도윤, 백승한

### ■ 사순절 묵상집 발간

2007년부터 현재까지 홍보위원회와 예배예술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매년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에 맞추어 조그마한 노트 사이즈의 묵상집이 발간되었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교인들의 소박한 삶에서 나온 이야기(기도문, 묵상을 위한 에세이, 시 등)를 엮어서 사순절 기간 동안 하루에 글 하나씩을 읽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회개와 용서, 절제와 금식, 화해와 사랑으로 마음을 비우고 묵상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간행물이다. 이 묵상집은 본 교회 교인들뿐 아니라 보스톤 지역의 한

인교회와 미국장로교의 여러 한인교회에도 배포되어 이웃 교회의 사순절 묵상자료로도 사용되고 있다.

- 사순절 묵상집 1호(2007. 02) - 편집위원: 김정선, 김하나, 배한원, 임현, 윤경문  
표지 디자인: 김용한
- 사순절 묵상집 2호(2008. 02) - 편집위원: 홍동욱, 김하나, 배한원, 임현, 윤경문  
표지디자인: 김용한
- 사순절 묵상집 3호(2009. 02) - 편집위원: 김성현, 김하나, 김양희, 배한원, 임현, 윤경문  
표지디자인: 김용한
- 사순절 묵상집 4호(2010. 02) - 편집위원: 김성현, 김양희, 김하나, 배한원, 윤경문  
표지디자인: 문강희
- 사순절 묵상집 5호(2011. 02) - 편집위원: 김성현, 김양희, 김하나, 배한원, 윤경문  
표지사진: 김상기, 표지디자인: 김운정
- 사순절 묵상집 6호(2012. 02) - 편집위원: 박신영, 김하나, 김희수, 배한원, 임현, 윤경문  
표지디자인: 유승오
- 사순절 묵상집 7호(2013. 03) - 편집위원: 박신영, 김하나, 김희수, 배한원, 신선희, 윤경문, 최미남  
표지디자인: 김희정
- 사순절 묵상집 8호(2014. 02) - 편집위원: 박신영, 김하나, 김희현, 윤경문, 임현, 이혜승  
표지디자인: 김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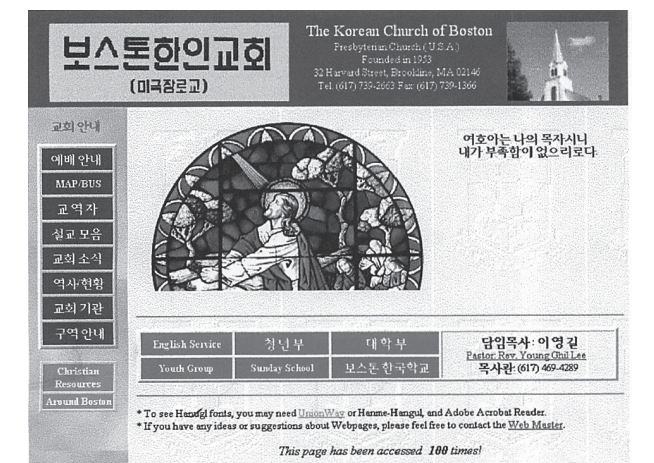


사순절 묵상집

### ■ 보스톤한인교회 웹사이트 개설과 IT 사역

1997년 홍보위원회(위원장: 김정선 장로) 주관으로 보스톤한인교회 웹사이트 도메인 이름을 www.kcboston.org로 관계 기관에 등록하고, 간단한 모습의 교회 홈페이지를 디자인하여 인터넷 상에 띄우게 되었다. 예배 안내, 교회 약도, 교역자 소개, 설교 모음, 교회 소식, 역사 현황, 교회 기관, 구역 안내가 교회 안내판에 마련되었고, 담임목사의 초대와 함께 각 부서의 소개가 실렸으며, 영어예배부의 홈페이지와도 연결되었고, 설교문 전문도 수록되었다.

2001년 멀티미디어 사역의 기술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KCB Computer Information Group을 조직하여 Information System, IT, website를 계속 개발했고, 2003년 1월에 교회 Website는 새로운 내용과 모양으로 갖추게 되었다. 주요 행사, 각 부서별 행사 사진을 올렸고, 매주 설교 녹음을 들을 수 있도록 했는데, 웹사이트 방문자는 매일 평균 85명이었다. 2006년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업그레이드를 시



1997년 보스톤한인교회 홈페이지



2014년 현재 보스톤한인교회 홈페이지

작하여 2007년에 완성함으로 설교 동영상 내보낼 수 있게 되었고, 다이나믹한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을 쉽게 알리게 되었다. 교회 소개, 예배와 설교, 교회 소식, 교회학교, 선교 사역, 교회 행사, 공동체 모임, 새교우 코너, 자료실 등 메인 메뉴가 있고, 5개의 게시판은 각 부서, 구역, 주님의 사역과 기도와 나눔으로 나뉘져 있고, 교회 행사 캘린더와 여러 가지 목상 자료, 인터넷 성경 등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게 디자인 되었다. 그 외에 주보, 한올타리, 사순절 목상집 등이 계속 게재되고, PC(USA)와 Presbytery of Boston 과도 link가 되어 있다.

2010년 새로운 ECC 건물의 완성과 함께 교회 내의 멀티미디어 사역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방송과 미디어 network upgrade, church database 개발과 운영,

교회 내의 computer network 구축, 교회 내 wireless network와 security 및 backup system의 설치를 끝내고 관리하고 있다.

### 보스톤한인교회 은사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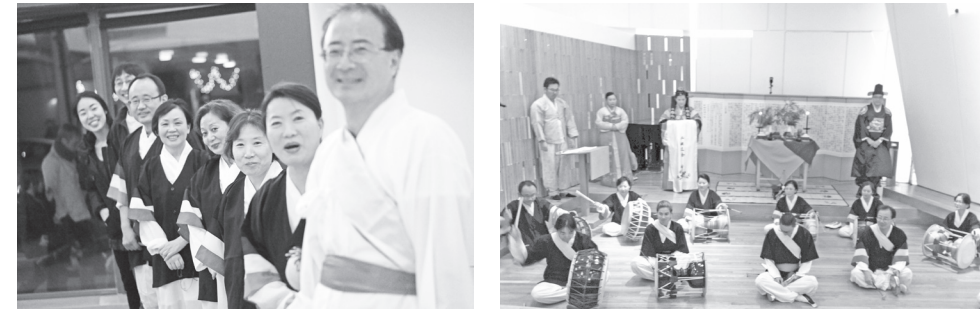
2012년 보스톤한인교회는 소그룹 사역, 교우들끼리 주 안에서 취미와 취향에 따라 좋은 시간을 가지며, 교우간에 서로 받은 은사를 나누는 은사공동체 모임을 장려하여 동우회 그룹이 형성되어, 2014년 현재 5개의 그룹이 활동하고 있다. 사도신경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듯이 교회는 ‘코이노니아(Koinonia) 곧 성도의 교제이다. 1991년의 캔버라 세계교회협의회 총회의 성명서에서도 ‘코이노니아로서의 교회 일치: 은사와 소명’을 강조하여 은사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다. 단순한 취미 생활의 공유라기보다 소그룹사역을 통해 은사와 소명을 나누는 공동체로 발전해 가고 있다.

### 사물놀이팀 “하늘소리”

하늘소리는 2009년 집사회(회장 김준구 집사)가 주동이 되어 은사 공동체로 출발하였다. 미국 속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고 국내 선교의 일부를 담당하며 기독교 신앙을 더욱 돈독하게 하려는 활동이다. 사물놀이의 사물은 북, 팽과리, 장구, 그리고 징을 가리키며 각 악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연관이 있는데, 북은 구름을, 팽과리는 천둥을, 장구는 비(소나기)를, 그리고 징은 바람을 표현한다고 한다.

2009년 창립 초기에는 12명의 집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아래층에 모여 연습을 하였다. 당시 멤버로는 김동숙, 김민준, 김준구, 김현주, 안성완, 이성우, 이유택, 이재혁, 이현주, 정일진, 최원석 등이었다. 그 동안 하늘소리의 강사도 바뀌고 멤버도 바뀌게 되어, 2012년 7월부터 약 20개월 동안 MIT에서 박사 과정에 있으면서 품물 패장으로 있던 이해선 형제가 강사로 수고하였다. 현재 멤버로는 고경아, 김동숙, 서명숙, 안성완, 이선영, 최정열, 허경희, 홍도화가 활약하고 있다. 2014년 6월 현재 MIT의 사물놀이 팀 멤버로 있는 미국인 셸비와 함께 매주 화요일 오후 8시부터 한 시간 반 정도 연습을 하고

있으며, 모임 이외에도 교회 행사가 있을 때는 공연하기도 한다. 2013년 7월에는 전통 결혼식 축하공연이 있었고, 10월에는 교회에서 주최한 한국 문화 축제, 그리고 2014년 1월 뉴스타 부동산의 신년 갈라쇼에서 사물놀이 ‘웃다리’를, 2014년 5월 교회 어머니날 행사에서 설장구 ‘덩더궁이와 휘모리’를 공연하였다.



하늘소리-전통결혼식 축하공연 (2013)

### 탁구동우회

탁구동우회는 2011년 5월 25일, 최창열 집사 등 8명이 처음 결성하여 명칭을 보스톤한인교회 탁구동우회라 정하고 회장으로는 권복태 집사를 추대하였다. 탁구동우회는 탁구대 4대를 마련하고 매주 활동하였으나, 탁구실로 사용키로 하였던 친교실의 조명이 예상보다 어두워 모임을 계속하지 못하고 2년 후 친교실의 조명을 개선하여 2013년 9월 29일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탁구대회”를 개최하였다. 복식전에 22개팀 44명, 남자 단식전에 22명, 여자 단식전에 8명이 참가하여 남자 단식 우승은 권복태 장로, 준우승은 김진기 집사, 여자 단식 우승은 임현실 집사, 준우승은 김영순 집사, 복식 우승은 안태준 장로/이유탉 집사 팀, 복식 준우승은 이문영 집사/이원걸 집사 팀이 차지하였다. 2014년 현재도 매주 목요일에 회원들이 정기모임을 가지고 있다.



탁구대회

1966년에도 비록 교회를 빌려쓰고 있었지만 탁구 시합으로 친교를 나눈 일이 있었고, 간헐적으로 탁구 경기가 있었지만 공식적인 동우회가 발족된 것은 처음이다.

### 서예동우회

2011년 8월 서예동우회가 김현지 권사를 중심으로 결성이 되어 주중에 한번씩 교회에서 모여 서예 시간을 같이 가지게 되었다. 회원은 10여 명이고 모임 때마다 2시간씩 실습을 한다. 지역사회의 한 인들은 물론 초보자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김현지 권사는 2013년 교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면서 열 폭짜리 병풍 ‘기미독립선언서’를 만들어 보스톤한인교회에 기증하기도 하였다.



서예동우회 회원들과 작품





시내산 동우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발족 (2012. 04)

**시내산 동우회**

2012년 보스톤한인교회의 전교인이 Earth Care Congregation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추천하는 단체 하이킹과 친환경 행사의 하나인 산행을 같이 하기 위해 발기위원들(김정선-위원장, 김문소, 김현주, 사공현일, 심기선, 안성완, 이문희, 최정열, 최창열, 홍도화)을 중심으로 발족되었다. 4월 보스톤 근교의 Blue Hills 산행을 시작으로 매달 보스톤 근교나 뉴햄프셔 지역에 산행을 계속하고 있다. 2012년에는 뉴햄프셔에 있는 산 Mount Monadnock, Mount Tecumseh, Mount Major 등에 10차례에 걸쳐 산행을 했는데 매번 10-25명이 참여하였다. 보스톤 남쪽 Hingham에 World's End의 Conservation 지역에서 동우회원들이 하이킹을 했을 때에는 청

년부원들을 중심으로 자원봉사 환경정리를 하기도 하였다. 2013년에도 일곱 차례의 산행을 하였는데, 모든 기록을 블로그에 남겨 받은 은사를 나누고 있다.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JasonKimSR](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JasonKimSR)



컴퓨터 사랑방(컴퓨터 강좌를 끝내고)

**컴퓨터 사랑방**

컴퓨터 사용에 대해 더 알고자 하는 연로하신 교우들을 포함한 부모님들을 위해 2014년 2월부터 매주 1부 예배와 2부 예배 사이에 한 시간 동안 김정선 장로를 중심으로 컴퓨터 사랑방을 열어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친교실 라운드 테이블에서 각자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에 관한 질문을 가져오면 개인적으로 도와 주고 있다. 교사로는 김정선 장로, 최정환/한세진 집사, 강모영/박선영 집사, 김진홍 집사, 김상기 집사가 수고하고 있고, 매주 5-6

명의 교우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 때로는 컴퓨터 인터넷이나 와이파이(Wifi) 설치를 위해 가정을 방문해서 도와주기도 하였다.

좀더 체계적으로 컴퓨터에 대해 배우기 위해 2014년 4월 초부터 11주간 컴퓨터와 인터넷 기초 강좌를 매주 한 시간씩 아래층 교실(room 4)에서 가졌다. 23명이 등록하여 매주 10-15명이 참석하고 김정선 장로가 주로 강의를 맡고, 안성완 장로, 최정환/한세진 집사, 강모영/박선영 집사, 김상기 집사가 보조 교사로 수고하였다. 강의 내용은 컴퓨터의 기초 이론, 여러 운영체제(Windows, Mac, iPad, Android)의 기본 프로그램, Apps, Internet and Wifi, web browsing, file management, email, Word, Excel, PowerPoint 등의 주제를 다루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컴퓨터 기기에 따라 책도 주문하고, 몇 명은 새 컴퓨터를 장만하기도 하였다. 이 사역은 젊은 교우들이 연로한 교우들을 돕는 실버 사역의 일면을 보여주면서 하나의 은사 공동체로서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한미문화재단(KACF)의 설립과 활동**

2006년 1월 보스톤한인교회 당회는 당시 계획하고 있던 Education and Community Center(ECC)의 건축과 함께 지역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교회와 독립 된 법인체인 비영리 단체로 한미문화재단(Korean American Cultural Foundation of Great Boston, Inc. KACF) 설립을 결정하였다. Task Force를 위임 받은 김문소, 김정선, 강상철 장로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Bylaw를 채택한 후, 매사추세츠 주정부에 501(C) (3) 비영리 단체로 2007년 1월 3일 등록하였다. 한미문화재단은 한국의 문화, 역사, 예술을 보스톤 지역에 알리고 보급하며, 다른 민족과의 문화 교류와 이해를 통하여 대 보스톤 지역의 다중문화에 근거한 화합을 추구하며, 모두의 삶을 더욱 값지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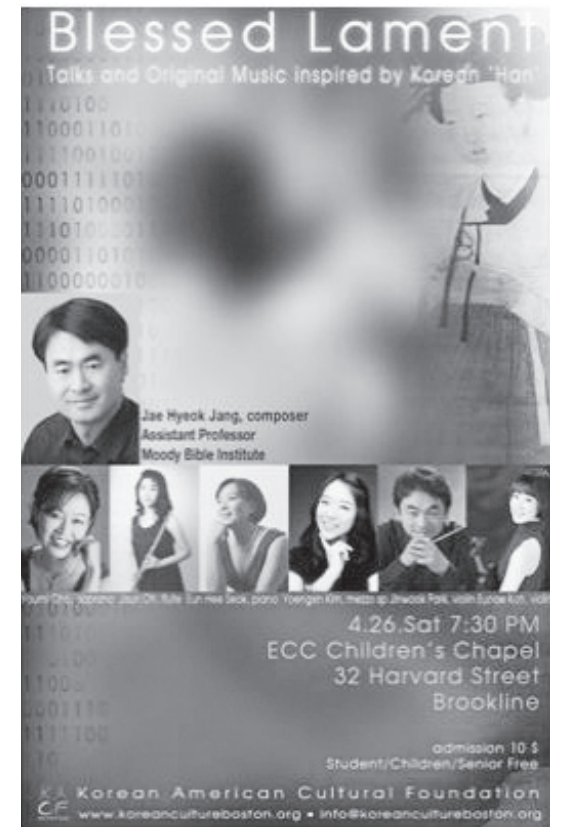
2007년에는 보스톤한인교회의 한국문화축제(Korean Cultural Festival, KCF)를 공동 후원하였으며, 한미문화재단의 문화와 예술활동에 대한 장기 계획을 준비하였다. 2012년 보스톤한인교회의 ECC 건축 완공과 함께 김문소 장로가 한인사회의 인재들을 이사회에 영입하여 재개편하고, Bylaw를 개정하여 website도 새로 열게 되었다. [www.koreancultureboston.org](http://www.koreancultureboston.org)

김문소(회장/이사장), 강상철(재무), 이유택(서기), 고종성, 김희정, 박진욱, 배광현, 백승한, 성기주, 유승오, 이은주, 장수인, 정광근, 황호범

2013년 10월 11일에는 초청 예술인 한테라의 가야금 연주와 춤, 하버드대학교의 David R. McCann 교수의 한국 시조 강의를 한데 묶은 공연이 100여 명이 참석한 모금만찬 후에 ECC Children's Chapel에서 개최되었다. 2014년 4월에는 봄 콘서트로 '축복의 한'(Blessed Lament)이란 주제의 장재혁 교수의 작품 발표와 한국의 '한'에 대한 강의를 가졌다. 보스톤한인교회와 공동주최로 수차례에 걸친 한인문화 축제, 'Oasis Café Night'과 'M Concert Series' 등을 후원했고, 최근에는 Hwaum Boston Chamber 연주, '한마음 추모 음악회'와 'Broadway to Hollywood' 뮤지컬 공연 등을 후원하였다.

**보스톤한인교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 2013**

2013년은 보스톤한인교회 창립 60주년을 축하하는 행사가 2012년 12월에 가진 창립 60주년 기념사 진전을 시작으로 2013년 11월 창립기념예배 때까지 이어졌다. 창립 60주년의 의미를 '희년을 향한 Vision Statement'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나날이 새로워지는 것을 추구하며 함께 이루어가는 자세로 행사 준비에 임하였다. 6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sup>3</sup>들과 여러 부서의 많은 교우들



'축복의 한' (Blessed Lament) 2014. 4

3 위원장: 김영범 장로 부위원장: 정하균 집사 고문: 김문소 장로  
위원: 김대식 집사, 김진홍 집사, 노윤경 집사, 배광현 교우, 유승오 집사, 최학수 집사

의 수고로 축하 행사들을 은혜 중에 마쳤다.

### 60주년 기념사진전

보스톤한인교회의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는 2012년 12월 제1차 사진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53년 창립부터 1994년 채위 목사 은퇴까지 41년의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었던 귀한 사진들을 14개의 대형 포스터로 만들어 프레임에 넣어 교회 팔러에서 전시하였다. 60여 페이지의 사진을 정리해서 제직회에 보고한 후 이를 PowerPoint video로 만들어 YouTube에 올려 한국 및 타주에 있는 교우들에게도 보냈고, 시내산동우회 블록에도 올렸는데 1,000번 이상의 방문자들이 있었다. 2차 사진전은 2013년 11월에 1995년부터 현재까지의 사진을 26개의 포스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2014년까지 전시하였다. 60주년 역사편찬위원회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사진 모으기와 고르기부터 시작해서, 포스터 만들기, 프레임 만들기, 마지막 설치까지 해서 전시하였다.

### 기념부흥회

2013년 5월에는 최훈진 목사를 강사로 초빙해서 기념 부흥회를 5월 17일과 18일 이틀간 오후 7시부터 가졌다. 첫째 날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때', 둘째 날에는 "말뚝은 깊게, 고비는 길게"라는 주제로 우리의 60년 역사를 돌아보며 미래를 내다보았다. 최훈진 목사는 보스톤한인교회가 60주년 시점에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느끼고, 현대가 요구하는 다문화사역, 복음으로 포용하는 사역으로 나아갈 때 교회와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여 변화에 뒤처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권면하였다.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볼 줄 알며, 창조적인 불협화음도 즐길 줄 알며, 변화를 수용하지만, 변하지 않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며, 60주년을 지나면서 문화의 강, 언어의 강, 세대의 강, 인종의 강을 연결하는 '다리 놓는 사역'(Bridge Builder)을 계속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The Church we build together)으로 은혜가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였다.

### 한국문화축제 '포용'

2013년 10월 12일에는 이웃 초청 한국문화축제가 '포용'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350여 명의 브루클라인 주민이 참여하여 오후 6시부터 한국전통음식을 시식하고 어린이를 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후에 7시부터 Concert "The Petal of a Flower in the Wind"를 관람하였다. 2013년의 문화축제 프로그램(감독 유승오 집사)은 그간 일어난 두 가지 큰 문화적 변동을 고려하였다. 첫째, 한국의 경제위상과 대중문화의 해외 인지도가 크게 높아지고 많이 알려져서 태권도, 비빔밥, 부채춤, 가야금 등은 물론 K-Pop, K-Drama 등에 관심이 깊어져, 문화축제에 오는 브루클라인 주민이 이제는 한국 문화 '101'을 넘어 그 속에 숨겨진 모습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인터넷 특히 YouTube의 보편화로 누구나 타민족의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은 쉽게 충족시킬 수 있는 시대라는 점이다. 컴퓨터 화면만으론 느끼기 힘든, 역동적이고 '열린' 한국 문화의 모습을 전해야 하였다. '열린'이 뜻하는 바는 한국과 타 문화의 다양한 음악 장르는 물론 그 과거와 미래를 다 '포용'하고자 하는 바람이다. 다문화와 진보주의의 중심지인 보스톤에 60년 자리잡은 보스톤한인교회가 동포사회와 이 지역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주역의 역할을 감당하려는 바람과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혜승 집사의 사회로 진행된 concert는 Flower(꽃), Petal(잎새), Wind(바람), Grand Finale(피날레) 등 네 파트로 나뉘었다. 전반부에는 삼고무와 버클리음대 한국음악 그룹 '시김새'의 연주를 배경으로 한 전통 혼례식으로 시작하여, 초청 가야금 연주자 한테라의 한국 전통 산조와 가야금 병창, 그리고 첼

리스트 배유미와 함께 한 '백도라지', 바흐 무반주 첼로 조곡 등으로 서양과 한국의 정통 클래식 음악이 어우러지는 무대를 꾸몄다. 후반부는 보스톤한인교회 '하늘소리'팀의 사물놀이를 시작으로 일본 연주자 스미에 가네코와 이사쿠 가게야마가 버클리음대 심규민, 최기웅, 장승호와 더불어 일본 전통 음악과 미국의 재즈 음악을 넘나들었고, 이어 유대인 Yeonathan Shachar가 이끄는 Paintbrush Orchestra가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 백남준의 영상을 배경으로 실험음악을 선사하였다. 한테라의 가야금과 시김새의 민속음악 뱃노래-궁타령 연주로 돋은 흥을 이어받은 메조 소프라노 김용신의 '신 아리랑'은 관객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Paintbrush가 독특한 Sound-painting 기법으로, 알아듣기 힘들 정도의 De-construct(해체작업)한 Arirang의 멜로디를, 다시 모든 음악인들이 참가하여, 우리에게 친숙한 아리랑으로 Re-construct(시김새-정은혜 편곡/지휘)하는 것으로 대단원의 막이 내려졌다. (<http://www.kcbevents.org/kcf/kcf2013>)

문화축제 '포용'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과 타민족(일본, 미국, 독일, 중국, 프랑스, 캐나다와 유대인)의 문화가 만났고, 함께 어우러져 아리랑을 만들었으며, 한국의 대표적 전통 음악인 가야금 산조가 서양 음악의 최고봉이라고 할 만한 바흐의 '무반주 첼로조곡'과 같이 관객의 박수를 받았다. 20세기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 백남준, 그의 예술세계와 21세기 보스톤의 실험음악인들의 만남도 감회가 깊은 하이라이트였다. 사물놀이, 아리랑, 창, Sound-painting, Jazz, 산조, K-Pop, 일본 민요, My Favorite Things, J.S. Bach, 백남준, 그리고 싸이 - 음악회가 끝나게 될 즈음엔 Brookline의 청중도 이들 모두를 포용하고 있었다. 근원이 다른 예술과 문화의 줄기가 한데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성공적인 문화 축제는 교회 창립60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위원들과 집사회(회장 김동규), 여선교회(회장 노윤경)의 긴밀한 협조와 50여 명의 보스톤한인교회 제직과 교우들의 헌신적인 봉사로 이루어졌다.



한국문화축제 (2013. 10)

### 제2회 이민신학 심포지엄

11월 22일 세 명의 강사를 초빙하여 열린 제2회 이민신학 심포지엄에서는 보스톤한인교회의 4대 비전 중의 하나인 '3세대가 함께 배우는 교회'를 주제로 하여 오후 4시부터 밤까지 계속되었는데, 타민족 청중을 위한 동시 통역이 제공되었다.

첫 번째 강사 장성희 목사(Union Presbyterian Seminary)는 "Living Together with Differences: An Intercultural Approach to Intergenerational Education"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서 이민자 3세대에 걸친 유기체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고, 어느 한 세대에 치우치지 않은 mutual initiative가 바람직한 접근방법이라고 제시하였다.

두 번째 강사 Kevin Park 목사(Columbia Theological Seminary)는 1.5세 목사로서 "Generation to

Generation”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실제적인 경험에 의거하여,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러 세대를 통해 역사하신 섭리를 통해 우리의 3세대를 다시 볼 수 있게 조명하였다.

세 번째 강사 허천희 목사(토론토 말씀의 교회)는 30세에 한국을 떠나 1.5세와 결혼하고, 2세 자녀를 둔 이민 1세로서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의 10년 목회 현장에서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하였다. ‘삼세대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한 10년간의 노력’을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른들이 변화되어야 할 것, 교회와 가정의 공동노력, 차세대 영적 지도자(차.영.지. Spiritual Leaders for the Next Generation)를 양성할 것을 촉구하였다. 장래의 시간적 공간적 선교를 바라보며 중고등부, 청년부원들을 중간지도자로 키우고 차세대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기회가 대형교회보다도 소형교회에 더 있다고 그의 경험을 말하였다.

**창립 60주년 기념음악회**

창립 60주년 기념예배 전야인 11월 23일에 열린 기념음악회는 창립 60주년 축제의 최고봉을 장식하였다. 보스턴한인교회 1부, 2부 연합찬양대와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의 제1부는 1부 찬양대 지휘자인 박진욱 집사가, 제2부는 2부 찬양대 지휘자인 변화경 장로가 맡았다.

제1부는 박진욱 집사의 지휘로 현악 오케스트라가 Edward Elgar의 Serenade for String Orchestra, op. 20를 연주했고, 문태국 교수가 Max Bruch의 ‘Kol Nidrei, op. 47’ 첼로 연주를, 소프라노 조유미가 W.A. Mozart의 ‘Exsultate, Jubilate, K. 165/158a’를 독창하고, 본 교회 1부, 2부 연합 찬양대가 John Rutter곡 ‘Gaelic Blessing’,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를 합창하였다.



보스턴한인교회 연합찬양대의 창립 60주년 기념음악회

제2부는 변화경 장로의 지휘로 L.V. Beethoven의 곡 ‘Fantasia in C minor, Op. 80(Choral Fantasy) For Piano, Chorus and Orchestra’를 본 교회 반주자였던 손민수 교수의 피아노 협연과 연합 찬양대의 합창(곡 중 독창: 소프라노 1 김은정, 박소영, 소프라노 2 박은영, 조유미, 알토 김한나, 이문희, 테너 이관화, 박진욱, 베이스 이대한)으로 연주되었다. 이어 Haydn의 합창곡 ‘The Creation’에서 ‘The marvelous work beholds amazed’(소프라노 박소영 독창)와, ‘The Heavens are telling’(곡 중 독창:

소프라노 조유미, 테너 이관화, 베이스 이대한) 두 곡의 연주에 이어 Anton Bruckner의 ‘Locus Iste (Gradual)’를 연주하였다. 마지막 순서인 L.V. Beethoven의 ‘Christ on the Mount of Olives’에 나오는 ‘Hallelujah(Choir of Angels)’의 연주가 끝났을 때에는 본당을 가득 메운 청중들로부터의 열렬한 환호와 박수가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오랜 기간 깊게 닦아온 본 교회의 큰 자랑인 찬양대의 합창과 문태국의 첼로 독주, 20년 이상 한결같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대의 주축이 되어온 조유미 집사의 소프라노 독창, 14년간 반주로 섬겼던 손민수 교수의 피아노 독주(합창, 오케스트라 협연), 곡 중 솔로리스트들이 열창한 이날 밤의 격조 높은 음악은 많은 청중들과 함께 감사와 환희에 찬 감동적인 음악회였다. 음악회에 참석한 많은 청중들은 이렇게 국제적인 수준에 달하는 음악회를 할 수 있는 찬양대를 부러워하며 마음껏 축하했고, 옛 교우들은 떨리고 넘치는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며,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에 충만하였다.

**창립 60주년 기념예배, 옛 교우 초청 만찬**

11월 24일 오후 5시에 60년간 순례자로 살아온 우리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 보며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에 감사하는 창립 60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총회 Presbyterian Mission Agency의 Deputy Director Rev. Roger Dermody가 말씀을 전했고, 조문길 목사(미국장로교 동부한미 노회 총무), 김덕기 목사(NE 교회협의회 회장), Thatcher Freeborn 장로(보스턴 노회장)가 축사를 해주었다. 귀한 말씀들과 60년 역사를 동영상으로 편집한 “60 Year KCB History: The Journey of Korean Pilgrims”를 보면서 보스턴한인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예배 후에는 모든 구역에서 준비한 만찬 음식을 나누었고, 외부 손님들에게는 기념 선물로 이영길 목사 설교집 《희년의 노래 2》를 증정하였다.



창립 60주년 기념 예배 (2013. 11. 24)

**어머니주일 찬양제, 탁구대회, 및 골프대회**

5월에는 창립 60주년 행사 위원회와 여선교회가 공동 주최한 어머니주일 찬양제에 모든 부서와 구역이 참여하여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9월에는 창립 60주년 기념 탁구대회와 골프대회를 열어 서로의 사랑을 나눌 수 있었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37,412이 모금되어 60주년 기념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 탁구대회는 60주년 행사위원회와 탁구동우회가 공동 주최하여 복식 22개팀(44명), 남자 단식 22명, 여자 단식 8명이 참여하여 열띤 경쟁을 벌였고, 60주년 행사 위원회와 남선교회가 공동 주최하여 Lakeville Country Club, Lakeville에서 가진 골프대회는 총 22명이 참석하였다.

■ 60주년 역사편찬위원회의 활동 개요와 교회역사자료의 전산화

2012년 1월 당회는 2013년 11월 보스톤한인교회 창립 60주년에 맞춰 교회 60년사를 발간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김정선, 박신영 장로에게 위임하였다. 보스톤한인교회 60주년 기념 역사편찬위원회가 구성되어 4개 팀으로 나눠 역사자료 수집, 정리, 읽기를 시작했고, 정리된 자료는 시대별로 스캔을 하기 시작하였다. 2012년 4월 주말 이틀 동안 와싱턴한인교회 역사편찬위원장으로 와싱턴한인교회 35년사를 발간한 백순 장로를 강사로 초빙하여, 편찬위원들을 위한 교회사 쓰기 워크샵과 본 교회 당회원들과 관심 있는 모든 교우들을 위한 역사편찬세미나를 가졌다. 4월에는 역사편찬위원들의 Day Retreat가 있었고, 화상회의를 통해서 격주로 회의를 가지면서 아울러 역사자료 수집, 옛 교우들의 연락처를 찾기를 계속하였다. 또한 많은 한국교회역사 책자를 수집하여 읽고 배우면서 60년사 책자의 전체 윤곽을 만들어가기 시작했고, 발간을 위해 한국에 있는 쿠파출판사와 협의하였다. 7월부터는 김갑동 목사와 초창기에 출석하던 교우들, 뉴잉글랜드 지역에 있는 옛 교우들, 방문 중이었던 이일영 장로와 인터뷰하고, 한국에 있는 옛 교우 김장환/이양자 교수, 애틀랜타의 정소영 교수, 뉴욕의 추국희 교수 등 으로부터 사진과 자료를 계속 수집하였다. 그리고 이영길 담임목사와는 2차에 걸친 인터뷰를 가졌다.

2012년 12월에는 창립 59주년을 맞아 1953년부터 1994년까지의 41년에 걸친 사진자료를 14개의 포스터로 만들어 1차 사진전을 로비에서 개최하였다. 2013년 초 4개월에 걸쳐 60년사에 들어갈 목회자, 교역자, 전교인, 부서사진, 성경공부반 등 활동을 보여주는 사진 촬영이 진행되었다. 거의 일 년 반에 걸쳐 30여 개의 박스에 있던 방대한 교회 제반 역사 자료와 추가 수집된 서류자료, 사진, 비디오는 시대별, 주제별, 부서별, 활동별로 분류 스캔되어 Livedrive라는 Cloud storage에 저장하여 교회 60년 역사자료의 전산화가 완성되었다. 2013년 3월에는 60년사에 들어갈 축사를 총회, 노회, NCKPC, 주지사, 총영사관, 브루클라인 타운 유지에게 부탁을 하였다. 2013년 창립 60주년 기념 4월 제직수련회는 ‘보스톤한인교회 역사 회고’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준비위원들에게 초기 교회의 자료를 제공하였고, 간략한 역사를 발표하는 데 협조하였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60년사 출간일자는 일 년 늦추기로 결정이 되었고, 2013년 9월부터 모든 당회원, 역사편찬위원들이 함께 일차 작업이 끝난 부분부터 합동회를 가지기 시작하였다.

2013년 11월에는 2박 3일로 역사편찬위원회 Retreat를 Deer Park, NH에서 가지면서 그 동안의 원고를 돌아보고 2차 사진전 준비, 편집진 합동회, 간추린 연혁 정리 등을 하였다. 창립 60주년 기념 제 2차 사진전 포스터는 1995년 이영길 목사 시무 이후부터의 사진 역사를 전부 26장으로 완성하여 로비에 전시했으며, 이 사진 자료는 ‘보스톤한인교회 60년사’의 ‘사진으로 보는 보스톤한인교회 60년’에 들어가게 편집이 되었다. 60주년 행사위원회의 60주년 영상물 제작을 위해 사진 자료를 전달했고, 기념예배 시에 사용될 KCB Brief Chronicle 60 Year: 한글 및 영문 버전을 준비, 당회의 인준을 받았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스톤한인교회 60년사’ 발행일자는 2015년으로 미루어졌지만 2014년에는 편찬 작업이 결실을 보아 일차 초고를 끝내고 초반기에 1차 합동회, 후반기에 2차 합동회를 통해 전체 문맥이 정리되었고, 역사와 관련된 다른 문서들도 정리하고, 출판을 맡은 한국의 쿠파출판사와 시안을 작성했고, 캐나다에 있는 옛 교우 김용한 집사의 협조를 받아 디자인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 사역자 및 봉사자 명단 1995. 06-2014. 06

목회자	1995- 현재 이영길 담임목사 2007- 현재 윤경문 행정부목사
당회	<p>1995 당회서기 한승희, 교육위 최연일, 교인위 김문소, 선교위 강길원, 예배예술위 김형범, 재정위 조준호, 공천위 강성유(부/조요윤), 담임목사 청빙위 김성빈, 위임예배준비위 김형범, 인사위원 한승희, 조요윤, 이영길, 노회 총대 한승희</p> <p>1996 당회서기 한승희, 교육위 최연일, 교인위 김문소, 선교위 김영경, 예배예술위 김형범, 재정위 조준호, 공천위 김내도(부/조준호), 인사위원 한승희, 조요윤, 이영길, 노회 총대 한승희</p> <p>1997 당회서기 김성빈, 교육위 최연일, 교인위 김문소, 선교위 강길원, 예배예술위 김내도, 재정위 조준호, 홍보위 김정선, 공천위 강길원(부/변화경), 건물관리/이양 담당위 김현, 영어예배특별위 김내도, 인사위원 김성빈, 이영길, 노회 총대 김성빈</p> <p>1998 당회서기 김성빈, 기획관리위 김성빈, 교육위 김정선, 교인위 강성유, 선교위 강길원, 예배예술위 조준호, 재정위 조준호, 홍보위 김정선, 공천위 한승희(부/강성유), 인사위원 김성빈, 조준호, 한승희, 이영길, 노회 총대 김성빈</p> <p>1999 당회서기 김성빈, 기획관리위 최연일, 교육위 김정선, 교인위 김문소, 선교위 강길원, 예배예술위 강성유, 재정위 조준호, 홍보위 김정선, 공천위 김문소(부/최연일), 인사위원 김성빈, 김문소, 이영길, 노회 총대 김문소, 한승희</p> <p>2000 당회서기 김성빈, 기획관리위 최연일, 교육위 김정선, 교인위 김문소, 국내선교위 김명철, 해외선교위 강길원, 예배예술위 홍경자, 재정위 조준호, 홍보위 김형범, 공천위 최연일(부/김형범), 인사위원 김성빈, 이영길, 노회 총대 김성빈</p> <p>2001 당회서기 김성빈, 기획관리위 최연일, 교육위 박영철, 교인위 김문소, 국내선교위 김명철, 해외선교위 강길원, 예배예술위 홍경자, 재정위 조준호, 홍보위 김형범, 공천위 김형범(부/김성빈), 건축기금관리 한승희, 인사위원 김성빈, 한승희, 이영길, 노회 총대 김성빈, 강상철</p> <p>2002 당회서기 김성빈, 기획관리위 김정선, 교육1부위 박영철, 교육 2부위 최연일, 교인위 김문소, 국내선교위 김명철, 해외선교위 강길원, 예배예술위 홍경자, 영어예배 강상철, 재정위 조준호, 홍보위 김형범, 공천위 김성빈(부/홍경자), 교회규칙 개정위 김형범, 건축기금관리 한승희, 인사위원 김성빈, 이영길, 노회 총대 김성빈, 한승희</p> <p>2003 당회서기 조준호, 기획관리위 김정선, 교육1부위 박영철, 교육2부위 박영일, 교인위 김문소, 국내선교위 김명철, 해외선교위 최연일, 예배예술위 홍경자, 영어예배 강상철, 재정위 조준호, 홍보위 김형범, 공천위 홍경자(부/김명철), 첫회년행사 준비위 김문소, 첫회년기금 모금위 한승희, 인사위원 조준호, 이영길, 노회 총대 조준호</p> <p>2004 당회서기 강길원, 건물기획위 김정선, 교육1부위 박영철, 교육2부위 박영일, 교인위 김문소, 국내선교위 김명철, 해외선교위 최연일, 예배예술위 홍경자, 재정위 조준호, 사회정의위 이선영 집사, 홍보위 김형범, 공천위 김명철(부/박영철), ECC 건축 위원회 한승희, ECC 건축 기금모금위원회 김정선, 역사편찬위 김성빈, 비전선언문 준비위 김문소, 인사위원 강길원, 김정선, 이영길, 노회 총대 강길원, 한승희</p>

<p>2005 당회서기 김명철, 기획관리위 김세철, 교육1부위 박영철, 교육2부위 김형범, 교인위 장양술, 국내선교위 집사회, 해외선교위 강길원, 예배예술위 김명철, 재정위 조준호, 사회정의위 이선영, 홍보위 김정선, 공천위 박영철(부/김정선), ECC 건축위 한승희, ECC 건축기금모금위 김정선, 역사편찬위 김성빈, 인사위원 김명철, 조준호, 이영길, 노회 총대 김명철</p> <p>2006 당회서기 김문소, 기획관리위 김세철, 교육1부위 김문소, 교육2부위 장양술, 교인위 장양술, 국내선교위 이봉욱 집사, 해외선교위 최연일, 예배예술위 홍경자, 재정위 김성빈(부/조준호), 사회정의위 이선영, 홍보위 김정선, 공천위 김정선(부/최연일), ECC 건축위 한승희, ECC 건축기금모금 위 안태준 집사, 역사편찬위 김성빈, 인사위원 김문소, 김정선, 이선영, 이영길, 노회 총대 김문소, 이사장 김문소</p> <p>2007 당회서기 김문소, 기획관리위 김세철, 교육1부위 박영철, 교육2부위 김명철, 교인위 장양술, 국내선교위 이봉욱 집사, 해외선교위 최연일, 예배예술위 홍경자, 재정위 조준호(부/정진웅), 사회정의위 이선영, 홍보위 김정선, 공천위 최연일 (부/조준호), ECC 건축위 한승희, ECC 건축기금모금위 안태준 집사, ECC 건축용자위 김성빈, 행정부목사 청빙위 김성빈, 역사편찬위 김성빈, 인사위원 김문소, 김정선, 장양술, 이영길, 노회 총대 김문소</p> <p>2008 당회서기 김문소, 기획관리위 김세철, 교육1부위 박영철, 교육2부위 김명철, 교인위 장양술, 국내선교위 이봉욱 집사, 해외선교위 최연일, 예배예술위 홍경자, 재정위 조준호, 사회정의위 이선영, 홍보위 홍동욱, 공천위 조준호(부/장양술), ECC 건축위 한승희, ECC 건축기금모금 위 안태준, ECC 건축용자위 김성빈, 교회규칙 개정위 박영철, 인사위원 김문소, 김성빈, 홍경자, 이영길, 노회 총대 김문소, 이선영, 한승희</p> <p>2009 당회서기 김문소, 기획관리위 김세철, 교육1부위 박영철, 교육2부위 홍동욱, 교육3부위 김명철, 교인위 장양술, 국내선교위 이정규, 해외선교위 이선영, 예배예술위 홍경자, 재정위 조준호, 사회정의위 김정선, 홍보위 김성현, 공천위 장양술(부/홍경자), ECC 건축위 한승희, ECC 건축기금모금위 안태준, ECC 건축용자위 김정선, 인사위원 김문소, 김세철, 김정선, 이영길, 노회 총대 김문소, 한승희</p> <p>2010 당회서기 김문소, 기획관리위 김세철, 건물운영위 이정규, 교육1부위 박영철, 교육2부위 홍동욱, 교육3부위 강길원, 교인위 장양술, 국내선교위 이정규, 해외선교위 안태준, 예배예술위 홍경자, 재정위 조준호, 사회정의위 김정선, 홍보/출판위 김성현, 공천위 홍경자(부/박영철), ECC 건축위 한승희, ECC 건축 기금모금위 안태준, ECC 건축용자위 김성빈, 인사위원 김문소, 김정선, 홍동욱, 이영길, 노회 총대 김문소, 한승희</p> <p>2011 당회서기 김문소, 기획관리/건물관리위 김성현, 교육1부위 박영철, 교육2부위 김명범, 교육3부위 이정규(부/권복태), 교인위 이정규, 국내선교위 이선영, 해외선교위 안태준, 예배예술위 홍경자, 재정위 조준호, 정의평화환경위 김정선, 홍보/출판위 김성현, 박신영, 공천위 박영철(부/이선영), ECC 건축기금 모금위/용자위 안태준, 인사위원 김문소, 김정선, 안태준, 이영길, 노회 총대 김문소, 한승희</p> <p>2012 당회서기 한승희, 기획관리/건물관리위 김성현(부/안성완), 교육1부위 박영철, 교육2부위 김명범, 교육3부위 이정규(부/권복태), 교인위 이정규, 국내선교위 이선영, 해외선교위 안태준, 예배예술위 장양술, 재정위 조준호, 회계 조준호, 정의평화환경위 안성완, 홍보/출판위 박신영, 공천위 이선영(부/이정규), 60년사 역사편찬위 김정선 (부/박신영), 60주년 기념 행사위 김명범, 인사위원 김명범, 안태준, 한승희, 이영길, 노회 총대 박영철, 한승희</p>
---

<p>2013 당회서기 한승희, 기획관리/건물관리위 김성현(부/엄재관), 교육1부위 김세철, 교육2부위 김명범, 교육3부위 권복태, 교인위 이정규, 국내선교위 이선영, 해외선교위 안태준, 예배예술위 장양술, 재정위 김성현, 회계 조준호, 정의평화환경위 안성완, 홍보/출판위 박신영, 공천위 이정규(부/김세철), 60년사 역사편찬위 김정선(부/박신영), 60주년 기념행사위 김명범, 인사위원 안성완, 안태준, 한승희, 이영길, 노회 총대 박신영, 한승희, 이사장 안태준</p> <p>2014 당회서기 한승희, 기획관리위 김성현, 건물운영위 엄재관, 교육1부위 김세철(부/이은주), 교육2부위 김명범(부/한문수), 교육 3부위 권복태(부/방경남), 교인위 이정규(부/윤미자), 국내선교위 이선영(부/유승오, 이혜원), 해외선교위 안성완(부/김경애), 예배예술위 장양술(1부 찬양대장 조준호(부/엄재관), 2부 찬양대장 김명범), 재정위 김성현(부/김준구 회계), 정의평화환경위 김정선, 홍보/출판위 박신영, 집사회 최현구(고문/엄재관), 60년사 역사편찬위 김정선 (부/박신영), 인사위 이영길, 한승희, 권복태, 김성현, 박신영, 공천위 김세철(부/김명범), 회계 감사 안성완, 노회 총대 한승희, 엄재관, 재단이사회 권복태</p>	
<p>재단 이사회</p>	<p>1995 이사장 조요윤 감사 김형범 1996 이사장 조요윤 감사 김영경 1997 이사장 조요윤 감사 김성빈 1998 이사장 김현 감사 강성유 1999 이사장 김현 감사 강길원 2000 이사장 김현 감사 김정선 2001 이사장 한승희 감사 김명철 2002 이사장 한승희 감사 박영일 2003 이사장 한승희 감사 김문소 2004 이사장 김정선 감사 홍경자 2005 이사장 조준호 감사 김성빈 2006 이사장 김정선 감사 김세철 2007 이사장 김문소 감사 박영철 2008 이사장 김성빈 감사 이선영 2009 이사장 김정선 감사 홍동욱 2010 이사장 김정선 감사 김성현 2011 이사장 김정선 감사 이정규 2012 이사장 안태준 감사 박신영 2013 이사장 안태준 감사 권복태 2014 이사장 권복태 감사 안성완</p>
<p>장로</p>	<p>1999 안수 홍경자 2000 안수 강경희, 김명철, 박영철, 협동장로 박영일 2001 안수 강상철(베다 니장로교회 파송), 협동장로 김순규 2002 시무임직 박영일 2005 안수 이선영, 김세철, 장양술 2007 안수 정진웅 2008 안수 안태준, 홍동욱 2009 안수 김성현, 이정규 2010 협동장로 김길람 2011 안수 김명범, 박신영 2012 안수 권복태, 안성완 2013 안수 엄재관 2014 추천 이정민</p>
<p>권사회</p>	<p>1997 회장 이상구 2001 회장 박연고, 부회장 최선경, 총무 송미자 2002 회장 최선경, 부회장 나시욱, 총무 최송자 2003 회장 나시욱 2004 회장 신동욱, 부회장 김현지, 총무 김경애, 회계 최송자 2005 회장 박춘지, 2006 회장 김계숙, 2007 회장 김현지, 부회장 송미자, 총무 최송자 2008 회장 김경애, 부회장 강영숙, 회계 조순래 2009 회장 최송자, 부회장 강영숙, 총무/회계 정선주 2010 회장 강영숙, 2011 회장 정선주, 부회장 정능화, 회계 이계순 2012 회장 조순래, 부회장 정능화, 총무/회계 김여영 2013 회장 이숙재 2014 회장 이계순, 부회장 전신애, 회계 김춘미</p>
<p>권사</p>	<p>1995 임직 문숙찬 1997 임직 장현숙 1998 임직 박기춘, 신동욱, 정귀달 1999 임직 김계숙, 김진숙, 박춘지, 최송자 2001 임직 김현지, 송미자 2003 임직 김경애, 정능화 2005 임직 강영숙, 김찬숙, 성강은, 오세경, 이계순, 정선주, 태수영 2006 임직 이경희 2007 임직 조순래 2008 임직 이숙재 2009 임직 김여영 2011 임직 이상자 2012 임직 공경희, 심기선, 전신애 2013 임직 김용희, 김종희, 김춘미, 조영신 2014 추천 김영미, 김정림, 김한나, 서명숙, 신미숙, 이경자</p>
<p>상록기도회</p>	<p>1999-2000 회장 백린 장로, 부회장 강성유 장로, 총무 이상구 권사, 고문 이영길 목사 2001 회장 김갑성 장로, 부회장 강성유 장로, 총무/회계 김현지 권사, 김형곤 협력목사 2002 회장 강성유 장로, 부회장 이상구 권사, 총무/회계 김현지 권사, 김형곤 협력목사 2003 회장 신영각 집사, 부회장 이상구 권사, 총무 문영도 집사, 회계 김현지 권사, 김형곤 협력목사 2004 회장 신영각 집사, 부회장 이상구 권사, 총무/회계 김현지 권사, 김형곤 협력목사 2005 회장 전인재 교육, 부회장 김현지 권사 2006 회장 김현지 권사, 총무 김지수 사모 2007-2008 회장 김지수 사모 2009-2010 회장 신영각 집사, 부회장 장현숙 권사, 총무 이숙재 2011-2012 회장 주정대 집사, 부회장 장현숙 권사, 총무 이숙재 권사 2013-2014 회장 장현숙 권사, 부회장 성강은 권사, 총무 이숙재 권사</p>

집사회	<p>1995 회장 이경희, 총무 조순래, 회계 한영희, 봉사 손선배, 구제 최송자, 친교 최석주, 출판 원덕수</p> <p>1996 회장 박영철, 총무 김세철, 서기 박춘지, 회계 한영희, 봉사 장양숙, 친교 최석주, 구제 김계숙, 출판 원덕수, 최승주, 도서 이점례</p> <p>1997 회장 김명철, 총무 박춘지, 회계 김세철, 서기 최송자, 감사 최송자, 봉사 주상용, 친교 최석주, 구제 김계숙, 출판 장양숙, 도서 이점례, 문서 정영선, 경조 원덕수, 경비안전/생활상담 김명철(법률 박병덕, 김명철, 인생상담 김갑성 장로, 이경희, 장현숙, 교육 박기춘, 박영철, 의료 박기춘, 교통/이사 김동환, 강상철, 사업/직업 김성빈 장로, 이우조, 조미영)</p> <p>1998 회장 김세철, 총무 박춘지, 서기 이경희, 회계 최송주, 봉사 김영범, 구제 김정림, 감사 주상용, 출판 장양숙, 친교 최석주, 생활상담 김명철, 도서 김영순, 이선영, 문서 이훈희, 경비안전 김명철, 경조 원덕수</p> <p>1999 회장 김하나 총무 원덕수, 서기 진교창, 회계 장양숙, 환경미화 봉사 주상용, 의료 김경애, 구제 김영숙, 친교 김영범, 경조 김현구, 생활상담/경비안전 김명철</p> <p>2000 회장 김영범, 총무 최송주, 서기 오승현, 회계 우원화, 봉사 박주상, 친교 서명구, 의료 이경희, 경조 김현구, 구제 이훈희, 경비안전 김준구, 특별행사 오승혁</p> <p>2001 회장 차주혁, 총무 오승현, 서기 박선희, 회계 진교창, 구제 송근준, 경비안전 김준구, 경조 정명상, 봉사 박성준, 의료 김효경, 친교 손정곤</p> <p>2002 회장 정용국, 총무 김동환/이혜승, 서기 홍동욱, 회계 서명구, 의료 임숙현, 친교 손정곤, 봉사 서용석, 구제 오승현, 경조 김선혁, 경비안전 최창열/안성완, 생활상담 김하나, 특수사역 김성혜</p> <p>2003 회장 장양숙</p> <p>2004 회장 안성완</p> <p>2005 회장 안태준, 고문 조준호 장로, 총무 이정규, 회계 최정열, 서기 김태만, 감사 한문수, 봉사 배형근/김우진, 경조 김현구/박기남, 생활상담 김현구/김준배, 경비안전 김성현/최현구, 홍보 박성준/이재혁 건물관리 엄재관/이정일, 국내선교 이봉욱/김상기, 문화 김영순/한혜성, 의료 지훈/김은석, 음악 표신엽/조승건, 체육 이경환/최석희, 친교 김하나/장미자, 특수사역 계동성</p> <p>2006 회장 이정규, 고문 최연일 장로, 총무 김화옥, 서기 한문수, 회계 이원걸, 건물관리 엄재관/김준구, 경비안전 김성현/김상기, 경조 김현구/이태호, 국내선교 이봉욱/김준배, 도서 배한원/이진희, 봉사 조승건/정일진, 문화 최현구/한혜성/양경삼, 생활상담 김현구/구본철, 음악 박기남/김용욱, 의료 지훈/배상걸, 전산 안성완, 특수사역 계동성, 체육 박진욱/정재원/김태경, 친교 오승현/서민정/서은영, 홍보 박성준/백남욱, Fundraising 안태준</p> <p>2007 회장 이경환</p> <p>2008 회장 한문수, 고문 조준호 장로, 총무 최현구, 서기 이태호, 회계 김준구, 봉사 정일진, 친교 김동숙/박애리, 경조 김현구</p> <p>2009 회장 김준구, 고문 안태준 장로, 총무 이유택, 서기 김민준, 회계 이성우, 경조 김현구, 봉사 이태호, 친교 전현임/박애리, 구제 최석희/김동숙, 도서 김은정, 경비안전 이상진, 체육 박진욱, 건물관리 엄재관,</p> <p>2010 회장 김태만, 총무 김우진, 서기 김민준, 회계 이태호, 문화 최현구, 봉사 유승오/강승민, 체육 이성우/백승환, 구제 김동숙/이경자, 친교 김현주/채주영/이영완, 홍보 박성준, 경조 김현구/김효경, 건물관리 이정일, 경비안전 김준배/차민호, 도서 김은정/배한원, 생활상담 김현구, 의료 손영권/이혜영, 전산 하대준, 고문 이정규 장로/김준구/한문수/이경환</p> <p>2011 회장 최정열, 총무 강승민, 회계 정재원, 서기 김우진,</p> <p>2012 회장 김우진/김동규, 총무 정광근, 회계 김동규, 서기 정재원, 공천위원 김우진, 신보경</p> <p>2013 회장 김동규, 총무 구용한, 회계 정재원, 서기 정광근, 봉사 문형근/배광현, 문화 최현구, 의료 채진병, 체육 차민호, 경조 최정열, 홍보 김준구, 고문장로 안태준</p> <p>2014 회장 최현구, 총무 이재익, 서기 이지훈, 회계 김용욱, 고문장로 엄재관</p>
-----	--

안수집사	<p>1995 안수 김세철, 이계순, 장양숙, 최석주, 한영희</p> <p>1996 안수 김정림, 최송주, 최인주</p> <p>1997 안수 정선주, 주상용</p> <p>1998 안수 강병영, 김영범, 김정근, 김효경, 오승현, 이혜승, 이훈희</p> <p>1999 안수 정능화</p> <p>2000 안수 박성호, 정용국</p> <p>2001 안수 고경아, 김난희, 김복길, 김윤, 박관희, 서명구, 손정곤, 오세경, 차주혁</p> <p>2002 임자: 성강은, 윤희경, 이문영, 정진웅 안수: 강영숙, 강정임, 김규철, 김선혁, 김성현, 김원욱, 김종윤, 김종천, 김준구, 김찬숙, 김치풍, 박주상, 오승혁, 우원하, 정명상, 태수영</p> <p>2003 안수 강기호, 강윤구, 김여영, 김태만, 박성준, 심윤보, 안성완, 안태준, 원미연, 이정규, 임숙현, 장성수, 홍동욱, 홍동현</p> <p>2004 안수 김춘미, 박준재, 배성희, 이은주, 이정민, 이정희, 최창열, 홍옥희</p> <p>2005 임자: 한문수 안수: 권혜진, 김성혜, 김영순, 박미숙, 박신영, 백준현, 심기선, 지훈</p> <p>2006 안수 계동성, 김용희, 문유경, 서영주, 엄재관, 윤미자, 이경환, 이원걸, 전신애, 진정원, 최정열, 허경희</p> <p>2007 안수 권복태, 김동규, 김동숙, 김우진, 김은미, 김준배, 박종열, 이상자, 이재혁, 조영신, 주민정, 주정대</p> <p>2008안수 김종희, 김화옥, 이유택, 최현구</p> <p>2009 안수 고진수, 김상기, 박선희, 박진욱, 배한원, 안명훈, 윤선미, 이기순, 이승연, 이원기, 이정일, 조유미, 태영미</p> <p>2010 안수 김영미, 김용욱, 백승환, 손주연, 신미송, 이성숙, 이창호, 이태호, 이혜승, 이혜원, 장보경, 정광근, 정재원, 하대준</p> <p>2011 안수 강혜정, 방경남, 서명숙, 신소정, 이경자, 이주용, 유승오, 한정인, 황동준</p> <p>2012 안수 강민형, 김연희, 김진섭, 김희정, 김향인, 김현주, 노윤경, 안은신, 전현임</p> <p>2013 안수 구용한, 김진기, 김은정(A), 박양신, 신보경, 이동화, 이재익, 이지훈, 임보라, 장성원, 한혜성</p> <p>2014 추천 김경태, 김진홍, 김재영, 윤향중, 채진병</p>
서리집사	<p>1999 강영자, 고경아, 김난희, 김복길, 김윤, 박관희, 박주형, 서명구, 손정곤, 오세경, 장성수, 조다영, 조성일, 진교창, 차주혁, Ed Park, Sang Yoon</p> <p>2000 강영숙, 강정임, 김규철, 김선혁, 김성현, 김원욱, 김종윤, 김종천, 김준구, 김찬숙, 김치풍, 박주상, 송근준, 오승혁, 우원하, 정명상, 최현경, Tom Park</p> <p>2001 강기호, 김일영, 박선희, 박성준, 안성완, 원미연, 임숙현, 조윤주, 태진수, 홍동욱, 홍동현, Helen Hong, Alice Kim, Stephen Pak</p> <p>2002 김동규, 김성혜, 김은자, 김춘미, 김혜숙, 박진흙, 배성희, 백문창, 서용석, 설령숙, 신경애, 엄주현, 윤승호, 이승연, 이은주, 이정민, 이정희, 최창열, Jim Chou, Julia Chou, Eric Kim, Mike Oh, Kim Park</p> <p>2003 고경진, 권복태, 권혜진, 김수홍, 김신희, 김영순, 김윤정, 문현준, 박미숙, 박신영, 백준현, 서명숙, 신지현, 심기선, 이민구, 이애자, 지훈, 최소연, 홍경화</p> <p>2004 계동성, 고진수, 구명희, 김동숙, 김동욱, 김선남, 김영미, 김영환, 김용희, 김은미, 김준배, 김진호, 김희정, 문유경, 배형근, 백승환, 변은지, 서영주, 성정훈, 손주연, 엄인숙, 엄재관, 윤미자, 이경환, 이봉욱, 이원걸, 이유택, 장명숙, 장미자, 전신애, 정영화, 조유미, 주민정, 진정원, 최정열, 허경희, 현인복, 홍도화</p> <p>2005 김상기, 김옥순, 김우진, 김화옥, 김희현, 박기남, 박종열, 배한원, 이상자, 이재혁, 이정일, 전현임, 정진희, 조승건, 조영신, 주정대, 최현구, 표신엽, 한혜성</p> <p>2006 구본철, 김용욱, 김태경, 김하나, 민정숙, 박진욱, 배상걸, 백남욱, 서민정, 서은영, 신보경, 양경삼, 옥창호, 윤선미, 이진희, 이태호, 전희, 정일진, 정재원, 태영미</p> <p>2007 김민준, 김상태, 김은정, 문영진, 박은정, 박종배, 신미송, 오윤석, 이경자, 이남이, 이미정, 이선진, 이주용, 이지민, 이창호, 이혜승, 임보라, 전계연, 정경림, 최석희, 최영미, 하대준, 한정인, 황동준</p>

	<p>2008 강지민, 김동원, 김민정, 김은석, 김용한, 김지홍, 박성준, 박애리, 박은영, 박지원, 배성주, 서원석, 손영권, 송현정, 안은신, 이상진, 이성숙, 이지현, 이혜원, 장보경, 장승혁, 정광근, 황지영, 황호범</p> <p>2009 강혜정, 곽서영, 김연희, 김은정, 김정현, 김진기, 김태수, 김현주, 김혜영, 노윤경, 박용주, 방경남, 소창호, 송정숙, 신소정, 유승오, 이성우, 이성희, 이현주, 정하균, 조성호, 한대근, 황옥란</p> <p>2010 강민형, 강승민, 김경태, 김남숙, 김대식, 김도윤, 김래아, 김윤정, 김은주, 김재영, 김진섭, 김진홍, 김향인, 민병준, 유민재, 윤희중, 이동화, 이상정, 이영완, 이진화, 장숙량, 주재은, 차민호, 채주영, 최정우</p> <p>2011 강윤석, 구용한, 권오훈, 김명은, 김시찬, 김양희, 김정선, 류덕현, 박양신, 박정은, 사공현일, 이정은, 이재익, 이지훈, 장성연, 장성주, 정민석, 정은아, 최준영, 홍신숙</p> <p>2012 류승렬, 안창혁, 오준석, 유진선, 이애영, 임윤아, 정근화, 채진병, 최미남, 최정열, 황정제</p> <p>2013 구윤지, 김민경, 김희수, 리순아, 박성민, 변수연, 변옥화, 손정은, 신민영, 윤주한, 이강민, 이경희, 이관화, 이문희, 이상필, 전재완, 정성원, 정은화, 정혜정, 조훈성, 채수경, 최안나, 최학수, 최형태, 황우성</p> <p>2014 강모영, 김미숙, 김상지, 김애리, 남궁원, 박상철, 박종원, 배광현, 안원미, 이혜원, 이원혁, 정유미, 장영준, 최병윤, 최정환, 한세진, 홍성일</p>
공천위원회	<p>1995 강성유(위원장), 조요윤(부위원장), 김우영, 김종천, 설영숙, 이경희, 최승주, 이영길(당연직)</p> <p>1996 김내도(위원장), 조준호(부위원장), 김윤, 박영철, 손정곤, 오승현, 주상용, 이영길(당연직)</p> <p>1997 강길원(위원장), 변화경(부위원장), 김명철, 김영범, 손정곤, 오승현, 이영길(당연직)</p> <p>1998 한승희(위원장), 강성유(부위원장), 고경아, 김세철, 박주상, 송재욱, 차주혁, 이영길(당연직)</p> <p>1999 김문소(위원장), 최연일(부위원장), 김준구, 김한나, 박관희, 전희, 차주혁, 이영길(당연직)</p> <p>2000 최연일(위원장), 김형범(부위원장), 김복길, 김영범, 신경애, 이정우, 정명상, 이영길(당연직)</p> <p>2001 김형범(위원장), 김성빈(부위원장), 김성혜, 김세철, 백문창, 안성완, 차주혁, 이영길(당연직)</p> <p>2002 김성빈(위원장), 홍경자(부위원장), 김춘미, 박신영, 오세경, 이정민, 장양술, 이영길(당연직)</p> <p>2003 홍경자(위원장), 김명철(부위원장), 김계숙, 김동욱, 김성빈, 김현지, 손정곤, 이영길(당연직)</p> <p>2004 김명철(위원장), 박영철(부위원장), 강윤구, 계동성, 조유미, 진정원, 이영길(당연직)</p> <p>2005 박영철(위원장), 김정선(부위원장), 김경애, 박기남, 안태준, 최현구, 한혜성, 이영길(당연직)</p> <p>2006 김정선(위원장), 최연일(부위원장), 문영진, 백남욱, 이정규, 전희, 태영미, 이영길(당연직)</p> <p>2007 최연일(위원장), 조준호(부위원장), 김병규, 이경환, 이경희, 전계연, 최현구, 이영길(당연직)</p> <p>2008 조준호(위원장), 장양술(부위원장), 서은영, 손영권, 이태호, 조순래, 한문수, 이영길(당연직)</p> <p>2009 장양술(위원장), 홍경자(부위원장), 김민준, 김영미, 김준구, 김지수, 김현주, 이영길(당연직)</p> <p>2010 홍경자(위원장), 박영철(부위원장), 강모나, 김경애, 김태만, 노윤경, 이성우, 이영길(당연직)</p> <p>2011 박영철(위원장), 이선영(부위원장), 김향인, 이숙재, 지민형, 차민호, 최정열, 이영길(당연직)</p> <p>2012 이선영(위원장), 이정규(부위원장), 김계숙, 박애리, 신보경, 이재익, 정광근, 이영길(당연직)</p> <p>2013 이정규(위원장), 김세철(부위원장), 김애리, 장현숙, 조유미, 정명숙, 채진병, 이영길(당연직)</p> <p>2014 김세철(위원장), 김영범(부위원장), 김춘미, 김희현, 심세희, 장성연, 최학수, 이영길(당연직)</p>
찬양대 지휘자, 독창자, 찬양대원, 임원	<p>1995-1996 지휘 변화경, 반주 주희성, 독창자 조유미, 성가대장 한승희</p> <p>1997-1999 1부 지휘 조유미, 반주 손민수 2부 지휘 변화경, 반주 주희성, 성가대장 한승희</p> <p>2000-2002 1부 지휘 조유미, 반주 주희성/조혜정, 성가대장 박영일 2부 지휘 변화경, 반주 손민수, 성가대장 한승희</p> <p>2003 1부 지휘 조유미 교우, 반주 조안나, 독창자 강봉수, 브니엘 찬양팀 정성희, 최정원, 조선량, 김진엽 2부 지휘 변화경, 반주 손민수, 독창자 조유미, 김은정, 이관화</p>

	<p>2004 1부 지휘 조유미, 반주 조안나, 독창자 강봉수, 찬양대장 박영일 2부 지휘 변화경, 반주 손민수, 독창자 김은정, 이관화, 강봉수, 찬양대장 한승희 찬양대원 소프라노: 구소윤, 김경애, 김상영, 김은정, 김태희, 박은정, 박현주, 심기선, 이예전, 이정희, 이지현, 이혜승, 조유미, 홍옥희 알토: 김경아, 김용희, 김춘미, 김한나, 박미숙, 박미정, 유인경, 유진선, 이효진, 장미연, 전신애, 조순래 테너: 강모영, 강봉수, 김영범, 김현구, 박기남, 박진욱, 변갑석, 안태준, 정진웅, 표신엽 베이스: 강기호, 이문영, 이원걸, 이정민, 정성희, 조준호, 주상용, 지훈, 한승희, 현인복</p> <p>2005 1부 지휘 조유미, 반주 조안나, 독창자 강봉수, 브니엘 Team 이지현 외, 찬양대장 박영일 2부 지휘 변화경, 반주 손민수, 솔리스트 김은정, 이관화, 김지현, 찬양대장 한승희 Church Music Coordinator 박진욱 찬양대원 소프라노: 김경애, 김상영, 김은정, 김태희, 심기선, 이예전, 이정희, 이지현, 이혜승, 조유미, 홍옥희 알토: 김경아, 김용희, 김한나, 박미숙, 박미정, 유인경, 유진선, 이효진, 장미연, 전신애, 조순래 테너: 강봉수, 김영범, 박기남, 박진욱, 변갑석, 안태준, 정진웅, 표신엽 베이스: 강기호, 이문영, 이원걸, 이정민, 조준호, 주상용, 지훈, 한승희,</p> <p>2006 1부 지휘 조유미, 반주: 조안나, 찬양대장 조준호, 찬양대 아침 기도회 인도: 신영각 2부 지휘 변화경, 반주: 손민수, 독창자 김지현, 조유미, 찬양대장 한승희 Church Music Coordinator 박진욱</p> <p>2007 1부 지휘 박진욱, 반주 조안나, 독창자 조유미, 찬양대장 조준호, 부대장 엄재관, 총무 나창연, 찬양대 아침 기도회 인도: 신영각 2부 지휘 변화경, 반주 손민수, 찬양대장 한승희, 총무 김영범, 독창자 조유미, 박진욱</p> <p>2008 1부 지휘 박진욱, 반주 김상영, 찬양대장 조준호, 부대장 엄재관, 총무 나창현, 독창자 조유미, 찬양대 아침기도회 인도 신영각 2부 지휘 변화경, 반주 손민수, 찬양대장 한승희, 총무 김영범, 독창자 조유미, 박진욱</p> <p>2009 1부 지휘 박진욱, 반주 김상영, 독창자 조유미, 찬양대장 조준호, 부대장 엄재관, 총무 주현준, 1부 찬양대 아침기도회 말씀 인도 신영각 2부 지휘 변화경, 반주 손민수, 독창자 조유미, 박진욱, 찬양대장 한승희, 총무 김영범</p> <p>2010 1부 지휘자 박진욱, 반주 김상영, 독창자 조유미, 찬양대장 조준호, 부대장 엄재관, 총무 주현준 2부 지휘자 변화경, 반주 손민수, 독창자 조유미, 박진욱, 찬양대장 한승희, 총무 김영범</p> <p>2011 1부 지휘 박진욱, 반주 안지혜, 독창자 조유미, 찬양대장 조준호, 부대장 엄재관, 총무 주현준 2부 지휘 변화경, 반주 김상영, 독창자 조유미, 찬양대장 한승희, 총무 김영범</p> <p>2012 1부 찬양대 지휘자 박진욱, 반주 안지혜, 독창자 조유미, 찬양대장 조준호, 부대장 엄재관, 총무 장성연 현악팀 박기나(바이올린), 이예은(바이올린), 최혜민(비올라), 최혜린(비올라), 배유미(첼로) 2부 지휘 변화경, 반주 김상영, 독창자 조유미, 찬양대장 한승희, 부대장 김영범, 총무 정광근</p>
--	---

	<p>2013</p> <p>1부 찬양대</p> <p>지휘자 박진욱, 반주자 안지혜, 찬양대장 조준호, 부대장 엄재관, 총무 장성연, 독창자 조유미</p> <p>소프라노: 조유미, 김향인, 신소정, 안희진, 이혜원, 장보경, 한세진, 홍옥희</p> <p>알토: 김용희, 김지우, 김춘미, 김하나, 김희수, 조민진, 진정원</p> <p>테너: 장성연, 장영준, 정재원, 최현구</p> <p>베이스: 김상은, 김형진, 엄재관, 이문영, 조준호, 지훈, 황우성</p> <p>2부 찬양대</p> <p>지휘자 변화경, 반주자 김상영, 찬양대장 한승희, 총무 정광근, 독창자 조유미</p> <p>소프라노: 조유미, 김경애, 김영순, 김은정, 박소영, 이정희, 이혜승, 알토: 주미옥, 한정인, 전신애, 박미숙, 김경아, 안지혜, 김하나, 천민정, 이문희</p> <p>테너: 정광근, 김경섭, 이관화</p> <p>베이스: 한승희, 조준호, 이원걸, 최정열, 김대한, 문태국, 이정민, 변성구</p> <p>2014</p> <p>1부 찬양대</p> <p>지휘자 박진욱, 반주 안지혜, 독창자 조유미, 찬양대장 조준호, 부대장 엄재관, 총무 장성연</p> <p>현악팀 박기나(바이올린), 이예은(바이올린), 최혜민(비올라), 최혜린(비올라), 배유미(첼로)</p> <p>찬양대원 소프라노: 조유미, 김향인, 신소정, 안희진, 이현주, 장보경, 한세진</p> <p>알토: 김하나, 김용신, 김용희, 김지우, 김춘미, 김희수, 조민진</p> <p>테너: 장성연, 정재원, 최현구, 장영준</p> <p>베이스: 이문영, 엄재관, 지훈, 조준호, 황우성, 권오경</p> <p>2부 찬양대</p> <p>지휘자 박진욱, 반주 김상영, 독창자 조유미, 찬양대장 김영범, 총무 이관화</p> <p>소프라노: 조유미, 김경애, 김영순, 김은정, 이정희, 이혜승, 오연주, 알토: 주미옥, 한정인, 전신애, 박미숙, 안지혜, 김하나, 천민정, 이문희</p> <p>테너: 정광근, 김경섭, 이관화, 김영범, 서경원, 이지훈</p> <p>베이스: 한승희, 조준호, 이원걸, 최정열, 이대한, 문태국, 이정민, 지훈, 김윤성</p>
쉐마찬양단	<p>2006 김하나, 배상결, 서은영, 심세희, 양경삼, 최현구</p> <p>2007 김주영, 심세희, 황동준</p> <p>2008 김주영, 심세희, 안은신, 최준, 최현구, 함승모, 황동준</p> <p>2009 심세희, 안은신, 황동준</p> <p>2010 손유현, 신민영, 심세희, 엄순호, 정은아, 정일진, 최현구, 황동준</p> <p>2011 손유현, 신민영, 심세희, 엄순호, 정은아, 정일진, 정재원, 최현구, 황동준</p> <p>2012 김상은, 손유현, 신민영, 심세희, 정은아, 정일진, 정재원, 최현구, 황동준</p> <p>2013 강 Jeremy, 김상은, 신민영, 심세희, 이혜원, 장성연, 정재원, 최현구, 황동준</p>
예배준비 찬양단	<p>2012 김지희, 나해서, 신민영, 심세희, 장성연, 최현구</p> <p>2013 김지희, 나해서, 신민영, 심세희, 이혜원, 장성연, 최현구</p> <p>2014 김지희, 나해서, 신민영, 심세희, 이혜원, 장성연, 최현구</p>
새신자 환영반	<p>2013 이문영, 김동숙, 최정환, 윤미자, 김현주, 김정태, 최정열, 최미남, 전아사, 한문수</p> <p>2014 1부: 김동숙, 김화옥, 최정환, 2부: 윤미자, 김현주, 김정태, 전아사, 한문수, 손영권</p>
방송실	<p>2004 차주혁, 계동성, 정일진, 안웅기</p> <p>2005-06 차주혁, 계동성, 정일진</p> <p>2007 이봉열, 정일진, 이봉욱, 하대준</p> <p>2008 이봉열, 방경남, 정일진, 이봉욱, 하대준</p> <p>2009 이봉열, 방경남, 이봉욱, 하대준</p> <p>2010 방경남, 최진용, 이봉욱, 하대준</p> <p>2011 이봉욱, 하대준, 방경남</p> <p>2012-13 이봉욱, 하대준, 정재원, 구용한, 홍도화, 방경남, 윤주한</p> <p>2014 이봉욱, 하대준, 구용한, 홍도화, 방경남, 윤주한, 김진홍</p>

동시통역팀	<p>2003 박성준, 백승한, 정성현, 김상기, 한혜성, 백남욱, 서영주</p> <p>2004-05 박성준, 백승한, 손주현, 백남욱, 서영주, 김상기, 한혜성, 정성현, 오수정, 홍진희</p> <p>2006 박성준, 백승한, 손주현, 백남욱, 한혜성, 이혜원, 홍진희</p> <p>2007 박성준, 백승한, 이혜원, 한혜성, 김우진, 백남욱, 홍경화, 안은신</p> <p>2008 박성준, 백승한, 이혜원, 한혜성, 김우진, 백남욱, 안은신</p> <p>2009-10 박성준, 안은신, 이혜원, 이현주, 백승환, 김우진, 한혜성</p> <p>2011 박성준, 안은신, 이혜원, 이현주, 백승한, 김우진, 한혜성, 이혜승</p> <p>2012 박성준, 안은신, 이혜원, 이현주, 백승한, 김우진, 한혜성, 이혜승, 조나현, 이환수</p> <p>2013 박성준, 백승한, 이혜원, 조나현, 김학주, 이혜승</p> <p>2014 백승한, 조나현, 김학주, 오현주, 이혜원, 이혜승</p>
Multimedia/IT/Web 팀	<p>1997-99 이훈희, 김정선</p> <p>2000-01 박성호, 박승용, 유승호, 김정선, 윤경문</p> <p>2002-04 진동호, 박승용, 안성완, Norman Choe</p> <p>2005-06 안성완, 이봉욱, 이재혁, 박성준, 김상기, 강상철, 최석희, 임현, 김용한, 윤세영, Norman Choe, 윤경문</p> <p>2007-2008 김상기, 임현, 이봉욱, 이재혁, 이정일, 정일진, 하대준, 이봉열</p> <p>2009 이재혁, 하대준, 이봉욱, 안성완, 김세희, 윤경문, 김상기, 유승오, 김은석</p> <p>2010 김상기, 유승오, 김은석, 김희정, 김윤정, 안성완, 안태준, 김정선, 정재원, 이재혁, 이봉욱, 하대준, 방경남, 최다함</p> <p>2011-13 김상기, 정재원, 유승오, 이봉욱, 하대준, 방경남</p> <p>2014 김상기, 정재원, 유승오, 이봉욱, 하대준, 방경남</p>
출판도서팀	<p>1998 김정선, 박영일, 윤경문, 강경희, 이점례, 박승용, 이훈희, 강경희, 장명술, 백인경, 김옥주</p> <p>1999 김정선, 윤경문, 이선영, 조성일, 김옥주, 이정희, 김영순, 고경아, 최경미</p> <p>2000 김형범, 윤경문, 조성일, 김옥주, 박성호, 오세경</p> <p>2001 김형범, 윤경문, 이정희, 홍옥희, 오세경, 홍동현, 박성호</p> <p>2002 김형범, 윤경문, 김준구, 이정희, 이지영, 장미자, 홍동현, 김도윤, 김선남, 김일영, 김윤경, 김혜숙, 노재현, 서용석, 성정훈, 원미현, 이승연, 진정원</p> <p>2003 김형범, 윤경문, 김준구, 이정희, 이지영, 장미자, 전신애, 고경아, 계동성, 고성욱, 김도윤, 김보현, 배상결, 서용석, 서은영, 오윤정, 윤성호, 이승연, 이진희, 현동숙</p> <p>2004 김형범, 성정훈, 김선남, 김유미, 김희현, 배한원, 손영권, 윤희경, 김준구, 이정희, 이지영, 장미자</p> <p>2005 김정선, 김하나, 배한원, 임현, 조순래, 김용한, 박연희, 이승연, 성정훈, 김선남, 김유미, 손영권, 윤경문</p> <p>2006 김정선, 김하나, 배한원, 임현, 김용한, 윤경문</p> <p>2007 김정선, 김하나, 배한원, 임현, 김용한, 윤경문</p> <p>2008 홍동욱, 김하나, 배한원, 김용한, 김상기, 임현, 윤경문</p> <p>2009 김성현, 윤경문, 김하나, 배한원, 김용한, 임현, 문강희, 김양희</p> <p>2010 김성현, 윤경문, 김하나, 배한원, 김양희,</p> <p>2011 박신영, 김하나, 김양희, 배한원, 임현, 최정열, 윤경문</p> <p>2012 박신영, 윤경문, 김하나, 배한원, 임현, 최정열, 신선희, 하성권,</p> <p>2013 박신영, 김하나, 김희수, 최정열, 신선희, 윤경문</p> <p>2014 박신영, 김하나, 김희수, 김희현, 윤경문</p>



유년초등 주일학교	<p>1995 전도사 조미미, 교사 토니 양, Don Bae, 김계숙, Sun Lee, 글로리아 장, 원인주, 제니슨 리, 강경희, Joanna Kim, Jinsu Chung</p> <p>1996 전도사 조미미, 교사 토니 양, Don Bae, Mike Shu, Edwin Kim, Sarah Park, Jay Jinsu Chung, 김계숙, Sun Lee, 글로리아 장, Helen Suh, 원인주, 제니슨 리, 강경희, Joanna Kim</p> <p>1997 전도사 조미미, 교사 Mike Suh, Carol Won, Jinsu Chung, 김계숙, Edwin Kim, Sun Lee, 안미라, Joanna Kim, 우양희, Tom Park, Helen Suh, Carol Chun</p> <p>1998 전도사 김선희, 교사 Mike Suh, Carol Won, 안미라, Bernie Kim, Carol Chun, Joanna Kim, 우양희, Edwin Kim, Helen Suh, 정재원, 김계숙, Eileen Lee, Heidi Kim</p> <p>1999 전도사 김선희, 교사 Carol Won, Grace Kim, Lily Park, Peter Yu, Chistine Ham, Carol Chun, Heidi Kim, Karen Yoon, 백문창, 최민정, 원인주, 박윤정</p> <p>2000 전도사 김선희, 교사 진정원, 박귀호, 박윤정, 김윤경, 한세진, 강은미, 변은지, 장보경, 원미연, 최원선, 강길원, Susan Han, Grace Kim, Peter Yu, Karen Yoon, 박윤정, 송새봄, 김영순</p> <p>2001 전도사 김선희, 교사 한혜성, 장성희, 한세진, 조유미, 강모나, 이해원, 변은지, 강명자, 계동성, Deanna Chung, 박귀호, Grace Kim, Susan Han, 김영순, Peter Yu, 박윤정, 송새봄, 장보경, 진정원</p> <p>2002 전도사 김선희, 부장 계동성, 교사 박연희, 한혜성, 이봉렬, 조혜진, 조유미, Leena Kim, 이해원, 변은지, 김한나, Susan Lee Han, 김고은, 이봉욱, Grace Lee, 송새봄, 장보경</p> <p>2003 전도사 김선희, 부장 계동성, 교사 박연희, Grace Kim, 한혜성, 박가희, 조혜진, 송새봄, 이소영, 이해원, 변은지, 이봉욱, Grace Lee, 김고은, 김하나, Susan L Han, 이진희, 박연희, 윤성호, 안지용, 이봉렬</p> <p>2004 전도사 김선희, 부장 계동성, 교사 김하나, 전계연, 조혜진, 박가희, 이해원, 이소영, 변은지, 김희수, Grace Lee, Stella Cho, Yulli Ko, 김영순, Angie Pak, 이진희, Susan Han</p> <p>2005 전도사 김선희, 부장 전희, 교사 김엽, 황경수, 김하나, 이예진, 전계연, 하주영, 박가희, 염세라, 진정원, 이은혜, 이진희, 김영순, 박선애, 정민소, 장영희, 김경하</p> <p>2006 전도사 김선희, 부장 전희, 교사 김엽, 황경수, 김영순, 심준희, 이예지, 문강희, 하주영, 이해원, 이봉렬, 박선희, 김채린, 염세라, 진정원, 이은혜, 김미라, 이진희, 이원, 김일규, 유한나, 박선애, 김미라, 정윤숙, 정민소, 손영권, 최희열, 이봉비, 박유리</p> <p>2007 전도사 김선희, 교사 김엽, 황경수, 이승연, 김하나, 정윤숙, 심준희, 이봉렬, 동희재, 문강희, 이해원, 김채린, 진정원, 염세라, Esther Lee, 이은혜, 김미라, 이현주, 김일규, 박유리, 이 원, 정민소, 손영권, 김영순</p> <p>2008 전도사 김선희, 부장집사 김동규, 교사 김하나, 박강희, 이봉렬, 김정혜, 송현정, 김채린, 박선희, Esther Lee, 이미정, 이현주, 김진섭, 동윤재, Sam Chu, 강민형, 이은주, 곽서영, 정민소, 김영미, 강지연, Paul Cho, 이승연</p> <p>2009 전도사 김선희, 부장집사 김동규, 교사 조향선, 송현정, 김영순, 김엽, 이승연, 황경수, 박강희, 박정은, 문강희, 김정혜, 송현정, 박선희, 진정원, 이성희, 강지연, 이미정, 이재익, 김진섭, 강민형, 곽서영, 이은주, 김소희, 구혜영</p> <p>2010 이요한 목사, 부장집사 이은주, 교사 박강희, 최수경, 배한원, 김양희, 박선희, 문지용, 진정원, 김경하, 문유경, 김종현, 이재익, 강민형, 임보라, 김희정, 박성준, 김한나, 이성희, 장인지, 김연희, 신보경, 이승연, 백승한, 김미미</p> <p>2011 전도사 박진호, 부장집사 이은주, 교사 박강희, 김민경, 손유현, 오상남, 배한원, 김양희, 박선희, 문지용, 강모나, 진정원, 김선영, 문유경, 이재익, 강민형, 임보라, 김희정, 박성준, 이성희, 장인지, 김연희, 심세희, 신보경, 심진희, 강경진, 안은신, 이승연, 백승한, 김혜원, 김미미, 이성희</p> <p>2012 전도사 박진호, 부장집사 박선희, 교사 김미미, 김미숙, 배한원, 김민경, 권예림, 강모나, 이선영, 김지원, 손유현, 문지용, 진정원, 최윤정, 정민수, 정은아, 이재익, 강민형, 임보라, 박성준, 이강민, 심세희, 김연희, 신보경, 강경진, 장인지, 웅성은, 엄순호, 이은주, 백승한, 안은신, 이승연, 이성희, 김혜원</p>
--------------	---

	<p>2013 전도사 김수영, 부장집사 박선희, 교사 김미미, 김미숙, 김민경, 정윤숙, 오형주, 권예림, 조민진, 손유현, 강모나, 최윤정, 정민수, 황미애, 정인혜, 진정원, 김하얀, 강민형, 이재익, 임보라, 이강민, 김지원, 김연희, 신보경, 강경진, 웅성은, 손유현, 엄순호,한승구 전도사</p> <p>2014 전도사 김수영, 부장집사 진정원, 교사 웅성은, 신보경, 김연희, 박병진, James Yi, 엄순호, 김미미, 김미숙, 정윤숙, 손유현, 권예림, 조민진, 박선희, 강모나, 오형주, 김하얀, 이재익, 최수정, 정인혜, 김지원, 황미애, 김하얀, 한승구 전도사</p>
중고등부	<p>1995 전도사 김승호, 부장집사 강상철, 교사 Larry Cheng, Delia Kim, Shiyon Lee, Christine Chang, Jeff Lee</p> <p>1996 전도사 김승호, 교사 Jeff Lee, David Son, 김동환, Larry Cheng, Shiyon Lee</p> <p>1997 전도사 김승호, 교사 Jeff Lee, David Son, 한민석, 김해선, David Son, Tracy Jeong, 김동환</p> <p>1998 전도사 김승호, 교사 Paul Kim, 한민석, 김해선, 조다영, David Son, Ben Sunoo, 김동환</p> <p>1999 전도사 최형규, 교사 Ben Sunoo, 김해선, Joyce Kim, 이수진, Jessica Cho, 김동환, 한은희, Daniel Moor, 한민석</p> <p>2000 전도사 Matthew Kim, 부장집사 박진흙, 교사 Abraham Kim, Ben Sunoo, Bernie Kim, 김동환, 한은희, 전해광, Jessica Cho, Joyce Kim, Mike Suh, Paul Kim, 이수진</p> <p>2001 전도사 Matthew Kim, 부장집사 박진흙, 교사 Eunice Lee, 김동환, 김한나, John C Pak, John K Song, 홍경화, Mike Suh, Paul Kim, Robert Park, Shaun Kim, 이수진</p> <p>2002 Johnson Samuel 목사, 부장집사 박진흙, 교사 박진아, 이민직, 김도윤, 박중서 (Robert), 홍경화, 박중서 (John), Eunice Lee, 양경삼</p> <p>2003 부장집사 박진흙, 교사 김세철, 박진석, 고승완, 양경삼, 황동준, 김수영, 윤호기, 홍경화, 김도윤</p> <p>2004 전도사 서동일/서선영, 부장집사 김성현, 교사 김수영, 고승완, 황동준, 문영진, 양경삼, 서선영, 김세철, 박진석, 김춘미, 이해민</p> <p>2005 전도사 서동일/서선영, 부장집사 김성현, 교사 장성화, 이동윤, 지민형, 양경삼, 김세철, 문영진, 황동준, 김춘미, 정혜정, Grace Kim</p> <p>2006 전도사 서동일/서선영, 부장집사 김성현, 교사 김세철, 지민형, 이동윤, 장성화, 김은영, 황동준, 안은신, 양경삼, 정혜정, 강모영, 김수영, 김춘미, 문영진</p> <p>2007 전도사 정한진, 부장집사 김성현, 교사 장성화, 지민형, 이동윤, 한혜성, Daniel Lee, 황동준, 안은신, 양경삼, 김주영, 김미진, 강모영</p> <p>2008 전도사 정한진, 부장집사 김성현, 교사 이영은, 이동윤, 고승완, 장성화, 김영미, 송치만, 지민형, 김주영, 김영순, 황동준</p> <p>2009 전도사 정한진, 부장집사 황동준, 교사 지민형, 이동윤, Joe 정, 장성화, 이영은, 사공현일, 김다운, 김주영, 고승완</p> <p>2010 전도사 정한진, 부장집사 황동준, 교사 이동윤, 이은영, 장성화, 김세희, Jeremy 강</p> <p>2011 전도사 정한진, 부장집사 황동준, 교사 김지수, 정재원, 한혜성, 지민형, 장성화, 김희진, Jeremy 강</p> <p>2012 전도사 정한진, 부장집사 황동준, 교사 김희수, 정재원, 김상은, 김학주, 한혜성, 지민형, 김희진, Jeremy 강</p> <p>2013 전도사 김수재, 부장집사 황동준, 교사 김희수, Jeremy 강, Faith 김, 김학주, Enoch Lee, 김용욱, 한혜성, 정재원</p> <p>2014 전도사 김수재, 부장집사 황동준, 교사 김희수, Jeremy 강, Faith 김, 김학주, Enoch Lee, 김용욱, 한혜성, 정재원</p> <p>2014 전도사 김수재, 부장집사 황동준, 교사 Faith 김, Jeremy 강, Enoch Lee, Pearl Choi, 정재원, 김용욱, 한혜성</p>

보스톤한국 학교	1995-1996 교장 김정선, 교감 강경희, 이사장 백린, 학부모회장 최승주 1997-1998 교장 강경희, 이사장 김정선 1999 교장 이훈희, 이사장 김정선 2000 교장 홍동현, 이사장 김정선, 고문 백린, 학부모회장 태영미 2001-2004 교장 강상철, 교감 원미연, 이사장 김정선, 고문 백린, 학부모회장 이승연 2005 교장 강상철, 교무 한세진 2006-2007 교장 강상철, 교감 이승연, 이사장 김정선, 학부모회장 서니 램니오스 2008-2012 교장 강상철, 교감 이승연, 이사장 안성완, 고문 김정선, 학부모회장 서니 램니오스 2013 교장 강상철, 교감 이승연, 이사장 안성완, 고문 김정선, 학부모회장 이은주 2014 교장 강상철, 교감 이승연, 이사장 김동규, 학부모회장 이은주
청년1부	1995 교역자 손병덕 전도사 1996 교역자 손병덕 전도사, 회장 김하진, 부회장 이승택, 기획부장 송새봄, 회계 예종민 1997 교역자 손병덕 전도사, 회장 박성민, 부회장 김하진, 이승택, 기획부장 조안나, 총무 송새봄 1998 교역자 홍동욱 집사, 회장 신동협/안수응, 부회장 안수응, 회계 배은주 1999 교역자 홍동욱 집사 2000/2001 교역자 홍동욱 집사, 회장 남궁태욱, 부회장 유예경, 회계 김정민 2002 교역자 홍동욱 집사, 회장 김병훈, 부회장 하주리, 회계 정란 2003 교역자 홍동욱 집사, 회장 이은혜, 부회장 황동준, 총무 이창화, 서기 김유미, 회계 최정원 2004 교역자 홍동욱 집사, 회장 정성휘, 부회장 정국, 총무 함승모, 서기 최운형, 박미정, 회계 송치만 2005 교역자 홍동욱 집사, 회장 김성광, 부회장 김유미, 총무 함승모, 서기 최운형, 회계 조은영 2006 교역자 홍동욱 집사, 회장 김병천, 부회장 김정은 2007 교역자 홍동욱 집사, 회장 김유미, 부회장 이해민, 총무 윤영태, 회계 김영 2008 교역자 이요한 목사, 회장 차민호, 부회장 문강희, 서기 여주혜, 회계 홍새롬 2009 교역자 이요한 목사, 간사 차민호, 회장 이해민, 부회장 이유리, 서기 노준성, 회계 홍새롬 2010 교역자 이요한 목사, 간사 차민호, 회장 김주영, 부회장 심진희, 총무 손유현 2010-11 교역자 이요한 목사, 간사 차민호, 회장 지민형, 부회장 김보라, 총무 김찬호, 회계 심진희 2011-12 교역자 이요한 목사, 간사 차민호/사공현일, 회장 심진희, 부회장 김성기, 총무 도원준, 회계 최정규 2012-13 교역자 이요한 목사, 간사 차민호/사공현일, 회장 김성기, 부회장 김한나, 총무 차영지, 서기 김지은, 회계 도원준 2013-14 교역자 이요한 목사, 간사 차민호/사공현일/구용한, 회장 심세희, 부회장 김지은, 총무 김상은, 서기 김지혜, 회계 권예림

청년2부	1995 교역자 이철 전도사 1996 교역자 이철 전도사, 회장 서명구, 부회장 조유미 1997 교역자 김형곤 목사, 회장 서명구, 부회장 백인경, 총무 박주상 1998 교역자 김형곤 목사 1999 교역자 김형곤 목사, 회장 김선국 2000 교역자 김형곤 목사, 회장 김선국 2001 교역자 김형곤 목사, 회장 박준영, 부회장 박일웅, 총무 윤세영, 서기 손영권, 회계 최정아 2002 교역자 김형곤 목사, 회장 계동성, 부회장 박준영, 총무 손영권, 서기 안동욱, 회계 김희수 2003 교역자 김형곤 목사, 회장 안동욱, 부회장 박준영, 총무 김도윤, 서기 김수영, 회계 박연희 2004 교역자 김형곤 목사, 회장 김영철 2005 교역자 배요한/박태원 목사 2006 교역자 배요한 목사 /김만규 전도사, 회장 김남훈 2007 교역자 허신영 목사, 회장 손영권 2008-11 교역자 허신영 목사 2012 교역자 허신영 목사, 회장 송민철, 부회장 지민형, 총무 안원미, 회계 배유미 2012-13 교역자 윤경문 목사, 회장 송민철, 부회장 지민형, 총무 안원미, 회계 배유미 2013-14 교역자 윤경문 목사, 회장 엄순호, 부회장 박신혁, 총무 김성기, 회계 황수잔, 서기 김수진
부부청년부	2000 회장 김종윤 2001 회장 백문창 2002 회장 박종서 2003 회장 박성준, 총무 최현구 2004 회장 최현구, 총무 백승한, 회계 최정윤 2005 회장 백승한, 총무 김상기, 회계 김은정 2006 회장 양경삼, 총무 배상결, 회계 정재원, 서기 채주영 2007 회장 배상결, 총무 황동준 2008 회장 김민준, 부회장 김은석 2009 교역자 소기범 목사, 회장 안은신, 부회장 한해성, 임윤아 2010 교역자 김건철 목사, 회장 정재원, 부회장 이지훈, 총무 사공현일, 회계 류승렬, 서기 황동준 2011 교역자 김건철 목사, 회장 정광근, 부회장 채진병, 총무 이재익 2012 교역자 김건철 목사, 회장 이재익 2013 교역자 김건철 목사, 회장 최안나, 정유미, 총무 이지영, 회계 유진선, 서기 리순아 2014 교역자 김건철 목사, 회장 차민호/신민영, 부회장 문형근/이지영, 총무 박상철/이혜원
새신자 성경 공부반	권익석 전도사 (1996-1999), 윤성철 전도사 (1999-2002), 윤경문 전도사/목사 (2003-현재)
성인성경공 부반	이영길 목사(1996-1999), 김형곤 목사(2000), 배요한 목사(2003 - 2007), 남성혁/이요한 전도사(2007), 박찬석/한동화 전도사(2008) 주일 성경공부반: 협조 오세경(2003 - 2004), 김동규(2005 - 2007), 최창열(2008 -2010)
소그룹 성경공부 인도자	2010 권복태/이숙재, 이선영/유승오, 박신영/김태만, 심윤보/정하균 2011 권복태, 이선영, 박신영, 심윤보, 김동숙, 정하균, 한문수, 김성현, 이요한 2012 권복태, 김동숙/이숙재, 박신영/남궁원, 이선영/김동규, 심윤보/김대식, 정하균, 한문수/문형근, 이요한 목사 2013-14 권복태/홍경자, 김동숙/이숙재, 박신영/남궁원, 이선영/김동규, 심윤보/김대식, 정하균, 한문수/문형근, 이요한 목사
수요여성 성경공부반	1999-현재 이영길 목사, 협조: 홍경자(1999 - 2005), 고경아(2006) , 주풍실(2008), 김종희 (2007, 2009-현재)

2세영어 예배부	1995 이재원/신승희 전도사 부부 1995-96 전도사: John Hwang, Eather Cho, Kenny Ye, Soosang Park 1996-99 Pastor Gary Parrett 1997 Patrick Chen 전도사 2000-2003 Pastor John Chung
상록기도회	1999-2000 회장 백린, 부회장 강성유, 총무 이상구, 고문 이영길 목사 2001 회장 김갑성, 부회장 강성유, 총무/회계 김현지, 협력목사 김형곤 목사 2002 회장 강성유, 부회장 이상구, 총무/회계 김현지, 협력목사 김형곤 목사 2003 회장 신영각, 부회장 이상구, 총무 문영도, 회계 김현지, 협력목사 김형곤 목사 2004 회장 신영각, 부회장 이상구, 총무/회계김현지, 협력목사 김형곤 목사 2005 회장 전인재, 부회장 김현지 2006 회장 김현지, 총무 김지수 2007-2008 회장 김지수 2009-2010 회장 신영각, 부회장 장현숙, 총무 이숙재 2011-2012 회장 주정대, 부회장 장현숙, 총무 이숙재 2013-2014 회장 장현숙, 부회장 성강은, 총무 이숙재
여선교회	1995 회장 김한나, 부회장 이점례 1996 회장 강경희, 부회장 이점례 1997 회장 최승주, 부회장 이점례 1998 회장 김한나, 부회장 이해승 1999 회장 오승현, 부회장 이해승 2000 회장 이해승, 부회장 김정림
마리아 여선교회	2001(보비여선교회) 회장 강정임, 부회장 최송자, 서기 정선주, 회계 최승주 2002 회장 김경애, 부회장 김원옥, 총무 오승현 2003 회장 오승현, 부회장 태수영, 총무 조순래 2004 회장 태수영, 부회장 김정림, 총무 조순래 2005 회장 조순래, 부회장 김춘미, 총무 오승현 2006 회장 김정림, 부회장 김한나 2007 회장 김한나, 부회장 김영미 2008 회장 배성희 2009 회장 김영미 2010 회장 김춘미 2011 회장 고경아, 부회장 윤미자 2012 회장 김영순, 부회장 윤미자 2013 회장 윤미자, 부회장 김용희 총무 김춘미, 회계 윤선미, 서기 김향인, 봉사 김동숙, 친선 신미승, 선교 차난희, 고문: 이성혜, 고경아, 김영순 2014 회장 김향인, 부회장 차난희, 총무 김동숙, 서기 고경아, 회계 윤선미

에스더 여선교회	2001 회장 김정림, 부회장 김복길, 서기 고경아, 회계 우현주 2002 회장 고경아, 부회장 태영미 2003 회장 김한나, 부회장 설영숙 2004 회장 박선희, 부회장 김윤정 2005 회장 김동숙, 부회장 진정원 2006 회장 태영미, 부회장 진정원 2007 회장 김영순, 부회장 전현임 2008 회장 배한원, 부회장 노윤경 2009 회장 배한원, 부회장 노윤경 2010 회장 박애리, 부회장 이성숙 2011 회장 이성숙, 부회장 강혜정 2012 회장 강혜정, 부회장 이미정 2013 회장 이미정/노윤경, 부회장 이경희, 회계 손주연, 서기 정하나, 봉사 이성희, 친선 변옥화, 선교 최정우, 문화 김희정, 판매 박애리, 고문 강혜정 노윤경 2014 회장 이성희, 고문 이성혜, 노윤경, 강혜정, 부회장 곽서영, 서기 최정우, 회계 김경태, 친선 변옥화, 봉사 노윤경, 문화 김희정, 판매 박애리, 선교 손주연
부부선교회	1995 회장 변성구, 부회장 김세철, 총무 최인주, 서기/회계 최석주 1996-1997 김세철 회장, 부회장 장양술, 총무 최석주, 서기 김민태, 회계 강영은 1998 회장 장양술, 부회장 김영순, 총무 김영범, 서기 최석주 1999 회장 이정우, 부회장 김영범, 총무 장양술, 서기 손정곤, 회계 우현주, 감사 김세철 2000 회장 최석주, 부회장 손정곤, 총무 우원화, 서기 고경아, 회계 김효경, 감사 이정우
은혜마을	2002 회장 안성완 2003 회장 홍동현 2004 회장 박진흙, 부회장 김준구, 총무 진정원, 회계 김이선 2005 회장 김준구, 부회장 김동규, 총무 류은섭, 회계 최옥순 2006 회장 김동규, 부회장 이봉욱, 총무 배한원, 회계 윤선미 2007 회장 이봉욱 2008 회장 박성준, 부회장 정일진, 총무 황지영, 회계 손주연 2009 정일진
남선교회	2010 회장 이원걸, 부회장 방경남 2011 회장 방경남, 부회장 이창호, 회계 이문영, 서기 김준구 2012 회장 이창호, 2013 회장 엄재관, 부회장 이문영, 서기 김진기, 회계 김준구, 감사 안성완 2014 회장 이문영, 부회장 김진기, 서기 차주혁, 회계 최정열
교구장	북동교구: 강길원(1998-2011), 장양술 (2012), 박신영(2013 - 2014) 북서교구: 강성유(1998-2005), 박영철(2007-2014) 중서교구: 김성빈(1998-2005, 2010), 김명철(2007-2009), 안태준(2011-2014) 중앙교구: 김문소(1998-2006), 김길람(2010), 조준호(2007-2009, 2011-2014) 남서교구: 김형범(1998, 1999, 2007-2011), 최연일(2000-2005, 2012-2014) 남동교구: 김현(1998), 김정선(1999-2014) 영어교구: 김성현(2009-2014)

구역장	<p>북동1구역: 김세철(1998-2000,2003-05), 장양술(2001-02), 최정열(2006-10), 김정림(2011), 2012-14 inactive</p> <p>북서 1구역: 박영철(1998-99), 정용국(2000-01), 박준재(2002), 김현구(2003-07.10), 박신영(2008-09), 2011-14 inactive</p> <p>북서2구역: 김현구(2001-02), 김태만(2003-05), 김화옥(2006), 백남옥(2007), 김준배(2008), 박성준(2009), 최현구(2010), 도삼주/정명숙(2011-12), 최준영(2013), 2014 inactive</p> <p>북서3구역: 박성호(2001), 서용석(2002) 타구역으로 병합됨.</p> <p>중서1구역: 이강필(1998-99), 최승주(2000-01), 김치풍(2002-03), 권복태(2004-05,2010), 태진수(2006), 박종열(2007), 방경남(2008-14)</p> <p>중서2구역: 김명철(1998-99), 김동환(2000-01), 강기호(2002), 차주혁(2003-04), 박진흙(2005-06), 박은정(2007-08), 한문수(2009-10), 김시찬(2011), 김제성(2012-14)</p> <p>중서3구역: 이정민(2001-02), 안태준(2003-04), 김성현(2005-07), 유승오(2008-09), 이유택(2010-13), 박애리(2014)</p> <p>중서4구역: 엄재관(2004-06), 이원걸(2007-08), 이문영(2009-10), 지훈(2011-12), 김진기(2013-14)</p> <p>남서1구역: 이재환(1998-99), 이경희(2000), 정진웅(2001-06), 김동숙(2007-2011), 이정민(2012-14)</p> <p>남서2구역: 이정규(2001-05), 김우진(2006-07), 이창호(2008-09), 최창열(2010-11, 14), 권오훈(2012-13)</p> <p>남동1구역: 태수영(1998-2000), 김춘미(1001-02), 손정곤(2003-04), 김정선(2005, 2008), 이선영(2006-07), 임숙현(2009), 안명훈(2010-13), 박종세(2014)</p> <p>중앙1구역: 박기춘(1998-99), 문영도(2000-03), 진교창(2004-05), 이숙재(2006-14)</p> <p>중앙2구역: 신경자(1998-99), 강정임(2000-03), 최창열(2003-04), 김경애(2005-08), 이경자(2009-10), 2011년 부터 남서1구역과 합동</p> <p>중앙3구역: 김영범(1998-2001), 박주상(2002), 김우진(2003), 이태호(2004, 13), 김은석(2005), 조철형(2006), 정범석(2007), 이주용(2008), 정하균(2009-10), 김대식(2011), 김진홍(2012), 이재익(2014)</p> <p>중앙4구역: 김준구(2002-03, 13), 김동규(2004-05), 안성원(2006-07), 고진수(2008-09), 이정일(2010), 노윤경(2011), 강민형(2012), 윤주한(2014)</p> <p>중앙5구역: 신보경(2012-14)</p> <p>남서1/중앙2 합동구역: 김동숙(2011), 이정민(2012-14)</p> <p>영어구역(International Fellowship): 김성현(2009), 백승한(2010-12), 김용욱(2013), 이영완(2014)</p>
-----	--

■ 제직 명단 1995-2014 (2005년부터 2월 임직 기준)

1995	<p>당회원(연조별)</p> <p>1998년조(5명): 김내도, 김문소, 김정선, 김현, 최연일 1997년조(5명): 강성유, 김갑성, 김영경, 조요윤, 한승희</p> <p>1996년조 (4명): 강길원, 김형범, 변화경, 조준호 휴무장로(1명): 김성빈 은퇴장로(2명): 김창신, 백린</p> <p>권사(9명): 나시옥, 문숙찬, 박연교, 백은숙, 성덕춘, 신경자, 신좌경, 이상구, 최선경</p> <p>집사(연조별)</p> <p>1998년조(11명): 김세철, 문영도, 박병덕, 신동욱, 원덕수, 이계순, 장양술, 조순래, 최석주, 최송자, 한영희</p> <p>1997년조(7명): 김명철, 김영순, 박기춘, 박영철, 심병희, 이경희, 이점례</p> <p>1996년조(12명): 강상철, 김영숙, 김유철, 김한나, 박춘지, 변성구, 손선배, 송미자, 이강필, 장현숙, 정진수, 진동호</p> <p>휴무집사(10명): 강경희, 김경애, 김계숙, 변용구, 이우조, 이재환, 정귀달, 정귀영, 정영선, 최희숙</p> <p>총 제직인원(시무/휴무 포함): 64명 - 장로 15명, 권사 9명, 집사 40명</p>
------	--

1996	<p>당회원(연조별)</p> <p>1999년조(3명): 김형범, 변화경, 조준호 1998년조(5명): 김내도, 김문소, 김정선, 김현, 최연일</p> <p>1997년조(5명): 강성유, 김갑성, 김영경, 조요윤, 한승희 휴무장로(2명): 강길원, 김성빈</p> <p>은퇴장로(2명): 김창신, 백린</p> <p>권사(9명): 나시옥, 문숙찬, 박연교, 백은숙, 성덕춘, 신경자, 신좌경, 이상구, 최선경</p> <p>집사(연조별)</p> <p>1999년조(12명): 강경희, 김경애, 김계숙, 김정림, 박춘지, 변성구, 송미자, 정귀달, 정진수, 진동호, 최승주, 최인주</p> <p>1998년조(11명): 김세철, 문영도, 박병덕, 신동욱, 원덕수, 이계순, 장양술, 조순래, 최석주, 최송자, 한영희</p> <p>1997년조(7명): 김명철, 김영순, 박기춘, 박영철, 심병희, 이경희, 이점례</p> <p>휴무집사(12명): 강상철, 김영숙, 김한나, 변용구, 손선배, 이강필, 이우조, 이재환, 장현숙, 정귀영, 정영선, 최희숙</p> <p>총 제직인원(시무/휴무 포함): 66명 - 장로 15명, 권사 9명, 집사 42명</p>
1997	<p>당회원(연조별)</p> <p>2000년조(3명): 강길원, 강성유, 김성빈 1999년조(2명): 변화경, 조준호 1998년조(5명): 김내도, 김문소, 김정선, 김현, 최연일 휴무장로(4명): 김영경, 김형범, 조요윤, 한승희</p> <p>은퇴장로(3명): 김갑성, 김창신, 백린</p> <p>권사(10명): 나시옥, 문숙찬, 박연교, 백은숙, 성덕춘, 신경자, 신좌경, 이상구, 장현숙, 최선경</p> <p>집사(연조별)</p> <p>2000년조(12명): 강상철, 김동환, 김명철, 김영숙, 김영순, 김한나, 이우조, 이재환, 이점례, 정선주, 정영선, 주상용</p> <p>1999년조(12명): 강경희, 김경애, 김계숙, 김정림, 박춘지, 변성구, 송미자, 정귀달, 정진수, 진동호, 최승주, 최인주</p> <p>1998년조(11명): 김세철, 문영도, 박병덕, 신동욱, 원덕수, 이계순, 장양술, 조순래, 최석주, 최송자, 한영희</p> <p>휴무집사(7명): 박기춘, 박영철, 변용구, 손선배, 심병희, 이강필, 이경희</p> <p>총 제직인원(시무/휴무 포함): 66명 - 장로 14명, 권사 10명, 집사 42명</p>
1998	<p>당회원(연조별)</p> <p>2001년조(2명): 김정선, 한승희 2000년조(3명): 강길원, 강성유, 김성빈 1999년조(2명): 변화경, 조준호</p> <p>휴무장로(7명): 김내도, 김영경, 김형범, 김문소, 김현, 조요윤, 최연일 은퇴장로(3명): 김갑성, 김창신, 백린</p> <p>권사(10명): 나시옥, 문숙찬, 박연교, 백은숙, 성덕춘, 신경자, 신좌경, 이상구, 장현숙, 최선경</p> <p>집사(연조별)</p> <p>2001년조(9명): 김세철, 문영도, 박기춘, 박영철, 신동욱, 이경희, 원덕수, 장양술, 최석주</p> <p>2000년조(12명): 강상철, 김동환, 김명철, 김영숙, 김영순, 김한나, 이우조, 이재환, 이점례, 정선주, 정영선, 주상용</p> <p>1999년조(12명): 강경희, 김경애, 김계숙, 김정림, 박춘지, 변성구, 송미자, 정귀달, 정진수, 진동호, 최승주, 최인주</p> <p>휴무집사(9명): 이강필, 이계순, 한영희, 심병희, 변용구, 손선배, 최송자, 조순래, 박병덕</p> <p>총 제직인원(시무/휴무 포함): 66명 - 장로 14명, 권사 10명, 집사 42명</p>

<p>1999</p>	<p>당회원(연조별)                  2002년조(3명): 김문소, 최연일, 홍경자 2001년조(2명): 김정선, 한승희 2000년조(3명): 강길원, 강성유, 김성빈 휴무장로(5명): 김현, 김형범, 변화경, 조요윤, 조준호 은퇴장로(3명): 김갑성, 김창신, 백린                  권사(14명): 김계숙, 김진숙, 나시옥, 문숙찬, 박연교, 박기춘, 박춘지, 신동옥, 신좌경, 이상구, 장현숙, 정귀달, 최선경, 최송자                  안수집사(연조별)                  2002년조(5명): 강경희, 김경애, 김현구, 박병덕, 정능화(신임)                  2001년조(14명): 강병영, 김세철, 김영범, 김정근, 김효경, 문영도, 박영철, 오승현, 이경희, 이혜승, 이훈희, 원덕수, 장양술, 최석주                  2000년조(12명): 강상철, 김동환, 김명철, 김영숙, 김영순, 김한나, 이우조, 이재환, 이선영, 정선주, 정영선, 주상용                  휴무집사(13명): 김정림, 심병희, 변용구, 손선배, 이강필, 이계순, 조순래, 최승주, 최인주, 변성구, 송미자, 정진수, 진동호                  서리집사(17명): 강영자, 고경아, 김난희, 김복길, 김윤, 박관희, 박주형, 서명구, 손정곤, 오세경, 장성수, 조다영, 조성일, 진교창, 차주혁, Ed Park, Sang Yoon                  총 제직인원(시무/휴무 포함): 88명 – 장로 13명, 권사 14명, 안수집사 44명, 서리집사 17명</p>
<p>2000</p>	<p>당회원(연조별)                  2003년조(5명): 강길원, 김성빈, 김형범, 변화경, 조준호 2002년조(3명): 김문소, 최연일, 홍경자 2001년조(2명): 김정선, 한승희 협동장로(1명): 박영일 휴무장로(3명): 강성유, 김현, 조요윤 은퇴장로(3명): 김갑성, 김영경, 백린                  권사(14명): 김계숙, 김진숙, 나시옥, 문숙찬, 박연교, 박기춘, 박춘지, 신동옥, 신좌경, 이상구, 장현숙, 정귀달, 최선경, 최송자                  안수집사(연조별)                  2003년조(10명): 강상철, 김동환, 김정림, 변성구, 송미자, 이계순, 정선주, 진동호, 최승주, 최인주 2002년조(5명): 강경희, 김경애, 김현구, 박병덕, 정능화                  2001년조(14명): 강병영, 김세철, 김영범, 김정근, 김효경, 문영도, 박영철, 오승현, 이경희, 이혜승, 이훈희, 원덕수, 장양술, 최석주                  휴무집사(14명): 김명철, 김영순, 이선영, 김영숙, 김한나, 이강필, 이우조, 이재환, 정진수, 조순래, 주상용, 심병희, 변용구, 손선배                  서리집사(17명): 강영자, 고경아, 김난희, 김복길, 김윤, 박관희, 박주형, 서명구, 손정곤, 오세경, 장성수, 조다영, 조성일, 진교창, 차주혁, Ed Park, Sang Yoon                  신임 서리집사(18명): 강영숙, 강정임, 김규철, 김선혁, 김성현, 김원옥, 김종윤, 김종천, 김준구, 김찬숙, 김치풍, 박주상, 송근준, 오송혁, 우원하, 정명상, 최현경, Tom Park                  총 제직인원(시무/휴무 포함): 106명 – 장로 14명, 권사 14명, 안수집사 43명, 서리집사 35명</p>
<p>2001</p>	<p>당회원(연조별)                  2004년조(1명): 한승희 2003년조(7명): 강길원, 김명철, 김성빈, 김형범, 박영철, 변화경, 조준호 2002년조(3명): 김문소, 최연일, 홍경자 협동장로(2명): 김순규, 박영일 휴무장로(3명): 김정선, 김현, 조요윤 은퇴장로(4명): 강성유, 김갑성, 김영경, 백린                  권사(16명): 김계숙, 김진숙, 나시옥, 문숙찬, 박연교, 박기춘, 박춘지, 송미자, 신동옥, 신좌경, 이상구, 장현숙, 장희숙, 정귀달, 최선경, 최송자                  안수집사(연조별)                  2004년조(11명): 김영범, 김영숙, 김한나, 김효경, 오승현, 이경희, 이선영, 이혜승, 이훈희, 조순래, 주상용                  2003년조(11명): 강상철, 김동환, 김정림, 박성호, 변성구, 이계순, 정선주, 정용국, 진동호, 최승주, 최인주</p>

	<p>2002년조(4명): 김경애, 김현구, 박병덕, 정능화                  휴무집사(10명): 김세철, 문영도, 원덕수, 장양술, 최석주, 이강필, 이재환, 강병영, 이우조, 정진수 서리집사(32명): 강영자, 강영숙, 김정림, 고경아, 김규철, 김난희, 김복길, 김선혁, 김성현, 김원옥, 김윤, 김종윤, 김중천, 김준구, 김찬숙, 김치풍, 박관희, 박주상, 서명구, 손정곤, 송근준, 오송혁, 오세경, 우원하, 장성수, 정명상, 진교창, 차주혁, 최현경, Ed Park, Sang Yoon                  신임 서리집사(14명): 강기호, 박선희, 김일영, 박성준, 안성완, 원미연, 임숙현, 조윤주, 태진수, 홍동욱, 홍동현, Helen Hong, Alice Kim, Stephen Pak                  총 제직인원(시무/휴무 포함): 114명 – 장로 16명, 권사 16명, 안수집사 36명, 서리집사 46명</p>
<p>2002</p>	<p>당회원(연조별)                  2005년조(4명): 김문소, 김정선, 최연일, 홍경자 2004년조(2명): 강상철, 한승희 2003년조(7명): 강길원, 김명철, 김성빈, 김형범, 박영철, 변화경, 조준호 협동장로(2명): 김순규, 박영일 휴무장로(2명): 김현, 조요윤 은퇴장로(4명): 강성유, 김갑성, 김영경, 백린                  권사(17명): 김계숙, 김경애, 김현지, 나시옥, 문숙찬, 박연교, 박기춘, 박춘지, 송미자, 신동옥, 신좌경, 이상구, 장현숙, 장희숙, 정능화, 최선경, 최송자                  안수집사(연조별)                  2005년조(6명): 김세철, 문영도, 원덕수, 이재환, 정능화, 최석주                  2004년조(20명): 고경아, 김난희, 김복길, 김영범, 김영숙, 김윤, 김한나, 김효경, 박관희, 서명구, 손정곤, 오세경, 오승현, 이경희, 이선영, 이혜승, 이훈희, 조순래, 주상용, 차주혁                  2003년조(9명): 김동환, 김정림, 박성호, 이계순, 정선주, 정용국, 진동호, 최승주, 최인주                  휴무집사(6명): 강병영, 김경애, 김현구, 박병덕, 이강필, 장양술                  서리집사(38명): 강기호, 강영숙, 강영자, 강정임, 김규철, 김선혁, 김성현, 김원옥, 김일영, 김종윤, 김중천, 김준구, 김찬숙, 김치풍, 박선희, 박성준, 박주상, 송근준, 안성완, 오송혁, 우원하, 원미연, 임숙현, 장성수, 정명상, 조윤주, 진교창, 최현경, 태진수, 홍동욱, 홍동현, Helen Hong, Alice Kim, Stephen Park, Tom Park                  신임 서리집사(23명): 김동규, 김성혜, 김은자, 김춘미, 김혜숙, 박진흙, 배성희, 백문창, 서용석, 설령숙, 신경애, 엄주현, 윤승호, 이승연, 이은주, 이정민, 이정희, 최창열, Jim Chou, Julia Chou, Eric Kim, Mike Oh, Kim Park                  총 제직인원(시무/휴무 포함): 136명 – 장로 17명, 권사 17명, 안수집사 41명, 서리집사 61명</p>
<p>2003</p>	<p>당회원(연조별)                  2006년조(4명): 김명철, 김형범, 박영철, 조준호 2005년조(5명): 김문소, 김정선, 최연일, 홍경자, 박영일 2004년조(1명): 한승희 협동장로(1명): 김순규 휴무장로(4명): 강길원, 김성빈, 김현, 변화경 은퇴장로(4명): 강성유, 김갑성, 김영경, 백린                  권사(17명): 김계숙, 김경애, 김현지, 나시옥, 문숙찬, 박연교, 박기춘, 박춘지, 송미자, 신동옥, 신좌경, 이상구, 장현숙, 장희숙, 정능화, 최선경, 최송자                  안수집사(연조별)                  2006년조(21명): 강기호, 강윤구, 김여영, 김정림, 김태만, 김현구, 박성준, 심윤보, 안성완, 안태준, 이계순, 이정규, 원미연, 임숙현, 장성수, 장양술, 진동호, 최승주, 최인주, 홍동욱, 홍동현                  2005년조(23명): 강영숙, 강정임, 김규철, 김선혁, 김성현, 김세철, 김원옥, 김종윤, 김종천, 김준구, 김찬숙, 김치풍, 문영도, 박주상, 성강은, 원덕수, 윤희경, 이문영, 이재환, 정명상, 정진용, 최석주, 태수영                  2004년조(17명): 고경아, 김난희, 김복길, 김영범, 김영숙, 김윤, 김한나, 김효경, 박관희, 손정곤, 오세경, 오승현, 이선영, 이혜승, 조순래, 주상용, 차주혁                  휴무집사(6명): 강병영, 김동환, 박병덕, 이강필, 정선주, 정용국                  서리집사(38명): 강영자, 고경진, 권복태, 권혜진, 김동규, 김성혜, 김수홍, 김신희, 김영순, 김윤정, 김은자, 김일영, 김춘미, 김혜숙, 박미숙, 박선희, 박신영, 박진흙, 배성희, 백준현, 서명숙, 서용석, 설령숙, 심기선, 엄주현, 윤승호, 이민구, 이승연, 이애자, 이은주, 이정민, 이정희, 조윤주, 지훈, 진교창, 최소연, 최창열, 태진수, 홍경화                  총 제직인원(시무/휴무 포함): 148명 – 장로 15명, 권사 17명, 안수집사 67명, 서리집사 38명</p>

<p>2004</p>	<p>당회원(연조별)                  2007년조(3명): 강길원, 김성빈, 변화경 2006년조(4명): 김명철, 김형범, 박영철, 조준호 2005년조(5명): 김문소, 김정선, 박영일, 최연일, 홍경자 휴무장로(2명): 김현, 한승희 협동장로(1명): 김순규 은퇴장로(4명): 강성유, 김갑성, 김영경, 백린                  권사(17명): 김경애, 김계숙, 김현지, 나시옥, 문숙찬, 박연교, 박기춘, 박춘지, 송미자, 신동옥, 신좌경, 이상구, 장현숙, 장희숙, 정능화, 최선경, 최송자                  안수집사(연조별)                  2007년조(17명): 고경아, 김난희, 김복길, 김춘미, 박관희, 박병덕, 박준재, 배성희, 손정곤, 오세경, 이은주, 이정민, 이정희, 정선주, 차주혁, 최창열, 홍옥희                  2006년조(21명): 강기호, 강윤구, 김여영, 김정림, 김태만, 김현구, 박성준, 심윤보, 안성완, 안태준, 이계순, 이정규, 원미연, 임숙현, 장성수, 장양술, 진동호, 최승주, 최인주, 홍동욱, 홍동현                  2005년조(21명): 강영숙, 강정임, 김규철, 김선혁, 김성현, 김세철, 김원옥, 김중천, 김준구, 김찬숙, 김치풍, 문영도, 성강은, 원덕수, 윤희경, 이문영, 이재환, 정명상, 정진웅, 최석주, 태수영                  휴무집사(10명): 김영범, 김영숙, 김윤, 김한나, 김효경, 이강필, 이선영, 오승현, 조순래, 주상용                  서리집사(64명): 강영자, 계동성, 고경진, 고진수, 구명희, 권복태, 권혜진, 김동규, 김동숙, 김동욱, 김선남, 김성혜, 김수홍, 김신희, 김영미, 김영순, 김영환, 김용희, 김은미, 김은자, 김준배, 김진호, 김춘미, 김혜숙, 김희정, 문유경, 박미숙, 박선희, 박신영, 박진흙, 배성희, 배형근, 백승한, 백준현, 변은지, 서명숙, 서영주, 설령숙, 성정훈, 손주연, 심기선, 엄재관, 윤미자, 이경환, 이민구, 이봉욱, 이승연, 이애자, 이원걸, 이유택, 장명술, 장미자, 전신애, 조유미, 주민정, 지 훈, 진교창, 진정원, 최정열, 태진수, 허경희, 현인복, 홍도화                  총 제직인원(사무/휴무 포함): 165명 - 장로 15명, 권사 17명, 안수집사 69명, 서리집사 64명</p>
<p>2005</p>	<p>당회원(연조별)                  2008년조(2명): 김정선, 한승희 2007년조(4명): 강길원, 김성빈, 변화경, 이선영                  2006년조(4명): 김명철, 김형범, 박영철, 조준호 휴무장로(5명): 김문소, 김현, 박영일, 최연일, 홍경자                  협동장로(1명): 김순규 은퇴장로(4명): 강성유, 김갑성, 김영경, 백린 추천장로(2명): 김세철, 장양술                  권사(17명): 김경애, 김계숙, 김현지, 나시옥, 문숙찬, 박연교, 박기춘, 박춘지, 송미자, 신동옥, 신좌경, 이상구, 장현숙, 장희숙, 정능화, 최선경, 최송자                  안수집사(연조별)                  2008년조(18명): 강영숙, 강정임, 김선혁, 김성현, 김영범, 김영숙, 김원옥, 김준구, 김찬숙, 김한나, 김효경, 성강은, 오승현, 윤희경, 이문영, 이재환, 정명상, 조순래                  2007년조(17명): 고경아, 김난희, 김복길, 김춘미, 박관희, 박병덕, 박준재, 배성희, 손정곤, 오세경, 이은주, 이정민, 이정희, 정선주, 차주혁, 최창열, 홍옥희                  2006년조(21명): 강기호, 강윤구, 김여영, 김정림, 김태만, 김현구, 박성준, 심윤보, 안성완, 안태준, 이계순, 이정규, 원미연, 임숙현, 장성수, 장양술, 진동호, 최승주, 최인주, 홍동욱, 홍동현                  휴무집사(10명): 김규철, 김세철, 김중천, 김치풍, 원덕수, 정진웅, 태수영, 김윤, 이강필, 주상용                  추천안수집사(8명): 권혜진, 김성혜, 김영순, 박미숙, 박신영, 백준현, 심기선, 지 훈                  서리집사(61명): 계동성, 고경진, 고진수, 구명희, 권복태, 권혜진, 김동규, 김동숙, 김동욱, 김선남, 김성혜, 김수홍, 김신희, 김영미, 김영순, 김영환, 김용희, 김은미, 김은자, 김준배, 김진호, 김춘미, 김혜숙, 김희정, 문유경, 박미숙, 박선희, 박신영, 박진흙, 배성희, 배형근, 백승한, 백준현, 변은지, 서명숙, 서영주, 성정훈, 손주연, 심기선, 엄재관, 윤미자, 이경환, 이민구, 이봉욱, 이승연, 이애자, 이원걸, 이유택, 장명술, 장미자, 전신애, 조유미, 주민정, 지 훈, 진교창, 진정원, 최정열, 태진수, 허경희, 현인복, 홍도화                  신임 서리집사(19명): 김상기, 김옥순, 김우진, 김화옥, 김희현, 박기남, 박종열, 배한원, 이상자, 이재혁, 이정일, 전현임, 정진희, 조승건, 조영신, 주정대, 최현구, 표신엽, 한혜성                  추천권사(8명): 강영숙, 김영숙, 김찬숙, 성강은, 오세경, 이계순, 정선주, 태수영                  총 제직인원(사무/휴무 포함): 179명 - 장로16명, 권사 17명, 안수집사 66명, 서리집사 80명</p>

<p>2006</p>	<p>당회원(연조별)                  2009년조(3명): 김문소, 최연일, 홍경자 2008년조(4명): 김세철, 김정선, 장양술, 한승희                  2007년조(2명): 김성빈, 이선영 휴무장로(7명): 강길원, 김명철, 김현, 김형범, 박영철, 변화경, 조준호                  협동장로(1명): 김순규                  은퇴장로(4명): 강성유, 김갑성, 김영경, 백린                  권사(22명): 강영숙, 김경애, 김계숙, 김찬숙, 김현지, 나시옥, 문숙찬, 박연교, 박기춘, 박춘지, 송미자, 성강은, 신동옥, 신좌경, 오세경, 이계순, 이상구, 장현숙, 정능화, 정선주, 최선경, 최송자                  추천권사(1명): 이경희                  안수집사(연조별)                  2009년조(14명): 강윤구, 김여영, 김중천, 김태만, 박성준, 심윤보, 안성완, 안태준, 이경희, 이정규, 임숙현, 장성수, 정진웅, 홍동욱                  2008년조(24명): 강정임, 권혜진, 김선혁, 김성현, 김성혜, 김영범, 김영숙, 김영순, 김원옥, 김준구, 김한나, 김효경, 박미숙, 박신영, 백준현, 심기선, 오승현, 윤희경, 이문영, 이재환, 정명상, 조순래, 지 훈, 한문수                  2007년조(15명): 고경아, 김난희, 김복길, 김춘미, 박관희, 박병덕, 박준재, 배성희, 손정곤, 이은주, 이정민, 이정희, 차주혁, 최창열, 홍옥희                  휴무집사(9명): 김규철, 김윤, 김정림, 김치풍, 김현구, 원덕수, 이강필, 주상용, 최승주                  추천 안수집사(12명): 계동성, 김용희, 문유경, 서영주, 엄재관, 윤미자, 이경환, 이원걸, 전신애, 진정원, 최정열, 허경희                  서리집사(60명): 계동성, 고경진, 고진수, 구명희, 권복태, 김동규, 김동숙, 김상기, 김선남, 김영미, 김영환, 김용희, 김옥순, 김우진, 김은미, 김은자, 김준배, 김춘미, 김화옥, 김희정, 김희현, 문유경, 박기남, 박선희, 박종열, 박진흙, 배한원, 백승한, 변은지, 서명숙, 서영주, 성정훈, 손주연, 엄재관, 윤미자, 이경환, 이봉욱, 이상자, 이승연, 이원걸, 이유택, 이재혁, 이정일, 장명술, 전신애, 전현임, 조승건, 조영신, 조유미, 주민정, 주정대, 진교창, 진정원, 최정열, 최현구, 태진수, 한혜성, 허경희, 현인복, 홍도화                  신임 서리집사(20명): 구본철, 김용욱, 김태경, 김하나, 민정숙, 박진욱, 배상결, 백남욱, 서민정, 서은영, 신보경, 양경삼, 옥창호, 윤선미, 이진희, 이태호, 전희, 정일진, 정재원, 태영미                  총 제직인원(사무/휴무 포함)-181명: 장로 17명, 권사 22명, 안수집사 62명, 서리집사 80명</p>
<p>2007</p>	<p>당회원(연조별)                  2010년조(4명): 김명철, 박영철, 조준호, 이선영                  2009년조(4명): 김문소, 김성빈, 최연일, 홍경자 2008년조(4명): 김세철, 김정선, 장양술, 한승희                  휴무장로(4명): 강길원, 김현, 김형범, 변화경 협동장로(1명): 김순규 은퇴장로(4명): 강성유, 김갑성, 김영경, 백린 추천장로(1명): 정진웅(2010년조)                  권사(22명): 강영숙, 김경애, 김계숙, 김찬숙, 김현지, 나시옥, 문숙찬, 박연교, 박기춘, 박춘지, 송미자, 성강은, 신동옥, 신좌경, 이경희, 이계순, 이상구, 장현숙, 정능화, 정선주, 최선경, 최송자                  추천권사(1명): 조순래                  안수집사(연조별)                  2010년조(11명): 김정림, 김춘미, 김현구, 박준재, 배성희, 이은주, 이정민, 이정희, 최승주, 최창열, 홍옥희                  2009년조(26명): 강윤구, 계동성, 김여영, 김용희, 김중천, 김태만, 문유경, 박성준, 서영주, 심윤보, 안성완, 안태준, 엄재관, 윤미자, 이경환, 이경희, 이원걸, 이정규, 임숙현, 장성수, 전신애, 정진웅, 진정원, 최정열, 허경희, 홍동욱                  2008년조(24명): 강정임, 권혜진, 김선혁, 김성현, 김성혜, 김영범, 김영숙, 김영순, 김원옥, 김준구, 김한나, 김효경, 박미숙, 박신영, 백준현, 심기선, 오승현, 윤희경, 이문영, 이재환, 정명상, 조순래, 지 훈, 한문수                  휴무집사(11명): 고경아, 김난희, 김규철, 김윤, 김치풍, 김현구, 박관희, 원덕수, 이강필, 주상용, 차주혁</p>

	<p>추천 안수집사(16명): 권복태, 김동규, 김동숙, 김영미, 김우진, 김은미, 김준배, 박기남, 박종열, 이상자, 이승연, 이재혁, 조영신, 주민정, 주정대, 현인복</p> <p>서리집사(64명): 구본철, 고경진, 고진수, 구명희, 권복태, 김동규, 김동숙, 김상기, 김영미, 김영환, 김옥순, 김용욱, 김우진, 김은미, 김은자, 김준배, 김춘미, 김태경, 김하나, 김화옥, 김희정, 김희현, 민정숙, 박기남, 박선희, 박종열, 박진욱, 박진흙, 배상결, 백남욱, 배한원, 백승한, 변은지, 서민정, 서명숙, 서은영, 손주연, 신보경, 양경삼, 윤선미, 이봉욱, 이상자, 이승연, 이유택, 이재혁, 이정일, 이진희, 이태호, 장명술, 전현임, 전 희, 정일진, 정재원, 조승건, 조영신, 조유미, 주민정, 주정대, 최현구, 태영미, 태진수, 한혜성, 현인복, 황도화</p> <p>신임 서리집사(24명): 김민준, 김상태, 김은정, 문영진, 박은정, 박종배, 신미송, 오윤석, 이경자, 이남이, 이미정, 이선진, 이주용, 이지민, 이창호, 이혜승, 임보라, 전계연, 정경림, 최석희, 최영미, 하대준, 한정인, 황동준</p> <p>총 제직인원(시무/휴무 포함)-199명: 장로17명, 권사 22명, 안수집사 72명, 서리집사 88명</p>
2008	<p>당회원(연조별)</p> <p>2011년조(3): 김세철, 장양술, 한승희</p> <p>2010년조(5명): 김명철, 박영철, 조준호, 이선영, 정진웅</p> <p>2009년조(4명): 김문소, 김성빈, 최연일, 홍경자</p> <p>휴무장로(5명): 강길원, 김정선, 김현, 김형범, 변화경</p> <p>협동장로(1명): 김순규 은퇴장로(4명): 강성유, 김갑성, 김영경, 백린</p> <p>권사(23명): 강영숙, 김경애, 김계숙, 김찬숙, 김현지, 나시옥, 문숙찬, 박연교, 박기춘, 박춘지, 송미자, 성강은, 신동욱, 신좌경, 이경희, 이계순, 이상구, 장현숙, 정능화, 정선주, 조순래, 최선경, 최송자</p> <p>안수집사(연조별)</p> <p>2011년조(13명): 고경아, 김영범, 김영숙, 김영순, 김한나, 김현구, 김효경, 박관희, 박미숙, 박신영, 오승현, 지 훈, 한문수</p> <p>2010년조(23명): 권복태, 김동규, 김동숙, 김우진, 김은미, 김정림, 김준배, 김춘미, 김현구, 박종열, 박준재, 배성희, 이상자, 이은주, 이정민, 이정희, 이재혁, 조영신, 주민정, 주정대, 최승주, 최창열, 홍옥희</p> <p>2009년조(25명): 강윤구, 계동성, 김여영, 김용희, 김종천, 김태만, 문유경, 박성준, 서영주, 심윤보, 안성완, 안태준, 엄재관, 윤미자, 이경환, 이경희, 이원걸, 이정규, 임숙현, 장성수, 전신애, 진정원, 최정열, 허경희, 홍동욱</p> <p>휴무집사(16명): 김난희, 김윤, 김치풍, 이강필, 주상용, 차주혁, 강정임, 김선혁, 김성현, 김원욱, 김준구, 심기선, 윤희경, 이문영, 이재환, 정명상</p> <p>서리집사(65명): 고경진, 고진수, 구명희, 김민준, 김상기, 김영미, 김옥순, 김용욱, 김은자, 김은정, 김태경, 김하나, 김화옥, 김희정, 김희현, 민정숙, 박기남, 박선희, 박은정, 박진욱, 박진흙, 배상결, 백남욱, 배한원, 백승한, 변은지, 서민정, 서명숙, 서은영, 손주연, 신미송, 신보경, 양경삼, 윤선미, 이경자, 이남이, 이미정, 이봉욱, 이승연, 이유택, 이정일, 이주용, 이진희, 이창호, 이혜승, 이태호, 임보라, 장명술, 전계연, 전현임, 전 희, 정일진, 정재원, 조유미, 최석희, 최영미, 최현구, 태영미, 태진수, 하대준, 한정인, 한혜성, 황동준, 현인복, 황도화</p> <p>신임 서리집사(24명): 강지민, 김동원, 김민정, 김은석, 김용한, 김진흙, 박성준, 박애리, 박은영, 박지원, 배성주, 서원석, 손영권, 송현정, 안은신, 이상진, 이성숙, 이지현, 이해원, 장보경, 장승혁, 정광근, 황지영, 황호범</p> <p>총 제직인원(시무/휴무 포함) 207명: 장로 18명, 권사 23명, 안수집사 77명, 서리집사 89명</p>

2009	<p>당회원(연조별)</p> <p>2012년조(3명): 김문소, 김정선, 홍경자 2011년조(5명): 김세철, 안태준, 장양술, 한승희, 홍동욱</p> <p>2010년조(4명): 김명철, 박영철, 이선영, 조준호</p> <p>휴무장로(6명): 강길원, 김성빈, 김현, 김형범, 변화경, 최연일</p> <p>협동장로(1명): 김순규 은퇴장로(3명): 김갑성, 김영경, 백린</p> <p>권사(24명): 강영숙, 김경애, 김계숙, 김찬숙, 김현지, 나시옥, 문숙찬, 박연교, 박기춘, 박춘지, 송미자, 성강은, 신동욱, 신좌경, 이경희, 이계순, 이상구, 이숙재, 장현숙, 정능화, 정선주, 조순래, 최선경, 최송자</p> <p>안수집사(연조별)</p> <p>2012년조(17명): 강정임, 계동성, 김용희, 김종천, 문유경, 서영주, 심기선, 엄재관, 윤미자, 윤희경, 이경환, 이문영, 이원걸, 전신애, 진정원, 최정열, 허경희</p> <p>2011년조(17명): 고경아, 김영범, 김영숙, 김영순, 김중희, 김한나, 김화옥, 김현구, 김효경, 박관희, 박미숙, 박신영, 오승현, 이유택, 지 훈, 최현구, 한문수</p> <p>2010년조(23명): 권복태, 김동규, 김동숙, 김우진, 김은미, 김정림, 김준배, 김춘미, 김현구, 박종열, 박준재, 배성희, 이상자, 이은주, 이정민, 이정희, 이재혁, 조영신, 주민정, 주정대, 최승주, 최창열, 홍옥희</p> <p>휴무집사(20명): 강윤구, 김난희, 김선혁, 김성현, 김여영, 김윤, 김원욱, 김치풍, 김태만, 박성준, 심윤보, 안성완, 이강필, 이정규, 이재환, 임숙현, 장성수, 정명상, 주상용, 차주혁</p> <p>서리집사(105명): 강지민, 강혜정, 고경진, 고진수, 구명희, 광서영, 김동원, 김민정, 김민준, 김상기, 김연희, 김영미, 김옥순, 김용욱, 김용한, 김은석, 김은자, 김은정(A), 김은정(B), 김정현, 김진기, 김태경, 김태수, 김현주, 김혜영, 김희정, 김희현, 노윤경, 민정숙, 박기남, 박선희, 박성준, 박애리, 박용주, 박은영, 박은정, 박지원, 박진욱, 박진흙, 방경남, 배상결, 배성주, 백남욱, 배한원, 백승한, 변은지, 서민정, 서명숙, 서원석, 서은영, 소창호, 손영권, 손주연, 송정숙, 송현정, 신미송, 신보경, 신소정, 안은신, 유승오, 윤선미, 이경자, 이남이, 이미정, 이봉욱, 이상진, 이성숙, 이성우, 이성희, 이승연, 이정일, 이주용, 이진희, 이창호, 이현주, 이혜승, 이해원, 이태호, 임보라, 장명술, 장보경, 장승혁, 전계연, 전현임, 전 희, 정광근, 정일진, 정재원, 정하균, 조성호, 조유미, 최석희, 최영미, 태영미, 태진수, 하대준, 한대근, 한정인, 한혜성, 황동준, 황옥란, 황지연, 황호범, 현인복, 황도화</p> <p>총 제직인원(시무/휴무 포함) 224명: 장로 18명, 권사 24명, 안수집사 77명, 서리집사 105명</p>
2010	<p>당회원</p> <p>2013년조(4명): 강길원, 김성빈, 박영철, 조준호</p> <p>2012년조(5명): 김문소, 김성현, 김정선, 이정규, 홍경자</p> <p>2011년조(5명): 김세철, 안태준, 장양술, 한승희, 홍동욱</p> <p>휴무장로(6명): 김명철, 김현, 김형범, 변화경, 이선영, 최연일, 협동장로(2명): 김길람, 김순규 은퇴장로(2명): 김영경, 백린</p> <p>권사(24명): 강영숙, 김경애, 김계숙, 김여영, 김찬숙, 김현지, 나시옥, 박연교, 박기춘, 박춘지, 송미자, 성강은, 신동욱, 신좌경, 이경희, 이계순, 이상구, 이숙재, 장현숙, 정능화, 정선주, 조순래, 최선경, 최송자</p> <p>안수집사</p> <p>2013년조(20명): 권복태, 김동규, 김동숙, 김우진, 김은미, 김준배, 김정림, 김태만, 김현구, 박성준, 박종열, 심윤보, 안성완, 이상자, 이재혁, 이재환, 임숙현, 조영신, 주민정, 주정대</p> <p>2012년조(30명): 강정임, 고진수, 김상기, 김준구, 김용희, 김종천, 문유경, 박선희, 박진욱, 배한원, 서영주, 심기선, 안명훈, 엄재관, 윤미자, 윤선미, 윤희경, 이경환, 이기순, 이문영, 이승연, 이원걸, 이원기, 이정일, 전신애, 조유미, 진정원, 최정열, 태영미, 허경희</p> <p>2011년조(17명): 고경아, 김영범, 김영숙, 김영순, 김중희, 김한나, 김화옥, 김현구, 김효경, 박관희, 박미숙, 박신영, 오승현, 이유택, 지 훈, 최현구, 한문수</p> <p>휴무집사(20명): 강윤구, 김난희, 김선혁, 김윤, 김원욱, 김치풍, 이강필, 장성수, 정명상, 주상용, 차주혁, 김춘미, 박준재, 배성희, 이은주, 이정민, 이정희, 최승주, 최창열, 홍옥희</p>

	<p>서리집사(108명)                  강민형, 강승민, 강지민, 강혜정, 고경진, 구명희, 꺾서영, 김경태, 김남숙, 김대식, 김도윤, 김래아, 김민정, 김민준, 김연희, 김영미, 김옥순, 김용욱, 김윤정, 김은석, 김은자, 김은정(A), 김은정(B), 김은주, 김재영, 김진기, 김진섭, 김진홍, 김태경, 김태수, 김향인, 김현주, 김혜영, 김희정, 김희현, 노윤경, 민병준, 민정숙, 박기남, 박성준, 박애리, 박은정, 박진홍, 방경남, 배상결, 백남옥, 백승한, 변은지, 서민정, 서명숙, 서은영, 소창호, 손영권, 손주연, 송정숙, 신미송, 신보경, 신소정, 안은신, 유민재, 유승오, 윤향중, 이경자, 이남이, 이동화, 이미정, 이봉욱, 이상정, 이상진, 이성숙, 이성우, 이성희, 이영완, 이주용, 이진화, 이창호, 이현주, 이혜승, 이해원, 이태호, 임보라, 장명술, 장보경, 장숙랑, 장승혁, 전계연, 전현임, 전 희, 정광근, 정일진, 정재원, 정하균, 조성호, 주재은, 차민호, 채주영, 최석희, 최영미, 최정우, 태진수, 하대준, 한대근, 한정인, 한혜성, 홍도화, 황동준, 황지영, 황호범                  총 제직 인원(시무/휴무 포함)-241명:장로 22명, 권사 24명, 안수집사 87명, 서리집사 108명</p>
2011	<p>당회원(연조별)                  2014년조(4명): 안태준, 이선영, 김영범, 박신영                  2013년조(2명): 박영철, 조준호                  2012년조(5명): 김문소, 김성현, 김정선, 이정규, 홍경자                  휴무장로(7명): 김현, 김성빈, 변화경, 최연일, 김세철, 장양술, 한승희                  은퇴장로(3명): 김영경, 김형범, 백린                  권사(23명): 강영숙, 김경애, 김계숙, 김여영, 김현지, 나시옥, 박연교, 박기춘, 박춘지, 송미자, 성강은, 신동욱, 신좌경, 이계순, 이상구, 이상자, 이숙재, 장현숙, 정능화, 정선주, 조순래, 최선경, 최송자                  안수집사(연조별)                  2014년조(21명): 강혜정, 고경아, 김종희, 김춘미, 김화옥, 방경남, 배성희, 서명숙, 신소정, 이경자, 이유택, 이은주, 이정민, 이정희, 이주용, 유승오, 장성수, 최창열, 최현구, 한정인, 황동준,                  2013년조(33명): 권복태, 김동규, 김동숙, 김우진, 김영미, 김용욱, 김은미, 김준배, 김정림, 김태만, 김현구, 박성준, 박종열, 백승한, 손주현, 신미송, 심윤보, 안성완, 이성숙, 이재혁, 이재환, 이창호, 이태호, 이혜승, 이해원, 임숙현, 장보경, 정광근, 정재원, 조영신, 주민정, 주정대, 하대준                  2012년조(26명): 강정임, 고진수, 김상기, 김준구, 김용희, 문유경, 박선희, 박진욱, 배한원, 심기선, 안명훈, 엄재관, 윤미자, 윤선미, 윤희경, 이경환, 이문영, 이승연, 이원걸, 이정일, 전신애, 조유미, 진정원, 최정열, 태영미, 허경희                  휴무집사(25명): 강윤구, 김난희, 김선혁, 김윤, 김원욱, 김영범, 김영숙, 김영순, 김한나, 김현구, 김효경, 박관희, 박미숙, 박신영, 오승현, 이강필, 장성수, 정명상, 주상용, 차주혁, 지 훈, 박준재, 최승주, 한문수, 홍옥희                  서리집사(90명): 강민형, 강승민, 강윤석, 강지민, 고경진, 구명희, 구용한, 꺾서영, 권오훈, 김경태, 김남숙, 김대식, 김도윤, 김명은, 김민정, 김민준, 김시찬, 김양희, 김연희, 김옥순, 김윤정, 김은자, 김은정(A), 김은정(B), 김은주, 김정선, 김재영, 김진기, 김진섭, 김진홍, 김태수, 김향인, 김현주, 김혜영, 김희정, 김희현, 노윤경, 민정숙, 박기남, 박성준, 박양신, 박애리, 박정은, 배상결, 류승렬, 사공현일, 서민정, 서은영, 송정숙, 신보경, 안은신, 안창혁, 오준석, 유진선, 윤향중, 이동화, 이미정, 이봉욱, 이상진, 이성우, 이성희, 이영완, 이정은, 이재익, 이지훈, 이진화, 이현주, 임보라, 장명술, 장성현, 장성주, 장승혁, 전계연, 전현임, 전 희, 정민석, 정은아, 정일진, 정하균, 조성호, 주재은, 차민호, 채주영, 최석희, 최영미, 최정우, 최준영, 한대근, 한혜성, 홍도화, 홍신숙                  총 제직인원(시무/휴무 포함) 236명: 장로 18명, 권사 23명, 안수집사 105명, 서리집사 90명</p>

2012	<p>당회원(연조별)                  2015년조(4명): 김성현, 이정규, 장양술, 한승희                  2014년조(4명): 안태준, 이선영, 김영범, 박신영                  2013년조(2명): 박영철, 조준호                  휴무장로(8명): 김문소, 김성빈, 김세철, 김정선, 김현, 변화경, 최연일, 홍경자                  은퇴장로(3명): 김영경, 김형범, 백린                  추천장로(2명): 권복태, 안성완                  권사(23명): 강영숙, 김경애, 김계숙, 김여영, 김현지, 나시옥, 박연교, 박기춘, 박춘지, 송미자, 성강은, 신동욱, 신좌경, 이계순, 이상구, 이상자, 이숙재, 장현숙, 정능화, 정선주, 조순래, 최선경, 최송자                  안수집사(연조별)                  2015년조(24명): 강정임, 김상기, 김영숙, 김영순, 김준구, 김한나, 김현주, 박관희, 박미숙, 박선희, 박준재, 박진욱, 심기선, 안명훈, 윤선미, 이문영, 이승연, 이정일, 장성수, 조유미, 지 훈, 태영미, 한문수, 홍옥희                  2014년조(21명): 강혜정, 고경아, 김종희, 김춘미, 김화옥, 방경남, 배성희, 서명숙, 신소정, 이경자, 이유택, 이은주, 이정민, 이정희, 이주용, 유승오, 장성수, 최창열, 최현구, 한정인, 황동준                  2013년조(32명): 권복태, 김동규, 김동숙, 김우진, 김영미, 김용욱, 김은미, 김준배, 김정림, 김현구, 박성준, 박종열, 백승한, 손주현, 신미송, 심윤보, 안성완, 이성숙, 이재혁, 이재환, 이창호, 이태호, 이혜승, 이해원, 임숙현, 장보경, 정광근, 정재원, 조영신, 주민정, 주정대, 하대준                  휴무집사(24명): 강윤구, 고진수, 김난희, 김선혁, 김윤, 김원욱, 김용희, 김효경, 배한원, 문유경, 엄재관, 오승현, 윤미자, 윤희경, 이강필, 이경환, 이원걸, 전신애, 정명상, 주상용, 진정원, 차주혁, 최정열(A), 허경희                  서리집사(89명)                  강민형, 강윤석, 고경진, 구용한, 꺾서영, 권오훈, 김경태, 김대식, 김도윤, 김명은, 김민정, 김민준, 김시찬, 김연희, 김옥순, 김은자, 김은정(A), 김은정(B), 김은주, 김정선, 김재영, 김진기, 김진섭, 김진홍, 김태수, 김향인, 김혜영, 김희정, 김희현, 노윤경, 민정숙, 박기남, 박성준, 박양신, 박애리, 박정은, 배상결, 류승렬, 사공현일, 서민정, 서은영, 송정숙, 신보경, 안은신, 안창혁, 오준석, 유진선, 윤향중, 이동화, 이미정, 이봉욱, 이상진, 이성우, 이성희, 이영완, 이애영, 이정은, 이재익, 이지훈, 이진화, 이현주, 임보라, 임윤아, 장명술, 장성현, 장성주, 장승혁, 전계연, 전현임, 전 희, 정근화, 정은아, 정일진, 정하균, 조성호, 주재은, 차민호, 채주영, 채진병, 최미남, 최석희, 최영미, 최정우, 최정열(B), 최준영, 한대근, 한혜성, 황정제, 홍도화, 홍신숙                  총 제직 인원(시무/휴무 포함) 231명: 장로 18명, 권사 23명, 안수집사 101명, 서리집사 89명</p>
2013	<p>당회원(연조별)                  2016년조(2명): 김세철, 김정선                  2015년조(6명): 권복태, 김성현, 안성완, 이정규, 장양술, 한승희                  2014년조(4명): 안태준, 이선영, 김영범, 박신영                  휴무장로(6명): 김성빈, 김현, 변화경, 박영철, 조준호, 최연일                  은퇴장로(5명): 김문소, 김영경, 김형범, 백린, 홍경자                  추천장로(1명): 엄재관                  권사(25명): 강영숙, 공경희, 김경애, 김계숙, 김여영, 김현지, 박연교, 박기춘, 박춘지, 송미자, 성강은, 신동욱, 신좌경, 심기선, 이계순, 이상구, 이상자, 이숙재, 장현숙, 전신애, 정능화, 정선주, 조순래, 최선경, 최송자                  안수집사(연조별)                  2016년조(32명): 김영미, 김용욱, 김용희, 김효경, 백승한, 손주연, 신미송, 심윤보, 이경환, 이성숙, 이원걸, 이창호, 이태호, 이혜승, 이해원, 윤미자, 장보경, 정광근, 정재원, 진정원, 최정열, 하대준, 허경희                  2015년조(31명): 강민형, 강정임, 김상기, 김연희, 김영숙, 김영순, 김준구, 김진섭, 김한나, 김향인, 김현주, 김희정, 노윤경, 박관희, 박미숙, 박선희, 박준재, 박진욱, 안명훈, 안은신, 윤선미, 이문영, 이승연, 이정일, 장성수, 전현임, 조유미, 지 훈, 태영미, 한문수, 홍옥희</p>



	<p>2014년조(21명): 강혜정, 고경아, 김종희, 김준미, 김화옥, 방경남, 배성희, 서명숙, 신소정, 이경자, 이유택, 이은주, 이정민, 이정희, 이주용, 유승오, 장성수, 최창열, 최현구, 한정인, 황동준</p> <p>휴무집사(27명): 강윤구, 고진수, 김난희, 김동규, 김동숙, 김선혁, 김원옥, 김윤, 김은미, 김정림, 김준배, 김현구, 문유경, 박성준, 박종열, 엄재관, 오승현, 윤희경, 이강필, 이재혁, 이재환, 정명상, 조영신, 주민정, 주상용, 주정대, 차주혁</p> <p>서리집사(95명): 곽서영, 구용한, 구윤지, 권오훈, 김경태, 김대식, 김도윤, 김명은, 김민경, 김민준, 김시찬, 김옥순, 김은자, 김은정(A), 김은정(B), 김은주, 김재영, 김진기, 김진홍, 김태수, 김혜영, 김희수, 김희현, 류승렬, 리순아, 민정숙, 박기남, 박성민, 박성준, 박애리, 박양신, 박정은, 변수연, 변옥화, 사공현일, 서민정, 손정은, 송정숙, 신민영, 신보경, 오준석, 유진선, 윤주한, 윤향중, 이강민, 이경희, 이관화, 이동화, 이문희, 이미정, 이봉옥, 이상필, 이성우, 이성희, 이애영, 이영완, 이재익, 이지훈, 이현주, 임보라, 임윤아, 장명술, 장성주, 장성현, 장승혁, 전계연, 전재완, 전 희, 정근화, 정성원, 정은아, 정은화, 정일진, 정하균, 정혜정, 조성호, 조훈성, 차민호, 채수경, 채주영, 채진병, 최미남, 최석희, 최안나, 최영미, 최정우, 최준영, 최학수, 최형태, 한대근, 한혜성, 홍도화, 홍신숙, 황우성, 황정제</p> <p>총 제직인원(시무/휴무 포함) 249명: 장로 18명, 권사 25명, 안수집사 111명, 서리집사 95명</p>
<p>2014</p>	<p>당회원(연조별)</p> <p>2017년조(3명): 김영범, 박신영, 이선영</p> <p>2016년조(3명): 김세철, 김정선, 엄재관</p> <p>2015년조(6명): 권복태, 김성현, 안성완, 이정규, 장양술, 한승희</p> <p>휴무장로(7명): 김성빈, 김현, 변화경, 박영철, 조준호, 최연일, 안태준</p> <p>은퇴장로(5명): 김문소, 김영경, 김형범, 백린, 홍경자</p> <p>추천장로(1명): 이정민</p> <p>권사(29명): 강영숙, 공경희, 김경애, 김계숙, 김여영, 김용희, 김종희, 김준미, 김현지, 나시옥, 박연교, 박기춘, 박춘지, 송미자, 성강은, 신동옥, 신좌경, 이계순, 이상구, 이상자, 이숙재, 장현숙, 전신애, 정능화, 정선주, 조순래, 조영신, 최선경, 최송자</p> <p>추천권사(6명): 김영미, 김정림, 김한나, 서명숙, 신미송, 이경자</p> <p>안수집사(연조별)</p> <p>2017년조(19명): 강혜정, 김동규, 김동숙, 김은미, 김정림, 방경남, 배성희, 서명숙, 신소정, 유승오, 이경자, 이성희, 이은주, 이정민, 이정희, 주정대, 최창열, 한정인, 황동준</p> <p>2016년조(33명): 구용한, 김영미, 김용옥, 김은정(A), 김진기, 김효경, 박양신, 백승한, 손주연, 신미송, 신보경, 심윤보, 이경환, 이동화, 이성숙, 이원걸, 이재익, 이지훈, 이창호, 이태호, 이혜승, 이해원, 임보라, 윤미자, 장보경, 장성연, 정광근, 정재원, 진정원, 최정열, 하대준, 한혜성, 허경희</p> <p>2015년조(28명): 강정임, 김상기, 김연희, 김영숙, 김영순, 김준구, 김한나, 김향인, 김현주, 김희정, 노윤경, 박관희, 박미숙, 박선희, 박준재, 박진옥, 안명훈, 안은신, 윤선미, 이문영, 이승연, 이정일, 전현임, 조유미, 지훈, 태영미, 한문수, 홍옥희</p> <p>휴무집사(24명): 강윤구, 고경아, 고진수, 김난희, 김선혁, 김원옥, 김윤, 김준배, 김화옥, 김현구, 문유경, 박성준, 박종열, 오승현, 윤희경, 이강필, 이유택, 이재환, 장성수, 정명상, 주민정, 주상용, 차주혁, 최현구</p> <p>추천 안수집사(5명): 김경태, 김진홍, 김재영, 윤향중, 채진병</p> <p>서리집사(90명): 강모영, 곽서영, 구윤지, 권오훈, 김경태, 김대식, 김도윤, 김명은, 김미숙, 김민경, 김민준, 김상지, 김애리, 김옥순, 김은자, 김은정(B), 김은주, 김재영, 김진홍, 김희수, 김희현, 남궁원, 류승렬, 리순아, 민정숙, 박기남, 박상철, 박성민, 박성준, 박애리, 박정은, 박종원, 배광현, 변수연, 변옥화, 사공현일, 송정숙, 신민영, 안원미, 오준석, 유진선, 윤주한, 윤향중, 이경희, 이관화, 이문희, 이봉옥, 이상필, 이성우, 이성희, 이영완, 이원혁, 이현주, 이해원, 임윤아, 장명술, 장성주, 장승혁, 장영준, 전계연, 전재완, 전 희, 정근화, 정성원, 정유미, 정은아, 정하균, 정혜정, 조성호, 조훈성, 차민호, 채수경, 채주영, 채진병, 최미남, 최병윤, 최석희, 최안나, 최영미, 최정우, 최정환, 최준영, 최학수, 최형태, 한세진, 홍도화, 홍성일, 홍신숙, 황우성, 황정제</p> <p>총 제직인원(시무/휴무 포함) 242명: 장로 19명, 권사 29명, 안수집사 104명, 서리집사 90명</p>



## 제 7 장

### 지역사회와 세계를 향한 교회

1995. 06-2014. 06

KCB's Domestic and Overseas Mission

우리로 하여금 이 땅과 중국 연변, 페루, 니카라과,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등지에 선교케 하시고, 가까운 이웃들과 문화 교류를 통한 나눔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  
진리의 말씀이 땅 끝까지 선포되며, 인종과 문화의 벽을 넘어 이웃을 사랑하고,

- 보스턴한인교회 창립 60주년에 읽는 첫 회년 신앙고백서 중에서

## 지역사회와 세계를 향한 선교사역 개관

보스톤한인교회가 지역사회와 세계를 향하여 펼친 선교사역은 선교사 및 선교단체 후원사역, 단기선교 사역, 해외 프로젝트 지원, 국내외 선교를 위한 교육, 미국장로교 교단을 통한 선교사역, 노회 자매교회를 지원하는 사역, 각종 봉사사역,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사역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1985년에 조직된 선교부가 1993년 선교위원회로 개편되면서 선교사역은 좀더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1995년 이후 보스톤한인교회가 본격적인 성장과 부흥을 이루어가면서 국내외 선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더 직접적인 해외 및 국내 선교사역에 참여하려는 열의를 가지게 되었다. 1997년 12월에 있었던 황윤일 선교사의 페루 선교보고는 보스톤한인교회가 단기선교를 통한 직접적인 해외 선교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2년간의 교육과 훈련 과정을 거쳐 2000년 19명의 첫 단기선교단이 페루로 파송되었고, 2002년까지 3차례에 걸쳐 단기선교단이 페루에 파송되어 현지 사역을 도왔으며, 보스톤한인교회는 현재까지 재정적으로 황윤일 선교사의 페루사역을 돕고 있다. 페루 단기선교를 시작으로 중남미 선교사역이 시작되었는데, 2003년 보스톤한인교회는 단기선교단 파송지를 니카라과로 정하고 이후 2013년까지 매년 단기선교단을 파송해왔다. 주로 의료, 교육, 봉사, 무숙자 사역, 건축 협조, 현지 지도자 세미나 등으로 현지 사역팀들을 도왔다. 2011년에 시작된 콜롬비아 선교는 중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이 참여한 단기선교단 파송을 시작으로 개인 또는 그룹으로 이루어진 단기선교단이 간간히 파송되고 있고, 2013년부터는 도미니카공화국에 의료선교를 포함한 단기선교단이 파송되기 시작하였다.

중남미 단기선교 사역은 미국장로교 보스톤노회 소속 교회인 Primera Iglesia Presbiteriana Hispana de Boston과 공동사역을 하면서 교단의 모범적인 선교사례로 인정받았으며 교단으로부터 지속적인 후원을 받고 있다. 단기선교단은 2014년 프랑스에도 파송되어 유럽 지역으로도 넓혀가고 있다. 2000년에 또한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구에서 고통당하는 조선족과 북한동포를 위해 희망촌을 건립 중이었던 이윤식 회장이 본 교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한 것을 계기로 연변 희망촌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희망의 집 건축을 돕는 등 여러 사역을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다.

한편, 2000년 9월 선교위원회가 해외선교위원회와 국내선교위원회로 나누어지면서 독립적인 사역을 시작한 국내선교위원회는 국내 선교단체 후원사역, Habitat for Humanity 봉사와 무숙자 식사 봉사와 같은 기존의 지역사회 선교활동뿐 아니라, 북미 원주민 선교 지원 등 지역사회를 벗어나 미국 내 선교 지원을 시작하였다. 2001년 아리조나 원주민 보호구역에 북미 원주민 단기선교단을 파송했고, 2014년 다시 아리조나로 북미 원주민 비전트립을 다녀온 후에 새로운 국내 선교사역의 장을 넓혔다. 2011년 ECC 건축이 완공되면서 국내선교위원회는 Oasis Café Music Night과 같은 음악 및 공연예술의 문화행사를 통한 지역사회 선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1985년에 출발하여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꾸준히 계속해온 보스톤한인교회의 선교사역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타교회에 모범을 보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 KCB's Domestic and Overseas Mission

The history of the KCB's domestic and overseas mission programs and activities are: the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of the KCB missions committee; educational programs for mission; mission projects in partnership with the PC(USA); the ministries of supporting sister churches within the denomination; supporting various overseas missionaries and mission organizations; short-term overseas mission trips; supports for overseas mission projects; benevolent and volunteer service projects and cultural programs for the residents of the KCB's neighboring communities.

The first KCB's mission group, established in 1985, has grown and developed into a mission committee in 1993 with a more systematically organized structure. Since 1995, as the KCB grew and revitalized, the interest and zeal for the Christian missions increased, and the KCB became more and more interested in direct involvement in the domestic and overseas mission projects and activities. In December 1997, a missionary from Peru, the Rev. Yoon Il Hwang, visited the KCB to deliver his mission report in person, acknowledging KCB's financial supports for his ministry in Peru. His report had such an impact on the congregation the KCB initiated short-term mission trips to Peru as well as other overseas mission projects and activities. In the year 2000, after two years of training, prayers and preparation, the first short-term mission team of 19 was sent to Peru, and the short-term mission teams visited Peru for annually two more years. The KCB continues to support the Rev. Hwang's Peru mission financially. Beginning with the short-term mission trips to Peru, the KCB embarked on the overseas mission projects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In 2003 the KCB Overseas Mission Committee designated Nicaragua as a new mission country for the short-term mission trips. The KCB sent the short-term mission teams every year until 2013. The KCB's mission teams have helped the missionaries in the field with medical and dental services, Christian education programs, volunteer and construction works and training for the field work leaders with Christian education seminars. The short-term mission to Colombia started in 2011. The initial mission team was comprised of some members of the KCB's Youth group and college students. Sometimes, individuals were sent to Colombia for specialized mission works. Starting in 2013, the KCB has sent a short-term mission team to the Dominican Republic to provide Christian education, valuable medical and dental services, and barbershop services.

The KCB's short-term mission projects to Central and South America had a partner church, Primera Iglesia Presbiteriana Hispana de Boston, a sister member church in the Presbytery of Boston. This partnership in mission between the two member churches of the same Presbytery was highly recognized, and has enjoyed the continuing financial support of the Presbytery of Boston. In 2014, the KCB also sent a short-term mission team to France in response to requests for help from the field missionaries in France and in Europe. The KCB's mission to China started in 2000 when Chairman Yoon Shik Lee visited the KCB to give a report on his ministry in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China for the Korean Chinese and North Koreans who were living under extreme hardships there. He was working on a housing project to construct the "Hope Town" to fill the housing needs of those under his care, and requested KCB's help. The KCB responded to his request, and is still continuing support for his various ministries.

Meanwhile, in September 2000, the KCB's mission committee was divided into two independent mission committees: Domestic and Overseas Mission committees. The Domestic Mission Committee's initial mission projects were traditional and consisted of supporting various domestic mission organizations, volunteering for the Habitat for Humanity and serving meals at the homeless shelters. The Domestic Mission Committee's programs steadily expanded from serving the needs of the neighboring communities to challenging mission projects, such as ministry projects for the Native Americans in the United States. The KCB's first short-term mission trip to a Native American reservation in Arizona took place in 2001. In 2014, after a 12-year hiatus, the Domestic Mission Committee restarted this mission program by taking a vision trip to Phoenix, AZ, thereby opening a new era of the KCB's domestic missions. In 2011, the newly constructed ECC building provided a convenient venue for the Domestic Mission Committee to start new, regional outreach mission projects through music and performing arts, such as the Oasis Café Music Night, geared toward serving the residents of the KCB's neighboring communities.

The KCB's mission pilgrimage since 1985 has overcome many huddles to develop and reach the present, mature stage. The KCB's mission pilgrimage, it is hoped and expected, will continue into the future, as a model to other churches, spreading God's love and the Gospel to more people around.

■ 지역사회와 세계를 향한 교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9-20).

1995년부터 2000년까지는 간접적인 선교활동과 협력선교를 통해 세계를 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 선교위원회(위원장 강길원 장로)는 선교세미나와 사경회를 통해 선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여러 형태의 선교비 지원(청년부 하기단기선교, 미국 선교기관과 자선기관들, 미국 장로교 노회/총회 선교비, 남북한동포 돕기 등)을 하고 있었고, 동시에 교회 각 부서(중고등부, 청년부, 집사회, 여선교회, 부부선교회 및 영어에배부 등)들의 소규모 선교 활동도 계속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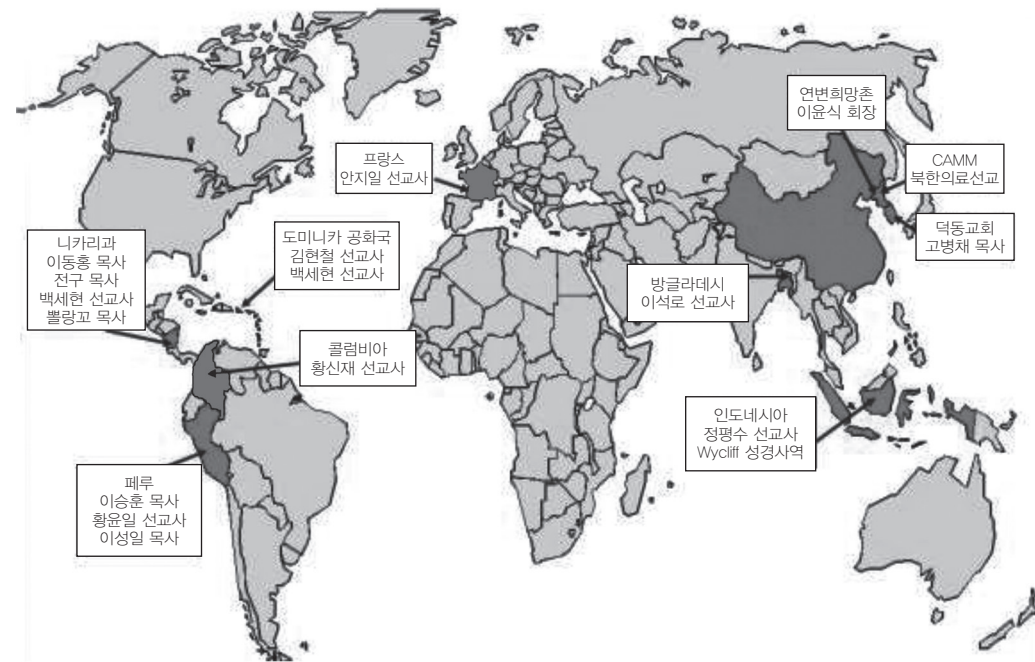
1997년, 선교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조직적인 선교활동을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새로이 구성된 선교위원회는 당회원과 각 부서(청년부, 중고등부, 집사회, 여선교회, 부부선교회 및 영어에배부)의 대표 및 선교활동에 관심이 있는 교인들로 구성되었고,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던 선교활동을 한데 묶어 선교 방향을 하나로 모았으며, 선교활동도 교단을 통한 선교, 국내 선교, 해외 선교, 특수 선교 등으로 나누어 전문성과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이후 선교위원회는 2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00년 2월 처음으로 해외 선교팀 단기선교단을 페루에 파송했고, 같은 해 연변 희망촌 지원을 시작했으며, 이후 해외선교 지역을 확장하여 니카라과,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프랑스 등에 단기선교단을 매년 꾸준히 파송하고 있다.

2000년에 독립부서로 활동을 시작한 국내선교위원회는 아리조나 북미 원주민 선교사역(2000)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선교(이웃초청 한국문화축제, 2002년-현재) 및 문화선교(Oasis Café Music Night, 2011년-현재) 등을 주관하고 있다. 2014년에는 아리조나 북미 원주민 선교사역을 재개하였다.

선교위원회의 주요 선교활동을 연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2000. 2	페루 단기선교단 첫 파송(선교단 파송: 2000-2002, 선교비 지원: 2003-현재)
2000. 9	연변 희망촌 지원 시작(선교비 지원: 2000- 현재)
2001. 5	아리조나 북미원주민 단기선교
2002. 5	이웃초청 한국문화축제 시작(국내선교위원회 주관: 2002-현재)
2003. 8	니카라과 단기선교단 파송 시작(선교단 파송: 2003-2013), 선교비 지원: 2014)
2011. 3	콜롬비아 단기선교단 파송 시작(선교단 파송: 2011-현재)
2011. 4	Oasis Café Music Night 시작(국내선교위원회 주관: 2011-현재)
2013. 7	도미니카 공화국 단기선교단 파송 시작(선교단 파송: 2013-현재)
2014. 6	프랑스 단기선교단 파송
2014. 7	아리조나 북미원주민 비전트립

보스턴 한인교회 해외선교사역



■ 교단을 통한 선교와 교단 내 자매교회를 위한 사역

선교위원회의 선교사역이 점차 다양화되면서 미국장로교 교단을 통한 선교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어, 교단 내 자매교회를 위한 선교사역도 지원을 하게 되었다. 보스턴한인교회 대학/청년부가 African American 소수민족 교회인 Roxbury 장로교회 증축을 위한 모금음악회를 열어 약 \$3,500의 기금을 전달했는데, 이 행사는 젊은이들이 중심이 된 인종 화합과 Inner City의 빈곤 문제를 돕는 뜻깊은 사역이었다(1996. 11). 보스턴노회의 자매교회인 Good Shepherd Church의 성전 건축을 위해 \$15,000를 재정 지원하였고(1998),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First Presbyterian Church in Brookline)의 재정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총 \$76,500를 보조하였다. 지역사회의 영어권 선교를 위해 영어회중 담당 목회자를 임명하고, 영어회중이 베다니장로교회로 성장하여 교단 내 자매교회로 독립(1999. 10)할 때까지 그 사역을 지원하였다. 보스턴한인교회는 교단헌금을 통한 다양한 선교활동에도 참여해왔는데, 2005년에는 노회 상회비(\$12,347.64)와 NCKPC/기타 (\$5,900)의 교회 의무금 외에도 교단선교 지원금, 총회 특별헌금, 그리고 기타헌금 등으로 교단 선교비 총액이 \$40,160에 달했고, 이는 교회 전체 지출액(\$733,001.57)의 5.5%에 해당하였다.

■ 남북한을 돕기 위한 헌금과 사역 1997-2002

당회는 1997년 북한 동포들의 기아와 수해로 인한 어려움을 돕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일을 북한동포돕기 헌금주일로 결정하고 시행하였는데, 같은 해 한국에서도 IMF사태가 발생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자, 마지막 주일을 ‘조국을 위한 선교헌금’을 하는 주일로 정하고, 남북한을 함께 돕기 위하여 헌금

을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 ‘조국을 위한 선교헌금’ 모금은 2002년까지 계속되었으며, 남북한 사역을 위하여 반반씩 나누어 선교헌금으로 사용하였다.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는 미국장로교(PC(USA)), 미국장로교 전국한인교회연합회 및 뉴잉글랜드 교회 협의회 등을 통해 옥수수, 밀가루 등을 보내는 사업을 도왔고, 미국기독교선교회(CAMM)의 북한의료사업과 연변 탈북자 돕기 사업을 지원하였다. 한국을 위해서는 개척교회를 돕기로 하여 전남 완도에 있는 섬마을 개척교회 덕동교회(고병채 목사)를 지원하였다. 2005년에 덕동교회가 충북 영동군 용화면 조동리 고산지대에 노약자들만이 남은 조동교회 개척교회 사업을 벌여서 이를 지원하였다.

2011년에는 탈북자를 돕는 기관 LiNK(Liberty in North Korea)를 초청하여 자유를 갈망하는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겪는 고통을 담은 영화 ‘HIDING’을 상영한 후 기금을 모아 전달함으로써 탈북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 2012년에도 LiNK를 초청하여 탈북자들을 돕기 위한 다큐멘터리 영화 “The People’s Crisis”를 브루클라인 지역 주민들과, 청년부원들과 교우들을 위해 이틀에 걸쳐 상영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진 후, 탈북자들을 돕기 위한 성금을 거두어 LiNK에 전달하였다. 2013년 4월에도 보스턴 화음 오케스트라, 보스턴 한인합창단, 보스턴한인교회 찬양대가 함께 협연하여(지휘: 박진욱 집사) 모은 기부금을 LiNK에 전하였다.

### ■ 보스턴 지역사회를 위한 선교사역

여러 협력선교 사역이 작은 규모이지만 오랫동안 보스턴한인교회의 각 부서의 활동으로 이어져 왔는데, 대부분의 사역이 2009년 또는 2010년까지 계속되었고, 몇 가지 사역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1995년 이후의 협력선교 사역은 다음과 같다.

#### Place of Promise, Dorchester, MA

보스턴 다운타운에 인접한 소수민족이 많이 사는 지역 Dorchester에 있는 Place of Promise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Coffee House를 운영하면서 주로 노숙자들을 돕고 있다. 그 외 community nursing ministry, mentoring program, residential program, local church bridge 활동 등을 하고 있으며, training program으로는 staff and volunteer training, community health care training과 local church training을 실시하고 있다. 1995년 이후 계속 이 사역을 위해 후원하고 있다.

#### Bridgewater Christian Fellowship

1996년부터 Bridgewater 대학교 교목인 손창희 목사의 학원목회를 돕고 있는데, 주로 학생들의 여러 문제점들과 가정문제, 마약, 술, 성문제, 자기상실과 우울증 등을 복음과 말씀을 통하여 도와주는 선교 사업을 지원하였다.

#### The Italian Home, Jamaica Plain, MA.

보스턴 지역 불우아동을 위한 단체인 Italian Home은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소외계층의 아동들, 신체적/정신적 학대아동들, 불우한 가정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들에게, 정규학교 교육, 특수과학 활동, 책임기운동, 역사 공부 등의 특수교육 활동을 통하여 교육과 상담 활동을 하고 있는데 1995년 이후 계

속 이 사역을 지원하고 있다.

#### Emmanuel Gospel Center, Boston, MA.

보스턴 시내에서 urban ministry를 하는 기관인 Emmanuel Gospel Center는 소수민족들을 위한 여러 사역들을 비롯하여 homeless, youth ministry, intercultural ministry, church planting 등의 사역을 하고 있으며, 보스턴한인교회는 1996년부터 이 사역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에는 국내선교위원회가 주관하여 세 번에 걸쳐 수집한 1000여 점의 의류를 전달하였다.

#### Greater Boston Interfaith Organization (GBIO)

Greater Boston 지역의 종교적, 인종적, 사회계층적, 지역적인 차이를 초월하여, 신앙공동체를 구성하고, 훈련하고,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사회의 문제점들과 경제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이 기관은 미국 내 60여 개의 Industrial Areas Foundation(IAF)과 협력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1995년부터 이 사역을 지원하였다.

#### Asian Task Force against Domestic Violence, Boston, MA.

뉴잉글랜드 지역의 아시안 소수민족 저소득층 이민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 문제들을 도와주는 이 단체는 특별히 여성과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outreach, 교육, 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교회는 1998년도부터 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

#### Brookline Town과 관계 기관들

보스턴한인교회는 교회가 소개한 브루클라인 타운(Town of Brookline)과 지역선교를 위해 우호적 협조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타운에서 주최하는 여러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타운 행사장소도 무료로 제공해왔다. 브루클라인의 자매 도시가 되는 Quezalguaque가 페루 단기선교지 부근에 있어서 2004년 단기선교단이 선교 기간 동안 Quezalguaque를 방문하여 현지 보건 진료소에서 주민들을 위한 무료진료를 실시하면서 상당량의 의약품도 기증하였고, 장기적인 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자문에도 응하였다. 그 외 매년 Brookline Foundation, Brookline Fire Department, Brookline Police Department, Brookline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등을 지원해 왔고, Brookline Chamber of Commerce와의 교류도 계속하고 있다.

### ■ Habitat for Humanity 자원봉사 2000-2003

Habitat for Humanity는 비영리단체로 저소득층 가족이 가난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집을 지어주는 세계적인 기관이다. 지어지는 모든 집은 자원봉사자들의 봉사와 기부에 의해 이루어진다. 2000년 국내선교위원회는 몇몇 집사들과 청년부원들을 중심으로 Habitat for Humanity in the Greater Boston Area의 사역을 돕는 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보스턴한인교회는 New England 지역에 있는 10여 개의 장로교회들이 연합하여 추진하는 ‘사랑의 집’ 지어주기 사역에도 동참했는데, 매달 한 번씩 직접 현장에 나가 집 건축을 도왔고, 이 사역을 위한 모금운동(목표액 \$80,000)에도 참여하였다. 2000년에는 기금 모금을 위해 골프대회를 열기도 하고(\$1,000), 합동음악회를 열기도 했으며(\$3,750), 영어예배부에서는 자체 내 예산에서 \$2,000의 헌금과 함께 현장 건축봉사에 매달 10여 명이 나가 작업을 도왔다.

2001년 5월 초 처음으로 완공된 집들의 입주식도 가지게 되었다. 그 동안 같이 일하던 10여 개의 장로교회 참가자들은 이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 프로젝트 이름을 Mission in Partnership(MIP)으로 명명하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역을 이끌어 나갔다. 보스톤한인교회는 3년간 이 사역에 동참하며 Boston, Lawrence, Worcester, South Shore 등의 지역의 집을 지어주는 현장에 참여했고 또한 기금 모금으로도 지원하였다. 당시 집짓기 자원 봉사에 참여하였던 청년부 박준영 자매가 쓴 보고서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청년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대부분의 형제, 자매들이 집에서 벽에 못이나 박는 것이 이제까지 해본 일의 고작일 텐데 우리가 과연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활동적인 일을 할 것이라는 생각에 기대감을 안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처음 Roxbury의 집 짓는 곳에 갔을 때는 여러 개의 나무기둥들로 대강 집의 모양을 갖춘 것들이 서 있었고 단 한 채의 집이 먼저 완성되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매들은 그 완성된 집 내부의 페인트칠을 하는 것이 첫 임무였고 형제들은 이제 막 지어지기 시작한 집들의 목공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벽과 천장에 전체 일곱 번의 서로 다른 페인트들이 칠해져야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특히 천장을 바를 때는 목과 허리가 부러지는 것 같았고 페인트가 얼굴로 떨어질 때는 정말 고생을 사서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몸이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나의 마음에 기쁨이 함께 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 이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 집도 아니고, 이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을 텐데 나의 마음에는 기쁨이 차 오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 청년부(박준영) 보고서 중에서

### Homeless Shelter와 Food Bank 봉사 사역 2000-현재

2000년부터 보스톤한인교회 소수의 자원봉사자들이 하나의 그룹이 되어 보스톤 시내의 불우한 이웃을 돕는 사역을 해오고 있다. 주로 homeless shelter, homeless soup kitchen, food bank 기관에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매번 봉사자들이 함께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하여 봉사장소에 가져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2001년 국내선교위원회 주관으로 9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무숙자들을 위한 Mother's Day 행사에 참여하여 Arlington Church 식당을 꾸미고 잡일들을 함께했고, 2002년과 2003년에는 1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Covenant Church에서 무숙자 150여 명의 점심식사를 준비하였다. 2003년 11월에는 국내선교위원회에서 Ron Tibbetts 목사(Neighborhood Action Inc.(NAI), 보스톤 Downtown 내 무숙자 사역기관)를 강사로 초청하여 보스톤 시내의 무숙자 선교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불우이웃을 돕는 방법을 모색했으며, NAI 무숙자들을 위하여 의류와 면양말 등을 수집하여 전달하였다. 2003년과 2004년에는 청년부원 20여 명이 The Greater Food Bank로 봉사활동을 나갔는데, 두 차례에 걸쳐 참여했던 이 사역은 총 9시간 동안 7,000파운드 이상의 음식을 정리하고 포장하는 작업이었다. 2004년에는 보스톤 시내 Newbury에 위치한 Homeless Shelter(Women's Lunch Place)에서 여선교회원 10여 명이 120여 명에게 점심을 제공했고, US Postal Service의 우편배달부들의 can food 수집에도 참여하였다. 집사회와 여선교회가 번갈아 주관하는 무숙자들을 위한 겨울 옷과 양말 수집 및 불우이웃을 위한 can food 수집 활동도 계속되어 매해 관계 기관에 전달되면서 현재까지 무숙자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무숙자 사역은 교회 내 담당 부서가 바뀌어지는 기간에 잠시 활동이 뜸했었는데, 2012년부터 다시 사역이 재개되었다. 김동숙 집사와 많은 여선교회 봉사자들이 Boston Rescue Mission이 사역하는 Homeless Shelter에서 주일날 직접 준비한 음식을 무숙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년1, 2부 교우들도 독자적으로 무숙자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토요일 아침에 교회에서 샌드위치를 만들어 Boston Common이나 Shelter로 찾아가 무숙자들에게 제공하며, 샌드위치 백마다 성경말씀 한 구절을 붙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 미국 내 협력 선교사역

#### 부스리기 직업교육센터, New York, NY.

김동석 목사가 시무하는 맨하탄장로교회에서는 뉴욕 맨해튼 거리의 여인들과 병들고 집 없는 사람들의 쉼터를 마련하고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머리띠, 가운, 앞치마, 가방, 각종 옷의 봉제일과 관촉물, 인쇄물, 트로피 등을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팔아 사역을 유지하고 있는데, 본 교회는 1995년부터 이 사역을 돕고 있다. 맨하탄장로교회는 감사의 표시로 여선교회에 앞치마 20개를 보내왔다.



Homeless Shelter: 무숙자 사역

#### 한국선원선교, Tacoma, WA.

교회의 종소리가 들리지 않는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선원들과 그들 가족들의 복지와 선교를 위하여 1982년 부산에서 최원종 목사와 동료 선원들에 의하여 시작된 이 선교기관은 주로 외항선과 원양어선, 국제 여객선과 해군 함정에 승선한 선원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사역하고 있다. 선원들을 제자 훈련시켜 중국을 비롯한 공산권, 회교권 선교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국제선교기관과 협력하여 국제복음선교선(한나호-의료선교, 둘로스(doulos)호 등)과 국제선원센터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으며, 선원선교잡지 <갈릴리>를 발간하고 있는데 본 교회에서는 1984년 홍근수 목사 시무 때부터 사역을 지원해 왔으며, 보스톤 지부 설치에도 참여하였다.

#### Indian Reservation Mission, Glendale, AZ.

경제적,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척박한 자연환경으로 둘러싸인 인디언 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복미 원주민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지도자를 발굴하고 지원하여 자체 내의 신앙공동체 형성을 도와주는 선교사업이다. 본 교회는 1996년부터 피닉스 지역 피마 인디언 부족 6개 교회들의 선교 프로그램을 돕고 있으며 나바호 부족을 중심으로 한 선교캠프를 매년 재정 지원하고 있다.

#### 기타 선교사역

보스톤한인교회는 다음과 같은 여러 다른 미국 내 사역에도 재정적 지원을 해왔다.

- Presbyterians Pro-Life: 장로교 내 낙태반대운동기금
- 뉴저지의 두 한국교회, 보스턴의 두 한국교회: 건축헌금 또는 기금 지원
- Princeton Seminary: 장학금 지원
- Brazilian Mission, PC(USA)
- American Wheat Mission, Inc.
- Institute of Christian Leadership
- Celebrate Life (Sar Shalom, Garrett Smith)
- 다문화 목회연구원
- Korean American Adoptee Adoptive Family Network
- Special Olympics

## ▣ 해외 및 남북한선교 후원사역

### 두레방 지원

한국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두레방에서는 미군 기지촌 여성공동체를 위하여 상담, 공동식사, 영어교육, 한국어교실, 요리, 도자기, 뜨개질교실, 두레방 빵제조, 두레방 놀이방과 공부방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스턴한인교회에서는 1995년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하였다.

### 방글라데시 이석로 선교사 의료선교 후원

2004년부터 보스턴한인교회는 방글라데시 이석로 선교사의 사역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선교사는 수도 다카에서 약간 떨어진 꼬람플라 병원 사역을 하고 있으며, 최근 간호대학과 보건대학을 설립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의료인 양성과 제자 훈련을 목적으로 사역하고 있다.

### 기독교의료선교회 (CAMM) 지원

기독교의료선교회(The Christian Association for Medical Mission)는 1990년대 초 평양에 북한기독교병원(제3병원)을 세워주는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1991년 보스턴한인교회 이일영 장로를 중심으로 보스턴 지부를 결성하고 기금모금 등 사역을 도왔다. 병원 설립 후에도 지속적인 의료가자재, 의료품, 교과서 등을 지원해 왔다. 본 교회에서는 1997년부터 매월 마지막 주일의 조국을 위한 헌금으로 이를 지원해 왔다.

### 정평수 선교사의 사역 지원 (Wycliff Bible Translators)

현재 45개국에서 참여한 성경 번역 출판위원들이 60여 개국의 100여 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 출판하고 있으며, 성경 출판 외에도 찬송가, 성경이야기책, 건강교육자료 출판, 지역사회 개발사업으로 우물 파기, 의료진료소 설립, 농업개발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보스턴한인교회에서는 1998년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정평수 선교사의 사역을 지원하였다.

### 찬이 아버지 전도사 북한사역

보스턴한인교회 부부청년회와 은혜마을을 담당하던 찬이 아버지 전도사는 2008년 고든콘웰 신학대학교(Gordon Conwell Theological Seminary)를 졸업하고 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OMF)에서 선교훈련을 받은 후 중국 연길로 파송되었다. 현재 2년째 미국 선교사들과 함께 국경지역에서 생

필품 제조공장 및 무역상을 경영하면서, 부부가 함께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면서 북한선교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2014년 초에 본 교회를 방문하여 북한 선교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하였다.

### 기타 선교사역

보스턴한인교회는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여러 해외선교사역을 지원해 왔다.

- 아프리카 미전도 종족 선교: 에티오피아 박종국/장은혜 선교사 지원
- Haiti 선교: 베다니 영어회중 단기선교
- 아프가니스탄 선교: Sara Lim선교사 'Food for Hunger' 지원
- 아프리카 씨에라리온 선교: 청년 1부 단기선교

## ▣ 해외 단기선교를 위한 준비기간 1998-1999

1997년 12월 페루 뿌갈빠(Pucallpa, Peru)에서 13년 동안 선교활동을 하다가 안식년을 맞아 뉴헤이븐에 와 있던 황윤일 목사가 '주님의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페루 선교활동의 현황을 보스턴한인교회에 보고하면서 해외선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선교위원회, 여성교회 및 권사회에서 페루 선교에 선교비 지원을 시작하였다. 1998-1999년 2년간은 본 교회가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서 준비를 한 해였다. 선교위원회에서는 단기선교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고, 2000년 첫 해외 단기선교지를 황윤일 선교사의 사역지인 페루 뿌갈빠로 결정하였다. 1998년 제직회에서 강길원 선교위원장은 2000년에 시행할 페루단기선교 계획을 발표하였고, 단계적으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아직 어느 교회도 해외 단기선교 사역 경험이 없어 우선 필요한 단기선교 교육을 위해 외부 강사를 초빙해 세미나를 가지면서 계획을 세워 나갔다.

1998년 10월에는 이틀에 걸쳐 선교세미나를 가졌다. 필라델피아한인연합교회 전희근 장로와 부인 김영애 권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재능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단기선교 활동'과 '선교의 헌신에 관한 도전'이란 두 제목의 강의가 이어졌는데, 연인원 120명의 교우들이 참석하여 많은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1999년 3월에는 '단기선교의 준비와 실제'(전우택 교수), '몽골과 세계선교'(서원석, 김상균 전도사), 6월에는 '페루를 다녀와서'(이영 장로), '단기선교와 동아프리카 선교'(박종국 목사) 등의 선교세미나를 통해서 세계선교의 실재를 재확인하였다.

한편 선교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었다. 본 교회 교육위원회와 대학/청년부가 '증인 되리라'라는 주제로 페루 단기선교를 위한 음악회를 열어 \$6,000 상당의 기금을 모았고, 교회의 여러 부서가 음식 판매, 골프대회, 티셔츠 판매 등의 형태로 선교기금 마련을 도왔으며, 선교를 위한 특별헌금(\$18,564, 1999)과 어느 한 교우의 헌금(\$5,000씩 3년간) 등이 결실을 맺어 선교팀을 보낼 수 있는 재정이 확보되었다. 또한 여러 제약회사와 선교기관에서 기증받은 의약품(\$50,000 상당)이 갖춰지면서 의료 선교팀이 떠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 첫 해외 단기선교단을 페루로 파송: 3차에 걸친 선교 2000-2002



첫 페루 단기선교단 (2000)

보스톤한인교회는 새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에 처음으로 해외 단기선교를 나가는 축복을 누렸다. 처음이었기에 많은 기도와 준비, 훈련이 필요했고, 19명의 선교단원, 다수의 보조 사역자 등은 1999년 5월 첫 훈련부터 2000년 2월까지 모두 10차에 걸쳐 철저한 훈련과 3차의 기도회를 통하여 준비를 마쳤다. 강길원 단장, 김형곤 목사, 김선희 전도사를 포함한 19명의 선교단원<sup>1</sup>들은 의료봉사, 치과봉사, 여름성경학교, 현지교사 훈련, 이/미용 봉사 등을 준비했고, 떠나기 전 1월에는 페루선교단이 노회를 방문하여 페루선교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2000년 보스톤한인교회는 “세계를 향한 교회”라는 연례목표를 세웠다.

담당목사는 다섯 번의 설교를 통해 ‘빛된 교회’, ‘그리스도인의 교회’, ‘구제하는 교회’, ‘자신을 살리는 교회’, ‘정상에 도전하는 교회’ 등) 선교단원은 물론 모든 교인들에게 선교의 사명과 교회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였다. 2000년 2월 27일 첫 해외 단기선교단을 보내는 파송예배에서는 “세계를 위한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였다.

온 교인들의 기도와 성원에 힘입어 19명의 선교단원들은 2년여의 준비과정을 마치고 20여 개의 가방에 가득 담은 약품들과 함께 첫 선교지인 페루로 향하였다(2000. 3. 3-12). 약품의 세관 통과가 까다롭다 하여 많은 걱정을 했으나,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통과하였다.

선교단을 호스트했던 황윤일/구장이 선교사는 주로 페루 뿌갈빠, 로스삐노스, 원주민 부락 둘세 글로리아에서 활동하며 교회와 학교를 세우고 페루 선교를 위하여 15년간 사역하고 있던 베테랑 선교사들이었다. 8일간의 선교활동 동안 선교단은 주로 의료, 교육 및 봉사사역을 했는데, 1,4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했고, 300여 명에게 치과진료를 했으며, 200여 명에게 이/미용 봉사를 하였다. 또한 600여 명의 어린 학생들에게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였다.

선교단은 페루에 머무는 동안 페루의 수도 리마의 빈민촌에서 빈민 구제 급식소를 운영하며 교회를 사역하는 이성일 선교사, 리마에서 청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이승훈 선교사의 사역을 돌아보았다. 이성일 선교사, 이승훈 선교사와 북부 해변도시 푸루시요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빈민사역을 하는 이상기 선교사로부터 현지 통역 협조를 받았다.

19명의 선교단원들은 8일 동안 침실이 셋, 거실이 하나, 화장실과 샤워실이 하나, 조그만 부엌이 있는 선교센터 내에서 함께 공동생활을 하였다. 하루 일과는 김형곤 목사가 인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주제로 한 새벽 경건의 시간으로 시작하여 모든 일과는 저녁 예배로 마무리 짓고 밤에는 늦게까지 다음 날 쓸 약품 포장을 하곤 하였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도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한 단원들의 사역과 원주민이 사는 정글지역 둘세 글로리아 사역 전반에 대해 강길원 단장은 보고서를 통해 상세히 전달하였다. 그 보고서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단장의 전체적 보고와 참가

자 전원과 현지에 사역하는 선교사의 글들이 있다. 모두 첫 선교사역의 감동과 기쁨과 고뇌와 어려움을 생생하게 드러내며 하나님께 감사 드리고 있다.

2001년 제2차 페루단기선교단<sup>2</sup>이 제1차 선교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기도와 준비과정을 거쳐 파송되었다. 사역일자가 7월로 변경되면서 많은 청년대학부원들이 선교단원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7월 20일부터 4일 동안 황윤일 선교사를 돕기 위해 뿌갈빠, 로스삐노스(Los Pinos), 캄보베르데(Campo Verde)에서 의료, 교육, 치과 및 이/미용팀 사역을 펼쳤다. 비행기로 한 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리마에서도 이성일 선교사를 도와 빈민촌 벤파야와 빠차꾸텍에서 3일간 선교활동을 하였다. 일 년 내 내 비가 오지 않는 황무지 모래 사막 위에 판자와 낡은 종이 박스로 만든 현지인들의 판자촌은 물도 없고 공동변소마저도 없는 열악한 곳이어서 선교단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200여 명에게 치과 진료를, 1,400여 명에게 의료진료를, 300여 명에게 이/미용 봉사를 하였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노래 부르기, 연극, 공작품 만들기, 운동, 기도와 성경책 전달 등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었다.

선교단원들은 매일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가 넘게 모기와 싸웠고 현지인들로부터 옴은 이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였다. 단기선교 첫 해에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2차 선교 때에는 출발 전에 미리 용도대로 약품을 포장하여 현지에서의 시간을 절약하였다. 단원들이 많은 약품을 개인 소지품으로 나누어 가서 약품 운송비도 절감할 수 있었다. 사역 기간 동안 김형곤 목사의 ‘선교사역을 여는 예배’와 성찬식, ‘하나님을 만나 뵙는 예배 시간’, Lectio Divina(거룩한 말씀 읽기) 식 훈련은 지친 단원들에게 생수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교육사역을 인도했던 김선희 전도사의 페루선교보고서 “Educational Service for Peru-Mission 2001”는 당시의 뿌갈빠와 벤파니아에서의 9명의 교육팀이 벌인 사역을 잘 묘사하고 있다.

우리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한 대상자들은 갓난아이를 업은 아기엄마에서 중년의 아주머니에 이르기까지 참 다양하였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우리 교육팀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표현해 주었다. 현지 선생님들은 때로는 겸손한 학생의 위치에서, 때로는 우리 팀원들의 동역자로 수업 진행에 큰 도움을 주었고, 특별히 우리 선교단이 언어소통에 불편을 느낄 때마다 우리들에게 친절히 선생님이 되어주기도 하였다.

- 김선희 전도사의 페루선교보고서 중에서(2001)

무더운 날씨에 열심히 머리를 깎아주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짧은 스페인어로 “예수님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약품들은 종류별로 나누어 싸고, 처방된 대로 약을 간추려서 환자에게 투약방법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소서”라고 말씀하는 손길들이었습니다. 짧은 스페인어와 목사님의 통역을 통하여 그들의 고통을 알고자 노력하고, 도움이 되는 약품들을 처방하는 손길들이었습니다. 뿌갈빠 형제자매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울동과 손벽을 치면서 부르는 스페인어 노래들, 인형극을 보며 신기해하는 모습들, 십자가를 만드는 손길들이었습니다. 이를 뽑기 위하여 마취하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전등 불을 밝혀주고 아픔을 적게 하려고 노래를 불러주며 수많은 충치를 뽑아주고 기계를 준비하는 손길들이었습니다.

- 강길원 단장 보고서 중에서



페루 단기선교 (2001)

1. 2000년 페루 단기선교단: 강길원(단장), 김형곤(목사), 김선희(전도사), 김영철, 김정근, 김종윤, 박춘지, 박승용, 이정민, 이선영, 이해란, 홍경자, 안미라, 장현숙, 조성일, 조다영, 최연일, 최송자, 최형규 (총 19명).

2. 2001년 페루 단기선교단: 강길원(단장), 김형곤(목사), 김선희(전도사), 계동성(총무), 김도윤, 김종윤, 이선영, 이미숙, 이민우, 장현숙, 조현순, 진동호, 최송자, 최연일, 최정아, 하주리, 홍동욱, 홍동현 (총 18명).



제3차 페루 단기선교를 위해 2002년 1월부터 7개월 동안의 훈련을 끝낸 20명의 단원들<sup>3</sup>(단장 강길원 장로)은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현지 이성일 선교사를 도와서 페루의 수도 리마 근교의 벤따니아 마을과 빠차꾸텍 마을에서 선교활동을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다. 제3차 단기선교팀에는 특별히 이영길 담임목사가 단원으로 함께 하였고, 미국장로교 소속 히스패닉 교회의 교우들(Jeannette German, César Lopez)이 참여하여 두 교회가 공동 선교활동을 시작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 두 차례의 단기선교와 마찬가지로 치과진료 및 일반 환자 진료 등을 했고, 1,000여 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노래 부르기, 연극, 공작품 만들기, 에어로빅 운동과 축구, 또한 기도, 성경암송, 성경책 전달을 통하여 사랑을 나눌 수 있었다. 노회와 대회에서 보내온 지원금으로 빠차꾸텍 마을에서의 예배와 의료활동이 가능했으며, 마을회관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예배당을 건축하여 현지 주민들에게 기증하였다.

### ■ 지속적인 페루 선교지원 2003-2014

3차에 걸친 페루 단기선교를 끝내고, 보스톤한인교회는 니카라과를 새 선교지로 선정했으며, 페루의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사역도 계속하였다. 2003년에는 수도 라마 근교 벤따니아(Ventanilla) 난민촌의 비다 에페르나 교회(Vida Eterna 교회, 이승훈 선교사)에 선교비를 지원했고, 2004년에는 이승훈 선교사가 새로 개척한 안데스 산악지대의 와라스교회의 사역을 지원하였다. 이승훈 선교사는 2005년에 비다 에페르나 교회의 아벨(Abel) 전도사를 지원하면서 특히 마약 복용자들에 대한 선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승훈 선교사는 2007년 9월 본 교회를 방문하여 주일예배 설교(‘갈릴리에서 오신 주님’)와 페루 선교 보고 및 세미나를 통해 안데스 산악지역의 인디언 선교와 리마의 빈민지역 목회의 현황(담당 아르페메오 전도사)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후 이승훈/김구영 선교사는 본교회에 간간히 페루선교보고서를 통해 비다 에페르나 교회의 성장하는 모습과 선교활동에 대해 알려왔고, 2012년까지 비다 에페르나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다가 아르페메오 전도사에게 교회를 맡기고, 페루의 더욱 척박한 안데스산맥으로 선교지를 옮겼다. 이승훈/김구영 선교사에 대한 지원은 현재까지 꾸준히 계속되고 있고, 비다 에페르나 교회는 아르페메오 전도사의 열정으로 다른 교회까지 돕는 역량 있는 교회로 성장하였다.

### ■ 선교위원회를 해외선교위원회와 국내선교위원회로 개편 2000

2000년 9월 당회는 확대되는 선교사역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선교위원회를 해외선교위원회와 국내선교위원회로 나누고, 위원장에 강길원 장로(해외선교위원회)와 김명철 장로(국내선교위원회)를 각각 임명하였다. 해외선교위원회는 2000년부터 중국 연변선교 담당부와 페루선교 담당부를 두게 되었고, 2002년부터는 해외선교 위원회 내에 9명의 해외선교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고, 3명씩 3조로 편성하여 매년 갱신 또는 교체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외선교 상임위원회는 해외선교의 정의, 조직, 책무, 선교위원의 자격, 선교정책 결정절차, 위원회 회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담은 운영지침서를 만들어 당회의 인준을 받고 운영하게 되었고, 매 2-3개월에 모임을 갖고 해외선교에 관한 단기

3. 2002년 페루 단기선교단: 강길원(단장), 이영길(목사), 김선희(전도사), 박준지, 최송자, 최연일, 이선영, 진동호, 김중윤, 계동성, 박준영, 박중서, 김도윤, 안동욱, 홍동현, 김고운, 김나라, 강모나, Jeannette German, César Lopez (총 20명).

및 장기 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기관이 되었다. 2002년에 Primera Iglesia Presbiteriana Hispana de Boston(Alvaro Pena 목사 담임)의 Jeannette German과 César Lopez가 페루 3차 단기선교에 동참한 이후 2003년에는 같은 PC(USA) 보스톤노회의 두 교회, Primera Iglesia와 Fort Square Presbyterian Church가 단기선교에 동참하였다. 2003년에는 해외선교위원회에 아시아선 교 담당부와 중남미 선교 담당부를 두었다.

2000년 국내선교위원회도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하였다. 처음에는 집사회에서 담당하던 생활상담(인생문제 상담, 의료, 교육, 법률, 사업, 주거이전 등)을 맡았으나, 1년 후 집사회가 다시 이를 담당하게 되었다. 2001년 5월에는 청년대학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선교단이 처음으로 아리조나 북미원주민(김경하 목사, 피마부족선교)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선교사역을 하였다. 2004년에서 2008년까지 국내선교위원회는 별다른 선교사역이 없었고, 그 동안 해오던 약간의 협력선교만 계속하였다. 2009년에 국내선교위원회는 당회원이 다시 위원장을 맡으면서, 2011년 ECC 건물 완공과 함께 새로운 국내선교의 방향을 문화선교로 잡아, 지역주민들을 초대하는 Oasis Café Music Night을 통해 많은 문화행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 ■ 연변 희망촌을 향한 열정 2000-2014

조선족 자치구역인 중국 연변에 희망촌을 건립한 이윤식 회장이 2000년 보스톤한인교회를 방문하여 세미나를 통해 연변 지역에서 고통받고 있는 조선족과 북한 동포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한국의 물자 각한 사기꾼들에게 재산과 집을 잃고 갈 곳을 잃은 조선족들과 탈북자들을 위한 삶의 터전인 희망의 집 40채를 계획하는 사업을 발표하고 도움을 호소하자 보스톤한인교회 교인들이 보여준 기도와, 헌금, 열정은 놀라웠다. 교인들은 곧 \$55,000의 헌금을 모아 40채 중 11채를 우리 교회에서 돕기로 했고, 더 나아가서 어린 학생 16명을 위한 장학금으로도 \$4,500을 기부하였다. 2000년 연변 지원 예산이 \$2,000로 책정되어 있었으나, 총 \$60,000의 헌금이 모였다.

2000년 9월에는 이영길 목사가 연변 희망촌과 백두산, 독립운동의 근거지인 용정을 다녀왔다. 이어 2001년 5월에는 오세경, 정진웅 집사가 연변 희망촌을 탐방하여 본 교회에서 보낸 헌금으로 'Boston House' 11채가 지어져 있음을 확인했고, 약 \$30,000-40,000이 소요되는 희망복지회관의 필요성을 당회에 보고하였다. 11월에는 이윤식 회장이 방문하여 희망촌 사역에 대한 보고와 복지회관기금 조성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당회는 2001년도에 희망촌 10가정 생활보조비, 장학금 \$17,000과 복지회관 설립 부지를 위한 \$26,600(총 \$43,600)의 후원금을 책정하고, 전 교회적인 기금 모금을 통해서 이를 전달하였다.

2002년에는 단기 의료봉사팀을 보내는 기획을 했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현장 탐방팀<sup>4</sup>을 통해 연변 희망촌 약 50세대에 가정 상비약 및 의류를 전달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2002. 7. 18-21). 탐방팀

4. 김갑성 장로/이상구 권사, 정용국 집사/장희숙 권사, 이재환 집사/장현숙 권사, 오세경 집사.



연변 희망촌 방문, 이윤식 회장과 이영길 목사

은 또한 연변과학기술대학교와 본 교회가 지원하는 훈춘농아학교도 방문하였다. 훈춘농아학교는 주중에 약 100여 명의 학생들이 수화(sign language)로 공부하고 있고, 탐방 당시 약 50여 명의 농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탐방 팀 방문에 앞서 본 교회는 12인승 차 구입을 위한 보조금으로 \$10,000을 송금하였고, 그 해 12월에는 \$20,000의 현금을 이윤식 회장에게 전달하였다. 2003년과 2004년에는 본 교회의 지원으로 지어진 10동의 희망촌 주택의 유지비로 \$10,000의 지원비와 입주자들을 위한 생활 보조금 및 자립공장 건립을 위한 특별 지원금을 보냈다.

2005년 11월 이윤식 회장이 본 교회를 방문하여 본부건물 준비를 위한 자금 \$300,000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본 교회에서는 \$10,000을 지원하였다. 2007년 12월 이윤식 회장은 본 교회를 방문하여 주일에 배 설교와 연변 희망촌 보고세미나를 통해 희망촌 사역 전반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윤식 회장은 보고를 통해, 2010년 본관 건물이 완성 예정으로 연변 희망촌은 사역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황무지였던 곳에 아름다운 주택들이 들어서서 살기 좋은 마을로 변하는 것을 보고 이곳 자치 정부와 주민들의 좋은 반응이 있다고 전하였다.

### ■ 아리조나 단기선교 2001



C.H. Cook Memorial 아리조나 원주민교회

2001년 5월 24일부터 일주일간 박신영 집사를 팀 리더(Team leader)로 하여 대학/청년부(강모영, 김병훈, 김선국, 김재운, 김진하, 권대영, 우영훈, 유환희, 윤유경, 정혜신, 조경필)로 구성된 아리조나 단기선교단이 아리조나 피닉스 시에 있는 Arizona 원주민 교회 보수를 위해 파송되었다. 떠나기 전 이들은 4월부터 3차례에 걸쳐 선교의 목적, 현지 적응, 선교지에서 봉사할 일, 의학상식, 풍토병, 물품 구입 등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 100여 년 전에 세워진 교회는 50여 년 간 사용을 하지 않아 폐허 상태였고, 건물 보수 작업은 일주일에 끝날 일이 아니었다.

선교단원들은 현지 선교사인 김경하 목사의 지시에 따라 무더운 사막의 더위 속에서 강행군하여 물청소와 지하실 바닥 청소는 물론 본당에 기름칠과 친교실 앞부분의 페인트 작업과 교회 입구 문 달기 등 교회 외관까지 손보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짧은 시간 동안 교회 내부만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하였다. 선교 마지막 날에는 원주민들이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친교시간도 가졌다. 주일에는 원주민 어린이들의 주일학교에서 Arts and Crafts 지도를 했고, 성인들과 예배도 함께 드리며 준비해 간 성가로 특송을 하였다. 김경하 목사는 선교단원들이 해낸 작업량의 1/4 정도를 기대했었다고 고백하며 적당히 하다가 떠날 줄 알았던 청년들이 예상 밖으로 많은 분량의 일을 새벽부터 해진 후까지 계속하여 기도와 성경공부도 병행하며 끝마칠 줄은 몰랐다고 칭찬하였다. 선교단원들의 헌신적인 작업으로 인해 여름 방학 때마다 미국 전역에서 모여드는 수백 명의 한인 중고등학생들의 대전도대회 때 이제는 이 교회건물을 숙식 장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김경하 목사는 또한 숙식을 위해 교회, 가정, 모텔, 텐트 등 여러 곳에 흩어져 학생들을 수용했던 불편이 해결되었다고 말하였다.

### ■ 선교 세미나 2003-2004

2003년 3월에는 이동홍 선교사를 강사로 니카라과 선교보고 세미나를 가졌고, 5월에는 주누가 선교사를 강사로 하여 '전후 이라크의 구제 및 선교'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가졌으며, 6월에는 이디오피아에서 사역하는 박종국/장은혜 선교사의 선교보고를 들었다. 2004년 4월 김마가 선교사를 강사로 '이라크를 위시한 중동선교'를 주제로 이집트의 크리스천을 통한 선교 가능성에 대해 들었고, 6월에는 탈북자 신앙인 마영애/최은철 부부와 탈북자 선교회의 박시몬 목사를 강사로 선교세미나를 개최하여 북한의 현황, 공개처형, 인권유린 등에 대한 생생한 증언들을 들었다. 계속되는 선교사들의 선교세미나는 선교에 관심을 가진 교인들에게 선교현장에 대한 보고를 통해 선교에 대한 이해를 돕고 동시에 선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 ■ 보스턴 지역 연합선교학교 참여 2002-2004

선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선교의 방향이 최근 평신도 신앙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추세에 따라 2002년 보스턴 지역의 보스턴소망교회, 보스턴한인교회, 케임브리지한인교회가 연합으로 선교학교를 개교하게 되었다(총무 박신영 집사, 간사 김상기 집사). 한국 GO(Global Operation)선교회의 4명 선교사들 주누가(아제르바이잔 담당, Azərbaycan Respublikasi), 권오문(몽골 국제대학 부총장), 박홍수(국내 선교교육 훈련 담당), 김마가(중양아시아 담당)가 강사로 초빙되어 21세기 선교환경과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프런티어 선교와 미전도 종족, 몽골 시베리아 선교 접근 전략, 세계 선교 역사 이해, 지역교회와 선교, 단기 선교의 전략화 방안, 선교와 영적 전쟁(선교 사역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등을 제목으로 5회에 걸쳐 매주 토요일 강의하였다. 두 번째 연합선교학교의 강의에서는(2003. 5) 세 선교사 주누가, 김마가, 신갈렘(중국 All Nations Network)을 강사로 하는 전문인 선교강의에 보스턴 지역의 9개 교회가 참여하였다. 2004년에 보스턴 지역 연합선교학교는 뉴잉글랜드 교회협의회로 이관되었고, 4월과 5월에 걸쳐 '전문인 선교'라는 주제로 다섯 번의 강의를 있었다. 그 동안 시간적으로 제한된 선교세미나를 통해서 배울 수 없는 선교에 대한 심도 깊은 내용을 보스턴 연합선교학교를 통해 교인들이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해외선교위원회의 위원들은 전 세계적인 선교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음으로, 향후 본 교회의 선교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 ■ 니카라과 이동홍/김연희 선교사를 돕는 단기선교의 시작 2003

중남아메리카에 위치한 니카라과는 인구가 450만 정도로 경제적으로 2000년대 초에는 인구의 반 이상이 하루 \$1 미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난한 나라이다. 과거에 있었던 내전과 빈번한 자연 재해(13개의 활화산, 지진, 해진, 허리케인)로 인하여 힘든 삶을 살아가는 나라지만 자연 재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다. 2003년 당시 이동홍/김연희 선교사가 니카라과 수도 마나구아에서 남쪽으로 18마일 정도 떨어진 마사야(Masaya) 지역에서 8년째 선교사역을 하고 있었다. 7개의 현지 교회를 개척했고, 니카라과 한인교회(Managua, Nicaragua)의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었다.



본 교회에서는 2003년 8월 니카라과(Nicaragua) 이동홍/김연희 선교사의 사역을 돕는 단기선교를 시작하였다. 첫 단기선교에는 19명이 마사야제일장로교회(Masaya, Nicaragua)를 위시한 6개의 개척교회와 니카라과 한인장로교회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의료진료, 치과진료 및 건축 협조사역을 하였다. 보스턴한인교회는 단장 최연일 장로, 이영길 목사, 김선희 전도사를 위시한 16명이, 보스턴 노회에 속한 히스패닉 교회인 Primera Iglesia Presbiteriana Hispana de Boston(Rev. Alvaro Pena)에서는 2명이, 그리고 Fort Square Presbyterian Church에서는 1명의 교우가 단기선교에 참여하였다(2002. 8. 2-8).<sup>5</sup> 이미 터득한 선교 준비 방법에 따라 선교단은 여러 차례에 걸쳐 찬양, 기도, 간증, 스페인어 공부, 그리고 팀별 사역을 준비하였다. 삼 년 동안의 페루 선교의 경험을 통하여약품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관계 제약회사에서 많은 약품들을 기증받을 수 있었다<sup>6</sup>.

### 은혜교회 교회당 건축 및 Quezalguaque 선교

선교 첫날, Masaya 제일장로교회에서의 의료·교육팀의 사역을 시작으로 둘째 날, 니카라과 한인교회에서의 주일 예배 후 오후에는 보스턴한인교회가 보스턴의 노회의 협조를 받아 \$6,000의 건축기금으로 교회당 공사가 진행중이던 은혜교회에 가서 현장일을 도와주었다. 활화산의 회색 연기가 교회 본당 정면으로 보이는 이 교회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으로 선교단원들은 강단을 세우는 곳에 흙을 채우는 일을 도와주었다. 셋째 날은 자동차로 3시간 정도를 달려 도착한 브루클라인의 자매 도시 Quezalguaque에서 의료진료를 하는 한편 보건소에는 의약품을 기증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학교를 열었다. 학교 수업이 있는 오전에는 교육팀도 의료 사역팀의 환자 진료를 도왔고, 수업이 끝난 오후에는 교육팀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넷째 날도 은혜교회에서의 의료/교육사역은 계속되었다. 교회 건물이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현지 목사 사택에서 환자들을 진료했고, 교육팀은 화씨 100도가 넘는 마당에서 50여 명의 학생들을 가르쳤다. 준비해 간 성찬기는 은혜교회에 기증하였다. 다섯째 날은 비포장 도로를 30분이나 달려 도착한 에덴교회에서 의료 및 교육 사역을 했고, 여섯째 날은 산 밑에 위치한 소망교회에서, 마지막 날은 에벤에셀 교회에서 사역하였다.

사역 기간 동안 매일 아침 이영길 목사와 박영일 장로가 기도회를 인도하였다. 교육팀은 주일학교 교사 수련회 2회, 여름성경학교-찬양과 예배, 성구 암송, Arts and Craft, 인형극, 전도지 배포, 영화 상영과 찬양 집회 인도 등의 사역을 했고, 의료팀은 의사 5명, 치과의사 1명, 간호사 1명이 무더운 날씨에 일주일 동안 12명의 성형 및 일반외과 환자를 포함하여 1,6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했으며, 200여 명의 치과 환자를 진료하였다. 약국팀 또한 모든 환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약을 처방하며 의료팀을 도왔고, 눈 검사 안경 사역이 또한 많은 주민들을 도와 주었다.

보스턴한인교회가 소재한 브루클라인의 자매도시 Quezalguaque 지역의 선교활동은 선교지 주민들을 위한 선교뿐 아니라 본 교회가 브루클라인의 여러 관계자들과 주민들에게 좋은 이웃으로 알려지는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활동들은 후에 본 교회가 ECC 건물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브루클라인 타운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는 계기가 되었고, 브루클라인 타운 소유의 지하 주차장을 주일에 사용하는 데 좋은 영향을 주었다.

5. 2003년 니카라과 단기선교단: 최연일(단장), 이영길(목사), 홍동현(총무); 교육팀 - 김선희, 박영일, 윤성호, 이보선, 정란, Lulu Prieto, Devin Ryan; 치과팀 - 안태준, 이선영, César Lopez; 의료팀 - 김경애, 류대현, 이정민, 최송자; 약국팀 - 윤호기, 조순래 (총 19명).  
6. IMA, MAP, AmeriCare, Roche, Lilly, Bayer, Pfizer 등의 제약회사와 Ace Surgical 회사 등이 약품을 기증했고, 특히 매사추세츠주의 Dracut에 있는 개인 약국인 Alexander's Pharmacy에서는 수년간 우리의 선교를 약품으로 지원했으므로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 니카라과 단기선교: 봉사팀과 안경팀 사역 시작 2004

2004년 선교단장 최연일 장로, 배요한 목사, 김선희 전도사를 포함한 본 교회의 16명의 선교단원들은 Primera Iglesia Presbiteriana Hispana de Boston(Rev. Alvaro Pena) 교회의 3명의 선교단원과 함께 7월 9일부터 17일까지 Masaya시를 중심으로 한 이동홍 선교사의 7개의 개척교회에서 교육, 의료, 치과, 약국, 봉사(이/미용 및 안경) 및 교회 건축 봉사를 통한 단기선교 활동을 펼쳤다.<sup>7</sup> 2004년에 처음으로 구성된 봉사팀은 이/미용과 안경을 전달하는 사역을 했는데, 특별히 안경은 Interchurch Medical Assistant(IMA 선교기관)를 통하여 800개를 기증받았고, 추가로 교인들에게서도 기부받았다.

선교일정 중 하루는 브루클라인의 자매 도시 Quezalguaque에서 의료진료 및 교육사역을 하였다. 닌디리(Nindirí)에 있는 은혜교회(Iglesia Gracia de Dios, Polanco 담임목사)는 선교단원들의 도움으로 예배당이 완공되었고, 단기선교를 마친 후에도 운영경비를 지원받았다. 단기선교 단원들은 복음과 사랑을 들고 사역지에 나가 전하는 귀한 사명을 받고 떠났지만, 대부분의 단원들이 현지에서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축복을 받았다고 고백하였다.

### 니카라과 단기선교: 중고등부 처음으로 참여 2005

2005년도 계속하여 본 교회 23명과 Primera Iglesia 교회의 2명이 니카라과의 Managua, Masaya, Quesalaguaque에 파송되어, 이동홍 목사가 개척한 교회(산베니토 연합교회, 생명의 물 교회, 하나님의 은사교회, 마사야 제일교회)와 Quesalaguaque시에서 의료, 교육 및 봉사 사역 활동을 하였다(2005. 8. 6-13).<sup>8</sup> 교육과 개인전도로 1,700여 명에게 전도와 의료진료의 사역을 펼쳤고, 치과팀은 260여 명을 진료했고, 약국팀은 2,000여 명에게 약을 전달했으며, 안경봉사팀에서는 200여 명에게 안경을 맞춰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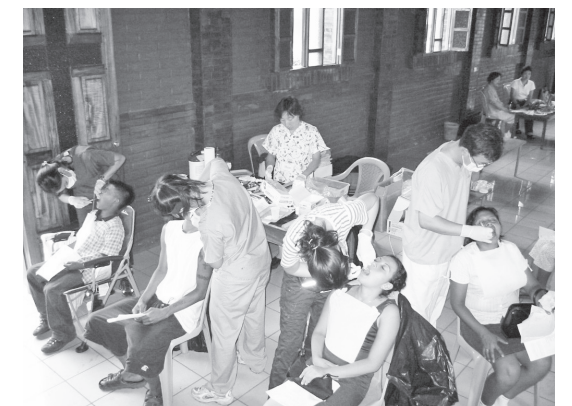
2005년 선교단은 고등학생 2명을 포함하여 16세에서 65세까지 3세

하나님께서 니카라과에서 저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 중 하나는 우리 선교단원 한 분, 한 분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고자 각자의 직장과 사업터에서 값진 휴가를 내고, 많은 것들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삶의 첫번째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중략)

제가 얼마나 축복 받은 사람인지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쓰실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교를 떠나기 전까지 전 '여기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왜 다른 나라까지 가서 돈과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면서까지 선교를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란 것을 전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지요.

- 윤영중 선교단원 글 중에서



니카라과 의료선교 (2005)

7. 2004년 니카라과 단기선교단: 최연일(단장), 배요한(목사), 진동호(총무); 교육팀 - 김선희(전도사), Eddie Kim, 최유미, Nestor Escobar, Mariza Molina; 봉사팀 - 장현숙, 박영일; 치과팀 - 문영진, 안태준, 이선영, Dayana Escobar; 의료팀 - 강길원, 김경애, 최연일, 최송자; 약국팀 - 윤영중, 조순래 (총 20명).  
8. 2005년 니카라과 단기선교단: 강길원(단장), 이영길(목사), 계동성(총무); 교육팀 - 김선희(전도사), 강모나, 김영철, 김준홍, 김지원, 김진영, 박태원, 장영희, 정국; 의료팀 - 강길원, 최연일, 최송자; 치과팀 - 안태준, 이선영, 이은혜, 정란, Dayana Escobar; 약국팀 - 윤영중, 조순래, Nestor Escobar; 안경봉사 - 신동욱, 전희 (총 25명).

대로 구성되었는데 반 이상이 젊은 선교단원들이었다. 모든 선교단원들은 파송되기 전 6회에 걸쳐 단기선교 훈련을 받았고, 기도와 찬양, 팀원을 위한 말씀, 스페인어 교육 및 노래배우기, 간증, 니카라과 현지에 대한 공부, 봉사활동의 소개 및 팀별 교육을 마쳤으며, 떠나기 전 모두 예방접종을 하였다. 니카라과 단기선교 집행 총예산은 \$37,000 이었는데, 단원들은 각자의 교통비를 부담했고, 노회와 대회 보조금이 \$8,800이었으며, 나머지 금액은 기금 모금 및 특별헌금으로 충당되었다. 작년에 이어 닌디리 소재 은혜교회 뿔랑꼬 목사의 사택은 한 선교단원의 지정헌금 \$5,000과 본 교회가 지원한 \$2,000로 교회 부지 내에 완공되었다. 해외선교위원회는 뿔랑꼬 목사에게 매달 \$400을 지원하는 동시에 어린이 급식을 위해 은혜교회를 계속 지원하였다. 선교기간 중 선교단원들은 본 교회가 소재한 브루클라인의 자매도시 Quesalguaque 공중 보건 진료소를 방문하여 개인전도와 의료 및 치과 진료와 안경사역을 했으며 준비해 간 의약품을 전달하였다. 단기선교단은 선교에서 돌아온 후 전교인과 제직, 또 대학청년들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선교보고회를 가졌다.

### ■ 니카라과 단기선교: Pena 목사의 참여 2006

2006년 8월에 총 27명의 선교단원이 니카라과 이동형 선교사의 사역지를 비롯한 여러 사역지를 방문하여 개인 전도사역, 의료진료 및 봉사사역 등을 벌였다.<sup>9</sup> 특별히 Primera Iglesia(Presbiteriana Hispana de Boston) 교회의 Pena 목사가 동참하여 설교를 스페인어로 현지인들에게 전함으로써 많은 현지인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축복이 있었다. 처음으로 전구 선교사의 도시빈민 지역 사역지인 Mercado Oriental을 방문하여 말보다는 몸으로 직접 사랑을 표현하는 봉사활동을 벌였다. 현지 선교사, 통역요원, 주방팀, 운전기사 등의 협조로 현지인들을 먹이고 씻기며 이/미용 사역을 하였다.

매일 장소를 옮겨 다니며 사역하였는데, 은혜교회, Masaya 제일교회, 하나님의 은사교회, 소망교회, 새생명 교회(백세현 선교사)에서는 의료진료, 교육 및 봉사사역을 했고, Mercado Oriental에서는 무숙자 사역을 주로 하였다.

이전 선교단원들과 마찬가지로 떠나기 전 선교단원들은 6회에 걸친 오리엔테이션과 선교 훈련을 받았다. 떠나기 일주일 전 토요일은 교인들과 함께 약품포장을 했고,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 하루는 Family gathering으로 선교단원들의 가족들과 함께 교제와 후원의 밤을 가졌다. 선교에서 돌아온 후에는 자체 평가회를 가지고, Boston Presbytery 와 Synod에 선교보고를 하였다. 선교비 총액은 \$44,000 정도였는데, 모금으로 \$14,000 정도가 준비되었고, Primera Iglesia에서 \$4,000을 현금했으며, 선교단원들의 부담이 \$20,000 정도였다. 필요한 약품의 일부는 직접 구입했으나 제약회사와 독지가들의 기부로 대부분 충당되었다.

보스턴 노회의 히스패닉 교회인 Primera Iglesia와 Fort Square Presbyterian Church는 2003년부터 선

교단원 파송과 선교헌금으로 연합선교를 펼쳐 왔다. 2006년부터는 Primera Iglesia의 Pena 목사가 참여하여 스페인어 설교와 복음전파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고, 이후 Pena 목사는 매년 해외단기선교에 참여하여 현지 지도자 양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교단 내 같은 노회 소속의 교회들이 함께 하는 연합선교는 여러 가지로 큰 의미가 있다. 첫째로 선교단은 한국어, 영어, 그리고 스페인어를 쓰는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교인들로 구성되어 선교지에서 겪게 될 문화적 차이를 훈련기간 중 미리 체험을 통해 배우고 이해할 수 있었다. 둘째,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단원들은 선교현지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여 선교현장에서 선교사역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특히, Pena 목사가 현지 지도자들(목회자/교사)을 대상으로 인도한 성경공부는 신학적인 훈련이 부족한 현지 사역자들에게 많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고, 큰 호응을 받았다. 셋째, 미국장로교단 내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아 많은 교회가 연합 선교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로 동참하게 하였고, 노회와 대회로부터 선교지원 Grant를 받을 수 있었다. 넷째로 독자적으로는 해외선교가 어려웠던 작은 교회들이 보스턴한인교회와 연합하여 선교가 가능했던 점과 이를 위해 온 교우들이 기도로 선교에 동참하여 점점 더 폭넓게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간 것이었다. 본 교회가 이러한 기회를 다른 교회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는 것 역시 실로 감사한 일이었다.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중고등부 학생 여러 명이 선교에 참여했는데, 이들 영어권 학생들도 역시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였다.

### ■ 전구/한미경 선교사의 니카라과 무숙자, 의료, 교육 사역 지원 2006-2014

보스턴한인교회에 초청강사로 가끔 말씀을 전했던 전구 목사(커네티컷 주 뉴헤이븐한인교회 前 담임목사)가 2005년 7월에 새로운 소명을 받고 NCKPC 선교사로 니카라과에 파송되었다. 당회는 전구/한미경 선교사의 빈민촌 무숙자와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2005년부터 선교비를 보내기 시작하였다. 니카라과 단기선교단은 첫 3년간 이동홍 선교사의 사역을 주로 도왔는데, 2006년부터는 전구 선교사의 사역도 함께 돕기로 결정하고 Mercado Oriental 지역의 무숙자 선교 지역을 방문하여 전구 목사의 사역을 도왔다. 주로 니카라과의 수도 Managua의 빈민촌 거리의 버림받은 무숙자와 청소년을 돌보는 선교센터에서 의료진료와 급식사역 및 이/미용 봉사를 하였다. 또한 무숙자 선교지역에 세워질 선교회관 건물 마련을 위해 본교회와 뉴헤이븐한인교회가 연합하여 미국장로교 Synod로부터 받은 선교비 \$8,000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2007년 2월에는 하얏리야 기독교 중고등학교가 개교했고, Mercado Oriental 지역에는 무

Surely many people received more help than they expected, and at the end of the day as we held church services there would always be a handful of people who would come to the front of the church to receive Jesus Christ as their Lord and Savior into their lives. However I feel that the mission team received even more of God's grace from having suffered and endured difficulty to glorify His name and were greatly humbled from the experience. We had come to serve others, yet we were unworthy of the position.

(중략)

But, as I learned, it is because of this suffering that we are able to help and be helped and therein have a glimpse of God and His marvelous plans for our lives.

- 단기선교 후 Caroline Kim의 간증문 중에서



전구 선교사

9. 2006년 니카라과 단기선교단: 최연일(단장), Rev. Pena(목사), 박신영(총무); 교육팀 - 김도윤, 김지원(Caroline Kim), 박의진, 안성완, 장안나, 전희, 최희열; 봉사팀-김경자, 신동욱, 장현숙; 치과팀-안태준, 윤영중, 이선영, Dayana Escobar, Yenny Zelaya Urbina; 의료팀-최송자, 이일영, 강길원, 이화연, 김경애, 임재숙; 약국팀-조순래, Nestor Escobar, 장아림 (총 27명).

숙자 선교관이 마련되었다. 근년에는 지속적인 의료혜택을 주기 위한 의료클리닉, 목회자 훈련신학교, 장학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보스톤한인교회는 지속적으로 그의 사역을 지원하고 있다.



니카라과 단기선교단 (2006)



하얏리아 기독교 중고등학교 학생들 입학 예배 후

### ■ 제5차 니카라과 단기선교: 은혜교회 교육관 건축 지원 2007

니카라과 단기선교가 해를 거듭할수록 Primera Iglesia Presbiteriana Hispana de Boston의 참여도 더욱 적극적이 되어갔다. 다섯 번째 니카라과 단기선교단에는 Pena 목사와 3명의 평신도들이 선교단원으로 참여하면서 총 21명의 선교단원이 현지에서 사역중인 이동홍, 전구, 백세현 선교사를 도와 의료진료, 교육, 봉사사역을 함께 하였다.<sup>10</sup> 단기선교 일정 중에 함께 할 수 있었던 새 교인 연합세례식(이동홍 선교사가 개척한 모든 지역교회의 새 교인들이 바닷가에 함께 모여 행한 세례식)은 선교단원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아름다운 광경이자 크나큰 축복이었다. 보스톤한인교회의 후원을 받아 완공된 교회 건물과 목사관을 가지게 된 닌디리 은혜교회는 바닥을 흰 타일로 새롭게 바꾸어 한층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는데, 이는 2006년 크리스마스에 전달된 유년초등주일학교 어린이들의 현금 \$300에서 힘을 얻어 시작되었다고 한다. 또한 선교단원들은 닌디리 주일학교로 쓸 교육관 건립을 위해 \$5,000을 모금하여 전하였다.



현지 교인들을 위한 연합세례식 (2007)

2월부터 시작되어 5개월간 계속된 단기선교 훈련기간 동안 선교단원들은 예배와 찬양, 언어 훈련 및 팀별 준비과정을 통해 한마음 한뜻으로 선교에 임할 자세를 익혔고, Primera Iglesia(2007. 7. 15)와 보스톤한인교회(2007. 7. 22)에서 두 차례에 걸친 파송 예배 후 선교지로 향하였다. 단원들이 훈련 과정을 함께 하는 동안 보스톤한인교회는 선교기금 확보를 위해 미국 장로교 총회, 동북대회, 노회 등에 선교 grant를 신청하였다. 정진웅 장로, 박신영 집사, 이혜승 교우의 협력으로 보스톤 노회에서 니카라과 미션 선교비(\$4,000)를, 동북대회(Northeast

10. 2007년 니카라과 단기선교단: 최연일(단장), Rev. Pena(목사), 김동규(총무); 교육팀 - 김만규, 김선희(전도사), 박유리, 이현주, 지민형, Victor Luna; 봉사팀 - 김은자, 이경자, 이정규, Carmen Lopez; 치과팀 - 장승혁, 김민준, John Lindgren; 의료팀 - 강길원, 최연일, 최송자; 약국팀 - 이선영, 조순래, Sonja Luna (총 21명).

Synod)에서 니카라과 선교보조비(\$4,000)와 전구 선교사 Homeless Center 구입보조비(\$8,000)을, 그리고 총회에서 전구 선교사의 Clinic 건축 보조비(\$5,000)를 지원받았다.

### ■ 제6차 니카라과 단기선교 2008

해외 단기선교를 시작한 지 9년째 되던 2008년, 보스톤한인교회의 단기선교 활동은 더 많은 교회와의 연합선교를 펼치게 되었다. 제6차 니카라과 단기선교단은 총 29명으로 5명의 Primera Iglesia Presbiteriana Hispana de Boston 교회의 교인들(Pena 목사와 평신도 4명)과 Boston 인근 한인교회의 목사 1명과 치과 의사 1명, 그리고 22명의 보스톤한인교회 교인들(테네시 주에 있는 옛 교우 문영진 집사 포함)이 함께하였다.<sup>11</sup> 10대에서 60대 후반까지(중고등학생 4명과 대학생 4명 포함) 3세대가 함께한 선교단은 의료진료, 교육 및 봉사 전반에 걸쳐 이동홍, 전구, 백세현 선교사를 도왔다. 특별히 Primera Iglesia 교회 단원들의 참여로 현지인들에게 스페인어로 말씀을 전할 수 있어 보다 친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또한 Vera Cruz의 La Esperanza 여자 교도소를 방문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2008. 7. 29), 청년부 김주영 자매는 그 은혜의 순간을 보고서에 생생히 묘사하기도 하였다. 선교단은 현지에 있는 '호텔'에 머물곤 했는데 시설이 너무도 빈약하여 더위와 씨름하며 잠도 제대로 못 자는 형편이었으나, 대식구 선교단을 hosting하면서 온갖 좋은 음식과 과일을 제공하며 애쓰는 이동홍/김연희 선교사의 노고는 선교단원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

선교활동을 하던 일주일 중 하루는 여성 수용소에 가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중략)  
저는 그 수용자를 위해, 그 수용자는 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그들은 스페인어로.. 그순간 상상할수 없었던 기쁨을 느꼈습니다. 제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 하게 되리라 생각조차 못했던 일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 모든 일들이 기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 청년부 김주영 자매의 간증문, 선교보고서 중에서

2003년 단기선교 단원들이 직접 흙을 나르며 교회당 건물을 지었던 닌디리 은혜교회는 목회자 숙소도 지어졌고, 2008년에는 교육관 지붕과 바닥이 완성되어 그곳에서 교육사역을 할 수 있었다. 니카라과 현지인인 Polanco 목사가 시무하는 니카라과 은혜교회는 목사와 교인들의 열심으로 2007년도에 '가장 많은 결신자를 낸 교회'의 영예를 얻었다.

2008년 6월 전구 선교사는 본교회를 방문하여 니카라과 선교보고와 선교세미나에서 니카라과의 Mercado Oriental 지역의 빈민 선교(급식, 의료) 상황과, 학원 사역, 개척교회, 협력사역 등을 대해서 설명하였다. 9월에는 이동홍 선교사와 빨랑꼬 목사(은혜교회)가 본 교회를 방문하여 주일예배 제직 임직식 때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선교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11. 2008년 니카라과 단기선교단: 최연일 장로(단장), Rev. Pena(목사), 이정규(총무); 교육팀 - 박도술 목사, 김선희 전도사, 김기현, 김은별, 김주영, 이동석, 이진웅, 장창익, 최진규, Victor Luna, Daniel Lee; 봉사팀 - 김원옥(안경), 장현숙, Carmen Lopez; 의료팀 - 강길원, 김경애, 이정민, 최송자; 치과팀 - 문영진, 이선영, 장승혁, Jenniler Kim, Aileen Ortiz; 약국팀 - 김선희, 조순래, Sonja Luna (총 29명).

## ■ 제7차 니카라과 단기선교 2009

해외 단기선교 10년째를 맞던 2009년, 제7차 니카라과 단기선교단<sup>12</sup>의 보고는 선교현장을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다.

해외 단기선교 10년째를 맞아 금년에도 Primera Iglesia Presbiteriana Hispana de Boston과 협력하여 총 26명이 함께 사역하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단기선교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준 분들과 처음으로 참여하게 된 14명의 교우분들로 인해 선교의 지역이 선교 지역뿐 아니라 우리 교회, 이웃 교회 안에 함께 자랄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는 교육사역이 다른 사역과 분리되어 더 효율적으로 선교지의 필요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이동홍 선교사님께서 개척하신 10개 교회 주일학교 교사(인원수 40명)들을 위해 오전에는 교사 강습회, 오후에는 5개 교회의 아이들을 위해 여름 성경학교를 실시하였습니다. 엄청난 분량의 사역을 무리 없이 감당한 김선희 전도사님의 아이들을 향한 사랑, 신의 가호를 외치며 필요할 때마다 겸손으로 사역을 돕는 Primera Iglesia의 Valdez 부부, 몇쟁이 중고등부 학생들, 독특한 개성 만점의 대학생들, 아이들의 꿈과 신앙이 함께 자랄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신 팀원께 감사드립니다.

의료팀과 치과, 그리고 봉사팀은 마사야를 지역별로 분류하여 현지인 개신교회들을 연합하여 사역하였습니다. 2년 전부터 시작한 ‘마사야를 그리스도께로’라는 project로 지역사회에 소외된 곳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늘 우리와 이용 봉사료 애쓰신 장현숙 권사님과 미녀 3총사, 에너지 넘치는 김애리 약사마저도 한풀 껴주는 남미의 열기 속에서 그 넘쳐나는 일을 잘 감당한 약국팀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좋은 치료를 더 많이 해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여 매일 토론하던 치과팀, 그 많은 환자를 정성껏 소화해 낸 베테랑 의사분들과 다음 세대의 리더 되실 의료팀, 늘 기쁨으로 우리를 Host해 주신 이동홍/김연희 선교사님, 전 구/한미경 선교사님, 통역으로 우리를 도운 통역팀, 처음부터 준비과정 속에서 늘 기도와 관심으로 끝까지 도와주신 박신영 집사님과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해 주신 교우분들의 사랑과 기도 등, 다 보고드릴 수 없으니 안타깝습니다. 니카라과 단기 선교라는 아름다운 음악을 손수 작곡, 지휘해 주시고, 조율해 주신 우리들의 리더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감개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들 각자가 있어야 할 곳에서 다양한 악기로 하나님과 함께 멋진 음악을 연주했던 여름,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 주시고, 인정해 주심을 믿고 내년에도 열심히 연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 제 7 차 니카라과 단기선교단 일정

8월 2일(주) San Juan del Concepcion/Ciudad, Concepcion(이동홍선교사, 10개 교회 연합)

8월 3일(월) Iglesia Unido de San Benito(전구 선교사, 4개 교회 연합)

8월 4일(화) Iglesia Gozo Eterno/Ciudad, Tisma 새 개척교회와 인근 교회(4개 교회 연합)

8월 5일(수) Iglesia Bautista /Ciudad, Niquinhomo(15개 교회 연합)

8월 6일(목) Iglesia Torre Fuerte/Barrio Oscar Perez/Masaya(이동홍 선교사, 11개 교회 연합)

8월 7일(금) Iglesia Vida Nueva/Barrio San Andre Vega/Masaya(백세현 선교사, 개척교회)

\* 교육팀은 8월 2일부터 8월 7일까지 다섯 개 교회에서 교사 강습회와 어린이성경학교를 실시함.

12. 2009년 니카라과 단기선교단: 이선영(단장), 안태준(총무); 교육팀 - 김선희 전도사, 김지윤, 노준성, 방수영, 윤영태, 이동홍, Gisela Valdez Cott, Horacio Valdez II; 봉사팀 - 구혜영, 문강희, 이미숙, 장현숙; 의료팀 - 김경애, 강길원, 김향인, 채진병, 최송자, 최연일; 치과팀 - 문영진, 윤영중, 이선영, 채수경; 약국팀 - 김애리, 이명미, 한인혜 (총 26명).

## ■ 제8-10차 니카라과 단기선교 2010-2012

제8차 니카라과 단기선교는 안태준 장로를 단장으로 보스턴한인교회 18명의 선교단원과 Primera Iglesia Presbiteriana Hispana de Boston 교회의 Pena 목사와 4명의 단원을 포함하여 총 23명이 2010년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이동홍 선교사와 전구 선교사를 도와 전년과 같이 의료진료와 교육 및 봉사사역을 하였다.<sup>13</sup> 교육팀은 8월 1일부터 6일까지 다섯 개의 교회에서 교사강습회와 어린이성경학교를 개최하였다. 특히 전구 선교사의 사역은 새로운 의료센터를 활성화시킴으로 전체적인 선교에 활기를 되찾고, 이동홍/김연희 선교사의 교회 개척 사역과 전도 사역은 점점 더 결실을 맺어가고 있었다.

2011년 제9차 니카라과 단기선교단<sup>14</sup>은 현지 요청에 의해 선교날짜를 7월달 대신 9월로 옮겨 파송받아 선교활동을 하고 돌아왔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동홍 선교사와 전구 선교사의 사역지를 찾아가도 왔는데, 달라진 점은 Primera Iglesia와 역할을 분담하여 보스턴한인교회 팀은 의료사역(일반 진료, 치과 진료, 약국)만을 전담하여 6개 교회에서 환자들을 돌보았고, Primera Iglesia 팀원들은 교육을 주로 담당하였다. Pena 목사는 이동홍 선교사와 함께 마사야 제일교회에서 4일간에 걸쳐 현지 교회 지도자 세미나를 인도하였다. 의료 진료는 새로 개척한 교회인 산성교회와 생수의 강 교회를 우선적으로 하였고, 특히 20가정이 넘는 현지 선교사들을 위해 따로 하루를 마련하여 진료를 하였다. 이동홍/김연희 선교사는 Masaya를 중심으로 2011년까지 13개의 교회를 개척하여 현지인 목회자 양성과 제자 훈련을 위한 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다. 2007년부터는 “Masaya para Cristo!(마사야를 그리스도에게로)”라는 메가 전도대회를 매년 열기 시작했는데, 2009년에 이르러 210여 개의 현지인 개신교회가 참여(15,000여 명 참석)하여 882명의 새로운 결신자를 얻었다. 2011년 전도대회에는 221개 현지인 개신교회에서 80,000여 명이 집회에 참석하여 2,300여 명의 결신자를 얻는 놀라운 사역이 되었다.

2012년 8월 안태준 단장을 포함 17명의 선교단원과, Primera Iglesia 교회의 Pena 목사와 6명, 총 24명의 선교단원<sup>15</sup>이 이동홍 선교사와 전구 선교사의 사역지로 파송받아 선교활동을 하고 돌아왔다. 2011년과 같이 본교회팀은 진료사역만을 전담하여 7개교회에서 진료를 하였다. Pena 목사는 이동홍 선교사와 함께 마사야제일교회에서 4일간 현지 교회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 해외선교위원회의 ‘제2의 희년을 향한 선교 비전’ 발표 2009

2009년 5월 해외선교위원회는 본 교회 첫 희년 비전 선언문 중의 하나인 ‘세계를 향한 교회’에 부응하는 제2의 희년을 향한 선교 비전을 새로 마련하여 제직회에서 발표하였다.

1. 우리는 모두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고백하며,

13. 2010년 니카라과 단기선교단: 안태준(단장), Rev. Pena(목사), 안성완(총무); 교육팀 - 방수영, 안광진, Caroline Kim, Kimairys Colon, Mercedes DeLuna, Sonja Luna; 봉사팀 - 신소정, 이재혁; 의료팀 - 강길원, 김향인, 채진병, 최연일; 치과팀 - 윤영중, 이선영, 장승혁, 지민형, Nucia Panagua; 약국팀 - 김보라, 김애리, 여주혜 (총 23명).

14. 2011년 니카라과 단기선교단: 안태준(단장), Rev. Pena(목사), 김동규(총무), 김경애, 김미진, 김애리, 문영진, 윤영중, 이선영, 이정민, 채진병, 최송자, 최연일, Kymaris Amador, Sonja Luna (총 15명).

15. 2012년 니카라과 단기선교단: 안태준(단장), Rev. Alvaro Pena(목사), 나해서, 김애리, 김지희, 김학주, 김향인, 김현중, 박상철, 안효준, 윤영중, 이선영, 이수영, 이정민, 이해원, 최연일, 차성은, 김지원, Elda Salazar, Andrew Green, Carlina Velasquez, Dan Carpino, Carmen Lopez, Catherine Rodriguez (총 24명).

2. 교역자와 평신도가 하나 되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사와 재능, 시간과 물질들을 기꺼이 드러 주님의 선교 사역을 펼쳐가는 교회입니다.
3. 소속 교단인 미국장로교(PCUSA)와 협력하여
4. 우리가 속한 지역 사회, 미국, 조국과 세계 속의 한민족(중국 연변 등)과 타민족(중남미 등)을 향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제2의 희년을 향한 선교 비전은 첫 희년 비전 선언문에 기초하여 4가지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다.

1. 모두 참여하는 선교
  - 선교 교육: 선교적 사명을 가진 교회, 선교 세미나, 선교지 소식 업데이트, 선교사역 참여
  - 일꾼 양육 / 리더십 강화: 단기선교 참여, 선교 훈련
2. 총체적 선교
  - 단기선교: 여러 지역의 선교단이 함께 선교 훈련을 받고 해당 지역으로 파송(지역 다변화)- 니카라과, 페루, 아프리카 지역
  - 땅 밟기: 후원지역이나 새로운 선교지역 현장 답사, 지역 소식, 선교지의 필요, 기도제목 등
  - 가슴으로 땅 밟기: 기도
  - 지역 선교사 후원 / 긴급 지원
3. 협력
  - 보스턴한인교회 선교백서  
지난 10년간의 단기선교 내용을 정리  
준비, 절차, 선교 교육, 선교 훈련, 보고 및 평가  
향후 단기선교 준비와 훈련을 위한 지침  
단기선교를 준비하는 미주 지역의 다른 교회에 도움
  - 교단과의 긴밀한 협력  
Primera Iglesia Presbiteriana Hispana de Boston과 동역  
미국장로교 보스턴노회/동북대회 협력
4. 퍼져가는 선교사역
  - 현재 선교 지역  
중남미: 페루, 니카라과  
아시아: 중국 연변, 한국, 북한,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 미래 개척 지역  
중동(페르시아 벨트), 구소련 독립 공화국들(시베리아 벨트), 아프리카

### ■ 니카라과 현지 교회지도자 세미나 개최 협조 2013

니카라과 현지 이동홍 선교사의 요청에 의해 2013년도에는 Primera Iglesia Presbiteriana Hispana de Boston의 Pena 목사와 3명의 선교단원들이 마사야제일교회에서 8월 16일부터 4일간 현지 교회지도자 세미나를 인도하고 보스턴한인교회는 재정적으로 협조하였다. 2013년부터 보스턴한인교회 해외 단기선교단은 선교지를 도미니칸공화국으로 옮겨 파송받게 되었다.

### ■ 니카라과 선교 10년과 이동홍 선교사로부터 온 편지 2013

보스턴한인교회는 10년간 이동홍 목사의 선교 현장 Masaya를 중심으로 그의 사역을 도와 의료, 봉사, 교육 단기선교를 주님의 은총으로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온 교회가 큰 은혜의 체험을 할 수 있었다. 이동홍 선교사의 20여 년 간의 사역은 이제 열매를 맺어 13개의 현지 개척교회와 지역교회들을 돌보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 매년 만 명 이상 모이는 전도집회인 'Masaya para Cristo!'(마사야를 그리스도께로)를 통해 더욱 깊게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2014년 이동홍 목사의 편지는 그의 선교 열정과 아름다운 사역을 잘 말해주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섬김을 자세히 하나하나 짚으며 보스턴한인교회와의 소중한 인연에 대해 쓴 그의 편지에는 단기선교단에 대한 감사함이 절절히 묻어 있다. 사랑으로 섬겨주었던 선교단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고마움을 전하였고, 7월달 시작할 사역을 위해 1월부터 기도로 준비하는 선교단의 섬김에 또한 감사를 표하였다. Primera Iglesia Presbiteriana Hispana de Boston과의 조화로운 섬김도 잊지 않고 회상하며 주님 보시기에도 좋았으리라는 칭찬의 말도 잊지 않았다. 선교사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을 채워주는 동시에 이제는 교인들에게 섬김의 본이 되었다는 이동홍 선교사의 축복과 감사가 듬뿍 담긴 편지는 많은 교인들을 감동시켰다.



이동홍 선교사

선교단원들과 본 교회 교인들은 단기선교 사역을 통하여 크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는데, 선교지에서 전해오는 많은 부흥과 말씀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사업에 우리의 단기선교사역이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기쁨과 긍지와 축복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고 있다.

### ■ 콜롬비아 교육선교 2011

10년 넘게 계속되어 온 해외단기선교사역은 2011년 콜롬비아에 교수, 교사, 청년부, 중고등부 학생 등으로 구성된 단기 교육선교단을 파송하기에 이르렀다.<sup>16</sup> John Hwang(황신재) 선교사가 사역하는 콜롬비아 Cartagena(까르타헤나)의 전형적인 빈민지역에 위치한 Luz y Verdad 학교에서 이루어진 교육선교사역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5일간 계속되었다. 선교단은 근처 Alto Roma 지역 산길을 음악과 함께 오르며 집집마다 아이들을 초대하여 찬양과 율동, face painting을 해주는 한편,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며 십자가의 의미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해주었다. 김성현 장로(Suffolk University, MA)는 세 곳의 대학교(Universidad de Cartagena, Universidad de san Buenaventura, Universidad de Rafael Nunez)를 방문하여 진로 선택, 재능 계발, 콜롬비아의 경제 상황 등의 주제로 강의를 했고, 이현주 집사는 올바른 진로 선택에 대하여 강의를 하였다.

6일째부터는 학교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Bocachica 섬에 있는 YWAM (Youth with a Mission) 선교센터로 장소를 옮겨 4일간 사



콜롬비아 교육선교단 (2011)

16. 2011년 콜롬비아 단기선교단: 김성현(단장), 김민준(총무), 이현주, 박신혁, 김하나, 지민형, 한상혁, 김동혁 (총 8명).

역하였다. 물이 귀한 Bocachica 섬에서 선교단은 주민들을 위한 2개의 화장실 공사와 2개의 바닥 공사를 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완공시켜 집주인 가족들을 기쁘게 하였다. 또한 Children's Feeding Center에서 동네 아이들을 대상으로 찬양과 율동을 가르치고, face painting과 arts & crafts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 ■ 콜롬비아 대학선교 2012-2013

John Hwang 선교사가 사역하는 콜롬비아 대학선교를 돕기 위해 본 교회 이유택 집사(보스턴대학교 교수)가 2012년(4. 26-5. 3)과 2013년(5. 4-13) 두번에 걸쳐 콜롬비아를 다녀왔다. John Hwang 선교사의 Global Leadership Institution을 위해 Universidad de Bogotá Jorge Tadeo Lozano, Universidad de San Buenaventura 등을 포함한 총 13개 대학을 순회하며 경영학을 강의하였고, mission group에도 강의를 했으며, 까르파헤나(Cartagena) 시장 및 한인 지도자들과도 선교의 기회를 여는 모임을 가졌다. 이유택 집사는 콜롬비아 선교의 목적과 방법 등을 사역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적선교(하나님과의 종적 관계에 초점을 둔 선교) 활동이 아닌, 전문 지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실천하는 횡적선교(사람과 사람 사이의 횡적 관계를 통한 선교) 활동의 일환으로, 2012년과 2013년 약 13개의 대학과 지역정부, 크리스찬 사업가 협회, 그리고 중남미 선교센터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급변하는 국제 경쟁 환경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국내 현실에 대한 자괴감에 빠져 있는 콜롬비아의 미래를 짊어질 리더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는 강연을 목표로 하였다. 강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선, FTA를 앞두고 국제경쟁에 노출된다는 사실에 불안해 하는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불안해 하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공부하고 경쟁을 준비하기 위한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단순히 경쟁만을 위한 실력이 아닌 세상에 공헌할 수 있는 구체적 비전과 각자의 강점에 기반한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메시지에 중점을 두었다. 강연은 콜롬비아의 경제적 상황을 객관적 자료들과 현지의 현실을 반영하는 사실에 근거하여 진행되어 청중들에게 직접 와 닿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놀라운 역사는, 2012년 4월 30일 두 학교의 강연에 참석한 학생들의 연락처로 5월 1일 선교센터에서의 모임을 홍보했더니, 강연에 참석했던 약 50여 명의 학생들과 6명의 교수들이 모임에 동참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 매우 폐쇄적인 대학 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 강연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선교센터의 모임에서는 주님의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런 놀라운 결과에 고무되어, 현지 선교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선교사님은 Global Leadership Institute(GLI)라는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아 지속적으로 주님의 율타리 안에서 미래의 리더들을 양육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지역 리더들과 정부관료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지역 선교활동의 우호적인 지원 그룹을 형성하는 새로운 기반도 마련할 수 있었다. 종적 선교와 횡적 선교가 어우러져 세상에 십자가의 빛을 발하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 ■ 중고등부/대학부 콜롬비아 단기선교단 2012

김민준 집사를 단장으로 한 젊은 단기선교단<sup>17</sup>이 John Hwang 선교사의 대학청소년 선교를 돕기 위해 단기선교를 다녀왔다(2012. 6. 28-7. 8). 정한진 전도사(중고등부)와 5명의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5명의 대학생들은 까르파헤나 지역에서 YWAM 학생들과 봉사자들을 만나 간단한 준비 훈련을 받은 후, 현지에서 활동중인 두 선교사, David/Argelia와 함께 아리조나 지역의 교회 두 곳을 방문하여 같이 예배를 드리고, 아리조나에 있는 시내 광장과 여러 다른 곳에서 노방전도를 하였다. 그 지역 학교를 방문하여 미리 준비해간 노래와 율동을 가르쳐주며 학교를 위한 봉사작업도 잊지 않았다. 세 번째 사역지였던 El Refugio Center를 방문한 후, Bocachica 섬에서도 이틀간 노방전도와 봉사사역을 하는 빠듯한 선교 일정이었지만, 젊은 학생들은 감사와 섬김의 마음으로 선교 일정을 소화해내었다.

### ■ 중고등부 콜롬비아 선교단 2013

구용한, 한혜성 집사를 선교단 리더로 하여 5명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문화선교와 노방전도를 위해 John Hwang 선교사가 사역하는 콜롬비아 까르파헤나 지역에 다녀왔다(2013. 6. 28-7. 7).<sup>18</sup> 중고등부 학생만으로 구성된 선교단원들이 리더와 함께 선교지로 파송받은 첫 사례였다. 주로 젊은이들을 상대로 노래, 게임, 워십 댄스 등을 통하여 교감하고 복음을 전하며, 전도와 기도를 병행하는 선교를 하였다. 선교단원 중 최샘은 선교의 열정을 아래와 같이 전하였다.

태어나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 것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날씨가 정말로 더웠음에도 불구하고 두 손을 하늘 위로 들고 맘을 흘리며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 모든 분들의 모습에 저는 제가 주일에 얼마나 허투루 보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서로가 하는 말은 잘 이해하지 못해도, 저희는 서로를 위해 손을 잡고 기도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략)

콜롬비아에서 보낸 10일은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제가 무엇을 해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보람차고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저희 교회에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적으로도 매우 달라지는 계기가 되었던 여행이었습니다.

- 선교단원 최샘의 보고서 중에서

### ■ 도미니카공화국 단기선교 시작 2013

10년간의 니카라과 단기선교를 끝내고 새로운 선교지를 모색하던 중 니카라과의 백세현 선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도미니카공화국의 김현철 선교사를 돕는 선교사역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2013년 7월 도미니카공화국 단기선교단은 Santo Domingo 북쪽에 위치한 은혜 선교관(World Grace Mission)

17. 2012년 콜롬비아 단기선교단: 김민준(단장), 정한진(전도사); 중고등부- James Park, Ben Ryu, 방채원, 장인석, 이상은; 대학부- William Choi, 한상혁, 김다윗, 김효인, 방수영 (총 12명).

18. 2013년 콜롬비아 단기선교단: Leader - 구용한, 한혜성; Youth Group - 방채원, 최샘, 박지인, 김민혁, 안효준 (총 7명).





도미니칸 공화국 단기선교팀 (2013)

에 숙소를 정하고 의료팀과 봉사팀은 매일 사역지를 옮겨가며 사역을 펼치었다. 교육팀의 경우, Primera Iglesia Presbiteriana Hispana de Boston의 Carlina와 Pena 목사가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하는 오전 동안은 의료/봉사팀을 따라다니며 치료를 받기 위해 부모를 따라온 아이들을 위한 교육선교를 하였고, 오후에는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온 Carlina와 Pena 목사와 합세하여 예배와 여름성경학교 사역을 하였다. 선교지역은 Alcarrizos, San Jose Batey, Santo Domingo, Yamasa, Villa Linda 등으

로, 원래 계획하였던 장소인 Inna York은 선교 일정 중에 벌어진 시민 폭동으로 인해 한인 선교사가 운영하는 Grace School로 장소를 옮겨 경찰들의 보호 속에 사역해야 하였다. 단기선교단에는 Primera Iglesia의 교인들을 비롯하여 이웃 교회인 성요한 감리교회에서도 2명의 단원이 함께 사역하였다.<sup>19</sup>

### 프랑스 단기선교 2014

16세기 중엽 스위스 제네바에서 장로교를 창설한 프랑스의 신학자이자 종교개혁가인 장 칼뱅(Jean Calvin)의 본 고향인 프랑스가 지금은 개신교 신자 1.7%의 미전도종족의 수준이 되었다. 네덜란드와 스코틀랜드 등으로 복음전파의 핵심 역할을 하였던 프랑스가 이제는 오히려 복음전파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2013년 초 이영길 목사는 Connecticut 주의 OMSC(Overseas Ministry Study Center)에 안식년으로 와 있던 프랑스 선교사 부부(Gilles Anzardy(한국명 안지일)/김은경)를 만나게 되었다. 보스턴한인교회는 선교사 부부를 초청하여 프랑스 선교현황에 대해 알게 되었고, 2014년에 프랑스에 단기선교단을 파송하기로 결정하였다.

보스턴한인교회의 중고등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프랑스 단기선교단<sup>20</sup>은 그곳에서 현지 목회를 하고 있는 안지일/김은경 선교사의 사역지에서 이웃 초청 선교 및 길거리 전도사역 등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 문화의 선교를 위한 프로그램과 자료를 준비하여 프랑스 단기선교를 떠났다(2014. 6. 27-7. 8). 프랑스 단기선교단의 안태준 단장의 보고를 통해 프랑스 선교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19. 2013년 도미니칸 공화국 단기선교단: 안태준(단장), Rev. Alvaro Pena(목사), 이정민(총무); 교육팀 - Mercedes De Luna, 김동신, 안유진, 이혜민, Alvaro Pena, 이에진, Andrew Sanchez, Carlina Velasquez; 봉사팀 - 주미옥, 김경삼; 의료팀 - 채진병, 최송자, 최연일, 김향인, 김경애, 김상덕, 이정민, 백승화; 치과팀 - 안태준, 강모나, 김 Kevin, 문영진, 이수영; 악곡팀 - 김애리, 김선영, Sonja Luna, 여주혜 (총 27명).

20. 2014년 프랑스 단기선교단: 안태준(단장), Daniel & Faith Kim(전도사 부부), Jeremy Kahng(교사), Enoch Lee(교사), 중고등부- YouJin Ahn, Andy Kim, Angela Park, Lucy Kim, Lydia Yi, Steven Ahn (총 11명).

6월 28일 새벽에 스위스 제네바 공항에 도착한 우리 선교단은 마중 나온 Anzardi, 김윤기 선교사님의 인도로 Reformation Center에 들러 장 칼뱅의 생애와 그의 업적을 살펴본 후 선교 센터가 있는 리옹(Lyon)에 도착하였습니다. 다음날 주일, 세 번의 예배에 참석하여 그곳 현지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월요일부터는 리옹의 길거리로 나가 준비해간 찬양, 부채춤, 워십 댄스를 선보이며 거리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며칠간의 길거리 사역 후 파리 북부 보베(Beauvais)에서 열리는 유럽 복음화 전도대회에 참가하였으며, 다시 리옹으로 돌아와 이웃초청 문화선교와 17세기 프랑스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사막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 생활하였던 유적지 탐방 등을 끝으로 모든 단기사역을 마쳤습니다. 중남미, 카리브해 지역 등지에서 폭발적인 개신교 전도의 부흥을 접할 수 있었던 감동과는 달리 프랑스에선 힘든 영적 전진을 펼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접하며 1명의 현지교인을 만들기 위해 평균 10년이 소비된다는 프랑스의 개신교 선교 실태를 접하며 앞으로 유럽 선교를 위한 점진적, 체계적, 지속적인 선교전략이 필요함을 느끼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 프랑스 단기선교단 안태준 단장의 보고서 중에서

### 지역사회로 나아가는 문화선교 Oasis Café 시작 2011

2010년 11월 Education & Community Center(ECC) 완공 후 국내선교위원회에서는 community outreach program의 일환으로 메마른 영혼을 위한 오아시스를 뜻하는 'Oasis Café Music Night'이란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작하여 현재까지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브루클라인 지역 주민들과 인근 한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한 문화선교 행사인 Oasis Café Music Night은 여러 장르의 음악공연과 예술활동 등을 통하여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관심을 얻으며 인종과 문화의 벽을 넘은 선교 사역의 열매를 맺고 있다. 교회 내외의 재능 있는 여러 음악인들이 솔선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선교 사역을 더욱 알차게 만들었다. Berklee College of Music에서 재즈를 전공하는 학생들로부터, New England Conservatory와 Boston University 에서 classical music을 전공하는 학생들, 또 지역 사회의 음악인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여, 뮤지컬, 한국 가요, 한국 가요, 일본 전통 음악, 남미 음악 등 다양한 음악과 공연을 무대에 올렸다.

2011년 11월에 있었던 'Ruth: The Musical'은 청년2부의 조나현 작곡, 이운순 작사/연출 작품으로 많은 교인들이 배우(Ruth 이미혜, Naomi 이혜승 집사, Boaz 백승한 집사 외 여러 명)로, 연주자로, 또 staff으로 참여했는데, 공연 당시 좌석을 다 메우고도 관객들이 통로에까지 빼곡히 서서 관람해야



Oasis Café Music Night



"Ruth" the Musical 공연

했던 성공적인 공연이었다. 관객들의 성원에 힘입어 2012년 2월에 앙코르 공연을 갖기도 하였다. 교회가 소재한 브루클라인 타운의 연례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매년 연말 송구영신 행사로 열리는 'First Light Festival'에 본 교회 사물놀이팀 '하늘소리'가 전통음악을 공연하고, 행사를 위해 교회 건물을 개방하기도 하였다.

2013년에는 탈북자를 돕는 기관 LiNK(Liberty in North Korea) 기금 모금을 위해 Hope and Harmony 라는 주제로 보스톤 화음 오케스트라, 보스톤 한인 합창단과 보스톤한인교회 찬양대가 함께 협연(지휘: 박진욱 집사)을 하였고, Boston Marathon Bombing 여파로 상처를 받은 이웃을 위해서 재즈 피아니스트 안은진 외 6명의 Berklee College of Music과 Boston University 음악인들의 공연이 있었으며, Homeless를 돕는 자선 음악회도 있었다.

2014년에는 장승호 재즈 Quintet 연주가 3월에 있었고, 5월에는 뮤지컬 극단 'Broadway to Boston Theater Company'(대표 이혜승 집사, 음악감독 조나현)의 'Broadway to Hollywood' 공연이 있었다. 이 뮤지컬 공연팀은 2014년 6월 Maine주 포틀랜드에서 열린 'NCKPC 제43회 정기총회 및 전국대회'에 초청되어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OASIS CAFE NIGHT & Musical Performance**

2011. 4. 27.	Oasis Café Music Night: 기타리스트 Dan Kyzer, 버클리 음대생인 김찬호, 심세희, 강모영, 보스톤 지역에서 활동 중인 Jeff Belluci공연
2011. 5. 26.	Oasis Café Music Night: Jeff Belluci와 이미혜 Lee & his friends 의 Jazz 공연
2011. 8. 25.	Oasis Café Music Night: Robert Rivera(첼로), Todd Brunnel(클라리넷), 이미혜, Jeff Belluci의 공연
2011. 9. 29.	Oasis Café Music Night: Aires de Argentina 버클리 음대생 그룹- 다문화적 배경으로 재즈, 집시 음악, 탱고 공연
2011. 10. 22.	Oasis Café Music Night: 제 1회 한국 가요의 밤: 박천우와 그룹 라이너스 키보드리스트 김광민, 이미혜, 강모영, 황동준, 안은진, 오설리 교우 출연
2011. 11. 5.	Ruth: The Musical: 작곡 조나현, 작사/연출 이웅순, 출연 이미혜, 이혜승, 백승한, 한정인, 김경애, 김애리, 안희주, 김지수, 안나연, 이호석, 문지용, 손정신, 장민국, 이해영, 김문소, 한승희, 장인지, 최다함, 강경진, Staff: 황동준, 정재원, 이봉욱, 박신혁, 강제레미, 이수영, 김희정, 신광성, Lauren Foster, Margot Parsons(안무)
2011. 11. 17.	브루클라인 'First Light Festival' 에 참여Racha Fora 그룹이 연주
2012. 2. 25.	Ruth: The Musical: 앙코르 공연, 작곡 조나현, 작사/연출 이웅순, 출연: 이미혜, 이혜승, 백승한, 한정인, 김경애, 이호석, 안희주, 안나연, 문지용, 장세훈, 송민철, 김준혁, 김지수, 김문소, 한승희, 장인지, Zdenek Kansky, 강제레미, 백나영, 오가하, 김희정, 신광성, 이정민, Lauren Foster, Margot Parsons(안무)
2012. 4. 28.	Oasis Café Music Night: 'From Bach to Miles', Robert Rivera(첼로) and his students
2012. 8. 11.	Oasis Café Music Night: 'Pu Pu Platter'- 브루클라인 지역 일본 음악인과 친구들을 초청하여 클래식과 일본 전통 음악 공연, Miho Sato(소프라노), Sachito Murata(오보에), Hajime Yamada(하프시코드), Atsuko Kida(피아노), Yuriko Nonaka(소프라노), Momoko Matsu-mura(바이올린), Sumie Kaneko(Japanese Koto & Shamisen)

2012. 10. 20.	제 2회 한국 가요의 밤: K-Pop(중고등부)과 한국 가요공연(김광민, 박천우, 원숙경 외), 사회 이유택 집사
2012. 11. 10.	Oasis Café Music Night: 'A Journey from the Romantic to the Classic': Haffner Sinfonia Chamber연주 (바이올린: 박진욱, 첼로: 김아그네스, 피아노: 석은희)
2012. 11. 22.	브루클라인 'First Light Festival'에 사물놀이팀 '하늘소리'가 공연
2012. 12.	PC(USA) 자매 교회인 Good Shepard Church 에서 열린 Boston Presbytery Pentecost Festival 문화 축제에 사물놀이팀 '하늘소리'의 공연 및 한국음식 제공
2012. 12. 12.	Oasis Café Music Night: 'Holiday with Jazz' 최기웅 베이스, 전창민 피아노, 심규민 Alto Saxophone, Clay Lyons 연주
2013. 02. 02.	Oasis Café Night: Here and Now-The Music of String Gayageum, 전통 음악 연주 및 공연-송영숙(가야금 연주), 이춘승(장구), 김지은(첼로), 박창희(한국 고전무용)
2013. 04. 04.	Arneis String Quartet 공연 - BU 교수들과 학생들로 구성된 Homeless를 돕는 자선 음악회
2013. 04. 27.	Hope and Harmony: 보스톤 화음 오케스트라, 보스톤 한인 합창단, 보스톤한인교회 찬양대가 협연(지휘: 박진욱 집사), 탈북자를 돕는 기관 LiNK(Liberty in North Korea) 기금 모금
2013. 5. 11.	Boston Marathon Bombing 여파로 상처를 받은 이웃을 위해서 재즈 피아니스트 안은진 외 6명의 Berklee, BU 음악인들이 Jazz, Soul, Gospel 공연
2013. 6. 1.	청년부원 최기웅이 리드하는 Jazz band의 세 차례 공연(7. 6, & 8. 10)
2013. 12.	브루클라인 'First Light Festival' 에 사물놀이팀 '하늘소리'가 공연
2014. 3. 15.	장승호 재즈 Quintet 연주
2014. 5. 24.	뮤지컬 컴퍼니 Broadway to Boston Theater Company 공연 'Broadway to Hollywood' (대표 이혜승 집사, 음악감독 조나현, 출연 이혜승, 정종은, 차형진, Ian Depiest, 밴드 김충성, 장승호, Lydia Yang)
2014. 6. 27.	뮤지컬 컴퍼니 Broadway to Boston Theater Company 재공연 'Broadway to Hollywood'

**북미 원주민 선교를 향한 새로운 출발 2014**

2014년 5월 미국 원주민 사역을 하고 있는 안맹호 선교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미국 원주민 선교와 성육신적 접근”이라는 제목으로 선교세미나가 국내선교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안맹호 선교사는 미국 원주민 선교의 필연성과 어려운 점, 잘못 이해하고 있는 역사적 상황과 2009년 이후 급변하는 원주민 관련 주요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선교지 회복을 위한 한국(한인)교회의 사명을 강조하였다. 안맹호 선교사는 1996년에 사우스 다코타에서 미국원주민 사역을 시작한 이후 2007년에는 아리조나로 선교 사역지를 옮겨 지금까지 원주민 교회를 돕는 사역, 미국 원주민 선교를 준비하는 한인교회를 위한 선교 훈련과 교육, 협력사업 개발 등을 해오고 있다. 보스톤한인교회는 그동안 간접적으로 안맹호 선교사의 사역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 선교세미나를 계기로 그의 사역지인 아리조나 피닉스로 비전트립(북미원주민 선교학교)을 다녀왔다(2014. 7. 21-25).<sup>21</sup>

21. 2014년 아리조나 북미 원주민선교 비전트립팀: 이영길 목사, 이선영, 김동규, 이해원, 이샘솔, 차영지 (총 6명).

보스톤한인교회는 2001년 5월 박신영 집사를 팀 리더로 하여 대학부와 청년부 교우들이 아리조나 피닉스 시에 있는 아리조나 원주민 교회 건물 보수를 위해 단기선교를 다녀왔는데, 2014년 비전트립을 계기로 새로운 차원의 미국 원주민 선교를 준비하고 있다.



## 제 8 장

### 보스톤한인교회 성전 봉헌과 Education & Community Center 건축

1995. 06-2014. 06

The KCB Church Building Dedication and the ECC Construction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 학개 1:8

## 성전 봉헌과 ECC 건축에 대한 개관

1953년에 보스톤대학교의 Marsh Chapel에서 예배 장소를 빌려 시작한 보스톤한인교회는 초창기부터 자체 성전을 갖고자 하는 꿈을 버리지 않았고, 1966년 김광원 목사가 보스톤 지역 사회를 상대로 한 첫 건축기금 모금운동으로 그 꿈은 큰 기도 제목으로 부각되었다. 1967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미국장로교에 속한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의 호의로 현재 교회가 위치한 건물로 이전하게 되었다. 성전 건축을 위한 노력은 꾸준한 기금 모금으로 계속되었으나, 보스톤 시내에 교회 건물을 새로 짓거나 구입하는 것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보스톤한인교회는 1985년에 미국장로교 보스톤노회에 23번째 교회로 가입하였고,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와는 같은 노회 안에서 서로 협조하는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건물관리에 곤경을 겪고 있던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로부터 1997년 보스톤노회의 적극적인 주선과 후원으로 건물 소유권을 인수받는 서명식을 가진 후, 창립 44주년에 맞추어 교회 건물 봉헌예배를 드림으로써 소망하던 자체 건물을 가지게 되었다. 건물 인수를 받은 이후 한동안은 노후한 시설 개선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2000년 초기의 교회 발전과 사역 확장으로 예배 및 활동 공간, 특히 교육 공간의 필요성이 절실해져서, 2003년 희년과 함께 Education & Community Center(ECC) 건축을 기획하게 되었다. ECC 건축은 희년 기념 프로젝트로 시작해서 완공까지 7년이 걸렸고, 실제 시공 2년 반, 세 번에 걸친 모금운동, 420만 불의 건축비 등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공사였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교인, 옛 교우, 건축 관계자, PC(USA) 총회, 대회, 보스톤노회,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를 비롯한 미국인 교회들과 교인들, 지역 및 교파를 초월한 많은 한인교회들의 도움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 우리의 귀한 역사이다. ECC는 보스톤한인교회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으며 하나님 말씀의 산 증인이 되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현재 ECC는 교회 내의 교육사역은 물론 이웃 교회, 지역사회에 문을 열어 같이 공유함으로써 보스톤한인교회 비전 성취의 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 A Brief History of the KCB Church Building Dedication and the ECC Construction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 KCB's founding in November, 1953, with the first worship service held in the Marsh Chapel of Boston University as a temporary meeting place, the KCB had always kept a dream of having its own place of worship someday. In 1966, this dream became the subject of KCB's fervent prayers, commencing with KCB's first church building fundraising campaign led by the Rev. Kwang Won Kim targeting the Boston community. In 1967, the KCB moved to the present church building, by the Grace of God and through the goodwill of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in Brookline, the original owner and a member church of the Presbytery of Boston, Presbyterian Church(USA). The KCB's efforts to seek its own place of worship continued with steady fundraising events and activities. However, it was not an easy task to build a new church building or to purchase one within the City of Boston.

The KCB joined the PC(USA) in 1985 as a new, 23rd member of the Presbytery of Boston. As member churches of the Presbytery of Boston, the two churches maintained a good working relationship over many years.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in Brookline (FPCB), however, had been experiencing financial difficulties for several years prior to 1997, and was unable to exercise proper stewardship to maintain the church building and its facilities. Thus, on September 21, 1997, under the auspices of the Presbytery of Boston, the FPCB officially transferred the ownership and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of the church building and its facilities to the KCB in a document signing ceremony. The KCB finally realized the dream of owning its own place of worship and ministry. On November 23, 1997, in time for the KCB's 44th anniversary of its founding, the newly acquired church building was rededicated to God in a special anniversary/ dedication worship service. Since the ownership transfer in 1997, the KCB has been expending a significant portion of its resources and efforts to repair, maintain and renovate the old church building and its facilities.

During the early part of the year 2000, owing to rapid growth of the KCB congregation



and expansion of its ministry programs, the need for more space for worship, church activities and especially Christian education programs, became acutely apparent. In 2003, as part of the 1st Jubilee commemoration, the KCB made plans to build a new Education & Community Center(ECC). As a commemorative project of the KCB's 1st Jubilee, it took about seven years from the initial planning stage to the completion of the ECC building. It was a challenging project for the KCB with two and a half years of actual construction laden with difficult construction and environmental issues, and three major fundraising undertaken to fund a total project cost of \$4.2 million during an economically challenging period. The completed ECC building, however, stands now as a living proof of God's Grace on the KCB to have help and contributions from many sources: the entire congregation of the KCB, many former members and friends living in Korea and other parts of the United States, the many people involved in the award-winning design and construction of the ECC,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C(USA), the Synod of the Northeast and the Presbytery of Boston, the FPCB and other American churches and their congregations and many Korean churches of various locations and denominations. The ECC occupies an important place in the KCB's history and bears witness to God's Word: "And we know that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to them that love God, to them who are th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Romans 8:28) Today, the ECC building is used not only for the KCB's Christian education programs but also for other churches' use as a shared space, and is open to its neighboring communities. In this way, the ECC provides new venue to achieve the KCB's vision.

■ 보스톤한인교회 자체 성전을 갖기 위한 꿈과 기도

보스톤한인교회가 자체 건물을 갖고자 하는 꿈과 노력은 초창기 1966년 김광원 목사가 첫 건축기금 모금운동을 보스톤 지역 전체를 상대로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된 큰 기도 제목이었다. 그 이듬해 미국장로교에 속한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의 호의로 현재 교회가 위치한 건물로 이전하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고 따라서 부근의 여러 교회 건물도 알아보고 인근의 주택가도 알아보았으나 보스톤 시내에 새로운 부지나 건물을 갖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건축을 위한 기금 모금도 여러 모양으로 계속되었으나 건축 기금으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태였다.



ECC 건축 전의 교회 건물

1985년 미국장로교 보스톤노회에 23번째 교회로 가입하였고,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서 1986년부터 협동건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건물 보수와 운영을 도와주기 시작하였고, 1994년에는 노회 Board of Trustees의 자문을 받아, 두 교회 간에 건물 사용에 관한 Legal Agreement를 만들기도 하였다. 1990년대 초 미국 주요 도심지의 교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어려움은 젊은층의 교인들이 도시를 빠져나가고 상대적으로 교인의 연령층은 점점 더 고령화되어 이에 따른 교회 일꾼의 부족 및 재정 감소라는 심각한 문제였다. 이로 인해 많은 도심지 교회가 문을 닫거나 교회의 수입을 다른 방법으로 충당하게 되었는데,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도 주중에 30여 개의 단체에게 교회 건물과 시설을 임대하여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시설 임대가 늘어남에 따라 보스톤한인교회는 예배 외의 건물 사용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 교회 건물 소유권 인수, 교회 창립 44주년 기념 및 성전 봉헌예배 1997. 11

보스톤한인교회는 자체 건물을 가지기 위한 노력으로 오랫동안 장기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회의 이전까지도 생각하는 방도를 모색하였으나, 하나님의 섭리는 현재 본 교회가 소유하게 된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의 건물을 인수받도록 인도하였다. 보스톤노회의 적극적인 주선과 후원으로 1997년 4월에 교회 건물 소유권 이양 문제가 노회에서 가결되어, 9월 21일에 본 교회 Parlor에서 세 기관 -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 보스톤한인교회와 보스톤노회 - 대표가 만나 건물 인수 서명식을 가졌고, 9월 29일에 Norfolk County Registry of Deeds에 정식으로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두 달 후 11월 23일 오후 5시에 교회 창립 44주년 기념예배와 함께 교회 건물 봉헌예배로 그 동안 소망하던 자체 건물을 가지게 된 것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다. 김문소 장로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보스톤노회 총무 Rev. George Magnuson이 예배에의 부름, 프린스턴신학대학 환경직 석좌교수 이상현 목사의 설교, 노회장 Elder Roger Power, 이열 목사(락크랜드한인교회목사, 미국장로교 동북대회한인교회 협의회 회장), Rev.& Dr. Rita Lou Clarke(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 목사), 한상신 목사(뉴버드연합감리교회 목사, 한인교회협의회 회장)의 축사로 이어졌고, 예배 후에는 축하 만찬이 있었다. 교회의 각 부서마다 봉헌을 기념하면서 헌물을 증정하였다.

이영길 담임목사는 헌당예배에 대해 1997년도 연례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순례자의 교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었다.

“9월에는 꿈에도 그리던 교회 소유권을 이양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노회원들이 이를 위해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11월 23일 추수감사주일에는 44주년 기념예배와 아울러 헌당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성대하게 헌당예배를 드렸지만 누구 하나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일을 해서 그런지 너무도 쉽게 모든 것이 끝난 것을 보며 다시 한번 저희 교회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명실공히 이제는 피난민의 교회가 아니라 ‘순례자의 교회’로서 면모가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건물 소유권 인수식



교회 창립 44주년 기념 및 성전 봉헌예배 (1997. 11)

### 1997 Agreement between the Korean Church of Boston and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in Brookline

Statement of Philosophy: In light of the historic presence of the Korean Church of Boston(Presbyterian Church(USA)), Inc.(KCB) on the property hereinafter identified, contributions in the form of rent and gifts for maintenance and capital repairs and improvements, the development of the English language ministry and the intention that it become a New Church Development(NCD) of the Presbytery of Boston (Presbytery), and its congregation’s growth there during the time that the congregation of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in Brookline(Frist Brookline) has experienced loss, Presbytery views the KCB as the natural ‘next generation’ of Presbyterians to assume responsibility for said property. As generations together form a family, there has been and there will be room for two generations or more to live together in the building now occupied by First Brookline and the KCB.

Whereas, all parties, hereto, believe that it is in the best interest of its current and future mission and ministry for KCB to assume full and complete responsibility for the property in Brookline built and maintained by the First Brookline congreg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foregoing and the promises set forth below, it is hereby agreed:

1. First Brookline shall convey by way of a duly executed quitclaim deed and for nominal consideration all its right, title and interest in and to the realty located at 32 Harvard Street in Brookline subject to the equitable title held by the Presbytery of KCB, said right, title and interest to be good and marketable of record. For a more complete description of the said premises, see the description of the first parcel conveyed by deed of First Presbyterian Church in Brookline, an incorporated religious society, to First Presbyterian Church in Brookline, an incorporated church dated November 26, 1934 and recorded in the Norfolk County Registry of Deeds in Book 2056 at page 358.

(중략)

14. At the time of the delivery of the deed First Brookline shall provide KCB with a recordable certificate under G.L. c 180, §8A stating that notice of the transfer was given to the Attorney General pursuant to said statute, that notice was not required thereunder or that such notice was waived by the Attorney General.

Dated: at Brookline, MA this 21 day of September 1997

### 교회 건축 및 건물 관리 보수 요약

1967.	미국장로교 Brookline 제일장로교회 건물로 이전
1985.	미국장로교 보스톤노회에 23번째 교회로 가입
1997. 09. 21.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 건물 인수 서명식: 본 교회 Parlor에서 보스톤 노회 입회 아래 보스톤한인교회로 교회 건물 소유권을 이양
1997. 09. 29.	교회 건물 소유등기를 Norfolk County Registry of Deeds에 등록.
1997. 11. 23.	창립 44주년 기념 및 성전헌당 예배
1998.	교회 건물 제1차 수리공사: 전기시설, painting, 교실, 지붕, gutter, 교회 간판, 놀이터, 교회 잔디구역 수리, fire exit, 화장실, organ repair등; 교회건물장기계획위원회 구성
1999.	교회 건물 제2차 수리공사: 배수, fire alarm, 전기시설 개선, 부엌 renovation, 예배실 개선, 스테인드글라스 보수, 어린이 놀이터 우리 손으로 조립 신설
2000.	교회 건물 제3차 수리공사: 부엌, 보일러, fire alarm system, Health Department Inspection, 교육관 교실 증축
2002.	교회 건물 제4차 수리공사: carpet replacement, gutter 보수, security system 시설 보수, 본당 및 친교실A/V system 시설 보수
2003. 02. 16.	첫 회년 기금 모금위원회(위원장 한승희) 발족. 회년 특별헌금 모금운동 시작
2003. 11.	창립 50주년 첫 회년 기념 Education & Community Center(ECC) 건축공사 기획; 설계회사의 설계도와 견적 입수
2004. 11.	교회 건물 제5차 수리공사: 본당 air-conditioner 설치, stained glass와 창문 보수, Steeple에 새 창문과 누수방지공사

2004. 02-2006. 01	ECC 건축 제2차 기금 모금(위원장 김정선)
2006. 02-2010. 01	ECC 건축 제 3차 기금 모금(위원장 안태준)
2006. 09	Brian Healey Architects 의 ECC 설계 채택
2007	방송시설 보수: 설교 video방송 준비, 본당과 친교실의 camera 및 projector system, 새로운 기자재 신설 및 multi-media/internet cabling (총 보수비 약 19만 불)
2007. 11	경쟁입찰 결과 뉴욕의 강석 건축이 선정되어 건축기간 12개월에 건축비 270만 불로 계약
2007. 12	미국장로교 Presbyterian Investment & Loan Program 에서 2007년 160만불, 2008년에 40만 불을 늘려 총 200만 불의 용자를 받음.
2008. 04. 13	ECC 건축 착공예배 및 착공식
2009. 06	ECC 상량식
2010. 09	시공 후 2년 5개월 만에 완공, 총공사비 420만 불로 증가, Certificate of Occupancy를 받음, Open House 웨마의 밤
2010	본당과 ECC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방송장비 업그레이드, 멀티미디어 개선
2010. 11. 21	ECC 봉헌 및 본 교회 창립 57주년 기념 예배
2012. 04. 28	ECC 머릿돌 설치 및 Time Capsule 봉입

■ 건물 보수 및 예배시설 개선

1995년 이영길 목사 시무 초기에는 예배 참석자가 어린이를 포함하여 300명 정도였으나, 1997년에 이르러 450명으로 늘어났고 2000년에는 600명을 넘어 거의 두 배로 증가되었다. 교인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본당 예배 장소가 협소하게 되어 처음에는 예배 때마다 본당 뒤쪽에 의자를 추가로 놓다가, 이도 부족해서 1997년부터는 2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2002년에는 2부 예배시 친교실에도 대형 스크린과 예배 장소를 마련하여 실시간 동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어린이, 중고등부, 청년 대학생들이 늘면서 교회 각 부서는 더욱더 활기를 띠게 되었으나, 이에 따라 예배 및 모임장소는 더욱 협소함을 느끼게 되어, 건물 증축의 필요성이 한층 더 대두되었다.

자체 건물을 소유하게 됨에 따라 마음껏 예배와 사역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교회 건물은 세워진 지 50년이 지나 여러 가지 노후 현상이 나타나 대 보수작업이 뒤따랐다. 1998년에 교회건물 제 1차 수리공사로 전기시설, painting, 교실, 지붕, gutter, 교회 간판, 놀이터, 잔디 조정, fire exit, 화장실, organ repair 등을 끝냈다. 1999년에는 어린이 놀이터를 우리 손으로 직접 조립 신설하고 제2차 수리공사로 배수관계, fire alarm, 전기시설 개선, 부엌 개조, 예배실 개선, 스테인드글라스 보수 등을 끝냈다. 교육공간이 계속해서 부족하여 2000년에는 교실 수를 늘리기 위해 교육관을 개조하였고, 제3차 수리공사로 부엌시설과 보일러 개선, 건물 안전에 관한 fire alarm system, Town Health Department Inspection 등에 대한 시설을 보완하였다. 2002년에는 희년 축하행사에 대비해서 carpet 교체, gutter 보수, security system과 함께 본당 및 친교실 A/V system 예배시설 보수가 있었다. 본당 건물은 air-conditioner가 없어서 한여름 예배 시에 너무 무더웠기에, 2004년에는 본당 벽에 현대식 air-conditioner를 설치했고, 스테인드글라스와 창문 보수, 침탑에 새 창문과 누수방지공사도 마무리 지었다. 2007년에

도 ECC 건축과 함께 멀티미디어 사역을 위한 새로운 방송, 인터넷, 네트워크 시설 등에 약 19만 불을 들여 보수를 하였고, 2010년 ECC 완공 후에도 본당과 ECC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방송장비 업그레이드, 멀티미디어 등을 개선하였다.

■ 지역 교회 및 사회와 교회 시설 공유

보스톤한인교회는 1997년 9월에 교회 건물 소유권을 이전 받을 때 인수 계약서에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를 선교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건물을 같이 사용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했으며, 노회를 통해 처음 5년 동안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여 이를 이행하였다. 현재까지도 브루클라인제일장로교회는 본 교회의 1부 예배와 2부 예배 사이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친교 및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교회 건물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

보스톤한인교회에서 영어예배부로 출발, 독립하여 PC(USA)의 자매교회가 된 Bethany Presbyterian Church도 현재 주일 오후 2시 이후 본 교회의 새로 지어진 ECC Chapel에서 예배를 드리며 교육관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Calvary Brazilian Church도 오후 늦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한 교회 건물을 4개의 교회 공동체가 같이 사용하고 있다.

보스톤한인교회가 시내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지역사회의 단체들이 주중에 건물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어, 본 교회는 교회 문을 열어 지역사회와도 공유하고 있다. 특히 한인회 및 한인사회의 단체들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of non-profit organizations에 실비로 대여하고 있다. Brookline Adult Education School, Little Children Schoolhouse, After School Program, Brookline Symphony Orchestra, Harvard Public Health, Harvard Tango Class, AA Group, ALNON Group, OA group, NA group, Pierce School after School 등이 오랫동안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특별히 ECC 건축 이후 깨끗해진 건물을 사용하는 단체들의 좋은 반응은 지역사회 선교에 간접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교회는 이들을 포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 첫 희년 기념 행사 및 교육관 건축기금 모금 시작 2003

오래 전부터 교회 건축에 대한 꿈은 꾸어 왔지만 현실적으로 교육관 신축을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은 희년을 맞으면서였다. 당회에서는 본 교회 창립 제50주년 첫 희년을 맞아, 교회 건물 시설 보수 및 파이프 오르간 수리, 교육관 신축, 그리고 희년 기념행사 기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희년기금모금운동을 온 교회가 함께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03년 2월부터 모금운동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한승희 장로를 위원장으로 9명의 모금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모금위원회는 다시 4개의 소위원회 (marketing/publication, canvassing, public relations, special events)로 나뉘어 모금운동을 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여러 가지 희년 기념행사와 건물수리 보수 및 건축헌금을 고려하여 희년기금 목표액을 일차 50만 불로 정하였다.

모금위원장: 한승희, 위원: 강상철, 김계숙, 김한나, 오승현, 조준호, 진동호, 차주혁, 최송자, 이영길 목사

여러 모금 행사와 모금운동을 통해 2004년 1월까지 모두 132가정이 참가하여 약정액을 포함 총 \$272,323의 기금이 모금되었다. 이 첫 회년기금 모금을 위해 한국에 있는 옛 교우들의 2003년 11월 특별 지원은 전체 모금운동에 큰 감동과 힘을 주었다.

### ■ 교육관 건축의 기획과 연기

2003년 말 회년 기념 및 교육관 건축기금 모금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교육관 설계를 알아보기 위해 보스턴 지역의 설계사들에게 기본 설계를 의뢰하였다. 기본 아이디어는 10,000 SF(약 300평) 정도의 면적에 최소한 6개의 교실, 유년초등주일학교 예배실과 Cultural & Community Center를 포함해야 하고, 가능한 부지(어린이 놀이터와 Harvard Street 쪽 둔덕으로 된 공간)를 사용해서 2층 또는 3층의 건물을 현 건물에 연결하여 증축하는 것이었다. S 건축회사는 11,250 SF에 220만 불, Brian Healy Architects는 10,000 SF에 131만 불의 첫 견적이 나왔다. 그러나 채택된 Brian Healy Architects 설계도에 의한 2차 세부공사 견적은 2004년 11월 일년 동안 건축자재 값의 상승으로 200만 불 이상 되어 2005년 1월 정기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에게 설명회를 가진 후 건축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실로 다가왔던 교육관 건축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교회 전체적으로 실망이 컸으나 계속 기도하면서 모금운동을 펼쳐 나가기로 하였다.

### ■ 제2차와 제3차 ECC 건축기금 모금

2004년에 들어서면서 제2차 모금운동을 계속하기로 하였고, 교육관 이름을 Education & Community Center(ECC)라 명명하고 김정선 장로를 위원장으로 하여 ECC 건축기금 모금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우선 제 2차 기금 모금에 앞서 전교인 40일 합심기도를 하기로 하여, 4월 19일부터 40일간 미리 준비된 일일 기도 제목으로 모든 교인들이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금과 병행하여 ECC need assessment study, mission statement를 만들었고, non-profit organization 신청에 대한 준비작업도 끝냈다.

제2차 모금위원회 위원장: 김정선, 총무: 김세철, 회계: 심기선, 서기: 원미연, 섭외: 안태준, 홍보: 양경삼, 백지원, Non-profit organization: 최현구, David 황, 교육 program: 원미연, Don 황, 건축 liaison: 김진호, 안지용, 기도: 이선영, 홍동욱, 예배: 윤경문, 홍동욱, 고문: 조준호, 강상철

제2차 기금 모금에 모든 교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12월 말 건축기금 \$500,000 목표에 총 \$420,524(약정 및 모금 특별행사)을 모금함으로써 목표 대비 84% 달성, 특별 Leadership Fundraising에서 모인 \$170,000을 포함 총 \$590,524로 목표 대비 118% 초과 달성하였다. 하지만 2005년 초 기획되고 있는 ECC 건축 비용은 예상했던 200만 불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해결점을 찾아야 하였다. 2005년 말까지의 건축기금 총액은 \$748,540이고, 건축설계비, engineering/consulting fee, 회년 행사 비용, 건물 보수 비용 등 총 지출이 \$230,258로서 건축기금 잔액은 \$518,291밖에 안 되어 건축을 시작할 여건이 되지 못하였다.

눈앞에 다가왔던 ECC 건축이 엄청난 공사비에 막혀 무한정 지연되자 모두 의기소침하여 있을 때, 2006

년 초 안태준 집사를 위원장으로 한 제3차 건축기금 모금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07년 5월에 첫 삼을 뜰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 기도하시는 이영길 목사의 설교와 함께 기금 모금은 힘있게 다시 출발하였다. 그러나 2007년 6월에 받은 건축회사들의 입찰 견적은 최고 800만 불, 최저 310만 불로 드러나면서 기금 목표는 다시 한번 상향 조정이 되어야 하였다.

꾸준히 기금 모금은 계속되어 1, 2, 3차 모금을 통한 총액은 \$960,801에 이르렀고, 특히 2006년 한 해 동안의 건축 현금액은 \$465,046에 이르렀다. 2007년 말에 이르러는 모금 총액이 \$1,271,988에 이르렀고, 2008년에는 모금 총액이 \$1,499,881이 되었으나, 공사비는 계속 증가하여 Presbyterian Investment and Loan Program(PILP)의 160만 불 용자를 포함해도 모금은 계속되어야 하였다.

제3차 기금 모금 목표는 원래 80만 불에서 출발했으나 공사비가 계속 증가하여 2009년에는 총 모금 목표액을 105만 불로 상향 조정해야 했고, 2010년에는 다시 120만 불로 조정해 모금이 거의 목표액에 가까이 이르렀고, PILP용자도 200만 불로 올렸으나, 새 건물에 들어갈 책상, 의자, 책장, 커튼, 기구, 방송 자재 등이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2011년에도 모금이 계속되었다.

제3차 모금위원회 위원장: 안태준, 위원: 김성현, 안성완, 김준구

### ■ 정성 어린 교인들의 지원과 어려움 극복

첫 출발부터 지연되고 있는 공사는 Sunflower 유년초등주일학교의 어린 아이들과 Ransom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부, 상록회원을 포함한 모든 교인들의 건축을 위한 여러 행사와 정성 어린 기도로 그 어려움을 이겨 낼 수 있었다. 2004년 5월에는 한국문화축제(Korean Cultural Festival) 때 ECC Booth와 광고 수입을 통해 모금했고, 8월 전교인 여름수양회에서 ECC 설명회를 가졌다. 또한 Bethany Presbyterian Church 예배시간에 ECC presentation을 하였다. 2004년 9월에는 Golf를 통한 기금 모금이 있었고, 10월에는 전교인을 대상으로 ECC 건축을 위한 찬양과 기도의 'Praise Night'이 개최되었고, 또한 주민들을 상대로 한 Community Bazaar and Auction을 실시하여 교인들이 만들어온 음식, 물품, Service 상품권(재능 기부)을 팔거나 경매를 통해 기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2005년에도 대부분의 부서들이 나름대로 기금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많은 교인들이 여선교회 Bazaar, 또는 기금 모금 골프대회 등에 참가하였다.

공사 착공을 앞두고 어려움이 있던 2007년 6월에는 본 교회 음악인들이 솔선하여 ECC 건축기금 모금 음악회를 개최하여 예상외로 증가된 공사비로 인해 의기소침해 있던 교회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었다. 12월 9일에는 다시 한번 성전 건축을 위한 찬양과 기도의 밤이 있었다. Sunflower 유년초등주일학교 어린 아이들과 Ransom Youth Group의 중고등학생들, 청년부, 장로들과 많은 교인들이 참여하여 우리의 회년의 비전을 되새기며, 건축에 대한 열망과 열정을 재확인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ECC의 모



2009년 건축기금모금 음악회



습을 위해 같이 기도하였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전 하나님께 자기들의 부족한 삶을 먼저 회개한 후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호지부지 되었던 스룹바벨 성전의 이야기, 학개, 스가랴 선지자들의 축구로 나태했던 자신들의 잘못을 먼저 회개하고 건축에 임하였던 이야기 등을 나누며, 우리의 건축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 다같이 간절한 마음을 모아 찬양과 기도를 올렸다.

2009년 5월에는 ECC 건축기금 모금 위원회와 집사회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골프대회에 총 35명이 참가하면서 건축헌금으로 \$10,050을 모금하였다. 2009년 10월에는 ECC Children's Chapel에 필요한 Baby Grand Piano구입을 위한 음악회가 열렸는데, 박진욱 집사의 지휘로 1부 찬양대와 현악 앙상블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모금행사를 가질 수 있었다. 2010년 5월에는 건축기금 마련 옥션과 음악의 밤(ECC Fundraising Auction and Music Night)을 음악회와 함께 교인들의 헌물을 Silent Auction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 ■ Presbyterian Investment and Loan Program(PILP)으로부터 용자

당회는 Presbyterian Investment and Loan Program(PILP)를 통해서 부족한 공사경비를 용자 받기로 결정하고, ECC 건축용자위원회를 발족, 김성빈 장로에게 용자 업무를 위임하였다. 당회는 160만 불 용자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고, 위원회에서는 용자 신청서류 및 편지를 PILP에 보내 용자 승인이 되었다는 loan commitment letter를 2007년 4월에 받았으나, 착공이 일 년 지연되면서 유효기간이 지나 두 번째 신청을 해야 하였다. 용자 총액은 160만 불, 이자율은 7.25%, 상환 기간은 20년으로 Pre-Payment Penalty는 없게 책정되었다.

그러나 예기하지 못했던 new boiler system 설치, NSTAR transformer 설치, new fire alarm system 설치, 방송실 이전 및 new family bathroom 설치 등으로 막바지에 이르러 ECC 총 공사비용은 420만 불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11월 당회에서는 40만 불 추가 용자를 신청하기로 결정하여 총 200만 불을 용자받게 되었고, 이자율은 6.0%로 하향 조정이 되었다. 용자 과정에 따른 또 하나의 기금 협조 방식은 PILP에서 저축예금 계좌 CD(Certificate of Deposit)를 본 교회 이름으로 구입하는 것인데, 보스턴노회와 미국교회 장로들, 교단 내의 교회들(Bethany Presbyterian Church,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in Brookline, Quincy Young Sang Presbyterian Church,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Louisville)과, 우리 교인들이 약 85만 불에 상당하는 저축을 하여 낮은 이자율의 혜택을 보게 되었다.

### ■ 총회, 노회, 지역사회, 이웃들의 건축 지원

ECC 건축을 위해 미국장로교 총회 용자 기관 PILP를 통해 받은 대형 용자가 건축에 대한 추진력을 제공해 주었으나, 우리가 속해 있는 보스턴노회, 지역사회도 여러 모습으로 협조의 손길을 보여 주었다. 2009년 2월 보스턴노회의 추천으로 Presbyterian Foundation으로부터 보스턴 지역 내에서 교회를 짓거나 증축하는 교회에 수여되는 John Gilchrist Fund 10만 불을 Grant로 받게 되었다. 2009년 7월에는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에서 ECC 건축을 위하여 10만 불을 현금해 주었다. 2009년 11월에는 뉴저지 찬양교회 PC(USA)는 본 교회에 ECC 건축 기금으로 만 불을 현금했는데, 이는 10여 년 전 우리 교회가

노회로부터 현 건물을 무료로 인수받았을 때 감사의 표시로 동북대회 한인교회 중에 건물을 새로 짓는 교회에 보낸 \$500에 대한 답례여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기쁜 마음으로 받았다.

건물이 거의 완공되어 가던 2010년 7월에는 보스턴노회의 정기 모임이 본 교회에서 열렸을 때, ECC 건물의 비공식적인 Open House를 가졌는데 이 노회 모임에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건축물을 활용하여 Community Outreach Program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Lynn Redevelopment Grant Fund(3년간 총 \$20,000)의 첫 해분 \$12,000을 받았다. 아래층 확장과 함께 새 부엌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보스턴한인교회 건축 재정 상황을 고려한 한샘 회사에서는 1층 부엌 개조 공사에 필요한 \$10,000 상당의 Cabinet를 무료로 제공하고, 설치 비용 \$20,000은 2010년부터 분할 지불이 가능하도록 배려해 주었다.

### ■ 한국에 있는 옛 교우들의 건축 지원과 ‘어머니교회’

보스턴한인교회는 “순례자들의 교회이며 아울러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이들의 영혼의 쉼터이기도 합니다”라고 첫 희년고백서는 말하고 있다. 지역적 특성으로 많은 교우들이 교육, 사업, 연구, 연수 차 본 교회를 다녀 갔고,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미국에서 체류할 때 다녔던 어머니교회로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있다. 2003년 11월 희년과 함께 교육관 건축 모금을 시작할 때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옛 교우들 70여 명이 서울 강남 메리어트 호텔에 모여서 본 교회 창립 제 50주년을 기념하는 만찬과 친교 및 희년 모금의 모임을 가졌다. 본 교회에서는 모금위원장 한승희 장로가 대표로 참석하였고, 서울에서는 이일영 장로, 이장규 교수가 모든 연락과 모임의 책임을 맡았고, 백혜선 교우가 연회장을 마련해 주었으며, 김장환/이양자 교수를 비롯한 1970년도 이전에 본 교회를 거쳐간 옛 교우 10여 가정도 참여하여, 모두가 그 자리에서 5만 불이 넘는 희년 특별 헌금과 약정을 해주었다.

2006년 11월에는 이영길 목사와 사모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30여 명의 옛 교우들이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을 같이 하며 보스턴한인교회의 옛 정과 교회 소식을 나누고, 이영길 목사는 그의 설교집 ‘어머니 교회’에 친필 서명으로 참가자들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참가자들은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보스턴한인교회에 다녔던 20대의 대학부원부터 60대의 교우들로서 다양한 추억과 향수 속에서 ‘어머니교회’를 회상하였다. 이영길 목사는 2006년 한 해 동안의 보스턴한인교회의 커뮤니티 활동, 니카라과 선교사역, 문화행사 등 다양한 사역과 행사들을 슬라이드로 보여주며, 브루클라인 커뮤니티와 타 인종들과의 친목과 화합에 꼭 필요한 성전 보수와 ECC 교육관 건축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



한국에 거주하는 옛 교우들의 보스턴한인교회 50주년 기념모임 (2003)



Brian Healy Architects의 Education & Community Center(ECC) Master Plan 2006.10

### ■ ECC 건축 공사 입찰과 계약

전형적인 뉴잉글랜드 교회 건물 구조를 가진 보스톤한인교회는 복잡한 도심지 내에 위치하여 건물을 증축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과 문제점이 있었다. 건물 증축 디자인을 맡은 Brian Healy Architects(BHA)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동시에 현대적 감각이 두드러진 새 건물들을 기존의 건물 구조에 잘 어울리게 결합시키는 디자인을 통해 전통성을 가진 보스톤한인교회가 교육을 안고 지역사회로 나아가는 미래 지향적인 모습을 성공적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Children's Chapel은 성전 앞쪽의 자연광 십자가와 밝은 색의 목조, 그리고 계단식 open auditorium의 아름다운 조화가 두드러지는 디자인으로 완공 후에 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ure of New England(AIANE)에서 우수건축상(Honor Award)을 받을 만큼 아름답게 지어졌다. 2009년 5월호 Christian Today에 "Theology In Wood and Concrete"란 제목으로 "어린이 채플"에 관한 기사가 사진과 함께 실리기도 하였다.



Children's Chapel

BHA의 건물 디자인이 완성된 2007년 3월부터 새 건물 증축 공사에 대한 경쟁 입찰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Legal Attorney를 통해 완성된 BHA의 ECC Construction Document와 Bid Package 경쟁 입찰을 공고한 후 3개 건축업체로부터 ECC 공사 입찰을 받게 되었다. 예상 외로 높은 견적(최저 \$3,200,000, 최고 \$8,040,000)들은 선정 기준의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였고, 최종적으로 당회는 최저가를 제시한 뉴욕의 강석건설회사(Kang Suk Construction Company)를 General Contractor로 선정하게 되었다. 2007년 8월에 ECC 건축위원회, BHA 그리고 강석건설회사의 대표들이 3자 회의를 통해 ECC 건축비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토의하였고, 그 결과 강석건설회사가 ECC 최종 건축비를 \$2,706,000로 재조정하게 되면서 2007년 11월에 건축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되었다(착공 예정일 2008년 4월로 결정). 같은 해 12월에는 PILP의 Loan 조건을 충족하게 하기 위해 Independent Construction Manager로 Daedalus Projects, Inc. (DPI)의 대표인 Richard Marks를 채용하여 공사 과정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 ■ ECC 건축위원회 발족과 공사 착공

2006년 말에 처음 구성된 ECC 건축위원회(위원장 한승희 장로)는 매달 또는 분기마다 BHA, DPI, 그리고 강석건설회사의 대표들과 함께 모여 정기적으로 혹은 필요에 따른 임시 회의를 가지면서 ECC 건축과 관련한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였다. 매주 ECC 건축 실무자 회의를 통해 ECC 건축위원장과 공사 실무 책임자들(BHA, DPI, 강석건설회사 대표 각각 1인씩)이 함께 모여 건설 작업의 진행을 검토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2008년 4월 13일 ECC 건물의 착공예배와 착공식이 있었고, 5월 20일에 Town of Brookline에서 건축 허가증을 받아



ECC 착공식 (2008. 04)

6월 2일 건축이 시작되었다.

#### 건축위원회 명단

2006	한승희(위원장), 김세철(부위원장), 강상철, 박영철, 안태준, 이정규, 이영길 목사
2007-2008	한승희(위원장), 김세철(부위원장), 강상철, 김준구, 박영철, 안태준, 이경환, 이은주, 정진웅, 한문수, 윤경문 목사, 이영길 목사
2009	한승희(위원장), 김세철(부위원장), 강상철, 김준구, 박영철, 안태준, 이은주, 윤경문 목사, 이영길 목사
2010	한승희(위원장), 김세철(부위원장), 강상철, 김준구, 김태만, 박영철, 안태준, 이경환, 이은주, 윤경문 목사, 이영길 목사

5년의 기도와 노력 끝에 드리는 ECC 착공예배와 착공식을 가진 후 건축위원장 한승희 장로는 이 모든 과정을 광야 생활을 끝낸 이스라엘에 비유하며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지난 2003년부터 계속하여 간절히 기도해 왔던 ECC(Education & Community Center) 교육관 건축의 착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모두 돌립니다. 보스톤한인교회는 1953년 Thanksgiving Sunday에 창립된 이후 여러 곳으로 이전하며 자유로이 예배드리고 신앙 활동을 할 수 있는 우리 자체의 성전 건물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1967년에 현재의 장소로 이전하여 '정착'하였으나 그후 30년간은 '셋방살이'로 여러 불편함과 언제 떠나야 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셨고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시기 전 먼저 40년간 광야에서 저들을 단련시키신 것같이, 우리에게도 44년이란 긴 세월 동안 자체 교회 건물이 없이 '광야'에서 살게 하시다가, 1997년 9월에 지금의 이 교회당을 보스톤 노회를 통하여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로부터 교회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양받는 엄청난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마침내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신 것이 아닐까요? (중략)

우리들은 첫 희년을 계기로, 장치는 이 일에 앞장서야 할 우리들의 자손들을 알뜰하게 가르치고 훈련하기에 부족한 교실들과 설비들을 장만하고, 아울러 우리들의 이웃과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Community Center를 포함한 ECC 건축을 통하여 우리들의 꿈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감사한 것은 Children's Chapel이 ECC 교육관 건축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지하의 예배실에서 나와 밝은 이층의 아름다운 어린이 예배당에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마음껏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찾고 만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중략) 그 옛날 다윗 왕이 그렇게도 원했던 성전 건축을 그 아들 솔로몬 왕에게는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보스톤 한인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제 우리들의 성전의 착공을 허락하신 엄청난 은혜를 어찌 다 말로 형용 할 수 있을까요? 다만 감사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중략) 끊임없는 기도와 많은 건축 헌금으로 이 사역에 동참하여 주신 모든 교우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략) ...

### ■ 어려웠던 공사 과정과 완공

보스톤한인교회의 위치를 보면 어느 방향으로도 증축이 쉬운 여건은 아니었다. 한 쪽은 브루클라인 타운 홀 옆에 타운 중심을 가로지르는 복잡한 Harvard Street에 연해 있고, 다른 쪽은 개인주택과 상업용 건물과 콘크리트 담을 같이하고 있으며 나머지 두 쪽은 바로 거리와 가까이 인접해있다. 또한 옆으로

넓혀 나갈 부지도 없어 단지 가능했던 것은 놀이터가 있던 Holden Street 쪽 개인주택과 접해 있는 조그마한 부지와 Harvard Street 쪽에 접해 있는 조그만 둔덕을 제거하면서 이를 앞뒤로 연결하여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공간 확보가 끝난 후 시작된 건물공사는 시작부터 예기치 못한 공정으로 지연되었다. 기초공사와 외벽 쌓기, 오염된 흙 제거, gas burner로 대체하는 작업 등은 쉽지 않은 공사 난관의 시작에 불과하였다. 특히 굴착기로 시공하는 Holden St. 쪽 임시 축대 설치 작업은 이웃 주민의 항의로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법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동안 공사를 중단해야만 하였다. 그러나 많은 난관들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2008년 4월 시작한 공사가 그 해 겨울 Holden St. 쪽 교육관이 거의 완성되었고, Harvard St. 쪽 Community Center의 외관 공사도 거의 완료되어 2008년 말에는 건물 안 내부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전체 공사는 크게 보아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다; Harvard Street에 연해 있는 Community Center Construction, Education Wing, Children's Chapel Construction. 주요 공사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2007. 11. 강석건설과 ECC 공사계약 체결
- 2008. 04. ECC 건축 착공식
- 2008. 05. ECC 건축허가증 발급
- 2008. 06. Holden St. 쪽에서 시작된 shoring by pile driving 중단(이웃 주택 주인의 고소로 인해); Harvard St. 공사장에서 오염된 토질 발견
- 2008. 07. 이웃상가로부터 콘크리트 담 제거에 대한 합의 접수
- 2008. 10. 이웃 주택과 shoring에 대한 합의, 공사 재개; 오염된 토질 제거 작업 완료
- 2008. 11. Community Center 창문 설치 완료
- 2009. 05. 기초공사, 철근 골절 공사 완료
- 2009. 06. ECC Roofing Ceremony

철근 골절 공사가 마무리된 2009년 6월 보스톤한인교회는 전교인의 서명이 담긴 큰 나무 판을 지붕에 올리는 상량식을 가졌다(2009. 6. 10). 교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가진 상량식에서 완공을 앞두고 있는 ECC 건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은혜롭게 또 아름답게 마무리 되도록 기도하였다.

2009년 말에는 아래층, 1층 공간, 계단과 벽 쪽 구조물이 시각적으로 드러났고, 강석 건설회사는 시간을 1시간씩 더 늘려 작업을 하며 공사에 박차를 가하였다. 건축위원회는 완공되어 가고 있는 ECC 건물 실내 디자인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재와 색상 등의 세밀한 부분들을 건축회사와 의논하며 일들을 진척시켰다.

인테리어 소위원회 김세철, 김윤정, 김용한, 안태준, 이창호, 이영길 담임목사, 윤경문 부목사, 한승희, P. Sheldahl

- 2009. 07. 방송실 이전, 사무실 개조 및 이전 준비 완료, 아래층 부엌 공사 시작, 가구 준비
- 2009. 08. 교육관 건물 유리창, 내부 시설, 전기 공사, wood cork plank flooring

- 2009. 12. 엘리베이터 설치, 빌딩 inspection 준비
- 2010. 02. 교회 정문 앞 공사완료, Community Center, Children's Chapel 건물 내부 벽 마무리 공사, 전기시설, HVAC 공사, family bathroom 설치, 장애인 사용 입구 공사, 내부 페인팅
- 2010. 06. Children's Chapel 완성, 아래층 부엌 공사 완료, fire alarm inspection permit
- 2010. 09. 완공 후 ECC Certificate of Occupancy Permit을 받음

완공에 가까워지면서 예기하지 못했던 작은 공사들, 즉 new boiler system 설치, NSTAR electric transformer 설치, new fire alarm system 설치, 방송실 이전 및 new family bathroom 설치 등으로 인해 공사비는 420만 불로 상향 조정되었다.

ECC 건물 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교회 건물 안팎의 주변 조경공사도 함께 진행하였다. 우선 교회 앞문 쪽에 있었던 어린이 놀이터를 Harvard Street 쪽으로 지어진 Community Center에 접해 새로이 마련하였고, 교회를 둘러싼 삼면은 아름다운 조경으로 마무리 지었는데, 특히 김길랍 장로, 신광성 교우, 집사회 소속 환경 미화부원들이 솔선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였다. 또한 부족한 부지였지만 교회 건물 안쪽에 작은 뜰(Courtyard)도 마련하였다. 이곳은 사방이 교회 건물 벽으로 막혀 있지만 지붕이 없는 형태의 뜰로 건물 내부에서 내다볼 수 있는 작은 정원이다. 교인들과 특히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곳은 바깥공기를 마실 수 있는 작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뜰 한가운데 자리한 자그마한 분수는 그 주위를 거북이 모양을 한 암석으로 둘러싸아 자연적으로 형성된 듯한 샘의 느낌을 주었고, 샘의 주변은 화초와 나무로 꾸며 정원의 운치를 더하였다. 이영길 목사는 그의 설교를 통해 이 뜰이 면적으로 보아서는 비록 좁지만 이민자의 지경을 넓혀가는 '르호봇의 샘'이라 칭하였다. 또한 2008년 발간한 그의 설교집 제목도 《르호봇의 노래》라고 지었다.



철근 구조와 Roofing Ceremony (2009. 06)



르호봇의 샘

### ■ ECC Open House 쉼마의 밤

ECC 건물이 완공되어 입당을 준비하던 2010년 7월, 보스톤노회의 정기 모임이 본 교회에서 있었다. 보스톤한인교회는 이날 모임 참석자들에게 ECC 건물을 비공식적으로 오픈하였는데, 건축위원장 한승희 장로의 ECC 건축에 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마리아 여선교회가 제공하는 만찬이 있는 후 완공된 ECC 건축물을 돌아보았다. 이날 보스톤노회는 3년간 수여하는 Lynn Redevelopment Grant Fund 중 첫 해 분인 \$12,000을 보스톤한인교회에 수여하였다.

7월달에 있었던 비공식 ECC Open House에 이어 9월달 '쉼마의 밤' 행사는 공식적인 ECC Open House를 겸해 가졌다. 많은 교우들이 함께 모여 축하 만찬을 나누고 ECC 입구에 마련된 테이프 커팅식을 가지며 ECC 첫 입당을 함께 축하하였다. 감격에 벅찬 마음으로 ECC에 첫발을 디딘 교우들은 어린이 채플에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렸다. 특히 이날 참석한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특별순

서를 가지며 함께 기도하며 기쁨과 감격의 시간을 가졌다. 2년 반 동안의 건축 진행사항과 비전을 보여 주는 슬라이드 쇼가 있었고, 이영길 목사의 짧은 설교(‘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후 모든 참석자들이 함께 가족, 환자, 그리고 이웃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의 마지막은 작은 음악회로 마무리 되었는데, 현악 4중주와 함께 소프라노 조유미의 아름다운 선율은 모든 참석자 마음에 감동을 더하였다. 새롭게 지어진 아름다운 성전 ECC 채플에서 처음 드린 예배와 찬양은 참석한 모든 교우들과 어린이들의 마음에 벅찬 감동과 감사를 안겼다.

### ■ ECC 봉헌 및 교회 창립 57주년 기념예배

2003년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희년사업의 하나로 추진되었던 ECC 건축공사는 2010년 6월에 건물이 완공되면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 해 9월 입주허가서(Certificate of Occupancy)를 받음으로



ECC 봉헌예배 2010

써 7년간의 긴 ECC 건축 여정은 마무리 되었다. 두 달 후인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에 보스턴한인교회는 창립 57주년을 기념하며 ECC를 봉헌하는 예배를 드렸다. 길고 고되었던 건축 여정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은혜에 감사하며 400여 명의 교인과 축하객들이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1, 2부 연합찬양대(지휘 변화경 장로, 반주 손민수)의 ‘우리 교회’(There’s a Church in the Village) 입례송으로 시작되었다. Rev. Wayne Parrish(보스턴노회 총무)의 예배에의 부름이 있었고, 첫 희년 신앙고백을 교독한 후, 김학수 목사(뉴잉글랜드 한인교회 협의회장)가 개회 기도를 하였다. 성경봉독은 베다니장로교회 Catherine

Ham 장로(마 12: 38-50)와 부부청년부 회장 정광근 집사(엡 2:1-10)가 했고, Dr. Rev. Preston Williams(하버드신학대학 원로교수)의 “신앙과 공동체(Faith and Community)”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이어진 찬양대의 찬양곡 “축복”은 ECC 현당의 기쁨과 감격을 더욱 고조시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 교인들의 아멘의 외침이 성전 안을 가득 메웠다. 이어서 ECC 건축위원회 위원장(한승희 장로)의 ECC 건축 경과 보고가 있었고, ECC 건축을 위해 수고한 Brian Healey(BHA), 지윤구 장로(강석건설회사), Richard Marks (Daedalus Projects, Inc.)에게 각각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이후, Nancy Dalsy(Brookline Selectwoman), 김주석 보스턴 총영사, 그리고 김선배 목사(총회 한미노회)의 축사가 있었다. 당회서기(김문소 장로)가 교회를 대표해 인사와 광고를 한 후, 브루클라인 제일장로교회 Rev. Alison Moore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새로 지어진 ECC의 주인인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은 ECC 봉헌예배를 위해 감사의 모습을 담은 찬양 동영상을 만들어 보여 주었고, 예배를 함께 나누며 감동을 더하였다. 동영상과 함께 이날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ECC 어린이 채플과 중고등부 예배실을 실시간으로 연결 실황을 보여 준 것이다. ECC 어린이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찬양과 중고등부 학생들의 예배 실황을 함께 듣고 보는 것은 모두에게 성전 건축의 벅찬 감동과 기쁨을 더하였다.

예배가 끝난 후 ECC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보스턴한인교회 집사들로 구성된 안내팀이 총 책임을 맡아 ECC tour를 진행했고, 에스더/마리아 두 여성교회가 정성껏 만찬을 준비했으며, 손님들에게는 특별히 기념선물(성전 봉헌을 기념하는 교회의 모습과 ECC 건축 과정을 담은 DVD와 휴대용 Blanket)이 증정되었다. 특별히 새로 넓혀진 교회 입구의 로비와 Parlor, Community Center 안의 벽면에는 Brookline First Light Festival 때 전시되었던 그림들과 예술 작품들이 함께 전시되어 ECC tour에 운치를 더하였다. 이날 많은 사람들과 기관, 교회 등이 축하 편지와 화환,<sup>1</sup> 축하 헌금 등을 보내 ECC 완공을 함께 축하해주었고, 보스턴한인교회는 특별히 ECC 건축을 성금으로 도와준 여러 기관과 교회들<sup>2</sup>에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2012년 보스턴한인교회는 예술전시팀을 구성하여 교회 내의 예술작품 전시를 담당하게 하였다.

- 예술 전시팀: 김희정, 배광현/정유미, 신광성, 심기선, 이경자, 이원걸/전신애, 한문수

### ■ ECC 머릿돌 현판 설치와 타임캡슐 봉입

2012년 4월 교회 현관 앞 오른쪽에 새로 설치된 장애인 출입 통로 콘크리트 벽면에 ECC 머릿돌에 해당하는 첫 희년 ECC 현당 기념 현판을 설치하면서, 현판 뒤로 보스턴한인교회의 타임캡슐을 봉입하였다(2012. 4. 28). 제 2의 희년인 2053년에 공개될 이 타임캡슐은 기념현판과 거의 같은 크기의 납작한 노란 철제 케이스로 그 안에는 보스턴한인교회 첫 희년의 역사적 자료와 ECC 건축과 봉헌에 관한 제반 자료들이 봉입되어 있다. 검은 대리석으로 된 ECC 현당 기념 현판에는 “First Jubilee Commemoration 1953-2003”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 그 밑으로 “For it is a jubilee; It shall be holy to you” (Lev. 25:12)의 성경구절이 새겨져 있다. 현판의 맨 밑에는 ECC 봉헌예배가 있었던 2010년 11월 21일을 새겨 넣었다(Education & Community Center Dedicated on November 21, 2010).



Jubilee Time Capsule 봉입 (2012. 04)

### ■ ECC 건축의 의미와 매일기도문

ECC 건축은 희년 기념 프로젝트로 시작해서 완공까지 7년이 걸렸고, 실제 시공 2년 반, 세 번에 걸친 모금운동, 420만 불의 건축비 등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공사였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옛 교우를 포함한 전교인과 보스턴한인교회를 돕는 많은 이웃들, 그리고, 여러 건축 관계자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 우리의 귀한 역사이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또 하나의 크신 섭리이다. 주일학교 어린이로부터 65세가 넘는 상록회 회원에 이르기까지 전교인이 하나 되어 쉬지 않고 기도하고 헌

1. 보스턴서부장로교회, 뉴잉글랜드 한인미국시민협회, 올버니한인장로교회, 맨체스터한인크리스찬교회, 퀸지영생장로교회, 뉴잉글랜드 한인교회협의회,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뉴잉글랜드 교역자협의회, 보스턴장로교회, 강석건축, 연변희망촌 이윤식 회장, 보스턴온누리교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북부보스턴연합감리교회, 케임브리지한인교회, 보스턴한인감리교회, 미국 장로교단 총회 이은주 목사 등.  
2. The Gilchrist Fund, 브루클라인제일장로교회, 뉴저지찬양교회, 보스턴노회, 퀸지영생장로교회, Bethany Presbyterian Church.

신하였기에 가능한 주님의 축복의 열매였다. 또한 PC(USA) 총회, 대회, 노회, 브루클라인제일장로교회 등을 비롯하여 많은 미국인 교회들과 교인들, 지역 및 교파를 초월한 많은 한인교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ECC 건물은 보스톤한인교회에게 단순한 예배장소의 의미를 넘어선다. 보스톤한인교회의 비전과 연결된 주님의 사역을 위한 공간이자 추상적이던 사역의 형태가 좀더 창조적이고 구체화되는 데 디딤

돌 역할을 해내는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물리적 장소이다. ECC를 통해 보스톤한인교회는 3세대가 함께 호흡하는 공간을 나눌 것이고, 이곳에서 세계를 품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것이며, 지역 사회의 중심으로 우뚝 서서 이웃과 우리의 문화와 사랑을 나눌 것이다. ECC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전세계에 실현되도록, 제2의 희년에는 주님의 사역에 더 크게 쓰임 받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현재 ECC는 교회 내의 교육사역은 물론 이웃교회와 지역사회에 그 문을 개방하여 공유함으로 보스톤한인교회 비전 성취에 일익을 잘 감당하고 있다.

여기 건축모금위원회에서 준비했던 매일 기도문으로 ECC 건축사역의 기록을 끝맺는다.



완공된 본당과 ECC 건물 외관(Holden St. 쪽) (2010)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특별한 뜻 안에서 우리를 이 곳 미국 땅 보스톤에 살게 하시며 주님을 믿는 순례자들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삼세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희년을 맞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어린이 예배실과 교육관(ECC)을 건축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찍이 솔로몬에게 “여호와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라” 하시고 선지자 학개에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고 하신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고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건축을 시작한 이래 저희에게 이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체감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건축을 놓고 모든 교인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빛과 소금이 되는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여 이 지역 보스톤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주춧돌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육관 건축 사업을 미쁘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도와 사랑의 끈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이 건축을 위하여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성령의 한없이 깊은 역사를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건축하는 동안 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부족한 건축자금이 속히 모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인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사랑과 기쁨, 그리고 협력을 아끼지 않는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건축을 통하여 성도들의 심령과 우리 공동체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믿음의 성전도 이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 명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 제 9 장

# 제2의 희년을 향한 보스톤한인교회의 첫 희년 신앙고백서와 비전 선언

The KCB's First Jubilee Confession of Faith and the Vision Statement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희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 보스톤한인교회 창립 60주년에 읽는 첫 희년 신앙고백서 중에서



## 첫 희년 신앙고백서와 비전 선언 개관

보스톤한인교회는 2003년에 창립 50주년, 첫 희년을 맞아 온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드리며 여러 가지 기념행사를 가졌다. 특별히 성서적인 첫 희년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 11명의 교역자와 교인 대표들을 통해 이민교회 순례자들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며 '첫 희년 신앙고백서'를 만들었다. 이어 2004년에는 '보스톤한인교회 제2의 희년을 향한 비전선언문'을 만들어 채택하였다. 이 두 문서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생활 40년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한가운데 세운 12개의 돌단 같은 보스톤한인교회의 역사에 남을 2개의 기념비적 돌단이다. 제2의 희년을 향한 네 가지 비전은 3세대가 함께 배우며, 세계 선교를 향해 나아가며, 한민족 문화를 이어가며,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교회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첫 희년 신앙고백서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10년이 지나 60주년을 맞은 현재에도 이 두 기념비적 신앙고백서와 비전선언문은 보스톤한인교회의 순례자들의 이정표로서 변함이 없고, 제2의 희년까지의 항로를 비추는 등대의 역할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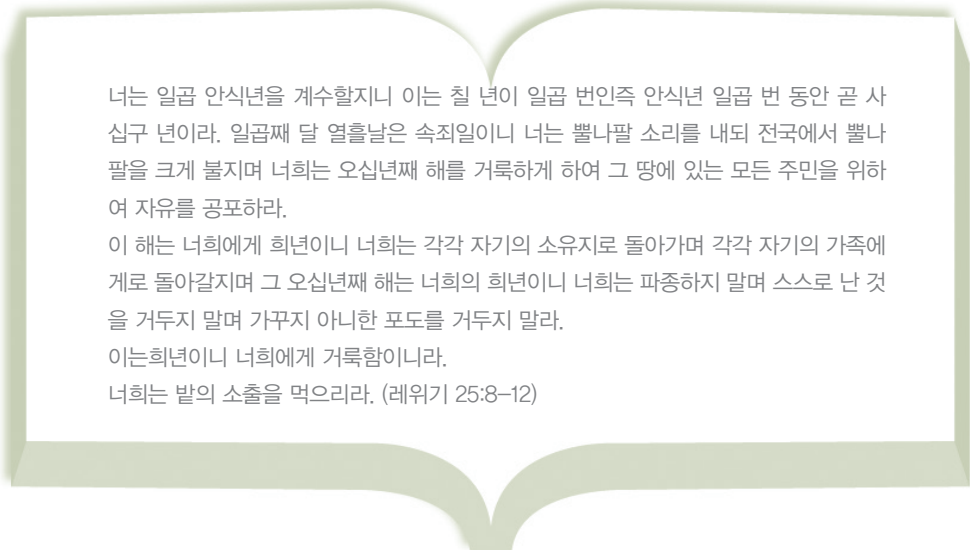
## The KCB's First Jubilee Confession of Faith and the Vision Statement

The Korean Church of Boston (KCB) celebrated the 50th anniversary(1st Jubilee) of its founding through many special commemorating events in 2003. To delineate the special, biblical significance of its 1st Jubilee, the church commissioned an eleven-member group representing the pastoral staff and the congregation to write "the KCB's First Jubilee Confession of Faith" based on the faith journey of the Korean pilgrims of KCB. The "KCB's Vision Statement Looking Towards the 2nd Jubilee" was also prepared and adopted in 2004. These two documents are the KCB's commemorating "stones" such as the "12 memorial stones" of the Israelites placed in the middle of the Jordan River before they entered the Promised Land after 40 years in the wilderness. The KCB's vision statement looking towards the 2nd Jubilee proclaims four goals to: A Church whose three generations are learning together, a Church that spreads the Gospel to the World, a Church that continues the Korean cultural heritage, and a Church that builds and practices God's love and righteousness on earth. These four visions are well described and connected to the KCB's First Jubilee Confession of Faith.

As we celebrate the 60th anniversary, ten years after the 1st Jubilee, the commemorative KCB's "First Jubilee Confession of Faith" and the "Vision Statement Looking Towards the 2nd Jubilee" still remain as the milestones for the Korean Church of Boston, and will continue to shine as the beacon for the KCB pilgrims sailing towards the 2nd Jubilee.

### 이 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2003년은 보스턴한인교회가 첫 희년을 맞는 해였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한 희년의 크신 축복에 감격하며 전교인은 물론 많은 옛 교우들이 희년의 기쁨에 동참하였다. 하나님께서 주신 희년의 뜻을 새기며 감사하는 축하의 한 해를 보내는 동안 이영길 목사는 5번에 걸쳐 희년의 메시지<sup>1</sup>로 이민교회에 주어진 희년의 뜻을 전달하였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칠 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사십구 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오십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오십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레위기 25:8-12)

희년을 맞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룩합니다.  
 세상의 불의에 예민해집시다.  
 그리고 작은 일부터 시작합시다.  
 공의를 위해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거룩한 어머니 교회'의 한 작은 교회가 됩시다.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의 봉사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대저 나 여호와와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 이영길 목사의 설교 '새 노래를 부르라' 중에서 —  
 THE KOREAN CHURCH OF BOSTON

1. 땅을 쉬게 하리라(레 25:1-12), 용서하라 (레 25:23-28), 자유를 선포하라(레 25:9-10, 39-41; 사 61:1-2), 정의의 나라를 이룩하라(사 61:3-9), 새 노래를 부르라(사 61:10-11).

유년초등주일학교의 설교나 성경공부 역시 희년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었는데, 당시 4학년 학생이었던 김서영의 희년시는 희년의 뜻과 기쁨을 간결하면서도 아름답게 담아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sup>2</sup>

김서영  
 (유년초등주일학교, 4학년)

Jubilee, Jubilee, Jubilee!  
 The fiftieth year – a special year.  
 Full of gladness, joy, and glee.  
 Blow a male sheep's horn to announce it.

Declare freedom for everyone.  
 God is so brilliant to think of this.  
 He is superb, He is number one!  
 A great year, a magnificent year.

People go back to their own houses and land.  
 God helps everybody, especially the poor.  
 Isn't it splendid, isn't it grand?  
 How gracious and fantastic God is!

A wonderful time to celebrate!  
 What happens every fiftieth year?  
 Jubilee, Jubilee – it is great!  
 Jubilee, Jubilee, Jubilee!

보스턴한인교회의 희년 기념행사는 4월에 열린 첫 희년 제직 수련회를 시작으로 5월에는 희년 기념 이웃 초청 한국문화축제 '아리랑'으로 400여 명의 이웃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을 가졌고, 8월에는 옛 교우들을 초청하여 전교인 여름수양회를 함께 가졌다(Pilgrim Pines Conference Center, NH). 10월에는 첫 희년 심포지엄이 3일 동안 개최되었고, 11월에는 '환희와 감사'라는 주제로 "Jubilee Year: Jubilation & Thanksgiving" 축제가 열렸으며, 11월 초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옛 교우 70여 명이 서울에서 모여 교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만찬과 친교 및 희년 모금을 하는 자리가 있었다. 창립기념주일 전날에는 전야제 행사로 첫 희년 이웃 초청 음악회가 있었고, 창립기념주일 당일인 11월 23일에는 창립 50주년 희년 기념 예배가 있었는데, 많은 외부 인사들과 옛 교우들의 참석으로 그 의미가 한층 빛났고 많은 축복과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다.

각자의 소유지와 가족에게 돌아가 파종하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는 희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동시에 희년의 자유를 공포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한 해였다. 첫 희년의 축복은 제2의 희년을 향한 우리의 비전을 열기 위한 교육관 건축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2010년 완공된 교육관을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축복으로 나타났다. 50년간의 순례자들의 여정을 돌아보며 고백한 '첫 희년 신앙고백서'(2003)와 '보스턴한인교회 제2의 희년을 향한 비전선언문'(2004)은 광야생활을 끝낸 이민교회가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며 쌓은 기념비적 돌단이였다. 10년이 지나 60주년을 맞은 현재에도 이 두 기념비적 신앙고백서와 비전선언문은 보스턴한인교회의 순례자들의 이정표로서 변함이 없고, 제2의 희년까지의 항로를 비추는 등대의 역할을 할 것이다.

### 첫 희년 신앙고백서가 나오기까지

2003년 희년 축하 첫 행사인 4월 제직수련회에서, 강사 옥성득 목사는 교회사의 관점에서 "한국 교회사에 비친 희년"이란 주제 발표를 하였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첫 희년(50주년) 혹은 제2희년(100주년)을 축하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은 많이 하지만,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고백서"가 결여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영길 목사는 2003년 7월 당회에서 "보스턴한인교회의 첫 희년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것을 제안하였고, 당회에서는 이를 위해 첫 희년 신앙고백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창립 기념 예배인 11월 23일까지 만들도록 위촉하였다. 교회 전반에 걸친 신앙고백을 수렴하기 위해 각 부서를

2. 보스턴한인교회, 필그림, 2003.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되었는데, 이영길 목사, 조준호 당회서기, 김문소 희년행사위원장, 김형곤 목사(청년부), 장양술 집사(집사회장), 신영각 집사(상록회장), 진동호 집사(은혜마을), 김경애 권사(권사회), 안성완 집사(신임 안수집사), 배요한 목사(부부청년부), 윤경문 전도사(행정) 등 모두 11명이 신앙고백서 작성에 참여하였다.

이영길 목사는 보스톤한인교회의 첫 희년 신앙고백서를 만들기에 앞서 7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1. 감사, 회개, 결단, 찬양(송영)을 포함할 것.
2. 미국장로교의 간추린 신앙고백서와 같이 간결한 문장으로 작성,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독문 1, 2, 3편에 이어 제4편의 교독문으로 예배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할 것.
3. 교회 내 각 부서가 참여하고 그 뜻이 반영될 것.
4. 우리 교회 고유의 독특한 신앙고백이어야 할 것.
5. 우리의 정체성으로 피난민이 아닌 순례자의 교회/이민 교회임을 밝힐 것.
6. 소수민족 교회로서 이웃과 대화하는 교회 상을 그릴 것.
7. 삼위일체 하나님이 포함된 독립된 신앙고백서일 것.

이러한 고백서 만들기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영각 집사가 초안을 마련하였고, 초안을 중심으로 8월부터 11월 초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토의와 검토를 위한 모임을 가졌다. 각 부서별로도 신앙고백서를 제출하여 상록기도회(김갑성 장로 작성), 청년부, 그리고 2003년 신임 안수집사들의 신앙고백도 받아들여, 마지막 고백서를 만드는 데 반영시킴은 물론 영어예배 그룹, 지역사회와의 관계, 미래를 향한 우리의 모습도 반영하게 되었다. 완성된 신앙고백서는 11월 9일 당회에서 확정되었고, 50주년 창립기념예배 때 첫 희년 신앙고백서를 모두가 함께 감격스럽게 교독할 수 있었다. 신앙고백서의 영어 version은 베다니장로교회의 John Chung 담임목사가 최초 번역을 하였고, 60주년 역사편찬위원회에서 전체 흐름을 맞추기 위해 다시 수정하였다.

보스톤한인교회의 희년 신앙고백서는 희년 이후 10년 동안 주일 예배 시에 미국장로교 신앙고백서와 함께 교독문으로 사용되어 왔다. 2013년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면서, 당회는 희년 신앙고백서가 그 내용에 있어서 큰 변동 없이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수 있는 고백서로 인정하였다. 단지 60주년을 맞으면서 그 동안 변한 역사와 사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sup>3</sup> 이를 공식적으로 “보스톤한인교회 창립 60주년에 읽는 첫 희년 신앙고백서”로 결정하였다. 개정된 신앙고백서는 창립 60주년 기념예배시 신앙고백으로 사용되었고, 현재 주일 예배 시에 교독문으로 사용되고 있다.

### 보스톤한인교회(미국장로교) 첫 희년 신앙고백서

- 집례: 1. 우리는 한반도의 배달민족으로 미국 땅 보스톤에 옮겨 심어진 그리스도를 믿는 순례자들의 교회입니다.
- 회중: 2. 아울러 잠시 스쳐가는 이들의 영혼의 쉼터이기도 합니다.
- 집례: 3.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희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 회중: 4. 지난 50년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며,  
5.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6. 소수 민족의 서러움과 순례자의 아픔을 위로하시며,  
7. 우리로 하여금 이 땅과 중국 연변, 페루, 니카라과 등지 여러 다른 나라에 선교케 하시고  
8. 가까운 이웃들과 문화 교류를 통한 나눔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 집례: 9. 예수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을 보여 주셨지만,  
회중: 10. 우리는 세상의 물질과 명예에 눈이 가리워 그 길을 외면하기 일쑤였으며,  
11. 가정 안에서 화합하지 못했고,  
12.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으로 하나 되지 못했으며,  
13. 소외되고 아픔 있는 형제, 자매들을 잘 돌보지 못했고,  
14. 남과 북으로 갈린 조국을 위한 기도마저도 형식적이었으며,  
15. 세계 정의와 평화를 위한 노력도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 집례: 16. 이제는, 늘 새롭게 하시는 성령께서  
회중: 17.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18. 전통 속에 묵인 오류를 떨쳐 버리고,  
19. 이 땅에서 자라나는 영어세대와 더불어  
20. 희년의 자유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21. 새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 집례: 22. 자녀는 예언을 하며,  
23.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24. 늙은이는 꿈을 꾸며,  
25. 온 교우가 함께  
26. 빛과 소금이 되어  
27.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 회중: 28. 진리의 말씀이 땅끝까지 선포되며,  
29. 인종과 문화의 벽을 넘어 이웃을 사랑하고,  
30. 물질만능주의로 만연된 사회악과 싸우며,  
31.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보전케 하십니다.
- 다함께: 32. 이 믿음 위에 다져진 예수의 사랑을 옷 입고,  
33. 영원한 본향을 향한 순례자로서,  
34. 다음 희년을 엮는 일에 열심히 살 것입니다.  
35.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3. 고백서 4번의 50년을 '60년'으로 바꾸고, 7번의 선교지에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을 추가함.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resbyterian Church(U.S.A.)  
First Jubilee Confession of Faith

- Leader: 1. We are the church of Christian pilgrims from Korea who have established new roots in the United States,
- People: 2. And also a spiritual oasis for the sojourners who pass through here,
- Leader: 3. God has blessed and granted us our first Jubilee,
- People: 4. He has watched over us for the last 50 years,  
5. forgiven our fault  
6. consoled our souls from the woes of being a minority and the sufferings from our pilgrimage  
7. allowed us to share His love through miss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abroad in Yanbian in China, Peru, and Nicaragua,  
8. and allowed us to have a true fellowship with our neighbors through mutual sharing of our cultures,
- Leader: 9. Even though Jesus showed us the way to become the children of God through His cross,
- People: 10. we have neglected to follow Jesus in the way of the cross because of our greed for earthly honors and money,  
11. have not always been harmonious in our families,  
12. failed to unite as one church community because of our selfish conflicts,  
13. neglected to care for our brothers and sisters in loneliness and in pain,  
14. continued superficial prayers for our divided homeland,  
15. have fallen short in our efforts to bring the justice and peace in this world,
- Leader: 16. Now, the Holy Spirit who renews us constantly,
- People: 17. reconciles and makes us one in Christ,  
18. leads us to cast away the fallacies bound by our traditions,  
19. keeps us in mutual relationship with the generation born in the US,  
20. leads us to fulfill the freedom and justice of jubilee together,  
21. and keeps our church continuously renewed,
- Leader: 22. the children shall prophesy,  
23. the young shall see visions,  
24. the old shall dream dreams,  
25. We all shall be one,  
26. being light and salt of the world  
27. building the Kingdom of God together,
- People: 28. We shall proclaim the Word of Truth to the ends of the world,  
29. love our neighbors breaking the walls of racial and cultural differences,  
30. stand against the social evils and materialism,  
31. and protect and preserve the God's creations,
- All: 32. Clothed in the love of Jesus Christ, strengthened by faith in Him,  
33. as pilgrims longing for the eternal home,  
34. we shall continue our journey towards our next Jubilee,  
35. Glory be to the Father and to the Son, and to the Holy Spirit. Amen,

### ■ 제2의 희년을 향한 비전선언문 채택 2004

보스턴한인교회는 희년 이듬해 2004년에 첫 희년을 지낸 순례자들의 교회의 관점에서 모든 교인들이 쉽고 분명하게 교회의 나아갈 바를 이해하도록 '제2의 희년을 향한 비전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비전선언문은 네 가지 초점에 맞춰 제시되고 있는데, 네 가지 비전으로는 3세대, 세계 선교, 한민족 문화, 사랑과 정의로, 이는 이미 2013년에 채택된 첫 희년 신앙고백서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2003년 11월 23일 첫 희년 기념예배 때 교독한 "보스턴 한인교회 첫 희년 신앙고백서"에 이어 2004년에 미래를 향한 '제2의 희년을 향한 비전선언문'을 위해 교회 전체를 대표한 준비위원들(이영길 담임목사, 김형곤 목사, 배요한 목사, 윤경문 전도사, 신영각 집사, 안성완 집사, 김경애 권사, 조준호 장로, 김문소 장로)이 9월부터 11월까지 다섯 차례의 모임을 통해 만들었다. 완성된 '제2의 희년을 향한 비전선언문'은 11월 14일(주일) 당회에 제출되어 채택되었고, 2004년 11월 21일 교회 창립 51주년-제 2의 희년 첫 해 기념예배 때 감격적으로 낭독하게 되었다.

비전 선언문을 만드는 원칙은 아래 6가지로 제시되었다.

1. 한인교회의 모델을 세워가는 교회로
2.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로
3. 사회 정의와 세계를 향한 교회로
4. 우리 교회의 고유한 뜻이 포함되며
5. 각 부서의 활동이 함축되며
6. 새 교우와 처음 믿는 분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내용일 것

이러한 원칙에 의하여 신영각 집사가 초안을 준비한 후, 각 위원들이 소속된 교회 부서의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 토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초점에 맞춘 선언문을 완성하였다.

- 3세대가 함께 배우는 교회
- 세계를 향한 교회
- 한민족의 문화를 이어가는 교회
- 사랑으로 정의를 이 땅에 세워가는 교회

### 보스턴한인교회 제2의 희년을 향한 비전선언문

우리 보스턴한인교회는 1953년에 보스턴 지역에 세워진 한인 이민교회로서 2003년에 50주년 첫 희년을 지낸 순례자들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나날이 새로워지는 것을 추구하며 다음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제2의 희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2004년 11월 21일

#### 3세대가 함께 배우는 교회

자라나는 2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양육하며, 청·장년과 노년 모두가 말씀으로 계속 새로워지는 가운데 3세대 모두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풍성하고 균형 잡힌 영적 성장을 위하여 온 세대가 함께 어울려 사랑과 이해, 권면과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함께 배워가는 교회입니다.

#### 세계를 향한 교회

우리는 모두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고백하며, 교역자와 평신도가 하나되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사와 재능, 시간과 물질들을 기꺼이 드려 주님의 선교 사역을 펼쳐가는 교회입니다. 소속 교단인 미국장로교(PCUSA)와 협력하여 우리가 속한 지역 사회, 미국, 한국, 세계 속의 한민족과 타민족을 향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 한민족의 문화를 이어가는 교회

우리는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문화와 고유한 정체성을 재발견하고, 한민족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음 세대와 다른 민족들에게 나누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문화를 소개하고, 우리의 고유함을 드러냄으로써 이 땅에서 한국인의 긍지를 지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 사랑으로 정의를 이 땅에 세워가는 교회

우리는 불의와 편견으로 막힌 장벽들을 사랑과 인내로 허물고, 그리스도의 정의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치유하며, 불의한 사회 구조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정의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 The Korean Church of Boston The Vision Statement Looking towards the 2<sup>nd</sup> Jubilee

The Korean Church of Boston(KCB) is a Korean immigrant church founded in 1953 in Boston, MA. KCB, a church for Korean Christian pilgrims, celebrated the 50<sup>th</sup> anniversary, its 1<sup>st</sup> Jubilee, in 2003. KCB, standing on a firm foundation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pursues continuous renewal and looks towards its 2<sup>nd</sup> Jubilee with the following visions. November 21, 2004

#### A Church whose 3 generations are learning together

We shall be a church that teaches and nurtures our children in the Gospel of Jesus Christ, and a church where all the church members, from toddlers to elderly, desire to be renewed in the Word of God and to build a community of love. We shall be a church where all generations learn and grow with each other. Through the richness of this community and being grounded in spiritual maturity as one body, we seek to live in the love of Jesus Christ being grounded in the truth of his word, learning from one another through love, understanding, encouragement, and prayer.

#### A Church that spreads the Gospel to the World

We confess that we are called for the work of our Lord. We shall be a church where the pastoral staff and the lay members, as one, come together for the work of God's mission, offering our gifts, talents, time, and resources that God has provided us. In partnership with the Presbyterian Church (USA), we shall be a church to witness Christ to our local community, the United States, Korea, and Korean communities and other people around the world.

#### A Church that continues the Korean cultural heritage

We shall be a church that rediscovers our beautiful Korean cultures and unique identity; and a church that shares God's blessings with our next generations and other people, which have been bestowed upon the Korean people. We shall be a church whose members hope to live in the United States as confident Christians by disclosing our uniqueness and sharing our culture with our neighbors.

#### A Church that builds and practices God's love and righteousness on earth

We shall be a church that strives to break down the walls of injustice and prejudices through love and patience, and a church that practices the righteousness of Jesus Christ in our daily lives. We shall be a church whose members build a harmonizing world by consoling and healing the wounded through the love of Jesus Christ and transforming the unjust societies into a beautiful and righteous one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 부록과 편찬후기

Appendices and Epilogue

- 가. 보스톤한인교회 약사 1953. 11-2014. 06 / 492
- 나. 보스톤한인교회 헌장(1972)과 규칙 7차 개정판(2015) / 516
- 다. 역대 교역자 명단과 사역 / 524
- 라. 역대 당회원 명단 / 526
- 마. 세례, 입교, 유아세례, 견신자 명단 / 528
- 바. 출석 및 활동교인 통계 / 531
- 사. 수입, 지출 및 사역별 지출 통계 / 533

편찬후기 / 535

## 가. 보스톤한인교회 역사 1953. 11-2014. 6

▼ 1953년	<b>보스톤한인교회 창립</b>
1953. 11. 22.	추수감사주일에 보스턴대학교의 Marsh Chapel 아래층에 있는 Robinson Chapel에서 창립예배 드림. 초대목사 박대선 목사. 창립위원: 김성하, 박관두, 박대선, 박돈욱, 서두수, 안승화 장로, 이동일, 조자룡, 추애경. 참석 인원 약 40명. 1959년까지 월 1회 예배드림.
▼ 1954년	
1954. 11. 21.	추수감사주일에 교회 창립 1주년 기념예배를 김태술/추애경 자택(Watertown, MA)에서 드림.
▼ 1955년	
1955. 3.	3.1절 기념예배를 보스턴대학교의 Marsh Chapel에서 100여 명의 한인들이 모여 박대선 목사 인도로 드림.
1955. 6.	박대선 초대목사 귀국. 8월부터 박봉량 목사가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1956년 12월까지 시무.
1955. 8. 14.	광복절 기념예배를 보스톤한인교회, 보스톤한인회, 한인학생회가 같이 케임브리지제일교회(The First Congregational Church, Cambridge, MA)에서 드림. 하반기에 예배 장소를 케임브리지제일교회로 이전.
▼ 1957년	
1957. 1.	한승호, 조찬선, 김용식 세 명의 목사가 공동 사역(1957. 1-1959. 12). 예배 장소를 Copley Methodist Church (Newbury at Exeter Street)로 이전.
▼ 1958년	
1958. 1.	예배장소를 창립예배를 드린 Marsh Chapel로 옮겨 예배를 드림.
▼ 1960년	
1960. 1. 2.	최초로 임원회를 조직. 김용식 담임목사, 시책(施策)위원: 고헌림, 김광원, 김술근, 김용식, 박돈욱, Mrs. 박, 최기일, 추애경(Mrs. Homer Kim), 총무 김성하, 서기 이동춘, 함성국, 회계 박준영, 음악 김민수, 박봉배, 최덕실, 친목 및 안내 강대훈, Mrs. 박, 이순우, 정재식, 조요한, 조해형, 홍사은.
▼ 1961년	
1961. 12.	김용식 목사 사임.
▼ 1962년	
1962. 3.	이계준, 이상현, 함성국 세 명의 목사가 공동 목회.
▼ 1963년	
1963. 4.	매월 Marsh Chapel에서 둘째, 넷째 주일 오후 2:30에 예배.
1963. 6. 9.	이계준 목사 마지막 설교 후 귀국.
1963. 8. 25.	함성국 목사가 담임하는 Abington Methodist Church(Abington, MA)에서 예배와 유아세례식을 가짐.
1963. 9.	함성국 담임목사 시무 시작. 보스톤한인교회 신학기 새 임원회 구성, 교회 일 년 총 예산 \$900.
1963. 11. 24.	교회 창립 10주년 기념예배, 설교 Rev. Dr. Walter G. Muelder(BU 신학대학장) 제목 ‘Tomorrow’s Mission Today’(엡 2:11-22), 특별찬송 옥인걸.
▼ 1964년	
1964.	안상엽 담임목사. 유시욱, 이상현, 신성국, 함성국 목사가 설교 협조.
1964. 2. 23.	예배 통지서를 매월 한 번 발행하고, 주소록 발행. 매월 첫째와 셋째 금요일에 토론회를 가짐.
1964. 10.	매주 예배를 드림.
1964.	보스톤한인교회 헌장 초안을 임원회에서 검토하여 11월 8일 공동회에서 통과, 현장기초위원 안상엽 목사, 이상현 목사, 이종진, 한사숙.

▼ 1965년	
1965. 3. 7.	최초로 유년주일학교 개교, 교사진 김승희, 이규원, 이인숙, 한사숙(nursery). 장소 보스턴대학교 신학대학 Lounge.
1965. 5. 2.	정기공동회에서 헌장 수정. 임원회 안상엽 담임목사, 서기 김장환, 부서기 이인숙, 종교교육부 이상현, 회우부 이태섭, 회계 한사숙, 음악부 옥인걸.
1965. 6. 13.	여름 동안 유시욱, 이상현, 최창욱 목사 세 명이 목회를 맡다가 가을학기 시작 후 이상현 목사가 전적으로 맡음.
1965. 8. 1.	설교 이영식 목사. 한국 수재민 구호금(\$68.70)을 동아일보사로 보냄.
▼ 1966년	
1966. 1.	성탄절 특별헌금 전액(\$51.50)을 한국맹인복지사업회로 보냄, 2월에 복지사업회로부터 감사 편지를 받음.
1966. 4.	보스톤한인교회 소식 1호 발행. 1966. 8. 1권 4호까지 발행. 편집위원 안상엽 목사, 이상현 목사, 고인호, 김장환.
1966. 4. 3.	여전도회 창립 총회(자격 18세 이상)
1966. 5. 22.	안상엽 담임목사 사임, 9월에 워싱턴한인장로교회 2대 담임목사로 부임.
1966. 7. 3.	설교 이상현 목사. 김동길씨 최초로 성전 건축을 위해 헌금 \$10, 김옥길 총장 건축 헌금 \$25, 안창수 건축 헌금 \$10, 건축 모금 활성화.
1966. 9. 11.	The Korean Christian Church of Boston(KCCB)이라는 명칭이 주보에 공식 표기됨.
1966. 11. 28.	The Korean Christian Church of Boston이라는 이름으로 MA 주정부에 비영리단체로 등록.
1966. 12. 13.	함성국 목사가 부목사로 시무하는 East Greenwich First Methodist Church(East Greenwich, RI) 에서 본 교회가 ‘한국의 밤’ 행사 개최, 30여명 참여.
▼ 1967년	
1967. 4. 20.	교회건축기금 모금 시작, 위원장 김광원 목사. \$2,021 예금, 약정 헌금 \$2,037.
1967. 7. 9.	이상호 목사를 부목사로 청빙하기로 직원회에서 결정.
1967. 9. 10.	Robinson Chapel에서 마지막 예배 드림, 김광원 담임목사, 이상호 부목사, 평신도 대표 조정현, 주악(반주) 조광희, 특별음악 김동필 등 26명 참석, 예배 후 Robinson Chapel에서 최시원/정소영 결혼식, 주례 이상호 목사.
1967. 9. 17.	예배 장소를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in Brookline으로 이전하고 첫 예배를 드림, 출석 65명, 설교 김광원 목사, 특별음악 김동필, 주악(반주) 조광희.
1967. 9. 24.	성가대 발족, 지휘 최시원, 성가대원 김경자, 김달중, 김동필, 박원기, 유의경, 이해자, 정소영. 주일학교 시작. 김대실 인도.
1967. 11. 5.	설교 유시욱 목사. 유철욱 클린톤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음.
1967. 11. 12.	이상현 목사 싸우스크라프트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고 취임식 거행
1967. 11. 26.	추수감사절 예배, 설교 이상호 목사, 축도 김광원 목사, 오후 2시 예배 후 만찬에 보스톤 지역 한인들을 초대하여 비빔밥 제공.
▼ 1968년	
1968. 4. 14.	부활절 예배, 성가대 헨델의 ‘메시아’ 연주, 지휘 옥인걸, 반주 조광희, 독창 김동필, 박봉기, 이해자, 최시원, 세례식 거행, 지역 한인들을 초대하여 한국 음식 제공. 교인들에게 개혁찬송가 한 권씩 기증(\$5)하도록 권함.
1968. 9. 8.	이상호 목사 취임예배, 사회 함성국 목사.
▼ 1969년	
1969. 1. 12.	등록교인에게 교적증 발급.
1969. 5. 4.	정기공동회 소집(임원회 의장 김장환), 69년도 신임직원 선출, 천거위원 선출, 헌장 수정 등을 논의, 장년층에서 제출한 새 헌장 통과.

1969. 5. 10.	김광원(보스톤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담임 목사 추대.
1969. 6. 1.	설교 김활란 박사 ‘조국의 복음 운동’.
1969. 7. 6.	선교사 허일재(Dr. Howard) 박사 설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1969. 7. 20.	설교 Rev. Y.F. Shih, ‘Adam, the first man on the Earth, Armstrong, the first man on the Moon’(교회문이 잠겨서 뜰에서 예배드림).
<b>▼ 1970년</b>	
1970. 2. 14.	보스톤한인교회 일부 교인이 세운 뉴잉글랜드한인감리교회와 교섭할 위원들을 이사회에서 선출, 위원 김동길, 김장환, 이영화.
1970. 5.	이사회(의장 노원찬)에서 건축위원회 구성과 건축위원회 규약 제정.
<b>▼ 1971년</b>	
1971. 6. 20.	보스톤한인교회와 뉴잉글랜드한인감리교회 합동야외예배, 사회 라영복 목사, 설교 이상호 목사.
1971. 8. 1.	뉴잉글랜드한인감리교회와 2차 합동 예배 드림(Kingston Park, Fresh Pond, Cambridge, MA).
1971. 9. 12.	보스톤한인교회와 뉴잉글랜드한인감리교회 통합 특별감사예배, 통합교회명 보스톤한인교회, 예배장소 보스톤한인교회, 담임목사 김광원 목사.
1971. 9. 26.	정기공동회에서 재정보고, 예산 \$3,660, 수입 \$3,543, 지출 \$3,418, 건축위원회 저축 및 약속금 총액 \$7,899, 권진태 목사 부목사로 인준.
1971. 10.	최초로 평신도 수양회 개최, 강사 길희성, 유철옥 목사, 최시원, 교육부 주최, Congregational Church Conference Center, Framingham, MA.
1971. 11. 7.	새 임원회 명단: 서기 김삼영, 회계 김장환, 교육부장 노정선, 교우부장 한승희, 음악부장 김석두.
1971. 11. 21.	추수감사주일 겸 권진태 담임목사 취임예배, 사회 박원기 목사, 출석 156명, 헌금 \$655.
1971. 11. 28.	여신도회 창립총회, 회장 고준기, 부회장 신남옥, 고문 김원경, 이정화.
1971. 12. 12.	교회 건축기금 모금 여신도회 첫 바자회, 수입 \$161.
<b>▼ 1972년</b>	
1972. 2.	평신도 성경공부반 개설, 최시원 주관, 길희성 인도.
1972. 2. 3.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of Christ 의 Associate Executive Director Dr. C. Hoyer와 본 교회 문제 협의.
1972. 4. 22-23.	주말수양회, 주제 ‘교회의 생명과 사명’, 교육부와 친교부 공동 주최, North Andover 감리교단 수양관 Rolling Ridge, MA.
1972. 7. 7-9.	제1회 하기수양회 개최, 강사 김영일, 노정선, 주제 ‘한인 교회의 비전’, Ossipee Lake, NH. 주일학교 및 영아부 개설.
<b>▼ 1973년</b>	
1973. 07.	하기캠프개최, 강사 송길섭, 이승운, 이진태. 주제 ‘현대 기독교인의 자세’, Ossipee Lake, NH.
1973. 11. 3-4.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예배, 설교 황재경 목사. 심포지엄 강사 이상철 목사, 주제 ‘재미 한인 교회의 Vision’, 기념음악회 개최, 장소 Marsh Chapel, 지휘 최시원, 반주 변화경.
<b>▼ 1974년</b>	
1974. 3.	권진태 담임목사 사임.
1974. 6. 16.	김갑동 담임목사 취임 예배.
1974. 10. 27.	여신도회 사업부에서 약 2년간 상담소 운영, 상담자: 김원경(가정), 이미나(소아과), 정광현(치과), 임나경(Social worker, 청소년 문제 상담).
1974. 11. 10.	교육부 학부모 교사모임(PTA), 주제 “앞으로 주일학교 교육의 방향과 아동을 위한 한글교육”

<b>▼ 1975년</b>	
1975. 3. 9.	김재준 목사(한국신학대학교 신학대 학장 역임) 설교, 예배 후 김원경(애국부인회 대표, 임시정부 국무원 참사)이 3.1 운동 당시 남편 윤정 최창식과 현순 목사의 독립선언서에 관계된 역사적인 사건을 증언함.
1975. 7. 18.	전교인 하기캠프, 강사 김갑동 목사, 주제 ‘신앙의 재발견’, Camp Calumet Lutheran Family Camping Area, Ossipee Lake, NH.
<b>▼ 1976년</b>	
1976. 2. 15.	가족 찬송가경연대회. 매일 둘째/넷째 주일예배 후 여신도들의 건강을 위해 김원경 씨와 함께 요가 및 간단한 포크댄스 연습, 여신도회 사업부 주관.
1976. 3. 12-13.	신앙강좌, 강사 함성국 목사. 주제 ‘고통의 중’ ‘구원의 역사’.
1976. 4. 4.	임시공동회를 개최하여 김갑동 목사 유임 결정.
1976. 5. 9.	어머니주일 가족 찬송가경연대회.
1976. 5. 16.	여신도회 주최 교양강좌, 강사 고평림 교수, 전혜성 박사 ‘미국에서 자녀교육’.
1976. 7. 15-18.	하기캠프, 발제 및 토의 김갑동 목사, 주제 “크리스찬의 참 길”(부제 ‘성령과 현대 기독교인’), Camp Calumet, Lake Ossipee, NH.
1976. 8.	청년부 발족
1976. 10. 10-12.	교육부 수양회 및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 강사 함성국 목사, 이규원, 김인수, 김장환, 최시원, Rolling Ridge 수양관, North Andover, MA.
1976. 12. 12.	Riverdale Congregational Church의 초대로 본 교회 성가대가 Riverdale Congregational Church 주일예배에 참석하여 찬양을 드림.
<b>▼ 1977년</b>	
1977. 1. 30.	Weymouth Methodist Church의 Ethnic Churches Union Service에 성가대가 초대받아 찬양을 드림.
1977. 3. 5.	Panel Discussion,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문제들’, 봉사부와 교육부 주관, 주제발표 전혜성 박사(사회학), 사회자 김인수 박사(경영학), 패널 강홍렬 박사(화학), 송기중 선생(언어학), 이규원 박사(아동심리학), 최영방 선생(한글학교 교사, High School Teacher), 정재항(MIT 학생).
1977. 3. 13.	성가대가 Fitchburg, MA에 있는 Faith United Parish 감리교회의 예배에 초대되어 찬양.
1977. 4. 8.	고난절 음악회(제2회 성가대 대의 음악회), 연주곡 ‘To Calvary’ by Everett Titcomb, ‘The seven last words of Christ’ by Theodore Dubois.
1977. 4.	성요한교회와 합동으로 부활절 새벽예배를 Charles 강변에서 드림.
1977. 4. 17.	First Presbyterian Church, Providence, RI의 Korean Sunday 행사에 성가대가 초대를 받고 예배시 찬양.
1977. 4.	평신도 수양회, 교육부 주관, 강사 김갑동, 유철옥 목사.
1977. 5. 8.	어머니주일 구역별 찬송가대회 및 성경퀴즈대회, 여신도회 주최.
1977. 12. 18.	김갑동 목사 사임, 송별 예배.
<b>▼ 1978년</b>	
1978. 1. 10.	임시로 노정선, 유철옥, 함성국 세명의 목사 공동 시무, (1월부터 10월까지)
1978. 3.	사경회 개최, 강사 유철옥 목사, 주제 ‘개척자의 신앙과 확신’ (3. 10), ‘미국의 선과 악’ (3. 17), ‘우리의 전통과 기독교 정신’ (3. 24).
1978. 3. 24-25.	부활절 특별수양회, 강사 함성국 목사, 김승혜 수녀, North Andover 감리교단 수양관 Rolling Ridge, MA.
1978. 4. 15.	뉴잉글랜드 지구 경로회 참석 22명, 여신도회 주최.
1978. 4. 23.	교단 가입의 장단점에 대한 공청회 개최, 강사 노정선 목사, 유철옥 목사, 함성국 목사.

1978. 5. 14.	여신도회가 주최한 어머니주일 찬송가 대회에 각 구역과 청년회, 유년부 참가. 남자 교우들이 특별 만찬 준비.
1978. 7. 16.	교역자 천거위원회에서 천거한 홍근수 목사(센트루이스한인교회) 초청 설교.
1978. 9. 24.	정기공동회에서 홍근수 목사를 담임목사로 인준하고, 회계년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
1978. 12. 17.	홍근수 담임목사 취임 및 교회 창립 25주년 기념예배, 사회 함성국 목사, 설교 박대선 목사 '교회를 교회답게', 권면 광노순 목사, 서약 김갑동 목사와 이덕희 회장.
<b>▼ 1979년</b>	
1979. 2. 13.	홍근수 목사 Brookline Clergy Association 모임에서 '해방 신학의 성서적 근거'에 관하여 발표.
1979. 6. 3.	성령강림절, 설교 김재준 목사, 주제 '그리스도인의 자유'. 청년회 특별 강연회, 강사 선우학원 (Missouri) '청년과 기독교'.
1979. 7. 15.	중고등부 신설.
1979. 7. 22.	심포지엄 개최, 강사 성갑식 목사, 프린스 박사, 홍근수 목사, 주제 '신앙, 과학, 미래', 교육부 주최.
1979. 10. 5-6.	홍근수 목사 뉴욕의 스톤포인트 센터에서 열린 미국연합장로교 동북대회 내의 인종 및 소수민족교회 지도자 연차대회에 참석.
1979. 10. 28.	교회 발전을 위한 공청회, 현장수정 손원호, 교단 가입 이덕희, 정경조, 재정/건축 김문소.
1979. 11. 4.	캄보디아 기아들을 위한 헌금.
1979. 11. 18.	추수감사절 주일 및 교회 창립 26주년 기념예배. 캄보디아 구호헌금 \$418을 기독교 세계봉사회에 보냄. '인종 화합 계약서'에 45명의 교우가 서명하여 연합장로교 총회로 보냄.
1979. 11. 25.	교단 가입에 관한 의견 조사.
1979. 12. 23.	성탄 예배. 현장수정안 통과 1) 본 교회의 신앙고백(신조) 제정 2) 장로, 집사, 권사 제도 채택.
1979. 12. 24.	미국교회인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in Brookline과 합동으로 성탄 전야 촛불 예배 드림, 설교 홍근수 목사, 두 교회 연합 성가대 찬양, 이 날 모인 특별헌금은 연합장로교 총회의 선교비로 보냄.
<b>▼ 1980년</b>	
1980. 1. 20.	<b>표어: 선교하는 교회</b> 선교사의 날, 한국 도시산업선교 현황에 관한 슬라이드 관람.
1980. 3. 16.	제직 임직 예배, 신임 장로 임직: 공병래, 김갑성, 이덕희, 장태인, 신임 집사 임직: 공병선, 김기협, 김경애, 김금하, 김문소, 김영태, 변화경, 이장규, 이일영, 장순홍, 정경조, 조준호, 최시원, 한승희.
1980. 4. 6.	제1회 한인교회 연합 부활절 새벽예배를 본 교회에서 드림, 사회 홍근수 목사, 설교 권진태 목사, 기도 라영복 목사, 축도 이상호 목사.
1980. 6. 1.	광주사태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을 추모하는 예배를 드림.
1980. 6. 5-6.	성령강림절 기념 부흥회, 강사 김병도 목사(뉴저지허드슨한미장로교회), 주제 '이 땅에서 새 삶'.
1980. 8. 31.	전교인수양회, 강사 홍근수 목사, 주제 '사랑의 공동체를', North Andover 감리교단 수양관 Rolling Ridge, MA.
1980. 10. 12.	박영희 목사(시카고한인연합장로교회) 설교 '십자가의 위력' 중국 한인 교포들의 신앙실태에 관한 slideshow.
1980. 11. 20-22.	교회 창립 27주년 기념 사경회, 강사 황재경 목사, 주제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
<b>▼ 1981년</b>	
1981. 2. 7-8.	제직수양회, 강사 노정선 목사(뉴헤이븐한인연합장로교회), 주제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제직의 목회자적 사명'.
1981. 2. 22.	홍근수 담임목사 위임식 및 장로, 권사, 집사 임직예배, 신임장로 김문소, 신임권사 성덕춘, 신임집사 김계숙, 김인실, 김희준, 박노희, 박연교, 윤석희, 이경희, 이상구, 임나경, 조요성, 진용득, 최연일, 한명덕.
1981. 2. 27.	건축 기금 마련을 위한 음악회, 출연자 변화경, 최승룡, 이창우, 이희선, 한경순, 한영혜, 황보엽, Pine Manor College, MA.

1981. 3. 21.	선교세미나, 강사 홍근수 목사, 조요성 집사, 김금하 집사, 이영경 교우, 안성국 교우. 주제 '하나님의 선교'(눅 9:1-6).
1981. 3. 29.	보스톤대학교 Robinson Chapel 에서 이화선 박사 강연, 기독교와 통일 문제, 본 교회 선교부와 보스톤대학교 아시아 학원 목회 공동 주최.
1981. 4. 17.	성금요일 기도회, 설교 김승혜 수녀(하버드대학교 철학박사, 서강대 교수), 주제 '주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1981. 5. 22-23.	여신도회 신앙수련회, 강사 김태열 여사, 주제 '교회와 여성', 성 스테반 수양관 Dover, MA.
1981. 6. 23-31.	제2회 성령강림절 기념 부흥회, 강사 박대선 목사, 주제 '신앙과 생활'.
1981. 6. 13.	여신도회 주최 경로회, 홍근수 목사 성지 순례 보고 및 slide 상영.
1981. 8. 15.	최초로 여름성경학교 실시.
1981. 8. 22.	본 교회 청년회가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in Brookline 청년회와 Anderson 공원에서 운동 경기와 피크닉 친교.
1981. 8. 28.	전교인 수양회, 강사 김정호 목사, 홍근수 목사, 주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부제 '하나님의 나라, 세계, 교회', Camp Wilmot, NH.
1981. 11. 20.	교회 창립 28주년 기념 사경회, 강사 이상현 목사(프린스턴신학대학 교수), 주제 '이민교회와 기독교 신앙'
1981. 11. 24.	고 김원경 기념 사업을 위해 유족과 김영호 교우가 본 교회에 \$2,000 헌금.
<b>▼ 1982년</b>	
1982. 2. 09.	김정호 부목사 취임
1982. 2. 12-13.	제직수양회, 강사 신성국 목사(미국연합장로교 동북지역 한인교회 담당 총무), 홍근수 목사, 주제 '평신도의 목회자적 사명' 4H 센터, Ashland, MA.
1982. 4. 24.	선교세미나, 강사 한완상 박사. 주제 '재미 한국 교회의 선교적 사명' '저 낮은 곳을 향하여'.
1982. 6. 11-13.	성령강림절 기념 부흥회, 강사 여운세 목사(워싱턴한인침례교회), 주제 '주님을 열망하는 교회'.
1982. 8. 8.	여름성경학교 실시.
1982. 9. 5.	전교인수양회, 강사 유태영 목사(브롱스한인교회), 주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케이프 코드 UCC 수양관, MA.
1982. 9. 19.	한인교회 연합 야외예배, 권진태 목사, 김영일 목사, 최양선 목사, 홍근수 목사, Hopkinton 공원, MA, 선교 구제 헌금 \$322을 한국의 수난자 가족 돕기에 보냄.
1982. 9.	홍근수 목사 아시아 학원 목회부 교목으로 취임. 매주 목요일 7시 대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1982. 9. 22.	신앙강연회, 강사 함석현 선생, 주제 '한국 민족과 한국 기독교', 평신도 연합회 주최, 장소 보스톤한인교회.
1982. 11. 12-14.	교회 창립 29주년 기념 사경회, 강사 광노순 목사(시카고대학 목회실장 및 사론감리교회), 주제 '구약성서-예수님의 뿌리'.
1982. 11. 18.	지성인을 위한 신앙강좌, 강사 광노순 목사, 주제: '기독교 학생운동의 성서적 근거', '시간에 대한 질문', '공간에 대한 회의'.
<b>▼ 1983년</b>	
1983. 1. 30.	제직 임직 예배, 신임 장로 임직: 이일영, 한승희, 신임 집사 임직: 강성유, 김동윤, 김성빈, 김창신, 김현, 박상근, 백린, 백승민, 백은숙, 정용기, 최혜복.
1983. 2. 2.	첫 수요일부터 수요일신학강좌 시작, 담당 김정호 목사.
1983. 2. 11.	제직수양회, 강사 이상철 목사(토론토한인연합교회), 주제 '팀목회', Andover Newton 신학교, MA.
1983. 2. 15.	홍근수 목사 학업을 위해 휴무.

1983. 4. 23.	선교세미나, 강사 김난원 전도사(뉴욕맨하탄제일교회), 주제 '오늘의 선교적 사명과 개체 교회의 역할'.
1983. 5. 22-24	성령강림절 기념 부흥회, 강사 정용철 목사(워싱턴 한인연합장로교회), 주제 '사도행전의 교회로 갱신되자'.
1983. 5.	김정호 목사 시카고지역 학원 목회 실장으로 진출.
1983. 6. 5.	김수환 목사 홍근수 목사 휴무 9개월간 임시 목회자로 시무 시작.
1983. 9. 3-4.	전교인수양회, 강사 김수환 목사, 제목 '기도의 생활을 익히자', North Andover 감리교단 수양관 Rolling Ridge, MA.
1983. 11. 11-13.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부흥사경회, 강사 임택권 목사(필라델피아연합장로교회), 주제 '나를 보내소서'.
▼ 1984년	
1984. 1. 22.	제직 임직 예배, 신임 집사 임직: 김기영, 박병덕, 신현우, 안성국, 이대길, 정귀영
1984. 2. 19.	홍근수 담임목사 재 시무, 김수환 임시담임목사 임기 종료와 함께 협동목사로 추대.
1984. 3. 10.	제직수양회, 강사 김수환 목사, 홍근수 목사, 주제 '제직자의 참뜻', Andover Newton 신학교, MA.
1984. 5. 19.	청소년을 가진 부모를 위한 특별 세미나, 강사 우화자(소아과 의사), 이경희 집사(정신과 의사), 오경자 집사(교육학 박사), 가정예배 및 선교용 '다락방' 책자 배부(봉사부).
1984. 6. 17.	김영 목사(홍근수 목사 부인) 안수 및 파송예배, Brockton에 있는 Pearl Street 감리교회 담임목사로 취임.
1984. 6. 29-30.	성령강림절 기념 부흥회, 강사 이상근 목사, 주제 '주여 새롭게 하소서'.
1984. 8. 18-19.	여름성경학교, 중고등부수양회.
1984. 9. 01.	전교인수양회, 강사 문동환 목사(前 한국신학대학교 교수, 수도장로교회), 주제 '축복된 기독교 가정', Craigville 수양관, MA.
1984. 10. 22.	미국장로교 보스톤노회에서 한국선교 100주년 기념 예배, 사회 및 설교 홍근수 목사, 개회기도 J. Fennel 목사(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in Brookline 담임목사).
1984. 11. 16-18.	교회 창립 31주년 기념 사경회, 강사 이계준 목사(연세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겸 교목), 주제 '하나님의 마음', '현대인과 신앙', '책임적 존재'.
1984. 11. 17.	교회 창립 31주년 기념음악회 Choral Concert, 지휘 변화경, 반주 이미혜, 장소 보스턴대학교 Marsh Chapel.
1984. 11. 18.	추수감사주일 및 교회 창립 31주년 기념예배, 설교 박대선 목사, 교회 창립 31주년 기념 설교집 보스톤 강단 제1집 발행.
▼ 1985년	
1985. 1. 26.	제직수양회, 강사 정용섭 목사(피츠버그중앙교회), 주제 '교회와 청지기직' Andover Newton 신학교, MA.
1985. 4. 21.	공동의회에서 미국장로교 Presbyterian Church(USA)에 가입 승인.
1985. 5. 10.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 축제(Newton 장로교회, MA)에 홍근수 목사와 성가대 참여.
1985. 8. 3.	장로교 특별 연수회, 강사 강요섭 목사(워싱턴영락교회), 주제 '미국장로교의 구조와 기능' Andover Newton 신학교, MA.
1985. 8. 10.	평신도회 주최 신앙 강좌, 강사 김형석 교수(연세대). 주제 '기독교는 현대사회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
1985. 8. 31.	전교인수양회, 주제 '균형된 기독교인의 삶', 홍근수 목사 '경건의 삶', 김영 목사 '말씀과 생활', 김홍기 목사 '사도적 사회활동' 장소 Craigville 수양관, Cape Cod, MA.
1985. 10. 13.	함석헌 선생 초청 설교, 주제 '참 자유의 길', 특별찬양 '빛의 소리' 선교단(이민수 전도사/ 문혜경).
1985. 10. 20.	김명숙 전도사의 아프리카 선교 보고.
1985. 10. 28.	미국장로교 Presbyterian Church(USA)에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보스톤한인교회(미국장로교)] 명칭으로 가입.

1985. 11. 15-17.	교회 창립 기념 사경회, 강사 노정선 목사(뉴욕영광장로교회), 주제 '민족, 민중 그리고 교회', '느헤미야의 기도', '생명을 걸고', '마지막 때를 이기는'.
1985. 11. 17.	미국장로교 가입 기념예배 겸 교회 창립 32주년 기념예배와 장로, 권사, 집사 안수 임직식. 신임 안수장로: 김갑성, 김문소, 김성민, 김창신, 변화경, 이일영, 조준호, 최연일, 한승희. 신임 권사: 성덕춘. 신임 안수집사: 강성유, 김경애, 김계숙, 김내도, 김삼영, 김영경, 김현, 박병덕, 박연교, 박춘지, 백린, 백은숙, 변성구, 송미자, 안성국, 이경희, 이상구, 이일성, 정귀영, 조요운, 최선경, 최송자, 한기훈, 한명덕.
1985. 12. 09.	Bob Klein 목사를 교육목사로 임명.
1985. 12. 22.	Providence 한인교회에서 열리는 송년음악회에 성가대 출연(지휘 이재숙).
▼ 1986년	
1986. 1. 25.	제직수양회, Andover Newton 신학교, MA.
1986. 4. 13.	고 김술근 (Young S. Kim) 교우 유언에 따른 현금 \$5,000을 받음.
1986. 5. 31.	통일 문제 심포지엄, 강사 이승만 목사, 주제: '신학적 관점에서 본 민족 화해와 통일'.
1986. 9. 14.	임시 공동의회에서 1987년 1월 2일자로 홍근수 목사 사임 승인.
1986. 10. 18.	보스톤노회의 교육위원회가 주관한 Presbytery Education Day, Thompson Island에 Rev. Bob Klein, 이일영 장로, 한승희 장로, 황상민 참석.
1986. 11. 7-8.	교회 창립 33주년 기념 사경회, 강사 최요섭 목사, 주제 '부르심을 받은 생활', 교회 창립 33주년 기념 설교집 보스톤 강단 제2집 발간.
▼ 1987년	
1987. 1. 2.	홍근수 목사 사임.
1987. 3. 1.	박성진 목사를 Parish Associate로 임명.
1987. 5. 24.	대학/청년부 회지 '빛과 소금' 발행, '젊은이의 밤' 행사.
1987. 6. 7.	임시공동의회에서 채위 목사 인준.
1987. 8. 16.	채위 담임목사 시무.
1987. 8. 29-30.	전교인수양회, 강사 채위 목사, 주제 '하나님 나라의 역사화', Grotonwood 수양관, MA.
1987. 9. 27.	최재건 목사를 협동목사로 임명.
1987. 11. 1.	채위 담임목사 위임예배, 설교 Horace Allen 교수(보스턴대학교 신학대학) '성자와 죄인'.
1987. 11.	한인회 주최 음악회 참여, 한국 가곡 공연. 지휘 변화경, 반주 백혜선, Kresge Auditorium, MIT, MA.
1987. 11. 15.	Rebecca Dodge 선교사 중고등부에서 선교 보고.
1987. 12. 13.	교회지 '필그림' 간행.
▼ 1988년	
표어: 선교적 기능으로서의 교회, 창조적 소수자로서의 교회, 배우고 일하는 교회, 2세 영어교회 지원	
1988. 1. 23	제직수련회, Andover Newton신학교, MA.
1988. 2. 7	제직 안수 및 임직 예배, 신임 안수장로: 김영경, 김현, 신임 안수집사: 강길원, 김현구, 김형범, 노효성, 변용구, 신동욱, 윌덕수. 노회 총무 켄트 목사 설교 및 만찬.
1988. 5.	보스톤강단 제3집 200부 간행.
1988. 6.	보스톤한인학교 재미한인학교협의회에 등록, 뉴욕한국총영사관에 등록, 교재 지원을 받음.
1988. 8. 20-21.	전교인수양회, 강사 Ron Chu(프린스턴신학교), 주제 '21세기를 향한 한국 이민교회', 특별강연 강사 황유복 선생(북경민족대학) 주제 '소수 민족 정책 및 한국의 통일문제', Grotonwood 수양관, MA.



1988. 10. 23.	New England 지역 한인교회협의회 창립 총회 개최, 1988년 회장 이상호 목사, 부회장 전덕영 목사, 김갑성 장로.
1988. 12.	가족 및 구역별 사진 촬영 후 교회 앨범 제작, 출판, 배포.
▼ 1989년	<b>표어: 온 교회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합심 목회(팀 미니스트리)</b>
1989. 1. 21.	제직수련회, 강사 김종대 목사, 유효근 목사, 채위 목사, 안재웅 전도사, 전희원 전도사, 전인재 교우, 주제 '배우면서 일하자' Grotonwood 수양관, MA.
1989. 1. 29.	제직 안수 및 임직 예배, 장로 임직 김정선, 신임 안수집사: 김문기, 나시옥, 문영도, 이우조, 이재환, 황광서.
1989. 2. 6-19.	채위 목사 부부 성지 순례(제직들이 채위 목사 60회 생일축하로 마련), 후에 보고회를 가짐.
1989. 3. 5	2세대들을 위한 영어예배 시작, 담당 교역자 김종대 목사.
1989. 4.	채위 목사 PC(USA) 총회 위촉으로 우리 교단의 '정치, 예배 지침, 권징조례(장로교 헌법)' 한글 번역 작업에 번역위원으로 참여.
1989. 9.	PC(USA) Bicentennial Fund Campaign을 위해 특별헌금.
1989. 8. 19-20.	전교인수양회, 강사 이종성 목사. 주제 '그리스도교의 기본 진리를 배우자(기독교의 신관, 그리스도론, 성령과 교회론)', Grotonwood 수양관, MA.
▼ 1990년	
1990. 1. 20.	제직수련회, 강사 유재선 목사, 채위 목사, Ken Grant 목사, 안재웅 전도사, 주제 '교회 성장이란?', Andover Newton신학교 MA.
1990. 1. 21.	제직 안수 및 임직 예배, 신임 안수장로: 김내도, 백린, 신임 안수집사: 강상철, 김영숙, 김한나, 손선배, 이강필, 장현숙, Julie Snyder.
1990. 2. 4.	임시 공동의회, 당회추천 권사 박연교, 백은숙, 이상구 선출.
1990. 3. 4.	2세교회 창립 1주년 기념예배.
1990. 3. 31.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동북대회 모임, 주제 '우리는 다 하나다', 설교 채위 목사, 장소 뉴헤이븐허드슨강북한인교회.
1990. 8. 18-19.	전교인수양회, 강사 김하태 목사. 주제 '종교간의 대화 및 기독교와 유교의 만남', Grotonwood 수양관, MA.
1990. 11. 18.	교회 창립 37주년 기념예배, 설교 임창영 목사, 주제 '이민교회의 존재 의미와 바람'.
▼ 1991년	
1991. 1. 27.	제직 안수 및 임직예배, 신임 안수장로 조요윤, 신임 안수집사: 강경희, 미키배커, 박기춘, 정귀달, 정진기, 조운영.
1991. 6. 23.	2세 영어예배 담당 교역자 김종대 목사 사임
1991. 8. 11-12.	전교인수양회, 강사 김준식 전도사 '성경 형성과 영감설', 이철 전도사 '한국 개신교 선교 초기의 한국인의 기독교 이해', 전희원 전도사 '성경공부', 정재식(보스톤대학교 Walter G. Muelder 석좌교수), '한국 문화전통과 기독교', Gordon College, MA.
1991. 9. 28.	보스톤노회로부터 Kneeland Awards 수상.
▼ 1992년	<b>표어: 교육과 전도</b>
1992. 2. 9.	전희원 전도사를 영어예배부 담당교역자로 임명.
1992. 3. 8.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in Brookline의 본 교회와의 합병 제안을 재단이사회에서 부결.
1992. 5.	LA 인종폭동사건에 대한 구제성금(\$1,683)을 총회를 통해 보냄.
1992. 7. 7.	조선 기독교연맹 인사초청 연합예배 및 간담회, 조선기독교 측 참석자 강영섭 목사(조선기독교도 연맹위원장), 박승덕(평양사회과학원 교수), 이명수(해외동포 원호위원회 참사), 김근영 전도사(평양신학원), 김혜숙(기독교연맹 중앙 책임 지도원).
1992. 8.	중고등부 김준식 전도사 사임, 후임으로 이은주 전도사를 임명.

1992. 8. 8-9.	전교인수양회, 강사: 정인경 목사, 이은주 전도사, 정재식 교수(보스톤대학교), 주제 '한국 이민교회와 인종문제', Endicott College, Beverly, MA.
1992. 9.	Somalia 기근, Bosnia 내란, Florida 태풍 등의 난민들을 위한 특별헌금.
1992. 10. 25.	영어예배부 담당교역자 전희원 전도사 사임.
1992. 12. 20.	김갑성 장로가 직접 제작한 교회 간판 봉헌 제막식을 가짐.
▼ 1993년	<b>표어: 정직한 생활을 하자! 하나님과 동료 인간 앞에서</b>
1993. 1.	영어예배부 임시담당 사역자 김종일 목사 임명.
1993. 1. 23.	제직수련회, 강사 유태영 목사(브롱스한인교회), Andover Newton 신학교, MA.
1993. 1. 31.	제직 안수 및 임직 예배, 신임 안수장로: 강길원, 김형범, 신임 안수집사: 김유철, 박영철, 신경자, 정영선, 정진수, 진동호.
1993. 4. 18.	영어예배부의 Mission Study에 이어 보스톤한인교회도 Dr. Bruce Bueshel과 Nancy Holloman 장로의 지도로 Mission Study 실시.
1993. 5. 15.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세미나, 강사 이승만 목사(NCCC 회장), 주제 '교회의 선교적 사명 및 한반도 통일문제'.
1993. 7. 25.	노회 목회위원회 주관으로 전희원 전도사를 목사로 안수.
1993. 8. 7-8.	전교인수양회, 주제 '우리 신앙의 뿌리를 찾아서', 강사 임순만 목사(William Peterson College 종교사회학 교수) '기독교와 인간소외계층(백정사회)', 이은주 전도사 '한국의 여전도회 운동', Gordon College, MA.
1993. 11. 14.	교실 증축(\$10,000).
1993. 11. 28.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예배 및 음악회, 40주년 기념 특집 필그림 발간.
▼ 1994년	<b>표어: 보다 더 정직한 교회 생활-하나님 앞에서-동료 인간 앞에서</b>
1994. 1. 9.	영어예배부 담당교역자 김종일 목사 사임, 중고등부 담당교역자 김승호(Samuel Kim) 전도사 임명.
1994. 1. 22.	제직수련회, 강사 천방욱 목사, 설교 채위 목사, 주제 '올바르게 섬기는 제직'.
1994. 1. 30.	제직 안수 및 임직 예배, 신임 안수장로 강성유, 신임 권사 신경자, 신임 안수집사: 김명철, 김영순, 심병희, 이점례.
1994. 2. 1.	이재원/신승희(John/Sara Lee) 부부 전도사를 영어예배 담당교역자로 임명.
1994. 2. 6.	보스톤한국학교 설날 놀이에 태권도 시범, 설노래, 제기차기, 널뛰기 등 행사.
1994. 4. 10.	김종일 목사를 6월 1일부터 12월까지 임시목회자로 노회에 추천.
1994. 5. 29.	채위 목사 은퇴 예배(9월 은퇴).
1994. 8. 6-7.	전교인수양회, 강사 박원호 목사(장로회 신학대학 기독교교육학 교수), 주제 '신앙의 성숙과 교회공동체의 역할(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Endicott College, Beverly, MA.
1994. 10. 16.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in Brookline 100주년 기념예배에 본교회 성가대가 찬양.
1994. 12. 24.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in Brookline, 브라질 교회(El Shaddi Baptist Church)와 연합하여 성탄축하예배 드림.
▼ 1995년	
1995. 1. 29.	제직 안수 및 임직 예배, 신임 안수집사: 김세철, 이계순, 장양술, 최석주, 한영희.
1995. 3. 3-5.	특별사경회, 강사 고영근 목사(한국목민선교회), 주제 '국민윤리를 확립하자', '기독교인의 신앙생활', '충성된 일꾼이 되자', '체험적인 신자가 되자', '신앙생활의 3대 좌표', '신앙과 가정'.
1995. 3. 26.	특별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 청빙위원회가 추천한 이영길 목사를 담임목사로 인준.
1995. 5. 1.	김종일 목사 환송 야외 체육대회, 청년2부 주최.
1995. 6. 1.	이영길 목사 시무 시작.

1995. 6. 4.	이영길 담임목사 환영예배, 설교 '내가 서있는 곳은'(출 2:21-3:10).
1995. 6. 18.	이영길 목사 위임예배, 설교 김서년 목사 '크리스찬의 능력'(빌 4:8-13).
1995. 8. 5-6.	전교인수양회, 강사 이영길 목사, 주제 '진실한 사감이 되게 하소서',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MA.
1995. 8. 13.	광복 50주년 회년 축하 통일 기원 예배.
1995. 11. 10.	피아노 구입, Fundraising 성가의 밤, 청년1부 주최.
<b>▼ 1996년</b>	
1996. 3. 3.	제직 안수 및 임직 예배, 신임 안수집사 김정립, 최승주, 최인주.
1996. 6. 2.	야외예배, 이영길 목사 설교 '주의 영광' (시 19:1-6), Hopkinton Park.
1996. 7.	새신자 성경공부반(기초성서반) 시작, 권의석 전도사 인도.
1996. 7. 16-18.	미국장로교 한인교회(NKPC) 총회모임에 성가대 특송 및 저녁식사 대접, Manchester, NH.
1996. 8. 3-4.	전교인수양회, 강사 이근상 목사(Ohio Columbus한인교회), 주제 '진실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Gordon College, Wenham, MA.
1996. 11.	이영길 목사 인도로 수요여성성경공부 시작.
1996. 11. 1.	Roxbury 장로교회 증축을 위한 음악회 개최, \$3500 모금. 청년부 주최 대학부 협조.
<b>▼ 1997년</b>	
1997. 1. 26.	부부선교회 창립.
1997. 2. 16.	제직 안수 및 임직 예배, 신임 권사 장현숙, 신임 안수집사: 정선주, 주상용.
1997. 3. 28.	성금요일 저녁예배(영어회중과 합동 예배).
1997. 4. 6.	임시공동의회에서 교회 건물 관리 책임을 First Presbyterian Church in Brookline에서 본 교회로 이양 승인 및 교회 규칙 2차 개정.
1997. 4. 25-27.	신앙사경회, 강사 이종형 목사(前 장신대 교수, 시카고한미교회), 주제 '새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1997. 4. 27.	청년부 Quincy Father Bill's Place에서 Homeless를 위한 봉사활동.
1997. 5.	북한동포 돕기 비빔밥 판매 \$3,500 모금, 부부선교회 주최.
1997. 6. 1.	주일예배를 1부와 2부로 두 번 드리기 시작.
1997. 8. 22-24.	전교인수양회, 강사 양희철 목사(뉴욕포레스트한인장로교회), 주제 '빛나는 자녀들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소서', Pilgrim Pines Conference Center, NH.
1997. 8.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시카고)에서 보스톤한국학교 김정선 교장이 한국교육부장관 유공교육자 표창장 받음.
1997. 8.	권사회 창립, 회장 이상구.
1997. 9. 14.	영어회중 seminarian staff로 Patrick Chen 임명.
1997. 9. 21.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in Brookline 건물 인수 서명식을 보스톤노회 입회 하에 본 교회 Parlor에서 가짐.
1997. 9. 29.	교회 건물 소유등기가 Norfolk County Registry of Deeds에 등록됨.
1997. 10. 10-11.	여선교회 수양회, 강사 박계철 목사, Salvation Army Retreat Center, Sharon, MA.
1997. 10. 12.	예배시간 변경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12:00. 김형곤 목사를 청년부 담당교역자로 임명.
1997. 10. 26.	김창신 장로/백은숙 권사 송별식.
1997. 11. 23.	교회 창립 44주년 기념 및 성전헌당 예배 및 축하만찬.

1997. 12. 14.	선교 세미나, 황윤일 목사 설교 '주님의 지상명령'.
1997. 12. 28.	북한선교 세미나, 강사 이일영 장로(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북한의료선교', 전우택 집사(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탈북자의 남한정착 문제점'.
<b>▼ 1998년</b>	<b>표어: 순례자의 교회가 되자</b>
1998. 1.	1부 성가대 찬양 시작.
1998. 2. 8.	권의석 전도사 Inquirer 승인, 구역 재조정과 교구장과 구역장 임명.
1998. 2.	총회 지원 'Teacher Leadership Training Workshop' 개최, 본 교회와 영생한인장로교회 교사들 참가, 부모들을 위한 seminar도 가짐.
1998. 2. 28-3. 1.	제직수련회, 강사 이영지 목사(Fuller 신학대학 교수), 주제 '미국에 있는 한국교회들의 이민교회로서의 사명과 Identity를 찾아보기'.
1998. 4. 18.	Good Shepherd 교회를 위한 자선음악회, 대학/청년부 주관, 퀸지영생장로교회 청년회와 공동개최, 모금된 \$3,157 을 전달.
1998. 5.	교실, 지붕, 어린이놀이터 등의 교회 건물 수리공사, 기획관리위원회 주관.
1998. 5. 1-3.	신앙사경회, 강사 정인영 목사(뉴저지벨리사이드장로교회 원로목사), 주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1998. 5. 10.	최형규 전도사 Inquirer 승인.
1998. 8. 31.	대학부 담당교역자 손병덕 전도사 사임, 후임에 홍동욱 집사 임명.
1998. 8. 21-23.	전교인수양회, 강사 백도현 목사(마이애미한인교회), 주제 '재미있는 신앙생활', Pilgrim Pines Conference Center, NH.
1998. 8. 31.	유년주일학교 Esther Cho 전도사 사임, 후임에 김선희 전도사 임명.
1998. 9. 12.	보스톤한국학교 수업 요일 변경과 수업시간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연장.
1998. 9. 15.	박종호 찬양 집회, 대학부 주최.
1998. 9. 20.	제직 안수 및 임직 예배, 신임 권사: 박기춘, 신동욱, 정귀달, 신임 안수집사: 강병영, 김영범, 김정근, 김효경, 오승현, 이혜승, 이훈희.
1998. 10. 3-4.	선교세미나, 강사 전희근 장로/김영애 권사(필라델피아한인연합교회), 주제 '재능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단기선교'.
1998. 10. 30-31.	여선교회 수양회, 강사 김한요 목사(하트포드제일한인교회), Sharon의 구세군수양관, MA.
1998. 10. 31.	중고등부 담당교역자 김승호(Samuel Kim) 전도사 사임.
1998. 11. 8.	교회 건물 장기계획위원회 구성,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위원장 김문소 장로) 구성.
1998. 11. 22.	추수감사주일 및 교회 창립 45주년 기념 예배, 이영길 목사 설교 '삭개오의 감사'.
1998. 11.	교회 창립 45주년 기념 이영길 목사 설교집 보스톤강단 제5집 '야곱의 춤' 발간, 콤팩출판사.
<b>▼ 1999년</b>	<b>표어: 순례자의 교회가 되자</b>
1999. 2. 12-13.	제1차 Teacher Leadership Training Workshop 개최, 강사 최훈진 목사, Ron Chu, Joshua Kang 목사, 뉴잉글랜드 지역 PC(USA) 3개 한인교회 교사들 참가, 보스톤한인교회 교육위원회 주최, Sharon Salvation Army Retreat Center, MA.,
1999. 2. 12-14.	대학부 동계수련회, 강사 김한요 목사(하트포드제일장로교회, CT), 주제 '도망자와 추적자'.
1999. 2. 13-14.	제직수련회, 강사 최훈진 목사, 주제 '성서발견 교제사용법'.
1999. 3. 1.	선교세미나, 강사 서원석, 김상균 선교사, 주제 '몽골과 세계선교'.
1999. 3. 21.	선교세미나, 강사 전우택 집사(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주제 '단기선교- 그 준비와 실제'.

1999. 3.	영어예배부 창립 10주년 행사, 영어예배부 명칭을 Bethany Christian Fellowship of Brookline 으로 개칭, 최초로 두 명의 집사 Sang Yoon, Ed Park 임직.
1999. 4. 3.	찬양의 밤, 대학부 주관.
1999. 5. 9.	어머니주일 찬송가경연대회, 여선교회 주관.
1999. 5. 14-16.	신앙사경회, 강사 정인영 목사(뉴저지펠리세이드교회 원로목사), 주제 ‘오늘을 사는 기독교인의 자세’.
1999. 5. 16-18.	청년부 수련회, 주제 ‘삶의 이정표 update를 위하여’ 강사 김한요 목사(하트포드제일장로교회, CT), Evangelical Baptist Camp, Ashford, CT.
1999. 5. 20.	이광희 음악선교사 찬양 집회.
1999. 6. 04.	선교세미나, 강사 이영 장로, 주제 ‘페루 선교를 다녀와서’.
1999. 6. 12.	선교세미나, 강사 박종국 선교사, 주제: ‘단기선교와 동아프리카 선교’.
1999. 8. 20-22.	전교인 여름수양회, 강사 문정선 목사(동부 한미노회 총무), 주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Pilgrim Pines Conference Center, NH.
1999. 8. 29.	65세 이상의 교인들 모임인 상록회 창립, 회장 백린 장로.
1999. 8.	어린이 놀이터 신설, 배수 및 전기시설 개선, 부엌 보수, 어린이 예배실 개선, 기획관리위원회 주관.
1999. 8.	교회 웹사이트 설치(www.kcboston.org).
1999. 9. 19.	제직 안수 및 장로 은퇴 예배, 신임 안수장로: 홍경자, 은퇴장로: 김영경, 신임권사: 김계숙, 김진숙, 박춘지, 최송자, 신임안수집사 정능화.
1999. 11. 6.	페루선교를 위한 음악회, 제목 ‘증인 되리라’, 교육위원회, 대학부, 청년부 공동 주최.
1999. 12.	필그림 발간, 교회소식지(Newslatter) 9회 발간.
1999. 12.	교회 도서관 개관.
1999. 12. 5.	청년부를 청년1부, 청년2부, 부부청년부로 분리 독립.
1999.	각 부서 담당교역자: 중고등부 최형규 전도사, 한국학교 교장 이훈희 집사, 청년1부 홍동욱/임숙현 집사, 청년2부 김형근 목사, 새신자 성경공부반 윤성철 전도사, 제자훈련반 권의석 전도사.
<b>▼ 2000년</b>	<b>표어: 세계를 향한 교회</b>
2000. 1.	부부청년부 발족 기념 수양회, 강사 이영길 목사, Littleton, MA.
2000. 2. 18-19.	제2차 Teacher Leadership Training Workshop 개최, 강사 최훈진 목사, Joshua Kang 목사, 뉴잉글랜드 지역 PC(USA) 3개 한인교회 30여 명의 교사 참가, 보스톤한인교회 교육위원회 주최, Sharon Salvation Army Retreat Center, MA.
2000. 2. 19-20.	제직수련회, 강사 최훈진 목사, 주제 ‘평신도사역’.
2000. 2. 4-6.	청지기 대학부 동계수련회, 강사 김한요 목사(하트포드제일장로교회, CT), 주제 ‘믿음의 챔피언’, Hillcrest Lodge, NH.
2000. 3. 3-12.	제1차 해외단기선교단 파송, 페루 뿌갈빠, 노스피노스, 들세글로리아, 단장 강길원 장로 외 19명 의료 및 교육 사역.
2000. 3. 31-4. 2.	청년부수련회, 강사 박홍수 목사, 주제 ‘2000년의 Vision’, 장소 Evangelical Baptist Camp, Ashford, CT.
2000. 4. 7-8.	여선교회 동북대회 한인여선교회 연합수련회, 강사 이영길 목사, 주제 ‘새 천년의 한인 여선교회와 교회 여성’, Stony Point, NY, 본교회 여선교회원 8명 참가.
2000. 4.	청년부수련회, 강사 김한요 목사(하트포드제일장로교회, CT), 주제 ‘Who is the boss?’, Evangelical Baptist Camp, Ashford, CT.
2000. 5. 14.	어머니주일 찬송가경연대회, 여선교회 주최.

2000. 8. 18-20.	전교인 여름수양회, 강사 임형천 목사(N.Y. Long Island 아름다운 교회 PC(USA)), 주제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교회’, Pilgrim Pines Conference Center, NH.
2000. 9.	이영길 목사 중국 연변 ‘희망의 집’ 선교 현장 방문, 백두산 등반과 용정 방문.
2000. 9.	제직 안수 및 임직 예배, 신임 안수장로: 강경희, 김명철, 박영철, 협동장로: 박영일, 신임 권사: 장희숙, 신임 안수집사: 박성호, 정영국.
2000. 9.	선교위원회를 해외선교위원회와 국내선교위원회로 분리 독립.
2000. 10. 8.	30대 중반 부부 모임인 ‘부부사랑모임’을 ‘은혜마을’로 개칭.
2000. 10. 14.	‘사랑의 집’ 후원금 모금 골프 대회, 국내선교위원회 주최.
2000. 10. 25.	이영길 목사 설교집 보스톤강단 제6집 《아픔의 웃음》 발간, 쿰란출판사.
2000. 11. 4.	‘Habitat for Humanity’를 위한 합동음악회 및 봉사활동, 청년부와 부부청년부 주관.
2000.	해외선교위원회 중국 연변 희망의 집 지원(11채) 및 16명 어린이에게 장학금 지원. 조국돕기선교(전남 완도군 고금면 덕동리의 섬마을 개척교회인 덕동교회).
2000.	필그림 발간, 교회 달력 배부.
2000.	각 부서 교역자: 해바라기 주일학교 김선희 전도사, 중고등부 김대호 전도사, 한국학교 교장 홍동현 집사, 청지기 대학부 홍동욱/임숙현 집사, 그루터기 청년부 김형근 목사, 새신자 성경공부반 윤성철 전도사, 제자훈련반 김형근 목사, 수요일여성성경공부반 이영길 목사, 영어예배부 John Eunsuk Chung 목사.
<b>▼ 2001년</b>	<b>표어: 세계를 향한 교회</b>
2001. 2. 16-17.	제3차 Teacher Leadership Training Workshop 개최, 강사 최훈진 목사, 손대권 목사, 본 교회와 PC(USA) 공동 주최, Franciscan Center, Andover, MA.
2001. 4. 20-21.	여선교회 동북대회 여성연합수련회에 5명 참석, 주제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선교회’.
2001. 4. 28-29.	제직수련회, 강사 우수명 목사(달리한인장로교회, NC), 주제 ‘영적 은사의 발견’
2001. 5.	Habitat for Humanity 참여, 대학부와 청년부를 중심으로 아리조나 Indian Reservation 단기선교, 국내선교위원회 주관. 오세경 집사와 정진웅 집사가 연변 희망촌 방문.
2001. 7. 20-29.	제2차 페루 단기선교단 파송, 황윤일 선교사와 이성일 선교사 선교지, 단장 강길원 장로, 총 18명 참가, 의료, 치과, 미용, 교육 사역.
2001. 8. 17-19.	전교인 여름수양회, 강사 임영수 목사(서울 주님의 교회), 주제 ‘영적 치유-치유와 성장’, Pilgrim Pines Conference Center, NH.
2001. 9.	제직안수 및 임직 예배, 신임 안수장로: 강상철(베다니 영어예배부), 협동장로 임직: 김순규, 신임 권사: 김현지, 송미자, 신임 안수집사: 고경아, 김난희, 김복길, 김윤, 박관희, 서명구, 손정곤, 오세경, 차주혁, Ed Park, Sang Yoon.
2001. 10.	이영길 담임목사의 1차 안식년 동안 김형근 목사와 정은석 목사가 사역 담당(10월, 11월).
2001. 10. 26-27.	여선교회 수양회 개최, 강사 전구 목사(니카라과 선교사), 주제 ‘천국과 신앙’ Wachusett Village Conference center, MA.
2001. 2.	집사회가 Boston Covenant Church에 있는 Women’s Lunch Place에 자원봉사, St. Paul Church에 불우이웃 돕기 Can Food 및 구제비 전달.
2001.	여선교회를 비벼 여선교회(45세 이상, 회장 강정임 집사)와 에스터 여선교회(45세 미만, 회장 김정림 집사)로 나눔.
2001.	권사회 재창립, 회장 박연교, 부회장 최선경, 총무 송미자.
2001.	각 부서 교역자: 해바라기 주일학교 김선희 전도사, 중고등부 김대호 전도사, 박진흙 집사, 대학부 홍동욱 집사, 임숙현 집사, 박신영 집사, 청년부 김형근 목사, 보스톤한국학교 교장 강상철 장로, 새신자반 윤성철 전도사, 수요일여성성경공부반 이영길 목사, 홍경자 장로, 주일성경공부반 김동환 집사, 행정 지원 윤경문 전도사, 제자훈련반 김형근 목사, 새교인 공부반 이영길 목사, 예배 전 찬양 인도 윤성철 전도사, 윤영선 집사.

▼ 2002년	<b>표어: 이웃을 향한 교회</b>
2002. 3. 23-24.	제직수련회, 강사 이승만 목사, 주제 ‘믿음의 뿌리와 열매’, ‘한국 이민교회의 사명’
2002. 4.	집사회 구제부에서 Boston Covenant Church에 있는 Women’s Lunch Place의 120여 명에게 급식 제공.
2002. 5. 18.	이웃초청 한국문화제(Korean Cultural Festival) 개최, 집사회 주최.
2002. 6.	이영길 목사의 2차 안식년 6개월동안 주승중 목사가 설교(6월-11월).
2002. 7.	제3차 페루 단기선교단 파송, Primera Iglesia Presbiteriana Hispana de Boston과 공동으로 선교, 단장 강길원 장로, 이영길 목사, 총20명, 의료, 치과, 이/미용 및 교육 사역.
2002. 7. 18-21.	연변 희망촌 선교지, 연변과학기술대학과 농아학교 방문, 김갑성 장로, 이상구 권사, 정용국 집사, 장희숙 권사, 이재환집사, 장현숙 권사, 오세경 집사.
2002. 8. 16-18.	전교인 여름수양회, 강사 이승태 목사(살롯제일장로교회), 주제 ‘더 주린 심령, 더 짙은 감동, 더 귀한 섬김’, PilgrimPines Conference Center, NH.
2002. 9. 15.	제직 안수 및 임직 예배, 신임 안수장로: 박영일, 신임 안수집사: 강영숙, 강정임, 김규철, 김선희, 김성현, 김원욱, 김중운, 김중천, 김준구, 김찬숙, 김치풍, 박주상, 송근준, 오송혁, 우원하, 정명상, 태수영.
2002. 12. 5.	이영길 목사 세번째 설교집 ‘야곱의 기다림’ 발간, 쿰란출판사.
2002.	마리아 여성교회 회장 김경애 집사가 Boston Presbytery의 PW(Presbyterian Women, 여성교회) 공동회장으로 임명됨. 비비아선교회를 마리아 여성교회로 개칭.
2002.	각 부서 교역자: 해바라기 주일학교 김선희 전도사, 중고등부 Johnson Samuel 목사, 김대호 전도사, 박진흙 집사, 청지기 대학부 홍동욱 집사, 임숙현 집사, 박신영 집사, 그루터기 청년부 김형곤 목사, 보스톤한국학교 교장 강상철 장로, 행정 윤경문 전도사.
▼ 2003년	<b>표어: 독수리와 같은 멋진 교회</b>
2003. 2.	청지기 청년1부 겨울수련회, 강사 김동환목사(LA Campus Crusade for Christ, CA), ‘젊은이여 환상을 보라’, Sharon 구세군 수양관, MA.
2003. 2. 16.	첫 회년 기금 모금위원회 발족, 위원장 한승희 장로, 회년 특별헌금 모금운동 시작.
2003. 3. 9.	선교세미나, 강사 이동홍 목사, 주제 ‘니카라과 선교 경험’.
2003. 4. 4-6.	그루터기 청년2부 수련회, 강사 김윤진 목사(NH밀알장로교회), 주제 ‘성숙한 크리스찬’, Alton Bay Conference Center, NH.
2003. 4. 5-6.	첫 회년 제직수련회, 강사 옥성득 목사, 주제 ‘한국 교회사에 비친 회년’, 예배예술위원회 주관.
2003. 4. 6.	주일예배 인도를 장로들이 맡기 시작함.
2003. 5. 9-11.	부부청년부 수련회, 강사 신갈렙 선교사, La Salette Retreat Center, Attleboro, MA.
2003. 5. 17.	첫 회년 이웃 초청 한국문화제 ‘아리랑’ 개최, 집사회 주최.
2003. 5. 25.	주누가 선교사의 전쟁 후 이라크의 구제 및 선교 보고.
2003. 6. 4.	영어 동시통역 실시.
2003. 6. 22.	이디오피아 선교 보고, 박종국/장은혜 선교사.
2003. 6. 22.	1부 예배 현악양상블 시작.
2003. 7. 11.	‘첫 회년 신앙 고백서’ 제정.
2003. 8. 1-9.	니카라과 단기선교단 파송, Primera Iglesia Presbiteriana Hispana de Boston 교인 2명과 Fort Square교회 교인 1명 참가, 단장 최연일 장로, 총 19명, 선교장소 Masaya 와 Quezalguaque, 교육, 의료, 건축사역과 의약품 등을 지원.

2003. 8. 15-17.	전교인 여름수양회 겸 첫 회년 옛 교우초청 모임, 강사 한석현 목사(동부토론토한인장로교회), 주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교인위원회 주관.
2003. 9. 9.	청년부 신앙고백의 밤, 청년부 신앙고백서 채택.
2003. 9.	배요한 목사를 부부청년부 협력목사로 임명.
2003. 9. 21.	제직 안수 및 임직 예배, 신임권사: 김경애, 정능화. 신임 안수집사: 강기호, 강윤구, 김여영, 박성준, 안성완, 원미연, 임숙현, 장성수, 홍동욱, 홍동현. 안수집사임직: 김태만, 심윤보, 안태준, 이정규
2003. 9. 28.	Bethany Christian Fellowship of Brookline이 보스톤한인교회에서 독립하여 미국 장로교 소속 The Bethany Presbyterian Church (베다니 장로교회)로 창립, John Chung (정은석) 목사가 담임목사로 시무, 장로 5명과 집사 3명 안수, 임직하는 창립 예배를 드림.
2003. 10. 3-5.	첫 회년 심포지엄, 주제 ‘미국 사회 안에서의 이민 교회의 위치와 사명’ ‘격동하는 세계속의 한인 교회의 나아갈 길’, 강사 박승호 목사(United Theological Seminary 교수, OH), 이영지 목사(Azusa Pacific 신학대학 교수), 김선배 목사(PC(USA) 한인목회담당).
2003. 11. 01.	Homeless 사역에 관한 세미나, Ron Tibetts 목사(Neighborhood Action Inc.)
2003. 11. 02.	한국에 거주하는 옛 교우 70여 명이 서울 강남 하이아트 호텔에 모여 본 교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만찬과 친교 및 회년 모금.
2003. 11. 10.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이영길 목사 설교집 발간, 보스톤강단 《회년의 노래》, 쿰란출판사.
2003. 11. 15.	첫 회년 감사 축제 ‘환희와 감사, Jubilee Year: Jubilation and Thanksgivings’.
2003. 11. 22.	첫 회년 이웃 초청 음악회, 출연 1, 2부 연합 찬양대, 변화경 장로, 백혜선, 조유미, 황대진.
2003. 11. 23.	첫 회년 기념 예배 및 만찬, 설교 이상현 목사(프린스턴 신학대학 교수), 초청 참석자: 이상현 목사, 권진태 목사, 김갑동 목사, 홍근수 목사(역대 담임목사), 김영호, 김장환, 이양자, 노영석 등 옛 교우, 김태환 목사, Marilyn Brower 장로, Nancy Holloman 장로, ‘첫 회년 신앙 고백서’를 온 교인이 함께 교독.
2003. 12. 31.	첫 회년 송구영신 예배.
2003.	각 부서 교역자: 해바라기 주일학교 김선희 전도사, 중고등부 Johnson Samuel 목사(6월까지), 주봉서 목사(10 -12 월), 박진흙 집사, 보스톤한국학교 교장 강상철 장로, 은혜마을 배요한 목사, 윤성철 전도사, 새신자 성공공부반 윤경문 전도사.
▼ 2004년	<b>표어: 새로운 시작의 해</b>
2004. 2.	사회정의위원회 발족, 위원장 이선영 추천장로.
2004. 2.	청지기 청년 1부 겨울수련회, 강사 임현수 목사(Toronto 큰빛교회), Sharon의 구세군 수양관 MA, 4월과 10월 ‘열린 축제’ 개최.
2004. 2	보스톤한인교회 50년 역사편찬위원회 발족, 위원장 김성빈 장로.
2004. 2.	Education, Community and Cultural Center 건축 제2차 기금모금위원회 발족, 위원장 김정선 장로.
2004. 3. 27-28.	제직수련회, 강사 안태호 목사(뉴욕참빛교회, NY), 주제 ‘새로운 시작의 해’.
2004. 3.	‘필그림’ 교회 창립 50주년 첫 회년 기념호 발간.
2004. 4. 2-4.	부부청년부 수련회, 강사 배요한 목사, Wonderland conference center, Sharon, MA.
2004. 4. 25.	선교세미나, 김마가 선교사(Global Operation선교회)의 중동선교 보고.
2004. 4.	한국학교 간판 제작 및 설치, 김갑성 장로 기증.
2004. 5.	교회소식지 ‘Newsletter’의 크기를 바꾸면서 제호를 ‘한올타리’로 정하고 제1호 발행.
2004. 5. 22.	제2회 한국문화축제(Korean Cultural Festival) 개최, 주제 ‘Hand in Hand’, 집사회 주최.

2004. 7. 7-17.	니카라과 단기선교단 파송, 단장 최연일 장로, 본교회 선교단원 16명과 Primera Iglesia Presbiteriana Hispana de Boston(Pena 목사)의 3명이 마사야(Masaya)와 Quezalguaque에서 교육, 의료, 봉사 및 교회 건축 등의 선교 활동.
2004. 8. 20-23.	전교인 여름수양회, 강사 이성호 목사(Corning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 NY), 주제 '세상은 한올타리', Pilgrim Pines Conference Center, NH.
2004. 9. 19.	제직 안수 및 임직 예배. 신임 안수집사: 김춘미, 박준재, 배성희, 이은주, 이정민, 이정희, 최창열, 홍옥희.
2004. 10. 23.	ECC 건축을 위한 찬양과 기도의 'Praise Night' 개최.
2004. 10. 30.	브루클라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Community Bazaar and Auction 실시(남은 옷들을 Homeless shelter에 보냄).
2004. 11. 21.	창립 51주년 기념 및 추수감사주일 예배, 제2의 회년을 향한 비전 선언문 발표.
2004.	각 부서 교역자: 해바라기 주일학교 김선희 전도사, 중고등부 서동일(David Seo) 전도사, 김성현 집사, 보스톤한국학교 교장 강상철 장로, 주일 성인성경공부반 배요한 목사, 새신자반 윤경문 전도사.
▼ 2005년	<b>표어: 비전 선언을 다지는 해</b>
2005. 1. 22.	보스톤한국학교 주최 민속장터 개최, 한국전통 민속놀이와 음식, 새해맞이 풍습.
2005. 2. 6.	제직 안수 및 임직예배, 신임 안수장로 이선영.
2005. 4. 16-17.	제직수련회, 주제 '발전하는 교회상', 강사: Rev. Cathy MacDonald(PC(USA) 노회 서기), 김양길(천주교인), 정마리아 장로(킨지영생장로교회), 심포지엄 주제 '변화와 개혁으로의 초대'. 집사 패널리스트: 홍동욱, 박신영, 김한나, 안성완, 이재혁.
2005. 6. 30.	이영길 목사 설교집 《빛진 나그네》 발간, 쿰란출판사.
2005. 8. 6-13.	니카라과 단기선교단 파송, 선교사 이동홍 목사 선교지 Managua, Masaya, Quesalagua에서 사역, 단장 강길원 장로, 이영길 담임목사, 총25명, 교육전도팀, 의료팀, 치과팀, 약국팀, 안경봉사 등.
2005. 8. 13-21.	전교인 여름수양회, 강사 현용수 목사(쉐마교육연구원), '3세대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회', Pilgrim Pines Conference Center, NH.
2005. 9. 18.	김형곤 목사 귀국.
2005. 9. 18.	제직 안수 및 임직 예배, 신임 안수장로: 김세철, 장양술, 신임 권사: 강영숙, 김찬숙, 성강은, 오세경, 이계순, 정선주, 태수영, 신임 안수집사: 권혜진, 김성혜, 김영순, 박미숙, 박신영, 백준현, 심기선, 지훈, 한문수.
2005. 9. 18.	브루클라인 300주년 기념 행사에 참여(한국문화축제 홍보 및 Booth 운영).
2005. 11. 12.	제3회 한국문화축제(Korean Cultural Festival), 유대인을 초청하여 문화적 교류를 통한 전도 시도, 프로그램 참가자 150여 명(유대인 문화 공연자 포함). 참관자 650여 명.
2005. 11.	배요한 목사와 박태원 협력목사를 청년2부 임시 교역자로 임명.
▼ 2006년	<b>표어: 추수할 일꾼을 보내소서</b>
2006. 1.	KACF(The Korean American Cultural Foundation of Greater Boston-대 보스톤 한미문화재단) 발족, MA 주에 비영리단체로 등록.
2006. 2.	Education and Community Center(ECC) 건축 제3차 기금 모금 위원회 발족, 위원장 안태준 집사.
2006. 3. 11-12.	제직수련회, 주제 '우리는 한 가족'.
2006. 5. 27.	3세대가 함께 하는 찬양과 기도의 모임 '쉐마의 밤' 시작(매 홀수 달에 모임).
2006. 6. 4.	선교세미나, 강사 마영애, 최은철 집사. 주제 '북한은 지금'.
2006. 6. 15.	이영길 목사 설교집 《어머니 교회》 발간, 쿰란출판사.
2006. 8. 5-12.	니카라과 단기선교단 파송, 전구 선교사와 이동홍 선교사 사역지에서 선교활동, Primera Iglesia Presbiteriana Hispana de Boston이 참여, 단장 최연일 장로, 총 26명, 교육팀, 봉사팀, 치과팀, 의료팀, 약국팀으로 협력사역.

2006. 8. 18.	전교인 여름수양회, 강사 이영길 목사(달라스빛내리교회, TX), 주제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는 영성', Pilgrim Pines Conference Center, NH.
2006. 9.	제직 안수 및 임직 예배, 신임 권사: 이경희, 신임 안수집사: 계동성, 김용희, 문유경, 서영주, 엄재관, 윤미자, 이경환, 이원걸, 전신애, 진정원, 최정열, 허경희.
2006. 10. 14.	선교세미나, 강사 안맹호 목사(Native Indian 선교, South Dakota), 주최 국내선교위원회.
▼ 2007년	<b>표어: 올해도 하나님의 신성한 은혜와 끈질긴 사랑</b>
2007. 2.	본 교회 교인들의 신앙 고백으로 엮어진 '사순절 묵상집 제1호' 발간.
2007. 3.	김종일 목사의 아들 김동광(Paul Kim) 전도사를 보스톤노회의 목사 후보생으로 추천.
2007. 3. 11.	제직수련회, 강사 박용규 목사('평양 대부흥운동'의 저자), 주제 '한국 교회의 신앙 체험'.
2007. 4. 8.	새로운 디자인의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 주일 설교 동영상 제공.
2007. 4.	제5회 친구 초청 전도집회 '열린 축제', 주제 '나의 사랑, 나의 친구', 청년1,2부 공동 주최.
2007. 4. 15.	정한진 전도사(John Chung)를 중고등부 담당교역자로 임명.
2007. 4. 19.	미국장로교 총회 PILP(Presbyterian Investment and Loan Program)를 통해 ECC 건축을 목적으로 \$1,600,000 용자 승인받음.
2007. 5. 12.	제4회 한국문화 축제, 주제 'Dancing in Harmony'. 보스톤지역 아이리쉬 예술인들과 뉴욕의 한국 국악인들 초청 합동공연, KACF와 집사회 공동 주최.
2007. 5.	교회 건물 보수 공사 완료(총 보수비 약 \$190,000).
2007. 6. 2.	보스톤 지역 음악인들이 참여하여 ECC 건축 기금 모금 음악회 개최.
2007. 6. 22.	여름성경학교 실시, 인도 김선희 전도사. 주제 'Living as Children of God'.
2007. 7. 8.	허신영 목사를 청년 2부 담당교역자로 임명.
2007. 7. 8.	니카라과 단기 선교단 파송. 이동홍 선교사와 전구 선교사 사역지에서 선교활동, Primera Iglesia Presbiteriana Hispana de Boston의 Pena 목사 등 4명 참여, 단장 최연일 장로, 총 22명, 교육, 봉사, 치과, 의료, 약국팀으로 협력사역.
2007. 8. 4-16.	청년1 부 소속 4명의 청년들을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단기 선교 파송.
2007. 8. 17.	전교인 여름수양회, 강사 전희원 목사(코넬한인교회, NY), 주제 '크리스찬으로 살기: 기본으로 돌아가자', Pilgrim Pines Conference Center, NH.
2007. 9.	1부 찬양대 지휘자로 박진욱 집사, Soloist로 조유미 집사 임명.
2007. 9. 16.	제직 안수 및 임직 예배, 신임 안수장로 정진웅, 신임 권사 조순래, 신임 안수집사: 권복태, 김동규, 김동숙, 김우진, 김은미, 김준배, 박종열, 이상자, 이재혁, 조영신, 주민정, 주정대.
2007. 9. 24.	해바라기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의 성장으로 보스톤노회에서 주는 Rev. Martin D. Kneeland상 수상.
2007. 10. 7.	본 교회 목회 인턴으로 이요한 전도사 임명.
2007. 10. 21.	보스톤노회 주관의 윤경문 목사 안수식과 행정부목사 위임 예배. 장소 보스톤한인교회.
2007. 11. 14.	강석 건축회사와 ECC 건축 계약(\$2,700,000).
2007. 12.	청년 1부용으로 교회 Van을 구입.
2007. 12.	미국장로교 산하 The Presbyterian Health, Education & Welfare Association(PHEWA)이 주관하는 Social Justice Biennial Conference에 사회정의위원회가 참가. 태풍 카트리나 수해 복구 후원, 가정 폭력 방지 위한 Asian Task Force 후원. 일제 위안부 결의안 미국회 통과를 지지하는 서명 운동 참여.

2007.	각 부서 교역자: 해바라기 유년초등주일학교 김선희 전도사, 중고등부(Ransom Youth Group) John Chung(정한진) 전도사, 보스턴한국학교 교장 강상철 장로, 청지기 청년1부 홍동욱 집사, 그루터기 청년2부 허신영 목사.
▼ 2008년	<b>표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b>
2008. 2. 1.	이요한 전도사를 청년1부 담당교역자로 임명.
2008. 2.	본 교회 교인들의 신앙고백을 엮은 사순절 묵상집 제2호 발간.
2008. 3. 15-16.	제직수련회, 강사 조기연 목사(서울신학대학교 예배학 교수), 주제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자', 부제 '역사적 흐름 안에서 예배의 변천'.
2008. 4. 13.	ECC 착공 예배.
2008. 5.	이요한 전도사가 한국에서 목사 안수 받음.
2008. 6. 20.	이영길 목사 설교집 '르호봇의 노래' 발간, 쿤란출판사.
2008. 6. 21.	제직수련회, 강사 이영길 목사, 주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2008. 6. 23.	여름성경학교, 인도 김선희 전도사, 주제 'Shining as the Light of the World'.
2008. 7.	김만규 전도사(부부청년부 담당)가 선교사로 사역하게 되어 7월말로 사임.
2008. 7. 26.	니카라과 단기선교단 파송, 전구 목사와 이동홍 선교사 사역지에서 선교, Primera Iglesia Presbiteriana Hispana de Boston의 Pena 목사 포함 5명 참여, 단장 최연일 장로, 총 29명, 교육, 봉사, 치과, 의료, 약국팀으로 협력사역.
2008. 8. 15.	전교인 여름수양회, 강사 김정호 목사(아틀란타한인감리교회, 전 보스턴한인교회 목회자), 주제 '거룩한 회복', Pilgrim Pines Conference Center, NH.
2008. 9. 14.	소기범 목사를 부부청년부 담당교역자로 임명. 1부 예배 반주자로 김상영 교우 임명.
2008. 9. 21.	제직 안수 및 임직 예배, 신임 안수장로: 안태준, 홍동욱, 신임 권사: 이숙재, 신임 안수집사: 김종희, 김화옥, 이유태, 최현구.
2008. 9. 28.	베다니장로교회(The Bethany Presbyterian Church)가 10월부터 예배 장소를 Lawrence School로 이전.
2008. 11. 27.	추수감사주일 및 교회 창립 55주년 기념 예배.
2008. 11. 30.	임시 공동의회에서 ECC 건축을 위하여 PILP(총회 은행)에 융자 금액을 \$400,000 추가 요청할 것을 결정, PILP의 총 융자액은 \$2,000,000가 됨.
2008. 12. 6.	제직수련회, 강사 이영길 목사. 주제 '잃은 양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한 해가 되자'.
▼ 2009년	<b>표어: (계속)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b>
2009. 1. 11.	교회규칙개정위원회에서 제안한 개정안을 받아들여 교회규칙(Bylaws) 개정.
2009. 2.	사순절 묵상집 제3호 발간.
2009. 3.	보스톤노회 Committee of Ministry 에서 Judy Andrews 장로와 Diane Cusumano 목사가 Triennial Visit으로 본 교회 당회원, 목회자들과 회의를 가짐.
2009. 3.	집사회 사물놀이팀 '하늘소리' 발족.
2009. 3. 16-19.	세계평화와 정의를 주제로 하는 'Ecumenical Advocacy Days: Enough for All Creation' 국제회의에 Boston Presbytery의 협조로 이혜원 집사 참석, Washington, DC.
2009. 3. 22.	World Water Day에 환경보존문제 교육 홍보, 사회정의위원회.
2009. 4.	성인성경공부반을 담당하는 교육3부위원회를 신설.
2009. 4. 24.	여선교회 총회 및 연합수련회에 참석한 본교회 김한나 집사가 여선교회 동북대회 대회장에 선출됨(New York Stonypoint Retreat Center, NY).

2009. 5. 16.	제직수련회, 강사 이영길 목사, 주제 '첫 회년 후 5년을 맞으며 제2의 회년을 향한 비전 선언'.
2009. 6. 20.	해바라기 유년초등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실시.
2009. 8. 1-7.	니카라과 단기 선교단 파송, 전구 목사와 이동홍 선교사 사역지에서 선교, Primera Iglesia Presbiteriana Hispana de Boston 교인 2명 참여, 단장 이선영 장로, 총 26명, 교육, 봉사, 치과, 의료, 약국팀으로 협력사역.
2009. 9.	제직 안수 및 임직 예배, 신임 안수장로: 김성현, 이정규, 신임 권사: 김여영, 신임 안수집사: 고진수, 김상기, 박선희, 박진욱, 배한원, 안명훈, 윤선미, 이기순, 이승연, 이정일, 조유미, 태영미.
2009. 10.	뉴저지찬양교회에서 본교회에 ECC 건축 기금으로 \$10,000을 현금. 보스톤노회에서 주일학교 학생수가 가장 많이 증가된 교회에 시상하는 Rev. Martin D. Kneeland 상 수상.
2009. 11. 21.	남선교회 발족(회장 이원길 집사).
▼ 2010년	<b>표어: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b>
2010. 1. 24.	Haiti 지진 재난 구호 특별헌금 \$4,000을 PC(USA) 총회 Disaster Relief for Haiti에 전달.
2010. 2. 17.	재의 수요일, 사순절 묵상집 제4호 발간.
2010. 3. 19-22.	제8차 'Ecumenical Advocacy Days: For Global Peace with Justice' 국제회의에 Boston Presbytery의 협조로 김정선 장로 참석, Washington, DC.
2010. 4. 16-17.	여선교회 동북대회(KPW/SNE) 연합수련회 및 임시총회, 강사 김성희 목사(뉴욕아름다운교회 부목사), Camp Washington Retreat Center, CT.
2010. 7. 10.	제직수련회, 강사 손대권 목사(피츠버그신학교 교수). 주제 '포스트 모더니즘과 존재의 참된 가치관'.
2010. 7. 26.	보스톤노회 정기모임을 본 교회에서 개최하면서 비공식 ECC Open House 가짐.
2010. 7. 26.	보스톤노회로부터 Lynn Developmental Grant Fund를 받음(Community Outreach Program을 위해 3년간 받는 총액 \$20,000).
2010. 7. 31.	김선희 전도사 사임.
2010. 8. 1-8.	니카라과 단기선교단 파송, 전구 목사와 이동홍 선교사 사역지에서 선교, Primera Iglesia Presbiteriana Hispana de Boston의 Pena 목사와 교인 3명 참여, 단장 안태준 장로, 총 23명, 교육, 봉사, 치과, 의료, 약국팀 협력사역.
2010. 8.	부부청년부 담당교역자에 김건철 목사 임명.
2010. 8. 1.	임시공동의회 개최, 윤경문 행정부목사의 계약을 3년 2개월간 연장(2010. 11-2013. 12).
2010. 8. 20.	전교인 여름수양회, 강사 노대준 목사(뉴헤이븐한인교회), 주제 '변화-그리스도인의 생활양식', 중고등부 강사 Enoch Cho 전도사(Full Gospel NY Church), 주제 'Change/Transformed in Christ', Pilgrim Pines Conference Center, NH.
2010. 9. 26.	주일 소그룹 성경공부 시작(4개반)
2010. 9. 19	제직 안수 및 임직 예배, 신임 안수집사: 김영미, 김용욱, 백승한, 손주현, 신미송, 이성숙, 이창호, 이태호, 이혜승, 이혜원, 장보경, 정광근, 정재원, 하대준.
2010. 9. 25.	쉐마의 밤, 본 교회 교인을 위해 ECC Open House.
2010. 10.	보스톤노회로부터 Rev. Martin D. Kneeland 상 수상(8년 연속 수상).
2010. 10. 16.	여선교회 동북대회 연합선교대회, 강사 이윤식 회장(연변 희망촌), 여선교회 회원 3명 참가, 장소 뉴욕중앙장로교회.
2010. 7. 18.	Brookline First Light Festival 행사에서 이웃주민들에게 ECC 빌딩 open.
2010. 11. 21.	추수감사주일에 겸 ECC 봉헌 및 교회 창립 57주년 기념예배.
2010. 11. 25.	청년부 시편의 밤 'Psalm Night' 및 Thanksgiving Dinner.

▼ 2011년	<b>표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b>
2011. 2. 6.	제직 임직 및 은퇴예배, 은퇴장로 김형범.
2011. 3. 4.	여성교회 세계 기도일 예배, 주제 '우리 가진 것을 나눌 때'.
2011. 3. 9.	재의 수요일, 사순절 묵상집 제5호 발간.
2011. 4. 9.	제직수련회, 강사 이학준 교수(풀러신학교), 주제 'Building the Bridge'.
2011. 4. 16.	탈북자 선교를 위한 'Hiding' 영화 상영, 국내선교위원회 주최.
2011. 6. 12.	해바라기 유년초등주일학교 담당교역자 박진호 전도사 임명.
2011. 6.	총회 헌법 개정안 10-A 에 대한 NCKPC 성명서 채택 통과, 동성에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안수 가능성에 대한 우려 표명.
2011. 6. 21.	해바라기 유년초등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실시.
2011. 7. 30.	콜롬비아 단기선교단 파견, Cartagena, YWAM Center, Bochachica Island 사역, 단장 김성현 장로, 단원 7명, 교육, 전도, 대학강의, 건축봉사 등 12일간 사역.
2011. 9. 11.	사회정의위원회를 정의평화환경위원회(Justice, Peace & Environment Committee)로 개칭.
2011. 9.	1부 찬양대 반주자로 안지혜 교수, 2부 찬양대 반주자로 김상영 교수 임명.
2011. 9. 18.	제직 안수 및 임직예배, 신임 안수장로: 김영범, 박신영, 신임 권사: 이상자, 신임 안수집사: 강혜정, 방경남, 서명숙, 신소정, 이경자, 이주용, 유승오, 한정인, 황동준.
2011. 9. 24-10. 1.	니카라과 단기선교단 파송, 전구 목사와 이동홍 선교사 사역지, Primera Iglesia Presbiteriana Hispana de Boston의 Pena 목사와 교인 2명 참여, 단장 안태준 장로, 총 15명, 보스턴한인교회 소속 단원들은 의료 사역에 주력, Primera Iglesia 소속 단원들은 현지 지도자 세미나 개최.
2011. 9. 29.	보스턴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Pop-up Art Exhibition' 개최, ECC Community Hall.
2011. 10. 16.	Climate Change Action Brookline (CCAB) 과 정의평화환경위원회 공동 주최로 Eco-Seminar 및 Earth Care Congregation Workshop 개최.
2011. 10. 22.	Oasis Cafe '이민자를 위한 음악회: 한국가요의 밤' 개최.
2011. 11. 5.	창작극 'The Musical: Ruth' 공연, 연출 이용순, 작곡 조나현, 국내선교위원회 주최.
2011. 11. 17.	Brookline First Light Festival 행사 참여, 국내선교위원회와 홍보위원회 주관.
▼ 2012년	<b>표어: 감사하는 회중</b>
2012. 1. 1.	전교인 신년잔치, 남선교회 주최.
2012. 1. 7.	보스턴한인교회 60주년 기념 역사편찬위원회와 기념사업위원회 발족.
2012. 1. 8.	Bethany Presbyterian Church가 예배 장소를 보스턴한인교회로 이전.
2012. 2. 5.	제직 안수 및 임직 예배, 신임 안수집사 김현주.
2012. 2. 16.	Brookline Chamber of Commerce 주최로 열린 After Hours Networking 모임을 호스팅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Oasis Café Music Night 프로그램과 ECC 건물을 홍보, 국내선교위원회와 홍보위원회 공동 주관.
2012. 2. 19.	사순절 묵상집 제6호 발간, 홍보위원회와 예배예술위원회 공동 주관.
2012. 2. 24.	중고등부와 청년1부 연합 찬양 집회.
2012. 2. 25.	창작극 'The Musical: Ruth' 앵콜 공연, 국내선교위원회 주최.
2012. 3. 11.	교회 소식지 '한울타리' 분기별로 연 4회 발간. 홍보위원회 주관.
2012. 3. 9.	청년1부, 청년2부, 부부청년부 연합 찬양 집회.
2012. 3. 9.	여성교회 세계 기도일 예배, 주제 '너희가 정의를 구하라'.

2012. 3. 17-18.	제직수련회, 주제 '교회: 하나님의 가정', 강사 장위현 목사(Belmont-Watertown United Methodist Church, Belmont, MA)
2012. 4.	청년2부 수련회, 주제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2012. 4.	중고등부 수련회, 강사 Dan Lee 전도사, 주제 'Living for The Audience of One'.
2012. 4. 8.	ECC 머릿돌 현판 설치와 Time Capsule 봉입.
2012. 4. 15.	시내산 동우회 창립 및 1차 산행 Blue Hills, MA,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주관.
2012. 4. 26-5. 3.	콜롬비아 단기대학 선교, 이유택 집사 파송. Mission group meeting, 대학 강의, Leader/Major meeting 등 8일간 사역.
2012.4. 28.	Oasis Café Music Night 'From Bach to Miles', 국내선교위원회 주최.
2012.4. 28-29.	역사편찬위원회 교회사 워크샵과 세미나, 초청강사 백순 장로(와싱턴중앙장로교회), 주제 보스턴한인교회 60년 역사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이야기, 어떻게 엮어 낼 것인가?'
2012. 5. 13.	어머니주일 전교인 찬양제.
2012. 5.	중고등부 견신/세례 겸 졸업파티.
2012. 5. 27.	전교인 야유회 겸 체육대회, 집사회 주관.
2012. 6. 10.	찬양팀 인도로 주일 2부예배 전 준비찬양 드리기 시작.
2012. 6. 19-22.	해바라기 유년초등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실시, 주제 'Inside out and upside down on main street where Jesus makes difference everyday'.
2012. 6. 28-7. 8.	콜롬비아 단기선교단 파송, Cartagena, YWAM Center, Arjona, Bochachia Island 사역, 단장 정한진 전도사와 김민준 집사와 5명의 중고등부 학생들과 5명의 대학생 등 총21명 참가, 교육, 전도, 봉사 사역.
2012. 7. 21-28.	니카라과 단기선교단 파송, 전구 목사와 이동홍 선교사 사역지에서 선교, Primera Iglesia Presbiteriana Hispana de Boston의 Pena 목사와 교인 6명 참여, 단장 안태준 장로, 총 24명 참가, 의료 사역, 목회자 세미나, 교사 강습회 등 사역.
2012. 8. 11.	Oasis Café Music Night 'Pu Pu Platter', 국내선교위원회 주최.
2012. 8. 24-26.	전교인 여름수양회, 강사 박광래 목사(후레스노한인장로교회, CA), 주제 '예배자로 바로 서라', Pilgrim Pines conference Center, NH.
2012. 9.	PC(USA)에 속한 한인교회 중 처음으로 Earth Care Congregation(ECC) Certification을 받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주관.
2012. 9. 16.	제직 안수 및 임직 예배, 신임 안수장로: 권복태, 안성완, 신임 권사: 공경희, 심기선, 전신애, 신임 안수집사: 강민형, 김연희, 김진섭, 김희정, 김향인, 노윤경, 안은신, 전현임.
2012. 9. 16.	신좌경 권사 백수 축하연.
2012. 10. 20.	Oasis Café Music Night '제2회 한국 가요의 밤', 국내선교위원회 주최.
2012. 11. 3-4.	탈북자 돕기 행사로 LiNK(Liberty in North Korea) 초청, 'The People's Crisis' 상영 및 성금 모금, 국내선교위원회 주관.
2012. 11. 18.	교회 창립 59주년 기념 예배 및 기념촬영.
2012. 11. 29.	브루클라인 타운 행사 Brookline First Light Festival에서 사물놀이팀 '하늘소리'가 공연.
2012. 12. 16.	보스턴한인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제1차 사진전(1953-1994), 역사편찬위원회 주최.
2012. 12. 22.	Oasis Café Music Night 'Holiday with Jazz', 국내선교위원회 주최.
2012. 12. 23.	주일에매시 주차 편의를 위해 Brookline Town Hall 지하주차장 렌트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 시작.

2012. 12. 31.	청년2부 담당 교역자 허신영 목사 사임 귀국.
<b>▼ 2013년</b>	<b>표어: 빛으로 소금으로</b>
2013. 1. 6.	전교인 신년잔치, 남선교회 주최
2013. 2. 2.	Oasis Café Music Night, 한국고전음악 연주, 국내선교위원회 주최.
2013. 2. 3.	제직 임직 및 장로 은퇴식, 은퇴장로: 김문소, 홍경자.
2013. 2. 10.	사순절 묵상집 제7호 발간, 홍보위원회와 예배예술위원회 공동 주관.
2013. 2. 14-3. 29.	사순절 새벽기도회.
2013. 3.	교회 소식지 '한올타리' 발간. 홍보위원회 주관.
2013. 4. 5.	자선 음악회 (Fundraising for Homeless Shelter), 청년2부와 국내선교위원회 공동 주최.
2013. 4. 5-7.	청년2부 수련회, 강사 최혜정(소망교회 대학부), 주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동체는 무엇인가?'.
2013. 4. 7.	제1차 무료 건강검진,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주관.
2013. 4. 12-14.	중고등부 수련회, 강사 David Jung 전도사, 주제 'Knowing the Father's Heart'.
2013. 4. 13.	제직수련회, 주제 '우리 교회 역사 되돌아 보기', 예배예술위원회 주관.
2013. 4. 19-21.	부부청년부 수련회, 강사 김건철 목사, 주제 'Belong to God, 하나님께 속한 가정'.
2013. 4. 27.	탈북자 단체(LiNK)를 돕기 위한 자선음악회, 국내선교위원회 주최.
2013. 5. 4-13.	콜롬비아대학 단기선교를 위해 이유택 집사 파송, 8개 대학 순회 강연.
2013. 5. 5.	해바라기 유년초등 주일학교 담당교역자 박진호 전도사 사임.
2013. 5. 12.	어머니주일 전교인 찬양제.
2013. 5. 17-19.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부흥회, 강사 최훈진 목사(Confluence Institute 대표), 주제 '변화의 바람이 불어 올 때'.
2013. 6. 1.	본 교회 김한나 집사 전국 한인 여성교회(Presbyterian Women, NCKPC)의 총회장으로 취임.
2013. 6. 24-27.	해바라기 유년 초등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주제 'Facing Fear, Trusting God'.
2013. 6. 28-7. 7.	콜롬비아 중고등부 단기선교단 파송, 구용한 집사, 한혜성 집사 등 총 6명.
2013. 6. 30.	중고등부 담당교역자 정한진(John Chung) 전도사 사임
2013. 7. 27-8. 3.	제1차 도미니카 공화국 단기선교단 파송, 김현철 선교사 사역지에서 선교활동, 단장 안태준 장로, Primera Iglesia Presbiteriana Hispana de Boston의 Pena 목사 와 4명 등 총27명 참가, 목회자,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 VBS, 의료, 봉사 선교 사역.
2013. 8. 16-18.	전교인 여름수양회, 강사 이상현 목사, 주제 '샘솟는 기쁨으로 섬기리라'.
2013. 8. 16-23.	Primera Iglesia Presbiteriana Hispana de Boston 선교단원들로 구성된 니카라과 단기선교단을 재정적으로 지원, Pena 목사와 3명의 단원들이 목회자, 교회 지도자, 주일학교 교사를 위한 세미나를 인도함.
2013. 8. 25.	해바라기 유년초등주일학교 담당교역자 김수영 전도사 사역 시작.
2013. 9. 15.	제직 안수 및 임직식, 신임 안수장로: 엄재관, 신임 권사: 김용희, 김종희, 김춘미, 조영신, 신임 안수집사: 구용한, 김진기, 김은정(A), 민정숙, 박양신, 신보경, 이동화, 이재익, 이지훈, 임보라, 장성연, 정은아, 한혜성.
2013. 9. 29.	중고등부 담당교역자 김수재(Daniel Kim) 전도사 사역 시작.
2013. 9. 29.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탁구대회, 탁구동우회 주관.
2013. 10. 4.	PC(USA) 총회로부터 Earth Care Congregation Re-certification을 받음.
2013. 10. 5.	제2차 무료건강검진,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주관.

2013. 10. 12.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제5회 한국문화축제(KCF) 개최, 주제 'Embrace', 집사회와 한미문화재단 공동 주관.
2013. 10. 30.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보스톤강단 8집, 이영길 목사 설교집 '희년의 노래2' 발간, 쿠파출판사.
2013. 11. 10.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제2차 사진전(1995-2013), 역사편찬위원회 주최.
2013. 11. 16.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이민신학 심포지엄.
2013. 11. 23.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음악회. 지휘 변화경 장로와 박진옥 집사, 참여 음악인: 문태국, 손민수, 조유미 집사, 보스톤 한인교회 연합찬양대.
2013. 11. 24.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예배.
<b>▼ 2014년</b>	<b>표어: 그 보다 큰 일도 하리니</b>
2014. 1. 5.	새해 웃놀이 잔치, 남선교회 주최.
2014. 1. 12.	정기 공동의회에서 윤경문 행정부목사의 계약을 2016년까지 연장.
2014. 1. 26.	변화경 장로 2부찬양대 지휘자 사임.
2014. 2. 7-9.	청년1부 봄 수련회, 강사 이요한 목사, 주제 'The Called: 사명자', Lincoln, NH. 평양 과기대 선교사 2부예배 후 세미나.
2014. 2. 16.	컴퓨터 사랑방 교실 친교실에서 시작.
2014. 2. 23.	2부찬양대 지휘자로 박진옥 집사 임명, 1, 2부 찬양대 지휘자를 겸임함.
2014. 3. 2.	2014 세계 기도일 개최, 마리아 여성교회 주최, 남선교회 헌신예배. 사순절 묵상집 제8호 발간.
2014. 3. 16.	Oasis Café Music Night, 'Jazz Small Ensemble', 국내선교위원회 주최.
2014. 3. 22.	교회역사편찬 합동회, 집사회 주관 교회 봄맞이 대청소.
2014. 4. 5.	제직수련회, 강사 김도훈 목사(뉴헤이븐한인교회), 주제 '역사 속의 하나님, 역사 속의 인간, 역사의 문제와 청교도 이해'.
2014. 4. 6.	부모님을 위한 컴퓨터 및 인터넷 강좌 개설.
2014. 5. 3.	북미 원주민 선교세미나, 국내선교위원회 주최. 선교 기금 모금 친선 골프 대회, 남선교회 주최.
2014. 5. 11.	어머니주일 전교인 찬양제.
2014. 5. 24.	Oasis Café Music Night 'Broadway to Hollywood' 공연, by The Broadway to Boston(B2B) Theater Company, 국내선교위원회와 한미문화재단 공동 주최.
2014. 5. 25.	전교인 야유회, Arsenal Park, Watertown, MA, 집사회 주최.
2014. 6. 14.	신앙 워크샵. 강사 이연승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주제 '쉽고 재미있는 북미 교회 부흥 이야기', 교육3부위원회와 집사회 공동 주최.
2014. 6. 15.	해외 및 국내 선교를 위한 음식 바자회, 청년1부 주최.
2014. 6. 27.	이영길 담임목사 NCKPC 총회장 취임, NCKPC 제43회 정기총회 및 전국대회, Portland, ME.
2014. 6. 27-7. 8.	프랑스 단기선교단 파송, 단장 안태준 장로, 총 11명.
2014. 6. 23-26.	해바라기 유년초등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주제 'Weird Love, It's Amazing!'
2014. 7. 21-25.	북미 원주민 선교학교 비전트립, Phoenix, AZ.



## 나. 보스톤한인교회 헌장(1972)과 규칙 7차 개정판(2015)

### 보스톤한인교회 헌장 1972

제1조	본 교회는 보스톤한인교회라 부르며 보스톤 지역에 둔다.
제2조	본 교회는 어느 특정한 교파에 속하지 않는다.
제3조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단체로, 기독교 복음 전파, 교우들의 신앙 향상, 기독교 교육 및 친목을 도모하며, 나아가서는 보스톤 지방에 유하는 한인들의 복리를 추구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4조	예배
제1항	예배는 매 주일에 드리며 교역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드린다.
제2항	성찬 예식은 교역자가 지정한 예배시간에 행한다.
제3항	세례식은 세례 신칭의 접수에 따라 교역자가 지정한 예배 시간에 행한다.
제5조	교인
제1항	본 교회의 교인은 입교인과 원입교인으로서 본교회에 등록된 자로 하며, 인종, 국적 혹은 사회적 조건을 초월한다.
제2항	입교인은 만 18세 이상의 세례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로 한다.
제3항	만 18세 이상의 원입교인은 교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되 피선거권은 없다.
제6조	교역자
제1항	본 교회의 교역자는 개신교회의 안수를 받은 목사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한다.
제2항	교역자의 선임은 제직회가 위임한 5명의 임시 천거위원의 천거로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 공동회의 인준을 받음으로 결정한다.
제3항	필요시에는 명예목사, 부목사 혹은 조사를 둘 수 있다.
제4항	교역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년마다 갱신하되 3차 유임 이후에는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교역자의 임기 갱신은 만기 3개월 전에 제직회에서 한다.
제7조	이사회
제1항	이사회는 이사 6명으로 구성하며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2항	이사회는 이사 중 1인의 의장과 2인의 감사를 두며 필요시에 부의장, 서기 및 회계를 둘 수 있다.
제3항	이사는 정기 공동회에서 매2년마다 3명이 선임된다. 단, 결원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잔여 임기만을 봉사하기로 한다.
제4항	이사회는 격월로 정기 집회를 가지며 필요시에는 의장이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혹은 교역자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제5항	임무
	(1) 이사회는 본 교회를 대표하는 법적 기관으로 교회건물 및 교회 자산의 관리를 맡는다.
	(2) 교회 경상비를 위한 주일헌금, 월정헌금 및 특별 헌금을 제외한 기타 기금에 대한 관리를 맡는다.
	(3) 정기 공동회에 하기 사항을 보고 한다.
	ㄱ. 교회 자산 가격 평가서
	ㄴ. 교회 기금의 출처 및 세액 명세서
제6항	(본 교회 기금의 관리 및 투자는 공동회의 인준을 얻어야 하며 이는 매사추세츠 주법에 의거한다.
제8조	부서 및 조직
제1항	(본 교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 및 조직을 둔다
	(1) 서기 - 서기는 교회의 모든 기록과 통신의 업무를 맡는다.
	(2) 회계 - 회계는 교회의 경리를 맡는다.
	(3) 재정부 - 재정부는 월정헌금에 관한 책임 경상비의 예산안 작성 및 기타 교회 재정에 대한 임무를 맡는다.

	(4) 교육부 - 교육부는 교우들의 기독교 교육에 관한 임무를 맡는다.
	(5) 봉사부 -봉사부는 교회와 사회를 위한 봉사에 대한 임무를 맡는다.
	(6) 교우부 - 교우부는 본 교회의 교적부 작성 수정 및 교우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임무를 맡는다
	(7) 음악부 - 음악부는 교회 내의 음악에 관한 임무를 맡는다.
	(8) 여신도회 - 본 교회 여신도의 자치적인 활동을 관장한다.
제2항	각 부 부장 및 서기 회계는 교역자의 천거로 제직회에서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항	서기, 회계, 각부 부장 및 각 조직 대표는 당회계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작성하여 정기 공동회 2주 내에 재정부에 제출하며 재정부장은 이를 제직회에 제출한다.
제4항	각 부 및 각 조직은 활동 사항 서면 보고를 정기 공동회에 제출한다.
제5항	각 부 부장은 3명 이내의 부원을 둘 수 있다.
제9조	본교회를 받드는 모임은 다음과 같다.
제1항	공동회
	(1) 정기공동회는 매년 9월 첫주에 소집하며 필요시에는 재적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나 제직회의 결의로서 교역자가 임시 공동회를 소집한다.
	(2) 공동회 소집공고와 특이 사항은 공동회 개최 2주전에 서면 공고로 각 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3) 공동회는 교역자 인준, 선임 이사 선출, 예산 결산 통과 및 기타 중요 사항을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4) 공동회는 교역자가 사회한다.
	(5) 정기 공동회 의정표는 최소 하기 사항을 포함한다.
	ㄱ. 개회 선언            ㄴ. 년차 보고            ㄷ. 결산 보고            ㄹ. 이사회의 보고
	ㅁ. 제직회 보고        ㅂ. 예산 통과        ㅅ. 폐회 선언
제2항	임원회
	(1) 임원회는 서기, 회계 각부 부장, 각조직의 대표 및 교역자로 조직한다.
	(2) 교역자는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정기 임원회는 매월 마지막 주일에 소집되며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필요시에는 임원회 의장의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다.
	(4) 임원회는 각 부서에서 계획하는 사업을 토의 실행한다.
	(5) 임원의 결원시에는 임원회 의장의 천거로 제직회에서 임명한다.
	(6) 임원의 임기는 정기공동회 2주 후부터 시작된다.
제3항	제직회
	(1) 제직회는 이사회와 임원회로 구성된다.
	(2) 제직회 회장은 제직회에서 선출한다.
	(3) 제직회는 예산안 심의 및 기타 중요 사항을 토의 결정하며 교역자나 제직회 회장이 필요시에 소집한다.
제10조	교회 재정
제1항	본 교회의 재정 수입은 주일헌금, 월정헌금, 특별헌금 및 기타 기금을 위주로 한다.
제2항	본 교회 예산 및 예비비 지출은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조	본 교회 헌장 수정은 제직회의 3분의 2나 교인 3분의 1 이상이 원할 시에 공동회 출석 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될 수 있다.
제12조	본 헌장에 특별히 명세되지 않은 업무는 제직회에 위임한다.
제13조	본 교회 헌장은 공동회 통과시 발효한다.

-----  
1969년 5월 4일: 공동회에서 통과  
1972년 6월 4일: 임시공동회에서 통과

## 보스톤한인교회(미국장로교) 규칙 7차 개정판 2015

### 1. 명칭과 소속 교파

- 가. 본 교회는 ‘보스톤한인교회(미국장로교)’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라 칭한다(이하 ‘본 교회’라 칭한다). 본 교회는 1953년 11월 추수감사주일에 창립되어, 1964년에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비영리 법인단체로 등록된 초교파 보스톤 한인교회의 법적 계승자이다.
- 나. 본 교회는 미국장로교 Presbyterian Church(U.S.A.)(이하 ‘교단’이라 칭한다)에 1985년 11월 17일에 가입된 회원교회이며, 교단의 헌법 및 규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한인교회로서의 고유한 문화적 특수성에 적합하도록 교회규칙을 제정하여 사용한다.

### 2. 교인의 자격

- 가. 본 교회의 교인은 등록교인과 비등록교인으로 구분한다.
- 나. 등록교인 – 본 교회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예배와 기타 행사에 출석하였고,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친 사람은 당회의 결정에 의하여 본 교회의 등록교인이 되며, 그 자격에 다음과 같은 구분을 둔다:
- 1) 활동교인 –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신앙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 또는 타교회에서 이명증서를 가져온 사람은 당회의 결정에 의하여 활동교인이 된다.
  - 2) 비활동교인 – 활동교인이, 각종 교회활동과 정규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당회의 결정에 의하여 비활동교인이 된다
  - 3) 관련교인 – 타교회의 활동교인이 잠정기간 동안 본 교회에 출석하고자 할 때, 당회의 승인을 받아 관련교인이 된다.
- 다. 비등록교인 – 본 교회에 참석한 지 6개월이 안 되었거나,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치지 않은 교인이다.

### 3. 교인의 의무

- 가. 전도의 의무
- 나. 참여의 의무(정규 예배 및 각종 행사)
- 다. 기도와 신앙생활의 의무
- 라. 헌금과 시간, 재능을 바칠 의무
- 마. 세계의 평화, 정의, 자유 및 인권의 존중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

### 4. 교인의 권리

- 가. 등록교인
- 1) 활동교인 – 교회가 허락하는 모든 권리와 특권을 가지며, 그중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다:
    - 성찬 예식에 참석할 수 있는 특권
    - 유아세례 때 자기 자녀를 대변할 수 있는 권리
    - 공동의회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과 투표권을 행사하며, 제직으로 시무할 수 있는 권리
  - 2) 비활동교인 – 활동교인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갖되, 공동의회 회의중에 발언권, 투표권이 없으며, 제직으로 시무할 권리가 없다.
  - 3) 관련교인 – 활동교인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갖되, 공동의회 회의중에 투표권이 없으며, 제직으로 시무할 권리가 없다.
- 나. 비등록교인 – 예배와 행사에 참여한다.

### 5. 교회 제직

- 가. 본 교회는 교회의 목회, 치리와 운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직을 둔다.
  - 담임목사(또는 부목사, 협동목사, 교육목사), 장로(협동장로포함), 집사(안수 및 서리집사), 권사
- 나. 목사를 제외한 장로(협동장로 포함)와 집사(안수 및 서리) 및 권사들은 연례 공동의회에서 각각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 다. 처음으로 선출된 시무장로들과 안수집사들은 반드시 6개월 내지 일 년간의 연수교육을 통하여, 제직의 의무, 책임과 권리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안수를 받고, 임직할 수 있다.
- 라. 안수식과 임직식은 연수교육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 마. 선임된 제직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직 공천 절차에 의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으며,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새 제직이 선출되며, 전임자의 잔여 기간 동안 봉사한다.

### 6. 담임목사

- 가. 담임목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인들이 그 복음의 기쁨과 정의를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영적 삶의 내용과 관계에 책임을 져야 한다.
- 나. 담임목사의 우선적이고 주된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선포하고, 세례와 성찬 예식을 집행하고, 교인들과 더불어 또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목회자로서, 교인들을 돌보며, 치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일이다.

### 7. 장로

- 가. 5년 이상 안수집사로 시무했거나 시무하고 있는 활동교인과 한 임기 이상 안수집사로 시무한 후, 권사로 시무한 연수를 합해 5년 이상인 활동교인과 협동장로로 2년 이상 시무한 활동교인은 공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 공동의회에서 장로로 선출될 수 있으며 담임목사와 함께 당회를 구성하여, 치리와 권징을 담당하고, 교인의 영적 문제를 보살핀다. 장로는 그들에게 맡겨진 교인들을 부지런히 돌보며, 교리나 도덕에 어떤 부패가 잠입하지 않도록 살피며, 또 병들고, 가난하며, 외롭고, 억눌린 교인들을 심방하며, 특별한 관심을 요하는 일들을 담임목사와 당회에 알린다. 장로는 담임목사와 늘 함께 노력하면서, 교인들의 믿음 또 섬김과 봉사의 생활이 성장하도록 지도하고, 훈련하고, 권고한다. 교인들이 교회 내의 책임을 맡거나, 또는 교회 밖의 선교사업을 맡아 수행해 나갈 때에, 그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 돕고, 준비시킨다. 장로는 언제나 성경을 공부하며, 또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필요시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노회의 특별 요청이 있을 때는 성찬 예식도 집행하게 된다.
- 나. 시무 장로의 수는 6명 이상, 15명 이하이어야 하고, 동수로 된 3개조로 구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시무장로의 임기는 1년에서 3년이며, 매 임기마다 한 번은 연임될 수 있으나, 두 번째 임기 후에는 반드시 최소한 1년간의 휴무기간을 가진다.
- 다. 시무장로는 교회의 재단이사회의 이사직을 자동적으로 수행한다.
- 라. 70세 이상 된 활동교인은 임기 1년의 장로로도 선출될 수 있다.
- 마. 교단 내의 타교회에서 장로로 안수받고 시무하던 중에 본 교회로 이적하여 활동교인으로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은 당회의 추천을 받은 후, 공동의회에서 협동장로로 선출될 수 있으며, 타교단에서 이적하여 온 장로는 활동교인으로 1년 이상 교회생활을 한 후에 당회의 추천을 받은후 공동의회에서 협동장로로 선출될 수 있다.
- 바. 협동장로는 일반장로와 같은 책임과 임무를 수행하며, 당회와 재단이사회의 회의에도 참석하여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행사할 수 없다.
- 사. 나이와 상관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은퇴할 수 있다.

## 8. 집사

- 가. 서리 집사는 활동교인으로 1년 6개월 이상 교회생활을 한 교인 중에서 당회의 추천을 받은 후 공동의회에서 선출될 수 있으며, 안수집사는 활동교인으로 4년 이상을 교회생활을 했거나 하고 있는 활동교인(서리집사 포함) 중에서 공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 공동의회에서 선출될 수 있다.
- 나. 집사의 주임무는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병들고 아픈 사람, 또는 외롭게 살아가는 이웃 등,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 다. 집사의 수는 15명 이상이어야 하고, 동수로 된 3개조로 구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집사의 임기는 시무 장로의 경우와 같이 적용된다.
- 라. 교단 내의 타교회에서 집사로 안수받고 시무하던 중에 본 교회로 이적하여 활동교인으로 1년 이상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은 공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 공동의회에서 안수집사로 선출될 수 있으며, 타교단에서 이적하여 온 안수집사는 활동교인으로 2년 이상 교회생활을 한 후에 공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안수집사로 선출될 수 있다.
- 마. 타교단에서 남권사로 시무하던 중에 본 교회로 이적하여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 활동교인은 교단 내의 타교회에서 이적하여 온 안수집사와 같이 대우한다.

## 9. 권사

- 가. 교인은 공동의회에서, 안수집사로 한 임기 이상 시무했거나 시무하고 있는 55세 이상 된 존경받는 여자 활동 교인 중에서 당회의 추천을 받은 분을 권사로 선출할 수 있다.
- 나. 권사는 임기에 제한이 없다.
- 다. 교단내의 타교회에서 집사로 안수받고 여권사로 시무하던 중에 본 교회로 이적하여 1년이상 활동 교인으로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 55세 이상 된 교인은 당회의 추천을 받은 후, 공동의회에서 권사로 선출될 수 있으며, 타교단에서 여집사나 여권사로 시무하던 중에 본 교회로 이적하여 활동교인으로 3년 이상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 55세 이상 된 교인은 당회의 추천을 받은 후, 공동의회에서 권사로 선출될 수 있다.

## 10. 공동의회

- 가. 공동의회는 활동교인으로 구성되며, 교회의 최종적 결정권을 가지는 최고의 의결기관이다.
- 나. 공동의회는, 연례 공동의회와 특별 공동의회로 소집한다.
- 다. 회의 소집 공고는 계속 두 주일에 걸쳐 해야 한다. 회의는 두 번째 주일 공고 후 소집할 수 있다.
- 라. 공동의회 회의는 담임목사가 사회한다. 담임목사가 공석 중이거나,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회의 요청에 의하여, 노회가 지명하는 목사가 사회한다. 담임목사는 투표권이 없다.
- 마. 공동의회 회의기록은 당회서기가 맡는다. 만일 당회서기가 참석 못하는 경우에는, 공동의회를 위한 임시서기를 당회가 임명한다.
- 바. 공동의회 회의 정족수는 총 활동교인의 10분의 1, 또는 그 이상이다.
- 사. 연례 공동의회는 매년 1월 둘째 주일에 교회 건물 내에서 개최하며, 다음의 안건들을 다룬다:

- 1) 제직의 선출
- 2) 당회의 각 부서의 연말보고와 새해 사업계획
- 3) 집사회 및 기타 교회 기관들의 연말보고와 새해 사업계획
- 4) 목회 관계(청빙 여부, 청빙 조건의 변경, 관계의 해약 등)
- 5) 부동산 관계(구입, 매매, 저당 등)
- 6) 기타 교회 행정상의 문제들

- 아. 특별 공동의회는 필요시 당회나 노회가 소집할 수 있고, 또 총 활동교인 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교인들로부터 서면요청이 있을때도 소집이 가능하며, 연례 공동의회 회의안건 중 어느 것도 다를 수 있다.

## 11. 공천위원회

- 가. 공동의회와 당회의 위임을 받아서, 제직 선출에 필요한 후보자들을 추천한다.
- 나. 공천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당회는 매년 최소한 2명의 장로를 위원으로 임명하며, 이들 중 1명은 반드시 현 당회원이 어야하며, 현 당회원인 장로가 공천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는다.
  - 2) 집사회는 매년 최소한 1명의 집사를, 현 시무안수집사 중에서 선정하여, 위원으로 임명한다.
  - 3) 공천위원은 활동교인으로 2년 이상 된 교인 중 매년 아래와 같은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각 1명씩 공천위원 후보를 자체선출하여 공동의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받은 후 공천위원으로 선출한다. 공평한 대표제 원칙(규례서 G-14.0223)에 따라 남녀, 각 연령층을 고려하여 선출한다. 4개 그룹은 (1) 집사회의 서리집사와 휴무 안수집사 그룹(집사회장이 모임을 주관한다) (2) 권사회와 상록회 (3) 여선교회(마리아와 에스터) 그리고 (4) 청년1, 2부와 부부청년부이다. 단 이들 중 누구도 현 당회의 시무장로이거나, 현 집사회의 시무 안수집사이면 선출될 수 없다.
  - 4) 공천위원회의 위원들은 3년까지는 연임할 수 있다.
  - 5) 담임목사는 공천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나, 투표권은 없다.
- 다. 공천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절차를 돕기 위해서 별첨된 부록을 참고할 수 있다.

## 12. 제직회

- 가. 제직회는 당회와 집사회의 합동회의이며, 1년에 2번의 정기회의를 가진다.
- 나. 제직회의 정기회의의 정족수는 총회원수의 8분의 1, 또는 그 이상이다.
- 다. 매 정기회의 때마다 당회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들은 담당부서 사업들의 진척상황과 또 앞으로 예정된 사업들의 계획을 보고한다. 또한 집사회와 당회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상호 의견을 나누며 토의한다. 의견의 합의를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집사회와 당회를 따로 열어, 각각 표결에 부친다.
- 라. 담임목사가 회의를 사회하며, 당회서기가 회의 진행의 기록을 담당한다.

## 13. 당회

- 가. 당회는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들로 구성되며, 담임목사를 포함한 모든 당회원이 투표권을 가진다.
- 나. 당회는 많은 분야에 걸쳐서 광범위한 책임을 가지는데, 다음과 같은 분야들이 있다:
- 1) 교인 관리 및 사법권의 행사
  - 2) 교인들의 신앙 및 봉사생활
  - 3) 예배의식과 성찬의식
  - 4) 선교와 전도, 구제 사업
  - 5) 일반 행정업무, 예산의 집행과 결산, 교회 건물의 관리
  - 6) 주일학교 및 기타 교육 프로그램
  - 7) 당회원 자신들의 성장을 위한 교육과 훈련
  - 8) 새로운 제직들의 안수와 임직 및 훈련
  - 9) 제직들의 책임수행 검토
  - 10) 교회 내의 다른 기관들의 감독
  - 11) 노회, 대회 및 총회와의 관계
- 다. 당회는 매월 1회의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시무장로 수의 3분의 1과 당회장인 담임목사의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되고, 회의의 사회는 담임목사가 담당한다.

라.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무장로 2명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또는 노회의 요청이 있을 때, 당회장은 임시당회를 소집하며, 그 합리적인 소집 이유를 통고한다.

마. 당회서기의 임무는 회의록 기록 이외에, 기록의 보관, 필요시 회의록의 발췌를 하는 일이다. 서기가 작성한 회의록 또는 발췌록은 본 교회와 그 상위 기관의 모든 부문에서 진정한 기록으로 간주된다.

바. 당회는 매년 제직들이, 그들의 기본임무인 예배와 모든 행사, 그리고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발전, 향상하는 데 얼마나 힘쓰며, 교회의 여러 분야에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활동하는지를 검토, 평가하고 지도한다.

사. 당회에는 교회의 치리와 권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임위원회를 둔다. 이 상임위원회는 당회가 승인하면 신설, 개설, 증설 및 폐지할 수도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 1) 교육1부위원회
- 2) 교육2부위원회
- 3) 교육3부위원회
- 4) 교인1부위원회
- 5) 교인2부위원회
- 6) 기획운영위원회
- 7) 국내선교위원회
- 8) 해외선교위원회
- 9) 정의평화환경위원회
- 10) 예배예술위원회
- 11) 재정위원회
- 12) 홍보위원회
- 13) 건물관리위원회
- 14) 역사편찬위원회

아. 각 위원회는 장로, 권사, 집사와 평신도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모든 제직은 최소한 1개 이상의 위원회에 소속되어, 그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자. 위원장과 당회서기는 당회원 중에서 선출되며, 그 임기는 장로의 임기에 준하다.

차. 교회의 모든 출판물은 담당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회의 사전인가를 받는다.

카. 기획운영위원회의 동산, 부동산에 관한 처리 사항은 재단이사회에 별도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타. 당회는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14. 재단이사회

가. 재단이사회는 민사법에 의해 보스톤한인교회를 대표하는 법인체로서, 시무장로들로 구성되며, 모든 재단이사들이 투표권을 가진다. 재단이사장은 당회에서 임명되며, 서기, 회계를 임명하여 매사추세츠 주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담임목사는 재단이사회의 당연직이사이나, 투표권은 없다.

나. 재단이사회는 교회를 위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접수, 보존, 저당, 관리 및 이전할 수 있다. 부동산의 구입, 매각, 저당에 관계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합법적으로 소집된 공동의회 승인을 얻은 후, 미국장로교 헌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15. 집사회

가. 집사회는 시무중인 안수집사들과 서리집사들로 구성된다.

나. 집사회는 집사들 중에서 회장, 총무, 회계와 서기를 선임하며, 담임목사와 시무장로 1명이 고문이 된다. 회장단과 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다. 집사회의 회의 정족수는 회원 총수의 10분의 1이고, 매분기마다 최소한 1회의 정기회의를 가지며, 필요시 집사회장이나 당회의 요청으로 특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라. 집사회는 회의진행의 기록, 자금과 그 사용의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고, 최소한 1년에 1회씩 연례적으로, 또는 당회의 요청이 있을 때 기록을 당회에 제출한다.

마. 집사회에는 필요한 부서를 둔다. 이 부서는 당회가 승인하면 신설, 개설, 증설 및 폐지할 수도 있다. 1명의 부장과 부원으로 구성된다. 현재의 부서는 다음과 같다: 경비안전부, 경조부, 구제부, 봉사부, 생활상담부, 친교부, 특수사역부

바. 집사회는 필요시 당회의 승인을 거쳐, 특별부를 구성할 수 있다.

## 16. 권사회

가. 권사회는 권사들로 구성되며, 교회와 담임목사를 도와, 기도와 상담 및 심방을 한다.

## 17. 부칙

가. 교단에서 추천하는 각급 상위기관의 일반규칙은 본 교회의 모든 회의와 활동에 적용되며, 만일 적용이 될 수 없을 때에는 '만국통상회의법 (Robert's Rules of Order)'의 최신판을 따른다.

나. 모든 회의는 기도로 개회하고, 기도로 폐회한다.

다. 이 규칙은 공동의회가 승인하는 즉시 발효한다.

라. 이 규칙은 공동의회에서 투표에 의하여 투표자의 3분의 2, 또는 그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된다.

-----

교회 규칙 제정 공포: 1985년 11월 17일

제1차 개정 공포: 1989년 1월 8일

제2차 개정 공포: 1997년 4월 6일

제3차 개정 공포: 1998년 10월 25일

제4차 개정 공포: 2003년 1월 12일

제5차 개정 공포: 2005년 1월 9일

제6차 개정 공포: 2009년 1월 11일

제7차 개정 공포: 2015년 1월 11일

다. 역대 교역자 명단과 사역

	교역자	협동교역자
1대	박대선 목사 1953. 11 - 1955. 8	
2대	박봉량 목사 1955. 8 - 1957. 1	
3대 공동목회	김용식 목사 1957. 1 - 1959. 12 조찬선 목사 1957. 1 - 1959. 12 한승호 목사 1957. 1 - 1959. 12	
4대	김용식 목사 1960. 1 - 1961. 12	
5대 공동목회	이계준 목사 1962. 3 - 1963. 6 이상현 목사 1962. 3 - 1963. 6 함성국 목사 1962. 3 - 1963. 6	
6대	함성국 목사 1963. 6 - 1964. 5	
7대	안상엽 목사 1964. 6 - 1966. 5	1964 - 1965: 유시욱 협동설교목사 1964 - 1965: 최창욱 협동설교목사 1964 - 1965: 이상현 협동설교목사
8대	김광원 목사 1966. 5 - 1968. 7	1966. 5 - 1967. 9: 김중기 협동설교목사 1966. 5 - 1966. 12: 박원기 협동설교목사 1966. 5 - 1966. 12: 이상현 협동설교목사 1967. 7 - 1968. 7: 이상호 부목사
9대	이상호 목사 1968. 8 - 1969. 5	
10대	김광원 목사 1969. 6 - 1971. 10	
11대	권진태 목사 1971. 11 - 1974. 4	
12대	김갑동 목사 1974. 5 - 1977. 12	
임시공동목회	노정선 목사 1978. 1 - 1978. 10 유철욱 목사 1978. 1 - 1978. 10 함성국 목사 1978. 1 - 1978. 10	
13대  임시목회	홍근수 목사 1978. 11 - 1987. 1  김수환 목사 1983. 5 - 1984. 2 (홍근수 목사 학업 휴무 중)	1981. 05: 김정호 전도사, 목회일반, 사무직, 청년회 지도 1982. 02 - 1983. 05: 김정호 부목사 1984. 01 - 1984. 12: 김만풍 목사, Part time 교육 담당 부목사 1985. 12 - 1989. 05: Bob Klein 교육목사, 중고등부 1986 - 1987. 08: 박성진 목사, 대학청년부, 임시협동목사 1987. 03 - 1988. 04: 박전홍 전도사, 유년주일학교
14대	채위 목사 1987. 8 - 1994. 5	1987. 09 - 1988. 05: 최재건 협동목사, 대학/청년부 1987. 11 - 1992. 02: 전희원 전도사, 대학청년부 1989 - 1990. 01: 안재웅 전도사, 성인성경공부 1989. 03. 5 - 1991. 06: 김종대 목사, 영어예배부 및 중고등부 1989. 04 - 1991. 07: 김종범 전도사, 중고등부 1989. 10 - 1996. 05: 이철 전도사, 대학청년부 1991. 08 - 1992. 05: 김준식 전도사, 중고등부 1991. 09 - 1992. 12: 전희원 전도사, 유년주일학교, 영어예배부 1992. 8 - 1993. 12: 이은주 전도사, 중고등부

	교역자	협동교역자
		1993. 1 - 1993. 12: 김종일 목사, 영어예배부 1993. 3 - 1995. 5: 정성욱 전도사, 유년주일학교 1994. 1 - 1998. 10: 김승호(Sam Kim) 전도사, 중고등부 1994. 2 - 1995. 3: 이재원/신승희(John/Sara Lee) 전도사, 영어예배부
임시목회	김종일 목사 1994. 6 - 1995. 5	1995. 2 - 2006. 3: 윤경문 전도사를 행정전도사로 임명 1995. 3 - 1996. 9: John Hwang 전도사, 영어예배부 임시 담당
15대	이영길 목사 1995. 6 - 현재  이영길 목사 제1차 안식년 2001 이영길 목사 제2차 안식년 2002	1995. 7 - 1998. 9: Esther Cho 전도사, 유년주일학교 1995. 11 - 1998. 8: 손병덕 전도사, 대학부 1996. 1 - 2000. 3: 권의식 전도사, 새신자 교육반 1996. 10: Garry Parrett 목사, 영어예배부 1997. 9: Patrick Chen 전도사, 영어예배부 1997. 11 - 2005. 9: 김형곤 목사, 청년부 1999. 3 - 2000. 7: 최형규 전도사, 중고등부 1998. 10 - 2010. 9: 김선희 전도사, 유년주일학교 2000. 3 - 2003. 7: 윤성철 전도사, 새신자 교육반 2000. 7: 홍동욱 집사, 대학부 지도(paid staff) 2000. 9: John Chung 부목사, 영어예배부 2000. 9 - 2001. 6: Matthew Kim 전도사, 중고등부 2001. 10 - 11 김형곤 목사 임시목회 2002. 6 - 11 주승중 목사 임시목회 2002. 10 - 2003. 6: Johnson Samuel 목사, 중고등부 2003. 8 - 9: Ken Hwang 전도사, 중고등부(임시) 2003. 10 - 12: 주봉서 목사 중고등부(임시) 2003. 9 - 2007. 6: 배요한 협력목사, 부부청년부 2004. 2 - 2006. 12: 서동일(David Seo) 전도사, 중고등부 2005. 11 - 2006. 6: 박태원 임시 협력목사, 청년2부 2005. 11 - 2007. 6: 배요한 임시 협력목사, 청년2부 2006. 3: 윤경문 전도사를 Designated Associate Pastor 행정부목사로 위임 2006. 6 - 2008. 7: 김만규 전도사, 청년2부 공동 목회자, 부부청년부 2007. 4 - 2013. 7: John Chung(정한진) 전도사, 중고등부 2007. 7 - 2012. 12: 허신영 목사, 장년성경공부반, 청년2부 2007. 10: 이요한 전도사, 목회 인턴으로 임명, 성인성경공부반 2007. 10. 21: 윤경문 목사 안수식 2008. 1: 박찬석 전도사, 목회인턴으로 임명, 성인성경공부반 2008. 2 - 2010. 4: 이요한 목사(안수 2008. 05), 청년1부 담당 2008. 9 - 2010. 8: 소기범 목사, 부부청년부 담당 2010. 5 - 2011. 4 : 이요한 목사, 청년1부 담당, 유년초등주일학교 임시목회 2010. 9 - 현재: 김진철 목사, 부부청년부 2011. 5 - 2013. 5: 박진호 전도사, 유년초등학교 2011. 5 - 현재: 이요한 목사, 청년1부 담당, 강의식 성경공부반 인도, 행정보조 (2011. 12 - 2014. 5) 2013. 8 - 현재: 김수영 전도사, 유년초등학교, 행정보조 (2014. 6 - 현재)

## 라. 역대 당회원 명단

성 명	시무 기간	주요 내용
김갑성	1980. 3 - 1997. 2	1980 장로 임직, 1985 장로 안수, 1997 은퇴, 2009 소천
이덕희	1980. 3 - 1985	1980 장로 임직, 1985 전출
장태인	1980. 3 - 1980. 12	1980 장로 임직, 1980 전출
공병례	1980. 3 - 1983. 6	1980 장로 임직, 1983 전출
조남철	1980. 3 - 1980. 9	1980 협동장로 (안수: 서울성광교회), 1980 전출, 2001 소천
공병근	1980. 3 - 1981	1980 협동장로 (안수: 충남삼교교회), 1981 전출
김문소	1981. 2 - 2013. 2	1981 장로 임직, 1985 장로 안수, 2013 은퇴
이일영	1983. 1 - 1994. 9	1983 장로 임직, 1985 장로 안수, 1994 전출
한승희	1983. 1 - 현재	1983 장로 임직, 1985 장로 안수
김성빈	1985. 11 - 현재	1985 장로 안수
김창신	1985. 11 - 1997. 10	1985 장로 안수, 1997 전출, 2006 소천
변화경	1985. 11 - 현재	1985 장로 안수
조준호	1985. 11 - 현재	1985 장로 안수
최연일	1985. 11 - 현재	1985 장로 안수
김영경	1988. 2 - 1999. 2	1988 장로 안수, 1999 은퇴
김현	1988. 2 - 1998. 5	1988 장로 안수, 1998 - 현재 휴무
김정선	1988. 2 - 현재	1983 장로 안수 낙스빌한인장로교회 PC(USA), 1988 협동장로 1989 시무장로
김내도	1990. 1 - 1998	1990 장로 안수, 1998 전출
백린	1990. 1 - 1995. 2	1990 장로 안수, 1995 은퇴
조요운	1991. 1 - 1997	1991 장로 안수, 1997 전출
강길원	1993. 2 - 2010. 1	1993 장로 안수, 2010 소천
김형범	1993. 2 - 2011. 2	1993 장로 안수, 2011 은퇴
강성유	1994. 2 - 2000. 9	1994 장로 안수, 2000 은퇴, 2009 소천
홍경자	1999. 9 - 2013. 2	1999 장로 안수, 2013 은퇴
강경희	2000. 9 - 2001	2000 장로 안수, 2001 전출
김명철	2000. 9 - 2010	2000 장로 안수, 2010 전출
박영철	2000. 9 - 현재	2000 장로 안수
강상철	2001. 9 - 현재	2001 장로 안수(베다니장로교회로 파송/전출)
박영일	2000. 1 - 2006	1993 장로 안수 락빌한인장로교회 PC(USA) 2000 협동장로, 2002 시무장로, 2006 전출
김순규	2001. 1 - 2004	1981 장로 안수 Hartford 한인장로교회 PC(USA), 2001 협동장로, 2010 소천
이선영	2005. 2 - 현재	2005 장로 안수
김세철	2005. 9 - 현재	2005 장로 안수

성 명	시무 기간	주요 내용
장양술	2005. 9 - 현재	2005 장로 안수
정진웅	2007. 9 - 2009.1	2007 장로 안수, 2009 전출, 2011 소천
안태준	2008. 9 - 현재	2008 장로 안수
홍동욱	2008. 9 - 2010	2008 장로 안수, 2010 전출
김성현	2009. 9 - 2014	2009 장로 안수, 2014 전출
이정규	2009. 9 - 현재	2009 장로 안수
김길람	2008. 1 - 2010	1992 장로 안수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천중앙교회, 2008 협동장로, 2010 전출
김영범	2011. 9 - 현재	2011 장로 안수
박신영	2011. 9 - 현재	2011 장로 안수
권복태	2012. 9 - 현재	2012 장로 안수
안성완	2012. 9 - 현재	2012 장로 안수
엄재관	2013. 9 - 현재	2013 장로 안수
이정민	2014. 2	추천장로

## 마. 세례, 입교, 유아세례, 견신자 명단

1979년	세례자: 김범만, 김연숙, 김정남, 김한나, 박은숙, 박호철, 백영기, 백형기, 변관현, 원덕수, 이경순, 이명희, 장길상 유아세례자: 공성미, 공성진, 김신원, 김준, 김은영, 김혜성, 최윤은
1980년	세례자: 김난희, 나시옥, 박병덕, 백린, 안건혁, 이승진, 이인영, 이희선, 최선경 유아세례자: 김요한, 안혜린, 이진휘, 천정우, 한은수, 한지나 입교자: 이종휘
1981년	세례자: 강길원, 김관수, 김영민, 김정선, 김정은, 남주홍, 민병진, 서지원, 성보현, 안미선, 안일준, 양웅, 양혜자, 엄미숙, 오진옥, 오현승, 이경이, 이경혜, 이종호, 정혜련, 한호준, 홍명숙 유아세례자: 공선화, 고파미, 김영주, 김플, 남보람, 양진희, 오에릭, 이르베카, 정희원
1982년	세례자: 김도한, 김은경, 김혜련, 박성민, 박희선, 서현아, 이대길, 이영희, 이옥희, 이정은, 임종부, 정갑진, 한일홍, 홍기섭 유아세례자: 김엘버트, 김제랄드, 민승기, 이동규, 임종영, 한마이클
1983년	세례자: 김경희, 문성욱, 문영도, 양영라, 이기반, 주한샘, 정귀란, 차희자, 강판암 유아세례자: 박민영, 주은경, 정희영, Peter Christopher Kim
1984년	세례자: 김인선, 이미숙, 이상노, 이승은(수잔), 이재환, 이화연 유아세례자: 김소은, 이시문, 조성훈, 한로라
1985년	세례자: 강태욱, 고앤드류, 김상만, 김수금, 김태현, 김피터, 릴리안 토마스, 백한나, 오정은, 이평팔, 전필립, 정경주, 정원영, 최우석, Jason Dutoit
1987년	세례자: 강미선, 박승용, 박지혜, 손진태, 이영숙, 이찬호 유아세례자: 김정운, 김지윤, 노성현, 진정목, 조명훈
1988년	세례자: 김동환, 김정림, 박혜정, 성영철, 이용현, 이혜승, 정유나, Katherine Lim 유아세례자: 강소정, 김승환, 성승윤, 장안나, Alex Burke
1989년	세례자: 이준원, 정형민, 한상남 유아세례자: 김지원 견신자: 정낙현
1990년	세례자: 김원두, 김정두, 김혜림, 안궁환, 우얼, 우해나, 우희중, 이정인, 이정왕, Tracy Kimberly Snyder, Steve Kang
1991년	세례자: 박은혜, 정현찬 유아세례자: 이민지, 이한솔 견신자: 김지향
1992년	세례자: 김연호, 이상수, 정정혜, 최혜자 유아세례자: 김민우, 김준우, 윤상범, 정지영, 정혜영, Leshae Robinson, Ciji Robinson, Nicole Snyder, Deborah Ruth Lee, Andrew Park
1993년	세례자: 김경옥, 김종천, 김지일, 김찬숙, 선영미, 신형식, 이도석, 정성현, Rebecca Kim, Jillian Byun 유아세례자: 신지호, 원로라, 이리라, 이리비, 이장훈
1994년	세례자: 김정주, 송문섭, 옥주영, 이앤젤라, 임병원, 조다영, 조제시카, 허진 유아세례자: 박상현
1995년	세례자: 김난희, 김복길, 손정곤, 장보경, 정승현, 주성림, 차주혁 유아세례자: 김정무, 진태희
1996년	세례자: 김일영, 김현주, 김혜숙, 박승현, 서정원, 이태한, Patty Kim, Mauryn Kira, Marita Li, Mike Oh, David Son, Tina Yoon, Jackie Bae 유아세례자: 김 Diane, 김동광, 김태멘, 손주원, 차성은, 차인권, 최은석, 최은정 견신자: 최윤은, Edward Kim
1997년	세례자: 박성배, 박철원, 배은주, 신현길, 유길준, 이덕범, 이만영, 정경숙, 정혜주, 조성희 유아세례자: 김한아, 박연하, 박영훈, William Wohn

1998년	세례자: 김중연, 김철, 박성민, 박성준, 백준현, 서정실, 전계연, 이해란 유아세례자: 김민혁, 김병택, 박준희, 안유진, 이진선, Andrew Chang, 진태미, 최샘
1999년	세례자: 김정민, 김정은, 김정현, 배성희, 양희동, 이훈범, 임현정, 조정주, 최원선, 최창열, 한수영 유아세례자: 김대근, 김민하, 서형원, 이정민, 정효영
2000년	세례자: 고성욱, 김동규, 김이선, 박성철, 이봉기, 이주원, 이현정, 정진미, 한영신, 홍기정, Eugene Lee 유아세례자: 강태규, 권나현, 권준호, 김규민, 김성아, 김성혁, 박원준, 박조앤, 박지은, 배기현, 백연재, 문지윤, 서승연, 손주성, 양요한, 오지혜, 우성민, 이수민, 이재용, 진주, 장효나, 황유선 견신자: Brian Kim, Dan Kim, Grace Kim, Hyekyu Lee, Irene Byun, Jennifer Kim, John Kim, Laura Han, Robert Kim, Samuel Sunghoon Cho, Sunghwa Chang
2001년	세례자: 고진수, 김나라, 김효진, 노진형, 박미라, 박종열, 박주형, 양영수, 정두련, 정재원, 지윤진, 진정원, 태영미, (현)김동숙, Samuel Min, Min Hyung Ji 유아세례자: 강의준, 고정민, 권민수, 김나현, 김병호, 김수원, 박시은, 박예준, 박정준, 박희성, 백지윤, 서승재, 안효리, 유선재, 이주비, 정순호, 정주호, 한영주, Taylor Lee, Tobias Park 견신자: David Chung, Jenifer Wohn
2002년	세례자: 김고은, 김리나, 김희수, 김희용, 박시환, 이에진, 이혜령, 이혜원, 한원국, 황호범 유아세례자: 김경린, 김성민, 김시문, 김혜리, 윤영준, 이종현, 황해나
2003년	세례자: 박미정, 박은정, 변지석, 신숙희, 오용, 윤영중, 이봉열, 이정일, 이혜민, 장아영, 전재완, 전현임, 정성현, 정일진, Youngsook Jung, Michael Lee, Edmond Kim 유아세례자: 고선우, 김규진, 김민성, 김정목, 양아린, 이서준, 이현정, 장라나, 최재경, 홍준규 견신자: 서동민, 이정상
2004년	세례자: 구본철, 권병욱, 김태형, 박가희, 백남욱, 안지용, 오윤정, 임은혜, 전성준, 정지연 유아세례자: 김민재, 김세원, 김정욱, 김주은, 김준호, 진우, 최정민, 한영지 견신자: 김미영
2005년	세례자: 김현호, 박혜진, 신지연, 류정용, 방지연 유아세례자: 고석환, 김수환, 김형찬, 박 Justin, 백선우, 양아룬, 오준현, 옥정수, 장리나, 정동현, Isabella Kyu Hyun Pavano 견신자: Paul Cho, Daniel Lee, Enoch Lee
2006년	세례자: 노윤경, 문혜정, 이봄비, 조나현 유아세례자: 김민주, 김민준, 김성우, 김아란, 김은지, 김준, 박성우, 성재인, 이종훈, 이혜린, 정동준, 조성원, 최재민 견신자: Anna Chang, Caroline Kim, MinWoo Ji, Charlie Chung, Kirill Smirnov
2007년	세례자: 김진기, 조성호 유아세례자: 김두환, 김명희, 김수민, 김시은, 김윤찬, 김정연, 김지환, 김혜은, 이선임, 허은석, 황지나
2008년	세례자: 권오훈, 김은별, 이청경, 장성주, 채주영, 최병윤, Andy Han, Dong Suk Lee, Yoon Jung Choi 유아세례자: 김승우, 김종민, 김주빈, 박태현, 배에은, 배하은, 백서진, 배주은, 서은찬, 유부영, 이예린, 이지현, 조권우, 정민아, 황은아 견신자: Brian Yang, Joshua Yi, Richard Lee, Tiffany Sommadossi
2009년	세례자: 구혜영, 김두원, 김지은, 박한우, 이창범, 이현화, 장성희 유아세례자: 구지수, 계수, 김수연, 김재은, 김재희, 김지윤, 민서영, 류재영, 오한나, 유다은, 이응규, 이지우, 이혜원, 차예성, 최서연, 최윤서, 최윤하, 최재윤, Sophia Kyu Ok Pavano, Sun 하나
2010년	세례자: 고미선, 박성민, 변옥화, 장준연, 전아사, 천정렬, 홍주희 유아세례자: 강춘서, 김예지, 김지민, 김호중, 이은호, 장준영 견신자: David Kim, Esther Kim, Hyo In Kim, Kwang Jin Ahn, Na Eun Kang, Sehee Sim, Soo Young Bang

2011년	세례자: 김대성, 김민경, 김한나, 도원준, 박선영, 안지혜, 육혜진, 이삼환, 이상필, 이재상, 장세훈, 정명숙, 차영지, 최정규, 허하나 유아세례자: 김승주, 류재범, 문서영, 문예영, 박영인, 박종후, 백인수, 이주현, 이하연, 정지오, 조인우, 차예준, 최유준
2012년	세례자: 김하얀, 문현식, 이윤송, 장숙경, 정민수 유아세례자: 김야긴, 김이준, 김주아, 김지애, 오유택, 오에나, 이승민, 장준, 정민우, 정세인, 허윤우, 채희준, 채희진, 최정인, Jean Park, Yeorim Jo 결신자: Ivey Choi, James Park, Chaewon Bang
2013년	세례자: 김지우, 전주영 유아세례자: 강세연, 김지인, 유셋별, 이은희, 전현준, 한유주, 황세연, 황지섭
2014년	세례자: 서재영 유아세례자: 류재희, 배이솔

**바. 출석 및 활동교인 통계**

	장년예배		중고등부	유년초등 주일학교	총 계	영어예배부	한국학교	비 고
	1부예배	2부예배						
1978	101	.	.	101				
1979	140	.	.	140				
1980	150	.	.	150				
1981	165	.	.	165				
1982	163	.	.	163				
1983	144	.	.	144				
1984	143	.	.	143				
1985	146	.	.	146				
1986	180	.	.	180				
1987	171	.	.	171				
1988	173	.	.	173			40	보스톤한국학교 개교
1989	180	20	16	216	.	30		영어예배부 시작
1990	185	20	25	230	.	.		
1991	179	25	40	244	.	.		
1992	139	25	42	206	30	.		
1993	139	24	31	194	39	40		
1994	145	18	29	192	63	.		
1995	160	20	35	215	86	.		
1996	205	20	42	267	85	40		
1997	61	226	21	308	95	40		1, 2 부예배 시작
1998	91	218	29	338	83	31		
1999	99	220	39	358	98	43		
2000	104	260	52	416	90	57		
2001	100	271	57	428	112	44		
2002	115	295	50	460	103	53		
2003	119	298	50	467	89	51		영어예배부 독립
2004	110	315	47	472		60		
2005	103	315	57	475		50		
2006	101	321	64	486		70		
2007	104	350	49	503		70		
2008	108	301	49	458		60		
2009	100	275	49	424		60		
2010	100	249	49	398		.		
2011	105	232	48	385		.		
2012*	103/4	239/16	10/45	25/74	377+139=516		.	
2013*	94/2	221/14	8/41	24/71	347+128=475		40	

• Data missing

\* 2012년부터 성인 출석/어린이 출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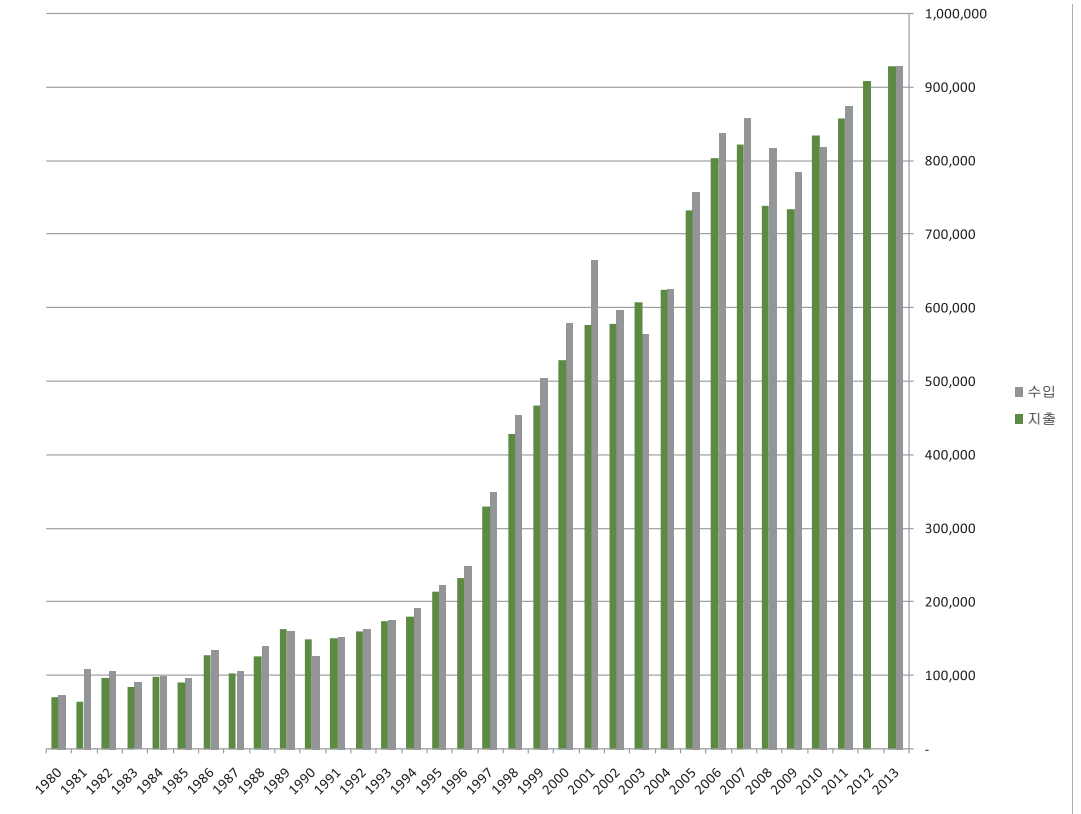
보스톤한인교회 활동교인 통계

	장년활동교인		총 계	비 고
	남	여		
1985	.	.	107	세례교인
1986	65	76	141	세례교인
1987	66	72	138	세례교인
1988	.	.	.	.
1989	.	.	159	세례교인
1990	.	.	174	세례교인
1991	.	.	.	.
1992	.	.	.	.
1993	72	82	154	세례교인
1994	70	94	164	활동교인
1995	95	104	199	활동교인
1996	93	109	202	활동교인
1997	101	125	226	활동교인
1998	119	132	251	활동교인
1999	113	145	258	활동교인
2000	140	178	318	활동교인
2001	167	194	361	활동교인
2002	170	206	376	활동교인
2003	144	180	324	활동교인
2004	152	166	318	활동교인
2005	151	159	310	활동교인
2006	153	173	326	활동교인
2007	155	175	330	활동교인
2008	155	180	335	활동교인
2009	145	168	313	활동교인
2010	145	173	318	활동교인
2011	150	190	340	활동교인
2012	161	196	357	활동교인
2013	162	198	360	활동교인

• Data missing

사. 수입, 지출 및 사역별 지출 통계

연도별 수입, 지출 총계 대비 추이: 1980-2013



	1995	2000	2005	2010	2013
수입총계	222,408	579,712	757,062	818,604	928,471
주정/십일조	138,233	352,939	447,290	526,051	514,823
일반 헌금	62.2%	60.9%	59.1%	64.3%	55.4%
특별 헌금	24.9%	9.2%	8.8%	7.2%	6.8%
절기 헌금	9,105	112,314	123,843	71,193	106,184
행사 헌금	4.1%	19.4%	16.4%	8.7%	11.4%
노회 상회비	13,420	25,405	33,476	42,781	43,117
건물 임대	6.0%	4.4%	4.4%	5.2%	4.6%
기타	2,350	10,882	10,851	12,231	9,376
	1.1%	1.9%	1.4%	1.5%	1.0%
노회 상회비	1,396	3,955	5,095	6,145	5,155
	0.6%	0.7%	0.7%	0.8%	0.6%
건물 임대		16,455	62,140	96,323	172,008
		2.8%	8.2%	11.8%	18.5%
기타	2,612	4,169	7,928	5,263	14,422
	1.2%	0.7%	1.0%	0.6%	1.6%

	1995	2000	2005	2010	2013
지출총계	215,195	529,288	733,000	834,742	929,040
교역자 사례비	113,674	170,034	234,198	297,456	289,941
	52.8%	32.1%	32.0%	35.6%	31.2%
예배 예술위	3,291	10,846	11,733	13,450	18,036
	1.5%	2.0%	1.6%	1.6%	1.9%
교육위	9,813	27,449	63,465	48,604	57,656
	4.6%	5.2%	8.7%	5.8%	6.2%
선교위	22,233	138,767	147,670	83,549	91,751
	10.3%	26.2%	20.1%	10.0%	9.9%
교인위	5,808	21,621	22,788	17,502	20,750
	2.7%	4.1%	3.1%	2.1%	2.2%
홍보위		18,686	20,257	11,381	4,958
		3.5%	2.8%	1.4%	0.5%
기획관리위	34,052	74,925	108,547	132,004	184,539
	15.8%	14.2%	14.8%	15.8%	19.9%
집사회	2,889	4,700	19,315	7,072	16,412
	1.3%	0.9%	2.6%	0.8%	1.8%
사무비	3,911	11,449	17,547	20,087	19,655
	1.8%	2.2%	2.4%	2.4%	2.1%
교회 의무금	8,213	11,975	18,248	16,600	16,700
	3.8%	2.3%	2.5%	2.0%	1.8%
정의평화환경				439	500
				0.1%	0.1%
목회자활동	1,214	4,569	8,142	8,061	8,526
	0.6%	0.9%	1.1%	1.0%	0.9%
건축융자상환			38,000	153,805	155,340
			5.2%	18.4%	16.7%
예비비	10,097	34,267	23,090	24,732	11,164
	4.7%	6.5%	3.2%	3.0%	1.2%
기타					33,112
					3.6%

\* 2013 기타는 창립 60주년 행사비용

 편찬후기

여호와 이레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3년에 보스톤한인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첫 회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교육 및 지역사회관(Education & Community Center, ECC)을 계획하고 설계하여 공사를 시작하고 잘 끝내도록 유창한 영어와 사리가 분명한 한승희 장로님을 건축위원장으로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2012년 1월에는 교회 60년사를 맡아서 멋지게 만들도록 computer에 능통하고 조직적이며 추진력이 강한 김정선 장로님을 보스톤한인교회 60년사 편찬위원장으로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김정선 장로님은 1988년에 '보스톤 한국학교'를 시작하였고, 2004년에 시작된 '정의, 평화, 환경 위원회'를 통하여 교회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으며, 2012년에는 이를 실천하는 '시내산 동우회'를 시작하였고, 2014년에는 '컴퓨터 사랑방모임'을 열어 주로 노년층을 상대로 컴맹을 벗어나도록 컴퓨터 교육에 힘쓰는 한편, 한국의 Compassion 운동을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능력 있고 앞을 내다보는 분입니다.



김한나, 김문소, 김정선, 박신영(앞줄) / 최정열, 이혜승, 이태호, 안성완(뒷줄)

제가 1975년 10월 필라델피아에서 이사온 다음주에 보스톤 한인교회에서 처음 예배를 드릴 당시 보스톤한인교회의 교인 구성은 여러 교단의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 불교인들까지 모두가 한인들이기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초교파 한인교회였지요. 그후 10여 년 사이에 한인들이 늘면서 각 교파교회가 생기고, 천주교회 성당과 불교 법당도 이 지역에 생기면서 보스톤 지역의 어머니교회 되는 우리 보스톤한인교회도 1985년에 미국장로교(Presbyterian Church(U.S.A.))에 가입하여 1993년에 40주년, 2003년에 회년 50주년, 2013년에 60주년이 되었네요. 이 60년사가 2053년 제2의 회년 100주년의 좋은 교회역사 자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만 3년간에 걸쳐 미흡한 자료들을 찾아 수집 정리하느라고 수고하신 여러 편찬위원과 함께 백지장을 맞드는 심정으로 참여해 온 것을 감사드립니다.

- 김문소 장로

교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교회 역사책을 만든다고 역사편찬위원회가 조직되고, 희망 벽찬 마음으로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수없이 많은 회의와 작업과 전시회 등 시간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분량의 시간 투자가 이제 빛을 보나 봅니다. 몇십 년 동안 창고에서 묵은 서류, documents가 수십 박스! 먼지 냄새, 묵은 종이 냄새 속에 스며 있는 우리 교회의 역사의 흔적을 연대별, 부서별, 행사별, 책자별 등 항목을 만들어 나누어 정리하는 작업으로 시작하여 그 모든 흔적들을 스캔(scan)하고 전산화하여 컴퓨터에 영구 보전케 하는 기초작업이 관건이었습니다. 그후 나누어진 항목별의 documents를 찾아가며 하는 글쓰기는, 오랜 시간의 컴퓨터 작업으로 어깨 근육과 시력의 고통을 동반하기도 했습니다. 현 교인이나 지나간 교인들에 이르기까지 방방곡곡에서 모인 사진들을 정리하여 캡션도 달고 사진 전시회를 준비했고 또 책 속의 화보난을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각 장별로 간단한 영문 설명을 위해 아쉬운 부탁도 해야 했고, 각자의 직장생활과 병행하며 하는 역.편.위. 작업, 모임으로 개인의 쉼 시간은 멀리 날아가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2013년 6월에 여선교회 전국연합회(NKPW) 회장으로 선임되어, 그 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여 직장도 파트타임(part-time)으로 바꾸었는데, 그 여분의 시간은 뜻하지 않은 역.편.위.의 작업에 몽땅 바쳐야 했습니다. 이것이 'the Book of KCB Chronicle'을 위한 하나님이 예비한 “여호와 이레” 였나 봅니다. 이제 작업의 막바지에서 뒤돌아 보니 KCB 역사 안에 내가 존재해 있고, 살아있는 역사의 한 증인이 되어 있음을 실감합니다. 거의 40년이 되어가는 KCB 속에서의 생활이, 줄줄이 엮여 가는 역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여일 속편 KCB 역사책 작업에도 또 한 손의 보탬이 될 기회가 주워질지 기대해 봅니다. ‘아~, 지금까지 한 고생을 꼬장꼬장 늘어놓을 땀 언제고 이제 또 이런 고생을 자처한단 말인가? 한나야, 정신 차려라!’

- 김하나 권사

보스톤한인교회는 지난 60년간 보스톤의 한인들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했고, 보스톤한인교회를 통해 주님이 전파되었습니다. 60년의 긴 세월 동안 교회에는 기쁘고 좋고 자랑스러운 일뿐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부끄럽고 창피한 일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의 모임이므로, 교회를 통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린 사람들 뿐 아니라, 슬픔과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조차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교육의 기회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지난 60년의 역사를 통해 느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그 역사를 통해 사람들을 키우시는 것 같습니다.

보스톤한인교회 60년의 자료를 통해 교회를 위해 헌신한 많은 사람들의 섬김의 이야기들과 미처 기록되지 못한 전해오는 이야기들을 접했습니다. 또한 이름 모를 많은 이들의 섬김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보스톤한인교회 60년사에 다 담을 수는 없었지만, 기록된 역사의 행간에 이들의 섬김이 있었음을 잊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생각하며, 역사 편찬에 참여한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함께한 김정선 편찬위원장님, 여러 편찬위원님들, 그리고 수고한 많은 분들 특히, 교정을 위해 남다른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형범 장로님이 계셔서 즐겁고 보람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 박신영 장로

우리말에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없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들이 수고하여 다 만들어 놓은 일에 은근슬쩍 발을 들여 놓고 무임승차함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편찬후기를 쓰면서 제 심정이 꼭 이와 같습니다. 김정선 장로님과 여러 편찬위원들께서 힘들여 차린 밥상에 은근슬쩍 숟가락을 얹고 생색을 내는 것 같아 참으로 무안한 심정으로 편찬후기를 씁니다.

60년사 자료를 정리하면서 느낀 것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남의 교회를 빌려 예배를 드리는 셋방살이를 하면서도 꾸준히 교회 간행물을 발간했고 중요 회의자료를 손으로 하나하나 정리하여 박스에 차곡차곡 정리한 믿음의 선배분들이 계셨기에, 이 60년사 편찬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간 선배님들의 노력과 굳건한 믿음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바라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배들이 앞으로 100년사를 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현재 남아 있는 우리가 정겹다리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끝으로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없는 무례함을 이해해 주신 여러 편찬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이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안성완 장로

“회의 한 번만 참석해 보세요”라는 김문소 장로님의 권유로 별생각 없이 참여했다가 그대로 발목을 잡힌 지 어느덧 3년이 지나고 이제 한 권의 책으로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계치였던 저에게 고속 스캐너라는 첨단(?) 장비 사용법을 습득하게 하여 사무실 한구석에서 방대한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사진전을 준비하면서 이제는 액자 만드는 데 반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늦가을의 화이트 마운틴에서 2박 3일간의 합숙을 통해 작업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보스톤한인교회 60년사를 편찬하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름 없는 많은 앞선 분들의 소중한 노력과 탐과 기도로 60년을 지킬 수 있었음을 봅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을 나아가갈 때 이 책이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숙한 저를 잘 다독이며 격려해 주신 편찬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주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 이태호 집사

3년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교회 사무실 앞에서 김정선 장로님과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60년사 책을 낼 예정인데 성가대 이야기를 좀 써볼 수 있겠지요?”라는 말씀에 주저없이 “옛쩍”이라 대답했던 것이 이렇게 길고 백센 여정에 동참하는 엄청난 대담이 될 줄이야... 정말이지 저 위의 우리 보스님은 ‘시작은 미약하게, 끝은 창대하게’ 만드시는 최고 전문가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역사편찬위원회 첫 모임이 있던 날, 100% 이공계열 장로님과 집사님의 구성원을 보고 보스님께서 또 한 건 거하게 하시려 하는구나 했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시간이 흘러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여정의 종지부를 찍는, 으하하 편찬후기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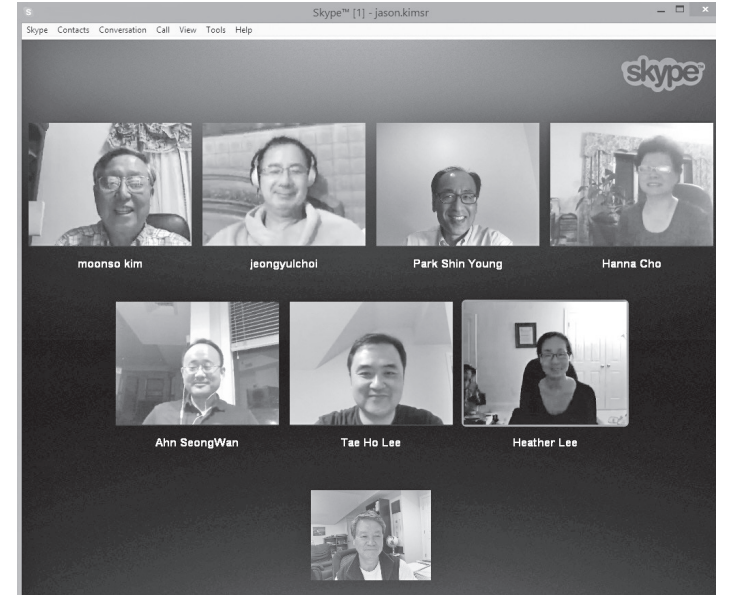
늦은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커피를 사발로 들이키며 시작해야 했던 editing 작업. 아직 둘째가 어린 탓에 엄마 찾지 않고 조용히 자 주길 기도하며 숨죽이며 엄청 집중해서 빨리 끝내야 했습니다. 한 번 깨면... 그날은 제끼는 날... 컴퓨터를 앞에 놓고 엄청 어색하게 기도하며 시작과 끝을 봤던 Skype 미팅(그렇게 많이 Skype 미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비디오콜로 만난 게 저희 사진 찍던 날 딱 하루였던거 아세요? ㅎㅎ 늘 한두 분은 technical difficulty로 전화로 만나야 했지요. ㅎㅎ). 저희 아이들이 배경화면으로 또 배경음악으로 깔려도 너그럽게 이해해주셨던 모든 편찬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하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공계생들에 의해 전신케 하신 두 차례의 사진전. 어쩌나 끊임없이 멋진 아이디어를 선사해 주시던지... “Anything is possible in God”을 실감케 하셨던 보스님의 또 하나의 멋진 작품이었습니다. Frame 하나하나 위원님들께서 손수 갈질에 망치질까지 하시던 모습이 어쩌나 은혜스러워 보이던지요... 뉴햄프셔에서 가진 1박2일의 retreat. 그렇게 밤늦은 새벽까지 달리실 줄이야...홍일점 챙겨주시느라 차 앞자리 양보하시고 뒷자리에 거구 네 분이 엉덩이 한쪽씩만 걸치신 채 함께 जो시던 모습이 아직도 미소 짓게 합니다.

거의 매주 토요일 9 to 5로 쉬지 않고 달렸던 합동회. 저 열심히 일하라고(ㅠㅠ) 합동회에 개근도장 찍었던 저희 둘째 녀석과 화장실 친구도 함께 해주시며 베비시해주셨던 편찬위원님들... 사랑합니다. 김정선 장로님과 수없이 많이 오고갔던 카톡 메시지(밤낮없이 카톡카톡 하고 올렸었는데 ㅎㅎ)와 이메일들... 정말이지. 저 데리고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을 ‘인’ 자가 한 300개는 새겨졌으리라 사려되었습니다.(ㅠㅠ)

어찌 보면 외롭고 고단한 여정이었지만, 참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비하심과 사랑하심을 다시금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편찬위원님들의 살신성인 봉사하심을 가까이에서 보게 하시고 앞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하셨습니다. 보스톤이 아직은 크리스천의 무덤이라고 칭하기엔 갈 길이 멀다는 것과, 더불어 아직 열리지도 않은 하나님의 예비하심 놀라운 축복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지난 모든 과정은 늘 기대와 감동으로 가득했던 여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워지는 시기가 올 때쯤 보스님께서 또 일을 맡기시겠조? ㅠㅠ 보스님 그리고 편찬위원님들~ 달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해승 집사



컴퓨터(Skype) 편집회의 모습

그만두고 싶었다. 정말로 포기하고 싶었다. 제출할 자료들을 마감 기한 내에 마무리하지 못할 때면 답답한 마음이 잠자리에도 이어졌다. 인감생심 내가 무슨 역사편찬위원이라고... 좀더 일찍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하고 무언가 합당한 이유를 둘러대 그만두었어야 했는데... 너무 멀리 와 버렸다. 식탁에 앉아 어떻게 그만둔다고 할까 하고 멍하니 벽 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 예수님의 눈물. 그리고는 눈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나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렸건만...” 아!...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이토록 어렵단 말인가??

편찬후기를 쓰라고 연락이 왔다. 그만 털썩 주저앉고 싶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한 자책감.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 허탈함. 내가 편찬후기를 쓸 자격이나 있나 하는 자괴감이 교차하는 순간 그냥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기로 하였다.

김정선 장로님은 사람이 아니다. 지난 3년 넘게 싫으나 좋으나 미우나 고우나 화 한번 내시는 걸 보지 못했으니... 나 같았으면 그냥 ㅋㅋㅋ... 그러면서도 이리저리 위원들 부리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다. 장로님은 이번에도 또 맞으신거다. 다른 사람들이야 운이 좋아 맞는다지만 장로님은 지난 3년간 우리들과 함께 각고의 노력과 희생, 그리고 끈기와 리더십으로 대박 터트린거다. 역시 한 차원 높은 곳에서 노는 분이니... 내 기준으로 보면 사람이라 할 수 없다.

어쨌든 이제 홀가분하다. 그 동안 같이 수고했던 위원들의 얼굴이 하나씩 스치며 지나간다. 감사, 감사 그리고 또 사랑. 나 살아 있을 때 우리 교회 역사집 2권이 나올 수 있을까? 자료 준비한다고 엉망으로 만든 집안을 말 없이 치워 준 아내에게도 사랑과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 최정열 집사



## 보스턴한인교회 60년사 1953-2013: 보스턴에 옮겨 심어진 순례자들의 이야기

A 60-Year Pilgrimage of  
the Korean Church of Boston: 1953-2013

발행처 / 보스턴한인교회(미국장로교)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www.kcboston.org

발행인 / 이영길  
발행일 / 2015년 11월 22일

### 보스턴한인교회60년사 편찬위원회

편찬위원장 / 김정선  
편찬위원 / 김문소 김한나 박신영 안성완 이태호 이혜승 최정열  
편찬협조, 사진, 타이핑, 영문 번역 / 김계숙 김동숙 김상기 김영범 김화옥  
박기춘 박신혁 지훈 최정열(교산) 최준영 한승희  
사진전담 / 김정선 김한나 이태호 이혜승  
고문 / 김건철 김성빈 김형범 백 린 신영각 윤경문 조준호 최연일  
옛 교우 자문 / 김장환 이양자 정소영  
표지 및 책자 디자인 / 김용한  
표지 그림 / 현종광 제목 Heaven, Arcylic on Canvas, 24"×36", December 2010

제작처 | 쿨란출판사  
주 소 | 서울시 중로구 이화장길6  
T E L | 745-1007, 745-1301~2, 747-1212, 743-1300  
홈페이지 | http://www.qumran.co.kr  
등 록 | 제1-670호(1988. 2. 27)

ISBN | 978-0-9761402-9-0

비매품

